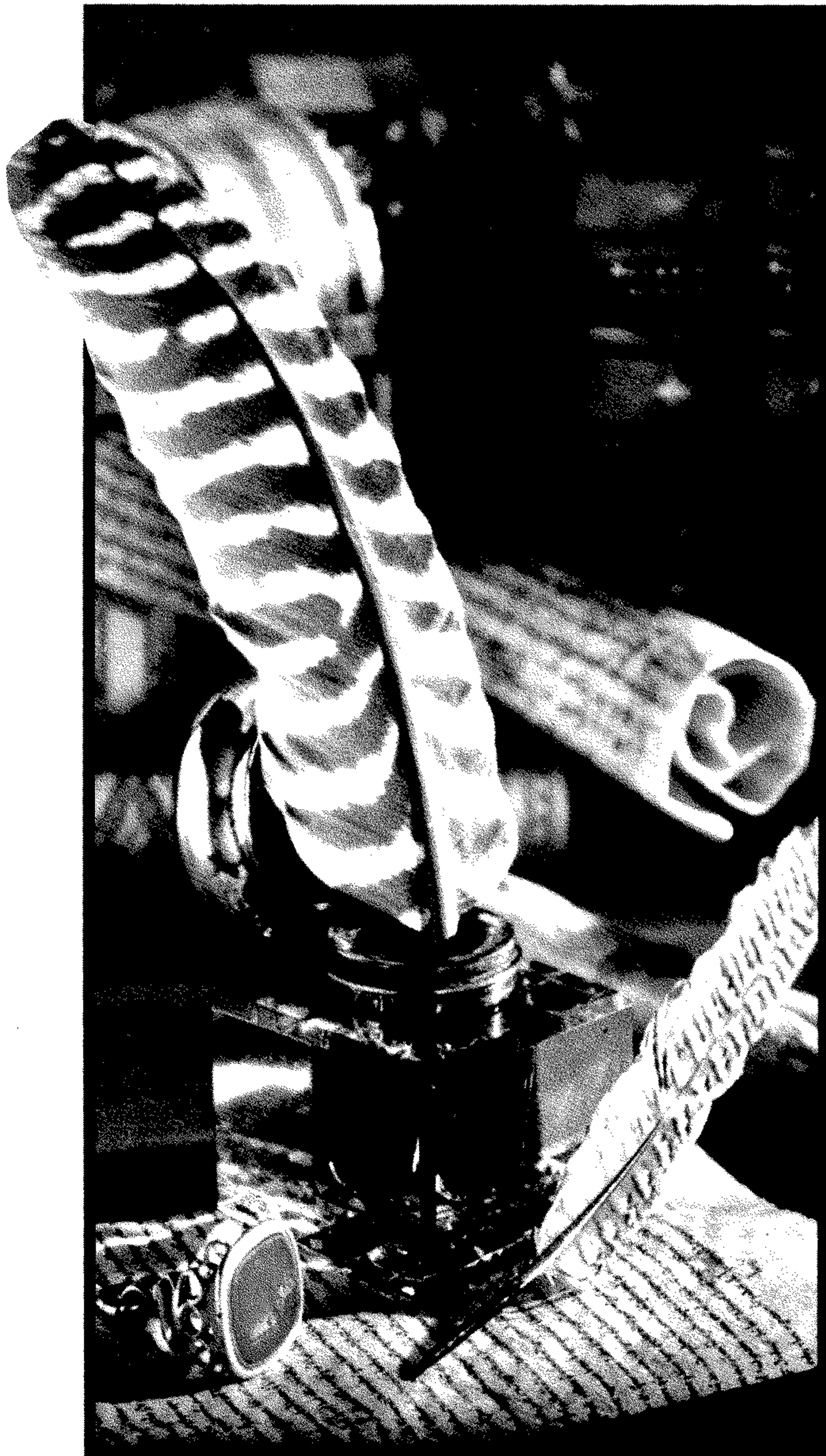


학원강의와 직결되는

# 동방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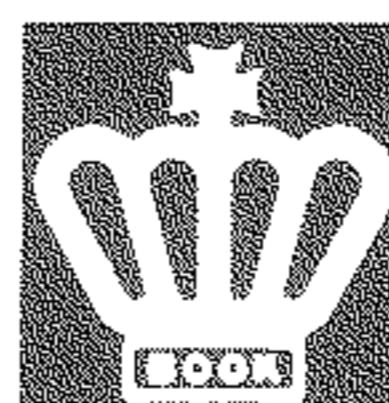
◀ 기초편 ▶

Since 1948 이동근



혁신판

- 기본문자를 체계적으로 수록
- 약기법과 속기의 이론
- 속기사의 시험과 채점방법 수록



첨단 기술서적 전문출판!!

크라운출판사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것은  
국왕과  
국회의장,  
재판관  
그리고  
속기사이다.

## 머리말

### 읽어보자!

요즘 들어서 속기를 소리나는 대로 적어야 쉽다는 말이나 기존의 훌륭한 속기법식들을 매우 나쁜 것으로 매도하는 글을 많이 접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속기에서는 소리가 같이 들리는 현상을 최대한 응용하여 문자의 숫자를 줄이는 데 사용할 뿐(잇=일, 있, 잇, 잇, 일, 일 등) 한글 맞춤법에 맞추어 적지 않고는 잘 읽혀지지 않아 낙서에 불과할 뿐이다.

단적으로 사투리로 「이견」이라 발음하여도 그것이 「이견」인지 「의견」인지 분간하여 듣고 적어야 할 속기사가 들리는 대로 적어 말의 뜻을 오도한다면 그 무엇에 쓰겠는가? 마치 「신라의 달밤」을 「실라의 달밤」이라고 발음하면 「실라의 달밤」이라고 들리니까 소리나는 대로 적어서 읽혀지겠는가 말이다. 그러면 「신나예 달밤」이라고 발음하면 또 그대로 적어야 하나? 또 발음이 잘못되어 「실하의 달밤」이라고 하면 「신라의 달밤」으로 이해를 했는데도 그대로 적어야 하는가? 각 지방의 사투리로 말을 할 때마다 적어야 되겠는데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것을 모를 리 없건만 고의인지 무지인지는 몰라도 소리나는 대로 적어서 쉽다는 것은 참 해괴한 소리이다.

속기뿐 아니라 『말은 못 알아 들으면 못 받아 적는다』는 법칙이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속기를 배우면 듣기, 쓰기, 읽기를 배우고 익혀, 들을 때 벌써 정확하게 맞춤법에 맞추어 쓰고 읽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반면에, 무조건 들리는 대로 쓰면 된다고 배워서, 제대로 읽어지지 않아 속기사로의 진출은 물론 자격증, 아니 배우는 현장에서부터 좌절을 맛보고 중도포기를 하거나 혹시나 하는 아집 속에 가까운 청춘을 허송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발음은 참으로 오묘하다. 그것은 자유권에 속한다. 남에게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아니건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나이도 들고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간 사람도 사투리를 고치지 못하니 사투리로 말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탓할 필요도 없다. 발음이 시원치 않으면 웅변대회에서 상을 못 탈 뿐이지 선거에 출마해서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말보다 그 마음과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기 때문이다. 발음이 똑똑하고 무조건 말만 유창하다 해서 그가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현실 세계가 증명한다.

속기사는 이런 상황에 처한다. 사투리 쓰는 사람, 특이한 억양, 중간중간에 끼워넣는 이상한 말들, 말 시작은 크게 하고 말 끝은 흐리는 사람,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을 어물어물해서 지나가는 사람, 중요한 단어에서 침 삼키는 사람, 옆 사람이 발언할 때 헛기침하는 사람, 회의장에서 이성을 잃을 정도로 흥분한 사람, 1급 속기사의 속기능력 이상으로 빨리 말하는 사람, 회의장의 소음, 동시에 여럿이 말하기, 마이크도 안 가지고 말하는 사람, 발언대도

아닌 곳에서 말하는 사람, 모기소리만하게 말하는 사람, 소리가 울리는 회의장, 소음이 들리는 회의장, 자신만 책에서 배운 괴상한 문자를 유식으로 알고 쓰는 사람...

속기사는 이 모든 것을 포용하여야 한다.

이래도 속기를 배울 마음이 나겠는가?

현직속기사들은 말한다.

『처음 속기를 대하는 분은 상당히 어렵게 생각이 들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속기사들을 높이 평가하지요. 그런데 아주 간단해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을 고급 인력으로 바꾸는 독특한 매력을 속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동방속기가 오늘과 같은 최고의 속기가 될 수 있도록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 주신 이동근(李東根)창안자 선생님과 이강현(李康賢)선생님 그리고 50년 가까운 우정을 이어온 동문들에게 이 책을 바치는 바이다.

1994년 1월

저자 일동

## 창안자가 후학들에게

동방속기를 배우는 젊은이 여러분!

나는 1945년 광복이 되던 해에 그전부터 꿈꾸고 있던 우리말 속기를 창안하기 위하여 3년여의 각고끝에 동방속기를 창안·발표·출간한 이동근입니다.

우리말을 우리 손으로 만든 속기문자로 기록하여 대한민국의 운명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일제가 우리말, 우리글을 쓰지도 못하게 하던 때와 비교한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말은 일본말이나 영어와 그 구조를 달리합니다. 무조건적인 모방이나 도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이미 『현대속기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의 피트맨이 발견한 직선과 곡선 및 양성·음성모음을 굵기로 분류한 표음속기문자가 현대속기의 정통기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 세계의 속기는 그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됨으로써 비로소 사람의 말속도와 일치하는 자국의 속기법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창안한 동방속기는 그러한 바탕에서 글보다는 말에 치중하여서 연구·분석이 된 속기문자로서 받침을 문자의 앞에 붙이고 자음이 전개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무이한 독특한 속기법입니다. 처음에는 결점도 많았으나 50년이 가깝도록 양성기관을 통하여 후학들이 갈고 닦고 수정·보완의 연구를 계속하여 이제는 누구나 완벽한 속기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쉬워지고 빨라져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비율이 국내 최고임을 자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 『속기사가 될 보편성이 높은 속기법』으로 자타가 인정을 해주고 있음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방속기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1948년 이래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성을 멈춘 적이 없었던 데 연유한 덕분이었다고 봅니다.

좋은 속기가 되도록 끊임없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후학들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속기로 다듬어졌고 충분히 증명된 동방속기를 배우는 이상, 목적인 바 최고의 속기술을 익혀 여러분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동방속기 동문 여러분!

우리 동방속기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영원한 빛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50년 가까운 동방속기 동문회의 전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서로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서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학들에게 기록에 대한 신념은 물론 건전한 정신을 불어넣어 「우수한 속기사」이전에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1월

동방속기 창안자 이 동 근

## 추천의 말씀

문자는 사람의 말이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오래된 수단이다.

처음에는 약기적인 방법으로 돌·뼈·나무·줄 등에 글자나 그림을 새기거나 그려서 자신의 의사전달 또는 글자 보존이란 두 가지 기능을 시공을 초월하여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었다.

그러나 약기의 해석으로 인한 견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자를 더욱 세밀하게 구분함으로써 이 같은 폐단은 해결되었으나 말과 글의 필기속도차이는 계속 문제점으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말하는 것 만큼 빨리 기록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속기를 만들어낸 것으로서 이러한 속기는 문자의 전달이나 보존수단의 충족을 넘어서 또 다른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속기술의 활용과 기여도는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우리 대한속기협회의 회원동지들이 현대화된 속기법식으로서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사과정을 기록하여 후대에 전달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의 구실을 하고 있으니 이는 곧 협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써 보람이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여기 추천하는 동방속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현대화된 속기법의 하나로서 우리 회원동지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회나 지방의회, 일반 회의분야 등에서의 활약상이 매우 두드러지며 오랜 기간 양성기관을 통해 우수한 속기사를 많이 배출해 오고 있다.

요즘 과대광고 등으로 속기가 엉뚱하게 왜곡되어 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때에 동방속기법식이 새로운 모습으로 속기지방생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된 데에 축하와 격려를 보내며 앞으로 이처럼 전문속기사를 양성할 수 있는 우수법식들이 좋은 교재로서 출간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속기사에의 꿈을 가지고 있거나 속기를 배워 일상생활에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속기사는 단순한 기록 기술자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호흡하는 「현대판 사관」이며 치우침이 없는 「시대의 공정한 기록자」라는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1994년 1월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회장 강우혁  
국 회 의 원

## 권하는 말씀

속기와 의회제도는 뿔래야 뿔 수 없는 관계이다.

의회는 국민대표가 모인 회의체로서 그 회의 결과는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려져야 하는 것이며 속기술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될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국회 개원 이래 속기법에 의해 회의록을 작성해 오고 있는 바 이는 일제하에서도 기약할 수 없는 독립의 날에 대비하여 우리 말 속기를 창안, 속기사를 길러내 온 동방속기의 이동근 선생을 비롯한 속기계 원로들의 공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과 같이 말의 속도에 맞추어 기록이 가능한 우수한 속기법식이 완성되기 전에도 조선시대 승정원에서는 주서(注書)라는 관리가 조보체(朝報體)라는 특수문자를 사용하여 궁중 어전회의내용을 기록하였다가 이를 토대로 왕조실록을 편찬하는 등 기록보존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말은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좁고 즉시 사라지므로 이를 널리, 오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말의 속도에 맞추어 기록하여 전파·보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일상생활중에도 많은 생각과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를 메모·기록하였다가 정리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생각에 머무를 뿐 소용이 없게 된다.

속기술은 메모·일기 등 간단한 기록에서 취재활동·회의기록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가 다양하다.

요즈음 컴퓨터의 기능향상으로 속기가 필요 없는 시대가 곧 돌아올 것 같은 기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컴퓨터가 인간의 다양한 음성을 완전히 인식하여 모든 발언을 문자로 기록해 낸다는 것은 요원한 일로써 과학의 마지막 단계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컴퓨터·녹음기 등은 속기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줌으로써 속기사의 활동영역을 확대시키는 데 일조하게 될 보조기구일 뿐이다.

보다 쉽게, 빨리 익히고 그 기록능력이 우수한 속기법식을 찾아 배운다는 것은 초심자에게 있어 쉬운 일이 아니다.

50년에 가깝도록 사회각계에서 이미 그 진가를 인정받아 온 「동방속기」가 더욱 새롭고 혁신된 내용으로 발간됨으로써 우리나라 기록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리라고 확신하면서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1994년 1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 기 영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이      사

## 본서의 특징

---

- 학원강의와 학교강의, 속기실무 등에 10~30년 이상 종사한 현직 1급 속기사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하였다.
  - 모든 학습의 목표를 1차는 자격증취득에, 2차는 실무에 두고 저술하였다.
  - 속기사 자격취득의 최고 실적을 가진 동방속기를 겸허한 마음으로 재반성하여 더욱 빠르고 쉽게 고쳐 쓴 혁신판이다.
  - 모든 규칙을 단순화하여 쉽게 최고의 수준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속기사전이 필요없는 속기교재이다.
  - 이론보다는 실기에, 설명보다는 연습꺼리를 충분히 제공하여 「무실역행」하는 속에 저절로 원리를 깨우치도록 구성하였다.
  - 시중에 떠도는 속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으려 애썼다.
  - 국가자격시험에 필요한 예문과 채점기준을 최초로 실어 학습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 속기가 암기과목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고치고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응용위주의 진도방식을 택하였다.
  - 기존의 교재에 비해서 최신의 약기와 약자 등이 더욱 정확히 써지고 읽어들 수 있도록 내용을 대폭 바꿔 다시 쓴 교재이다.
  - 속도향상에 맞추어 실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풍부한 실무해석과 예제를 넣었다.
  - 말로만 쉬운 교재가 아닌 진정한 속기사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도하였다.
  - <응용>은 필수적으로 연습하고 <단어응용>은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 학원 강의와 직결되는 교재로서 언제나 고급과정으로 연결지을 수 있다.
  - 우리는 전체 합격자의 40~50%가 동방속기 학습자들임을 자랑한다.
  - 쉽게 배워 널리 쓰는 속기가 되도록 하였다.
  - 일반문자에 혼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문 속기뿐 아니라 일상생활(일기, 메모, 강의, 비서업무, 설교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차례



## 동방속기

### 제 1 장 기본문자

1. ㅏ 모음	15
2. ㅜ소리	18
3. ㅑ 모음	18
4. ㅓ 모음	29
5. 받침 이어쓰기	43
6. 받침이 앞에 나올 때	103

### 제 2 장 약기법편

1. 종결형 어미	221
2. 의문형 어미	221
3. 복합조사	231
4. 간이 약부(1)	243
5. 간이 약부(2)	252
6. 간이 약부(3)	261
7. 수 사	270

### 제 3 장 속기의 이론

1. 속기의 정의	289
2. 속기의 필요성	289
3. 속기의 활용	290
4. 속기의 기원과 발달	292
5. 국어속기의 발달 약사	294
6. 동방속기 발달사	295
7. 속기용지와 필기구	297
8. 자 세	297
9. 속기를 배우는 이와 그의 적성	298
10. 속기사의 일터와 업무상 비밀 엄수	299
11. 속기의 미래	300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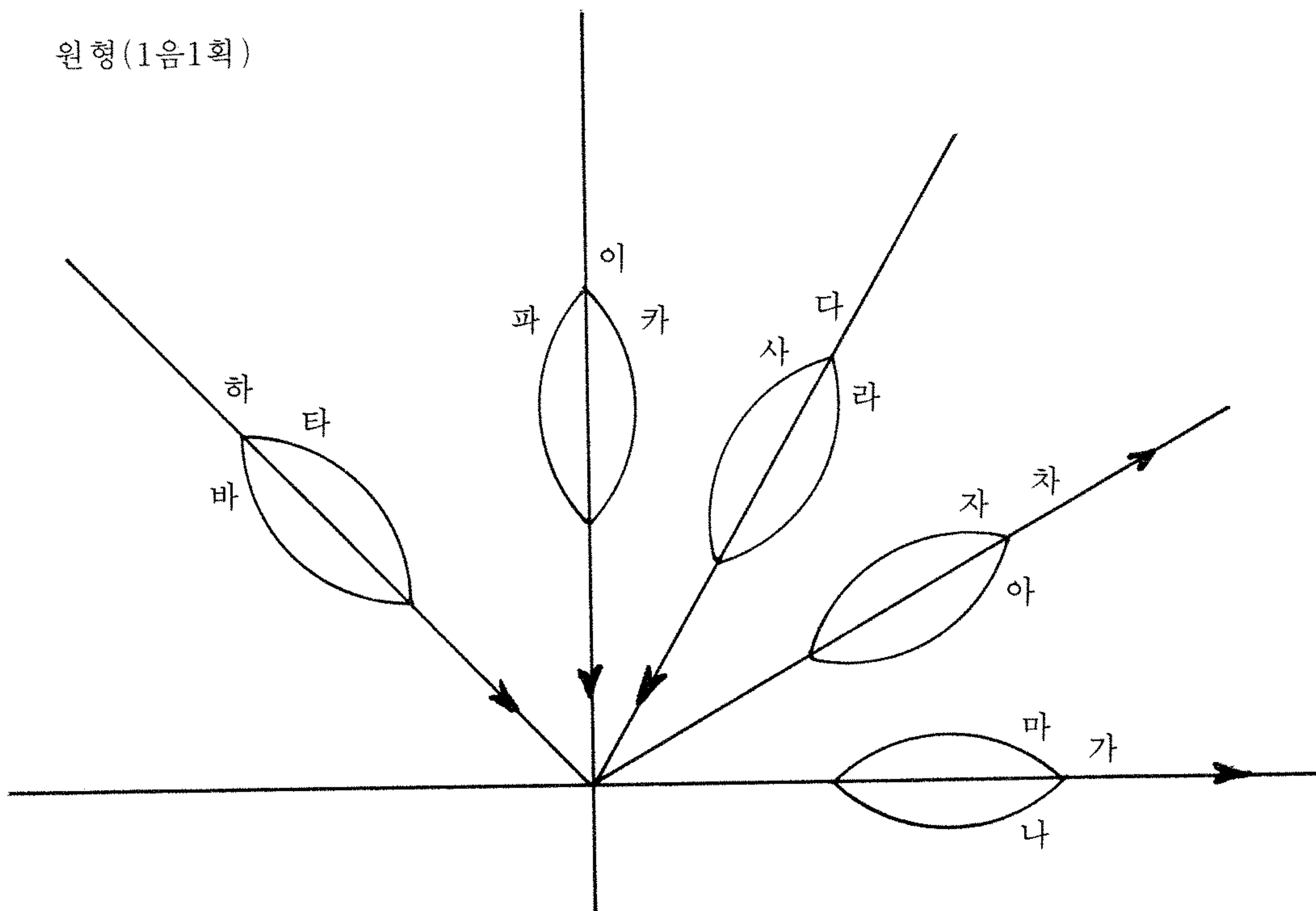
## 부록

국가기술자격검정 속기시험기준 .....	305
국가기술자격검정 속기채점기준 .....	306

# 동방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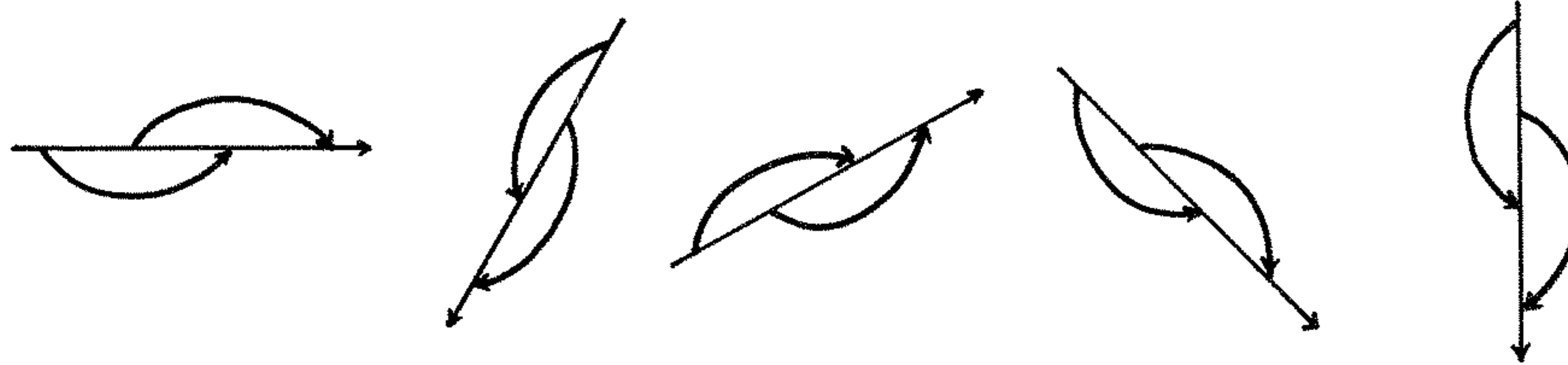
1948년 2월 이동근 창안

원형(1음1획)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이  
 — ∪ / \ ∩ ∪ ( \ / ) ∩ ( \ |

가 나 마 다 사 라 차 자 아 하 바 타 이 파 카



각도해설

- 가나마 : 180°
- 다사라 : 60°기준 (45°까지 허용)
- 차자아 : 30°기준 (45°까지 허용)
- 하바타 : 45°기준 (60°~30°까지 허용)
- 이파카 : 90°

## 제 1 장

# 기본문자

---

동방속기 !

동방속기는 1948년 창안된 이래 현재까지 유일하게 쉬임이 없이 정식의 교육기관을 통해 속기사를 길러낸 우리나라 최우수의 속기법식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이 교재를 통해 속기사의 꿈을 이루려 하는 사람은 이 점을 잘 알고 충실하게 진도에 맞추어 정진해 나간다면 목표를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을 것임을 확인한다.

동방속기는 「착수가 곧 성공」인 속기인 것이다.

---

1. ㅏ모음 : ㅏ ㅑ ㅓ ㅕ ㅗ ㅛ

1-1. ㅏ모음 : ㅏ ㅑ...길이가 4mm로 같이 사용한다.  
 ㅓ ㅕ...길이가 8mm로 같이 사용한다.  
 ㅗ...길이가 16mm

연습법 : 가줄을 10회 이상 연습하고 다음 줄로 넘어가서 5회 이상 반복하라.

요령 : 정확하게 ! 천천히 !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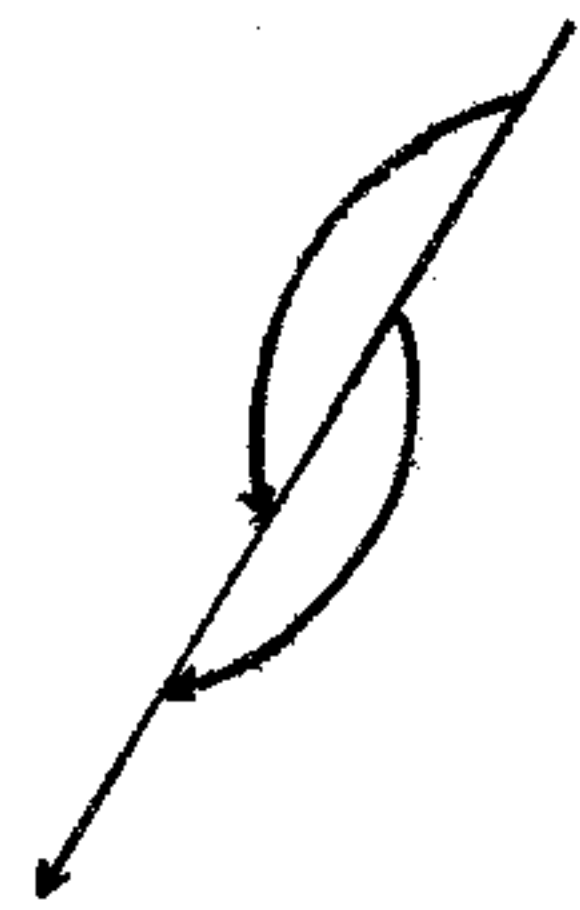


가거고구그 — — — — —

나너노누느 ˘ ˘ ˘ ˘ ˘

마머모무므 ˘ ˘ ˘ ˘ ˘

60°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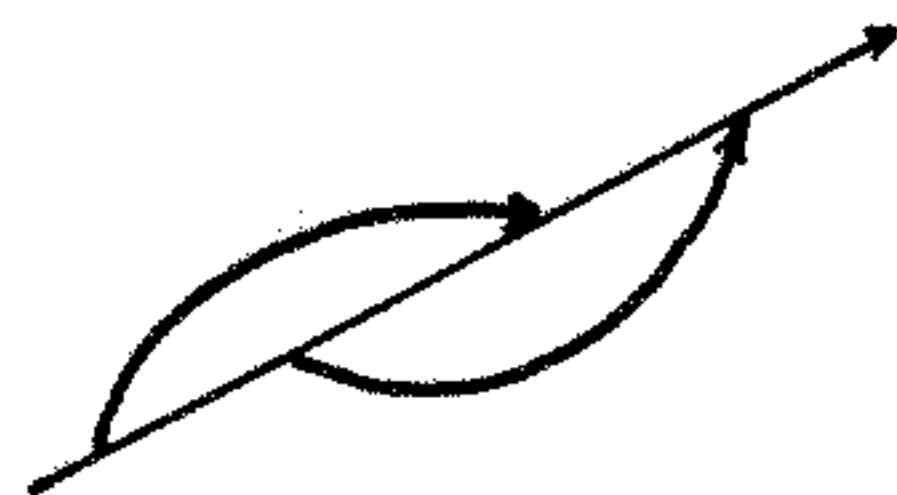


다더도두드 / / / / /

사서소수스 ˘ ˘ ˘ ˘ ˘

라러로루르 ˘ ˘ ˘ ˘ ˘

30°기준



차처초추츠 / / / / /

자저조주즈 ˘ ˘ ˘ ˘ ˘

아어오우으 ˘ ˘ ˘ ˘ ˘

45°기준		하허호후흐					
		바버보부브					
		타터토투트					
90°		파퍼포푸프					
		카커코쿠크					

용어해설 : 각도...동방속기는 각도에 있어서 세밀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문제는 기울어져 있는 선이냐 기울지 않고 바르게 있는 선이냐이다.

위의 각도는 자세히 보면 빨리 쓸 수 있으면서도 구별이 되는 기준각도를 설정해 놓고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은 기준에서 조금 더, 혹은 덜 기울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쉽다.

참고 : 모음의 다른 연습법(②→가나다... ←③ 하파타...)

정확하게! 천천히!

②→													←③		
4mm	①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	—	ㄴ	/	)	ㄹ	ㄷ	/	ㄴ	/	)	ㄹ	ㄷ	(	ㄴ
4mm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쳐	커	터	퍼	허
		—	ㄴ	/	)	ㄹ	ㄷ	/	ㄴ	/	)	ㄹ	ㄷ	(	ㄴ
8mm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초	코	토	포	호
		—	ㄴ	/	)	ㄹ	ㄷ	/	ㄴ	/	)	ㄹ	ㄷ	(	ㄴ
8mm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추	쿠	투	푸	후
		—	ㄴ	/	)	ㄹ	ㄷ	/	ㄴ	/	)	ㄹ	ㄷ	(	ㄴ



모든 문자의 순서는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일 뿐 실제 쓰일 때는 순서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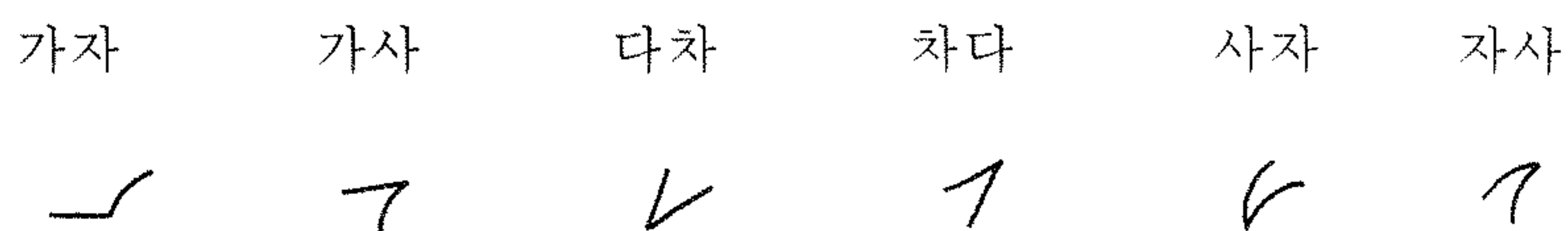
문자를 연습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이 나오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외워서 안 되고 많이 써서 정확한 직선과 곡선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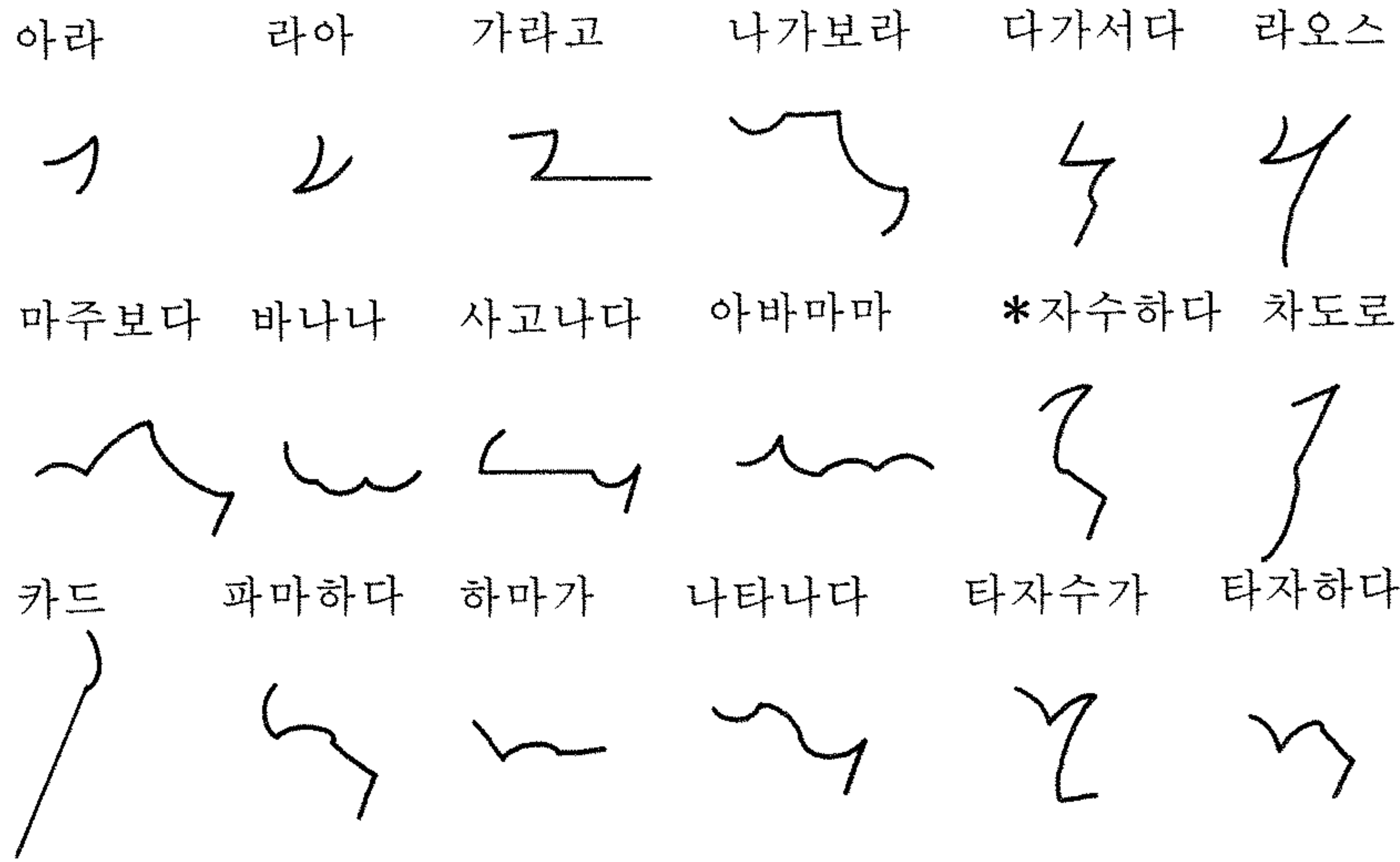
참고 : ㅏ와 ㅑ, ㅓ와 ㅕ를 같이 사용하면 구별은 어떻게 하는가?

1. 속기는 사람의 말을 받아써서 문자화하는 것이므로 말이 되고 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면 간단히 해결된다.
2. 기초단계에서는 문장보다는 단어 위주이므로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로 읽어진다면, 단어가 안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로 다 나열해 보는 것이 효과적인 연습이다.
3. 속기의 성패는 유사발음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배열하여 잘 읽어지도록 하였는가에 달려 있는데 동방속기는 바로 이런 점에서 우수하다.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ㅏ와 ㅑ가 매우 비슷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4. 같이 써서 특별히 구별이 어려운 것은 약자나 특수문자의 형태로 처리하였으니 안심하고 학습하기 바란다.









### 1-2. 이어쓰기






단어를 이루어 잘 읽히게 하고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서 앞문자의 끝에서 연필을 떼지 않고 다음 문자를 시작한다.





읽 기 : 단어를 읽을 때는 변문 가능한 단어를 다 연상해 보는 것이 좋다.

용어해설 : 정측...곡선문자         (의 곡선 안쪽을 말한다.)

직선문자      의 화살표 쪽 즉, 위쪽이나 왼쪽을 말한다.




반측...정측의 반대쪽

## 2. 된소리

정측 중앙에 점을 찍어 표기하나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까」=「가」, 「따」=「다」, 「빠」=「바」, 「짜」=「사」, 「짜」=「자」와 같이 쓴다.



## 3. ㅏ 모음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용어해설 : 반소원문자...작은 원의 반을 머리에 붙인 문자   

3-1. ㅏ 모음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시작 때 정측에 반소원을 붙인다.

ㅏ ㅑ ...4mm길이를 같이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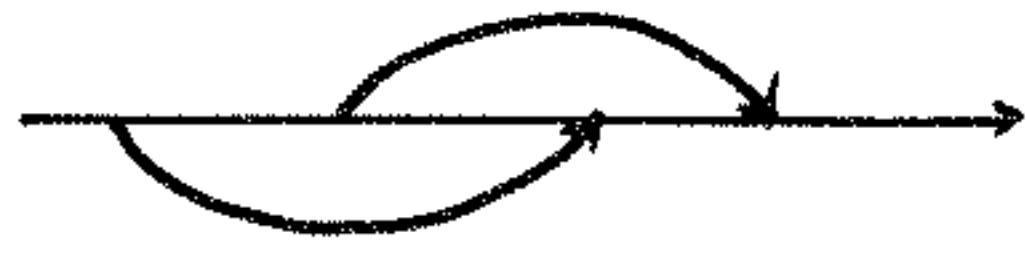
ㅓ ㅕ ...8mm길이를 같이 사용한다.


ㅗ ㅛ ㅜ ㅠ ㅡ ...16mm길이를 ㅏ와 같이 사용한다.

연습법 : 반소원은 초보자가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쓰지 말고 그대로 천천히 그림을 그린다. 속기문자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선긋기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연습해야 한다. 가줄을 10회 이상 연습하고 다음 줄로 넘어가서 5회 이상 반복하라.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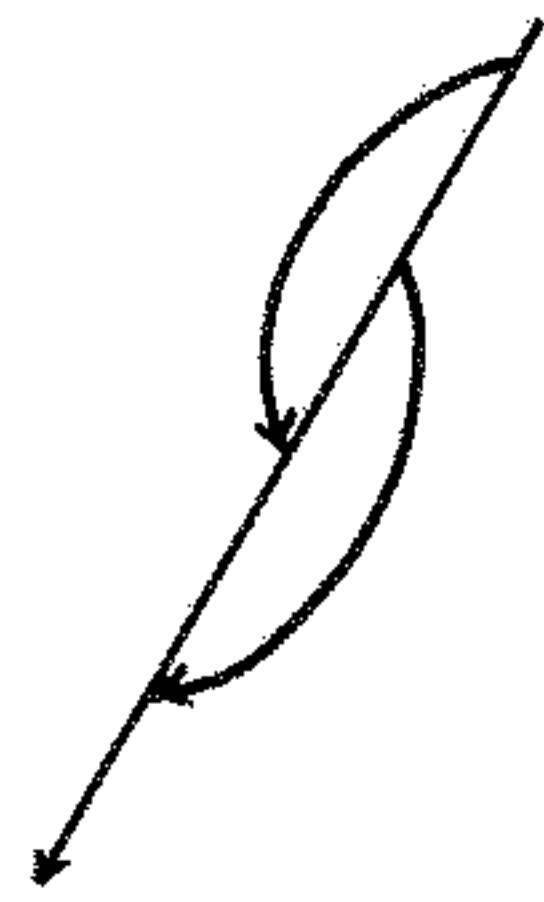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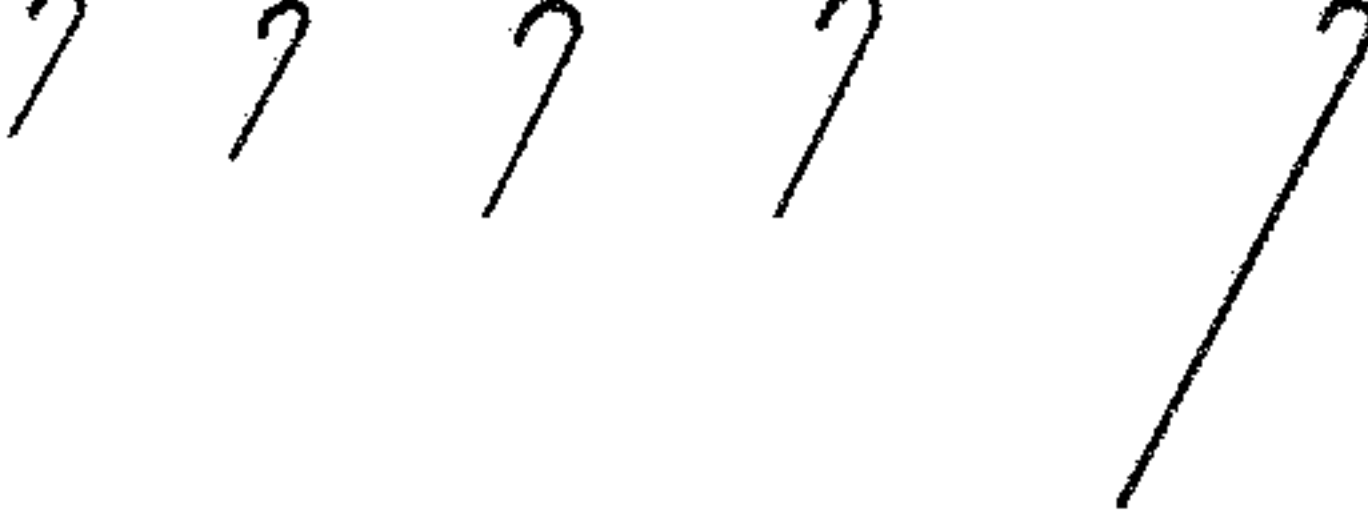
가겨교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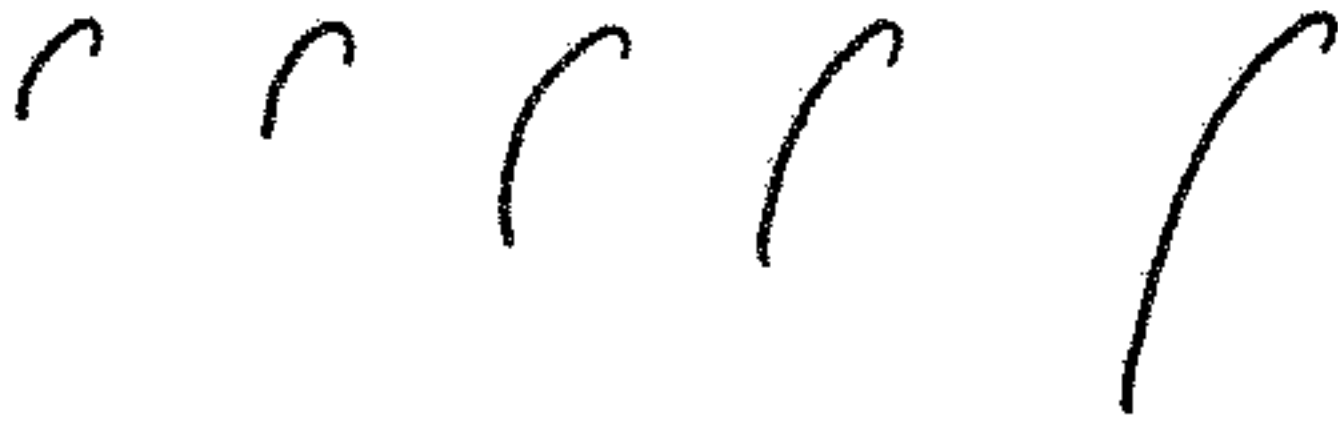
나녀뇨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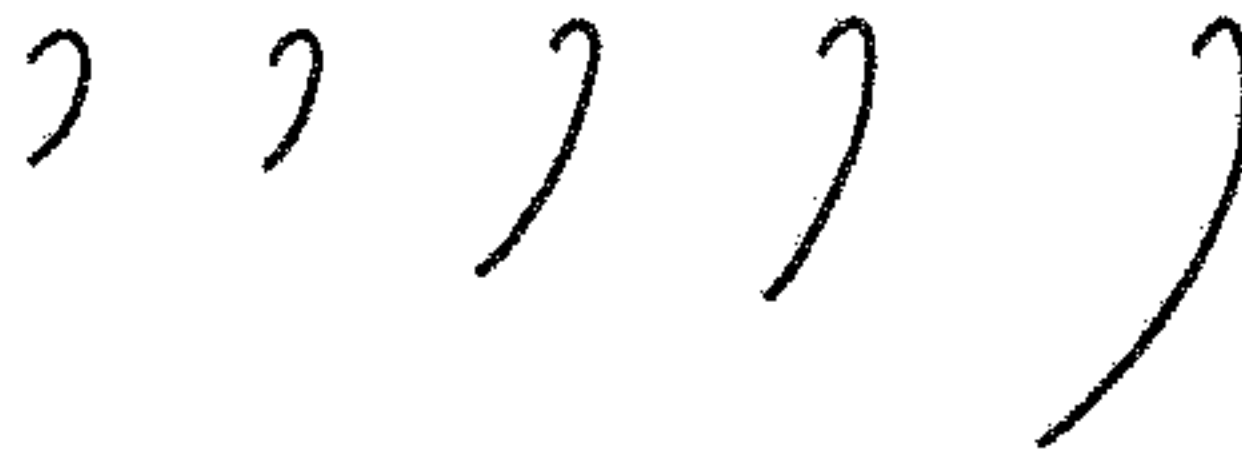
마며묘뮤미 


60°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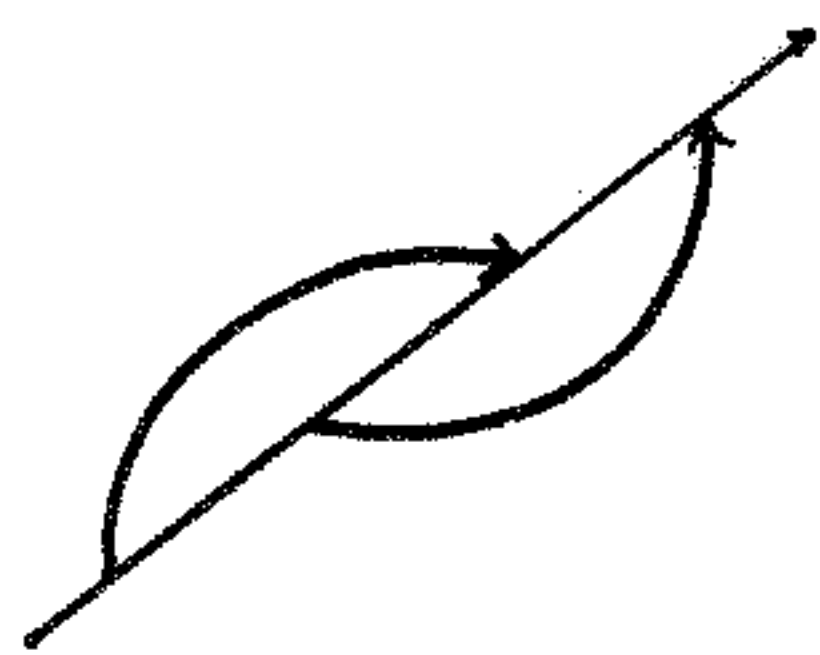
다더도듀디 


샤셔쇼슈시 

랴려료류리 

차처초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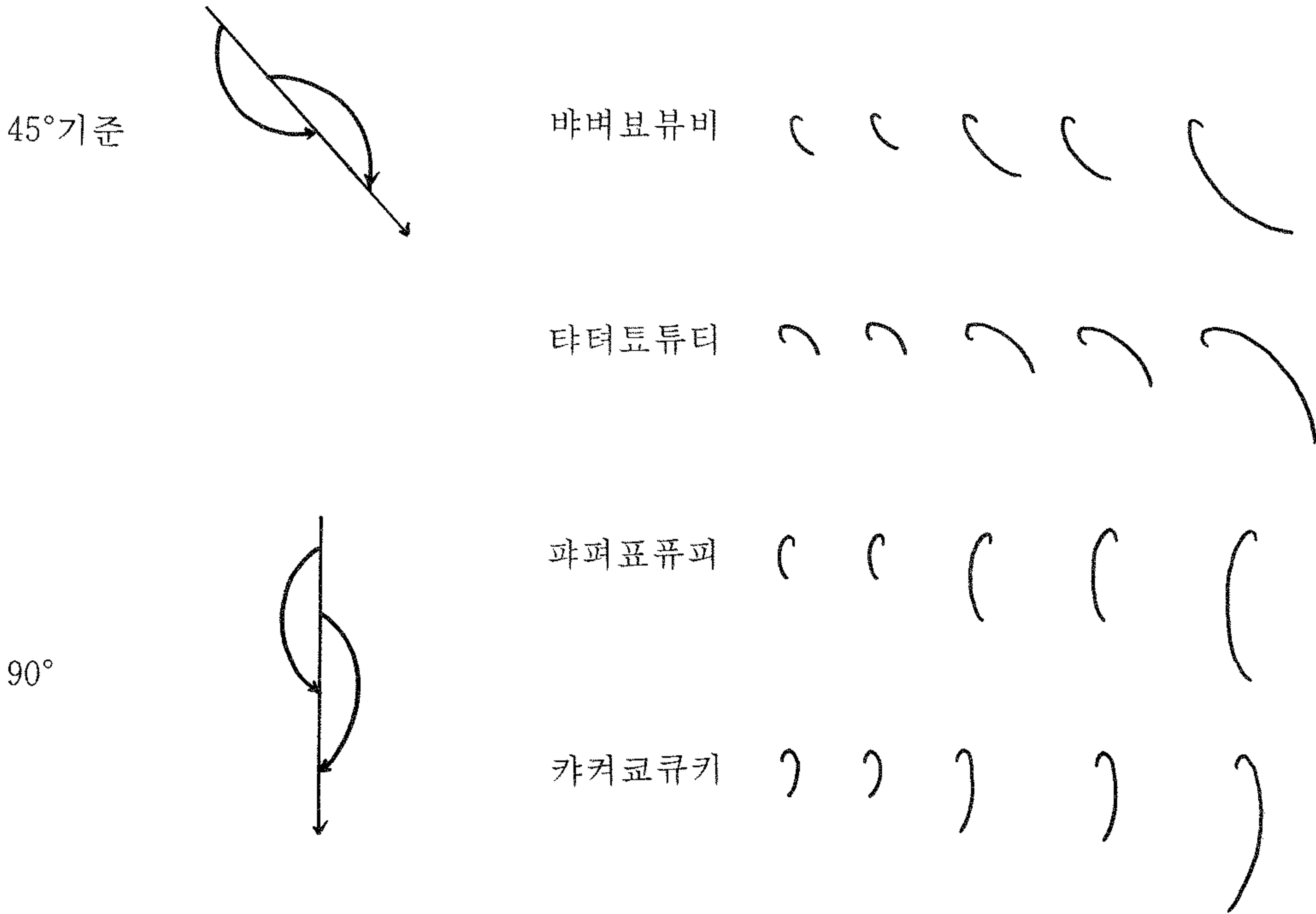
30°기준



자져조쥬지 

야여요유이(의)  특별문자 4mm  
|

하허효휴히(회)  특별문자 4m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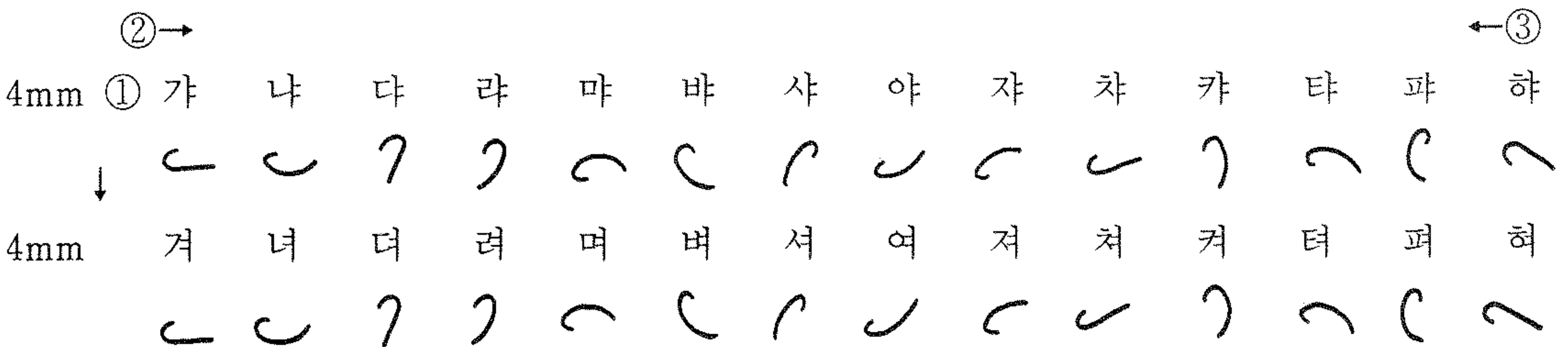
**참고 :** 반소원이 있는 문자는 초보자에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또 사용하지 않는 문자까지 다 연습을 하면서 왜 이런 연습이 필요할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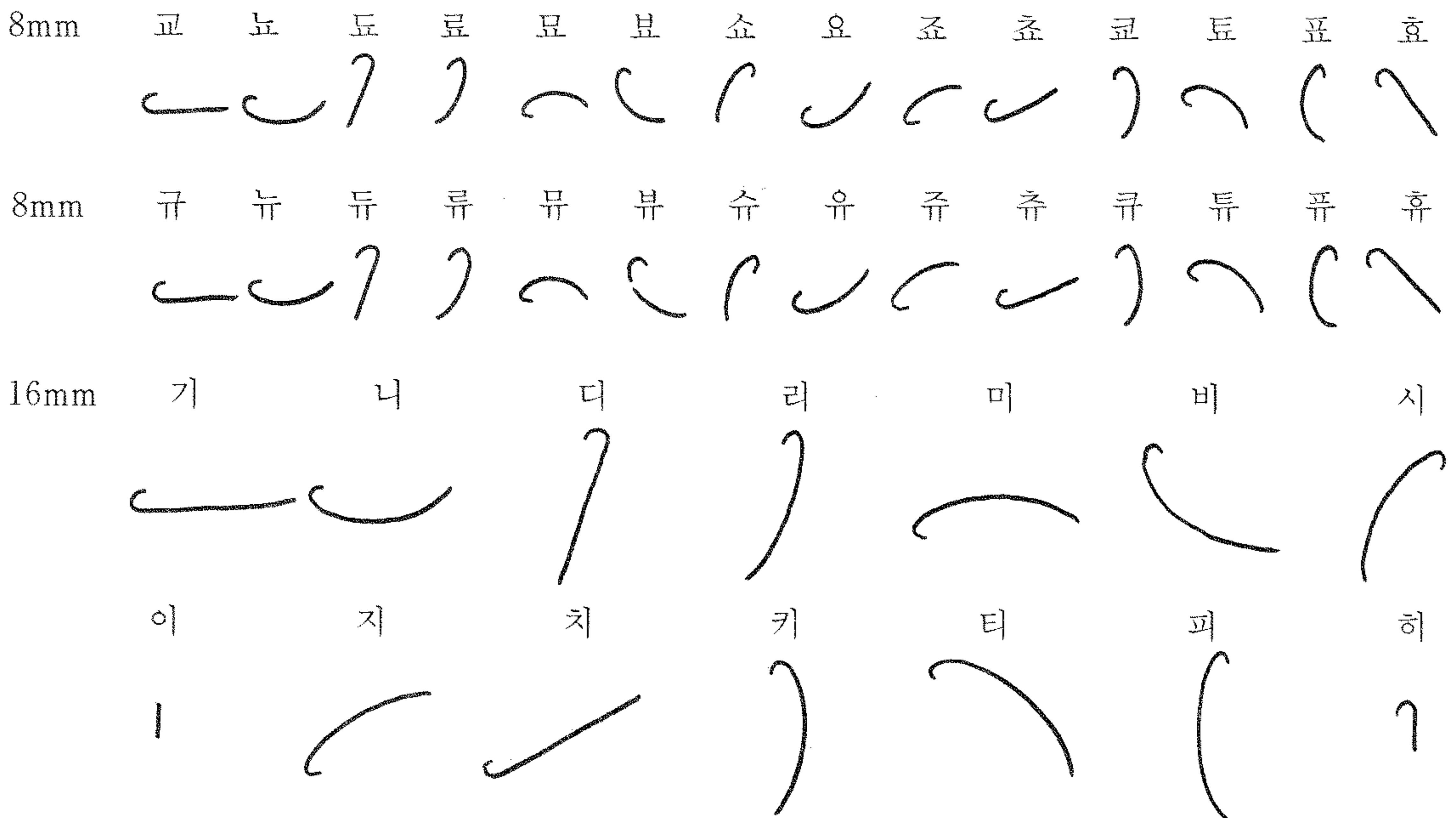
반소원을 연습할 때 처음에는 속기문자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림을 그려 간다는 심정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곧 익숙해진다. 그러면 이제 속기문자를 익힌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가겨교규기...해가면서 반복 연습을 해야 한다. 물론 사용하지 않는 문자를 연습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선긋기 그림연습을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혼자 속기를 배우는 사람이 실패하기 쉬운 이유 중의 하나가 기본문자를 손끝으로 익히지 않고 머리로 이해가 되면 즉시 다음 진도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혼동되는 방법이다.

따라서 충분한 연습을 한 연후에야 다음 진도를 나갈 것을 권한다. 물론 수백 번을 써 본다면 좋겠지만 보통 각 줄을 30회 정도, 그것도 한꺼번에가 아니고 5회씩 여섯 번 반복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전체를 반복 연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참고 :** ㅏ모음의 다른 연습법 (②→가나다... ←③ 하파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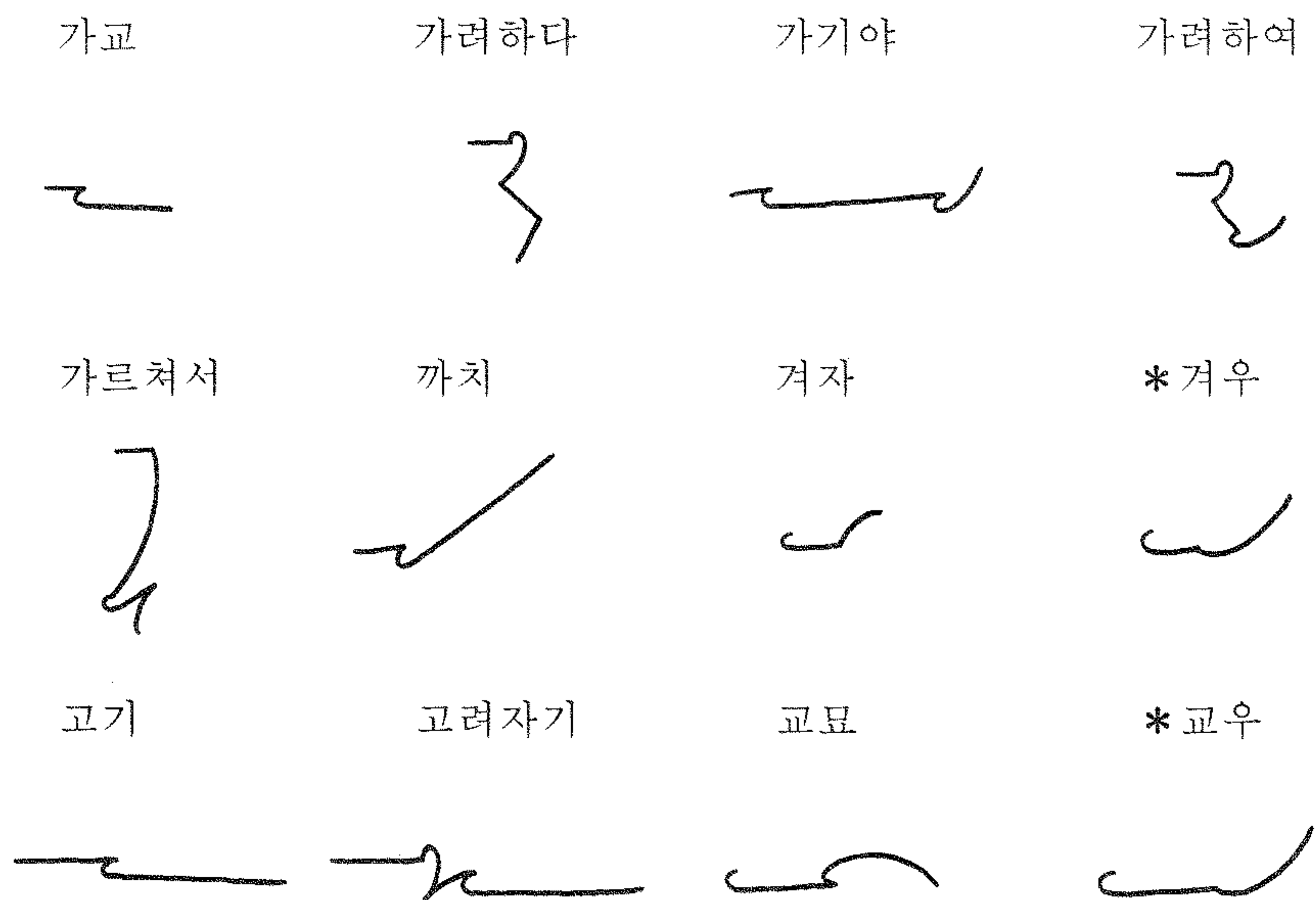
선긋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라! 평소 선긋는 훈련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것을 속기를 배우는 초보과정으로서 훈련을 하는 것뿐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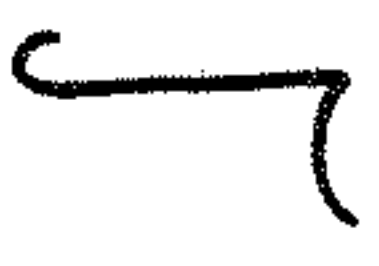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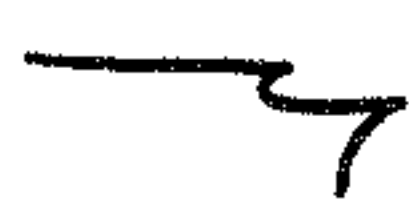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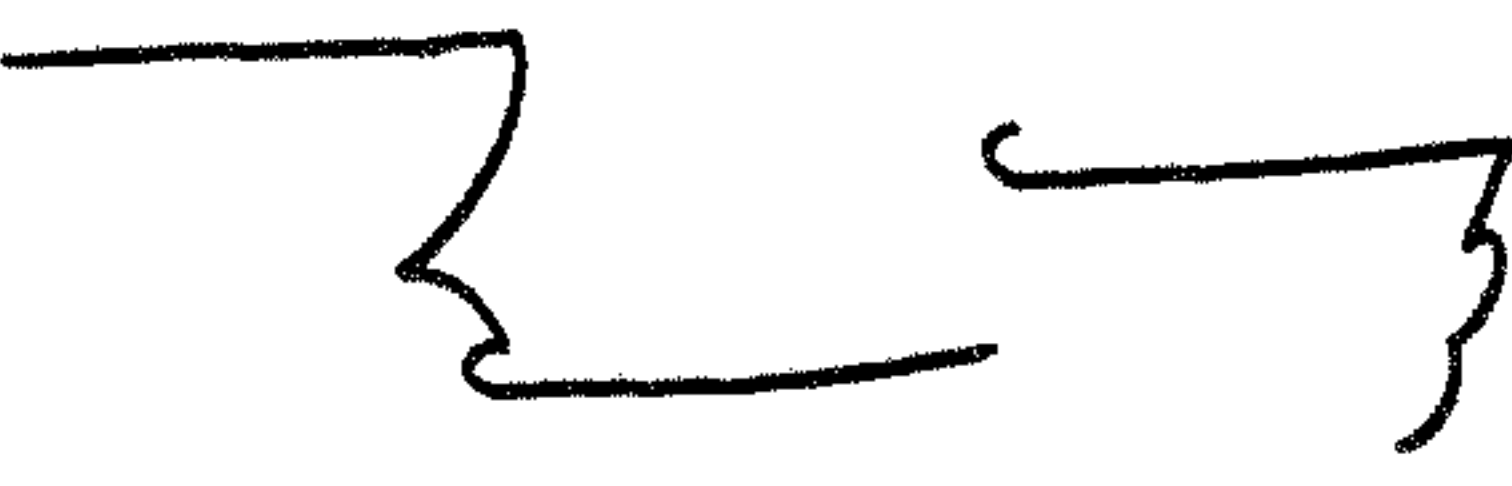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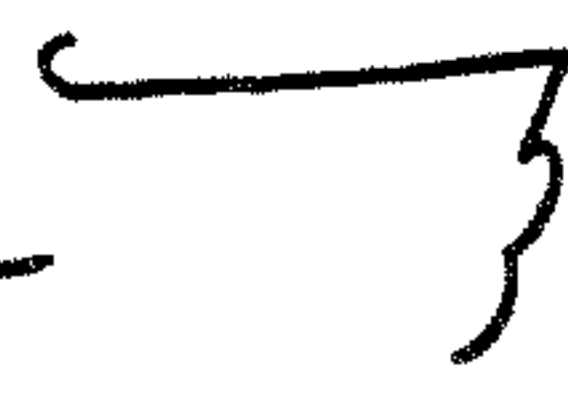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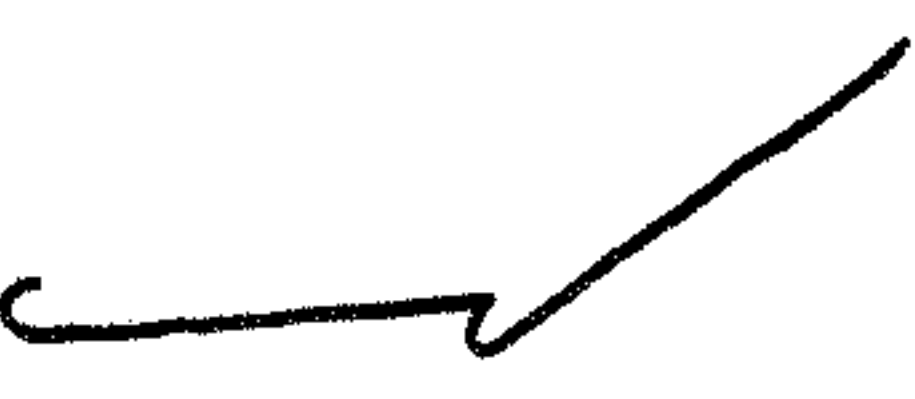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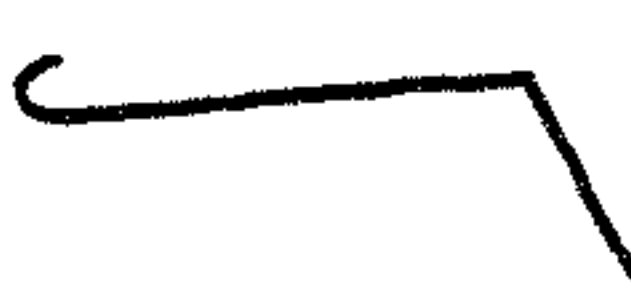

선을 각도와 길이에 맞춰 정확히 그을 수 있게 되면 동방속기는 저절로 되는 것이다.

### 3-2. 이어쓰기

앞문자의 끝에서 연필을 떼지 않고 다음 문자를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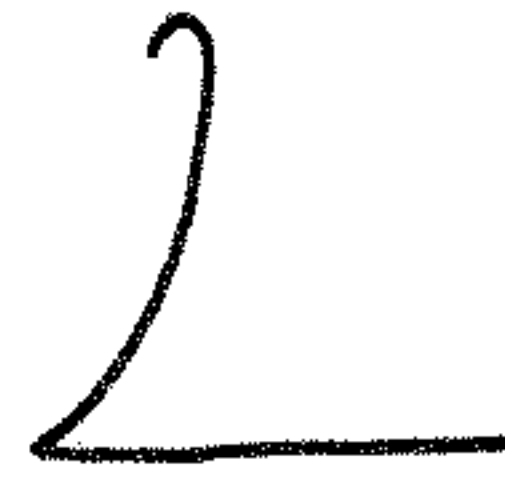

<보기>



교자	교차하려고	교파	구겨서
			
구류	그루터기	기다려라	*기어이
			
기자	기차	기호	*기우야
			

참고 : 말이 되는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로 변문을 해 보는 것이 좋다. \*는 주의를 기울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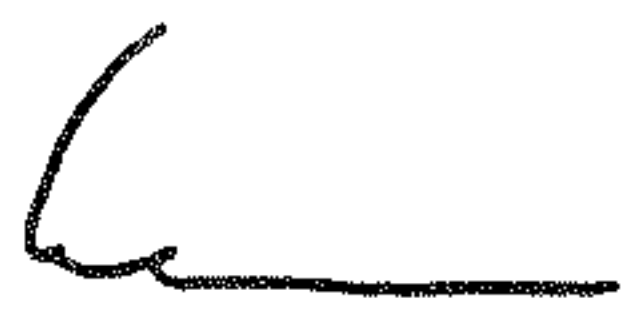











<응용1>

나누기	나려오다	나리	나아져서
			
너구리	뉴스	다녀가자	다리
			
따오기	도자기	토끼	라디오
			
러시아	루마니아	리그	마리아
			

마치다	며느리	모교	모기
모니터	모조리	무가치	무늬
무더기	무효	미끼	*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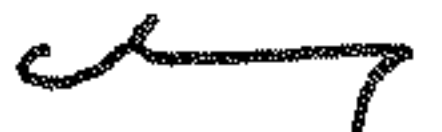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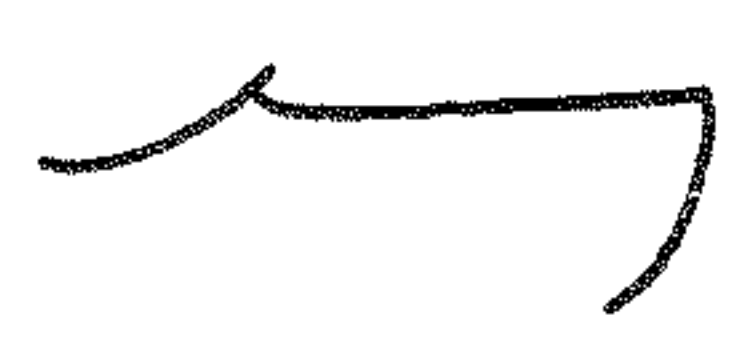


<응용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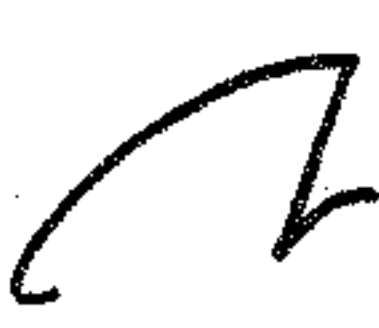
미치다	*바구니	보기	보유자
부녀자	부여	부자유	비교
비녀	비서	비유	비켜나다.
사려	사무치다	사치	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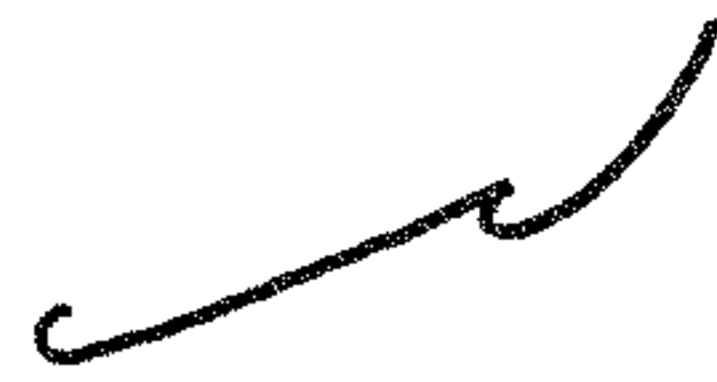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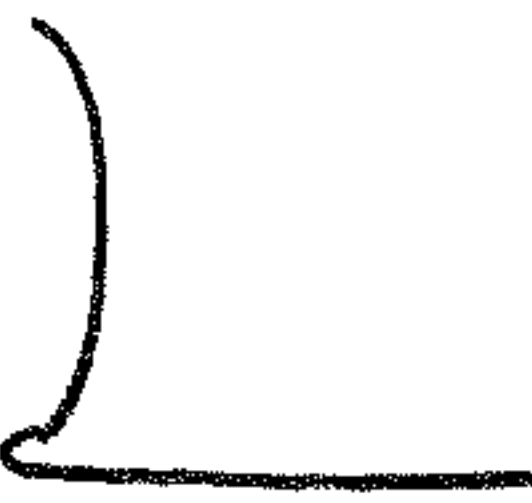






*소나기	소녀	소요	수교
			
스카치	시녀	시조	시치미
			
아기야	아녀자	아이디어	야사
			

기본문자 복습...ㅏ 모음, ㅑ 모음 각줄 3회 이상 복습하고 진도!

















<응용3>

야유하다	야자수	여기다	여기자
			
어디냐	어머니	어처구니	여교사
			
여기	여러 가지	여기자	여우야
			
오리가	오기로	요가	요소
			

우두커니	우려	우유	유도
			
유류	유보	유수	유야무야
			
유효수요	이기주의자	이치	자규야
			
〈응용4〉			
자녀	자유 의사	자유노조	*저고리
			
조교수	조기	조미료	조치
			
주머니	지나오다	지도자	*지하
			
차기	차이가	초기	치사
			

치유	치하	카나리아	카나다
			
코허리	크기	키우다	타자기
			
터무니	투기	트리오	파기하다
			

<응용5>

파티	포교사	포유	표기
			
* 피고	피마자	피자	* 피어나다
			
피의자	* 피하다	하기야	하모니카
			
하야하다	허기	허리	효자효녀
			



효도하자



효부



후려치다



회소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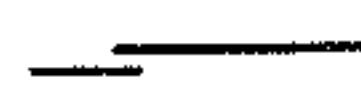


3-3. 이어쓰기가 곤란할 때

3-3-1. 문자간 구별이 안 될 때 : 앞문자 정측으로 1mm 가량 들어가 띄어쓴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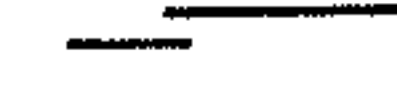
가구



고가



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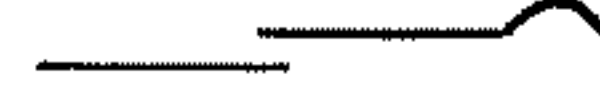
거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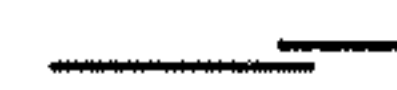
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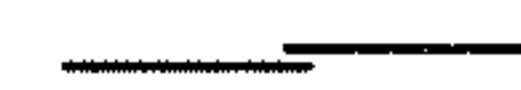
고구마



구가



구구



교가



기고가



다다라



따다가



처처



초추



허하다



허허



3-3-2. 이어쓰기 시작이 애매할 때 : 앞문자 끝에서 반소원을 바로 시작한다.

<보기>

가시



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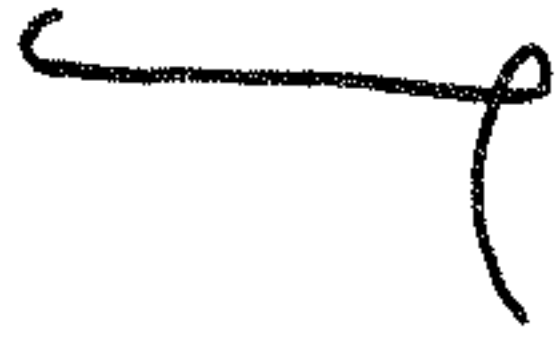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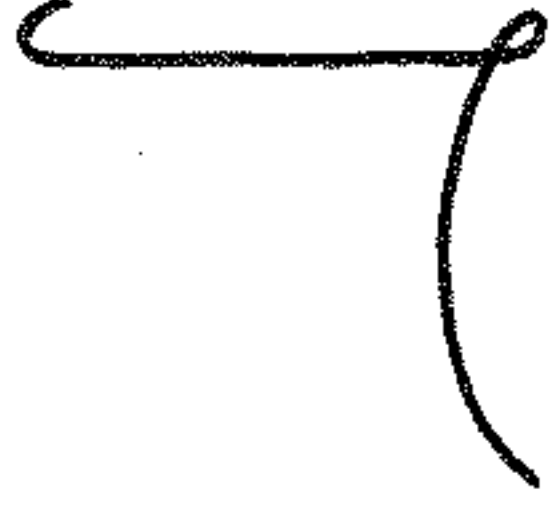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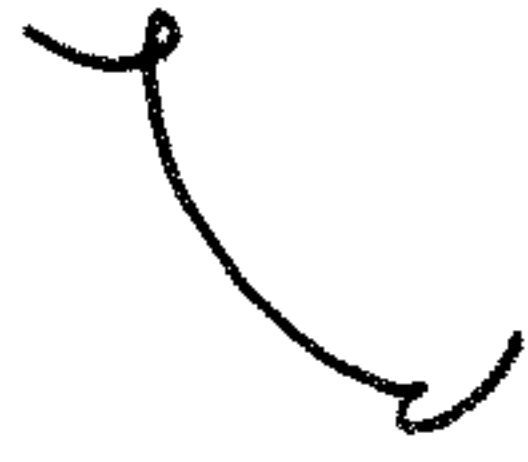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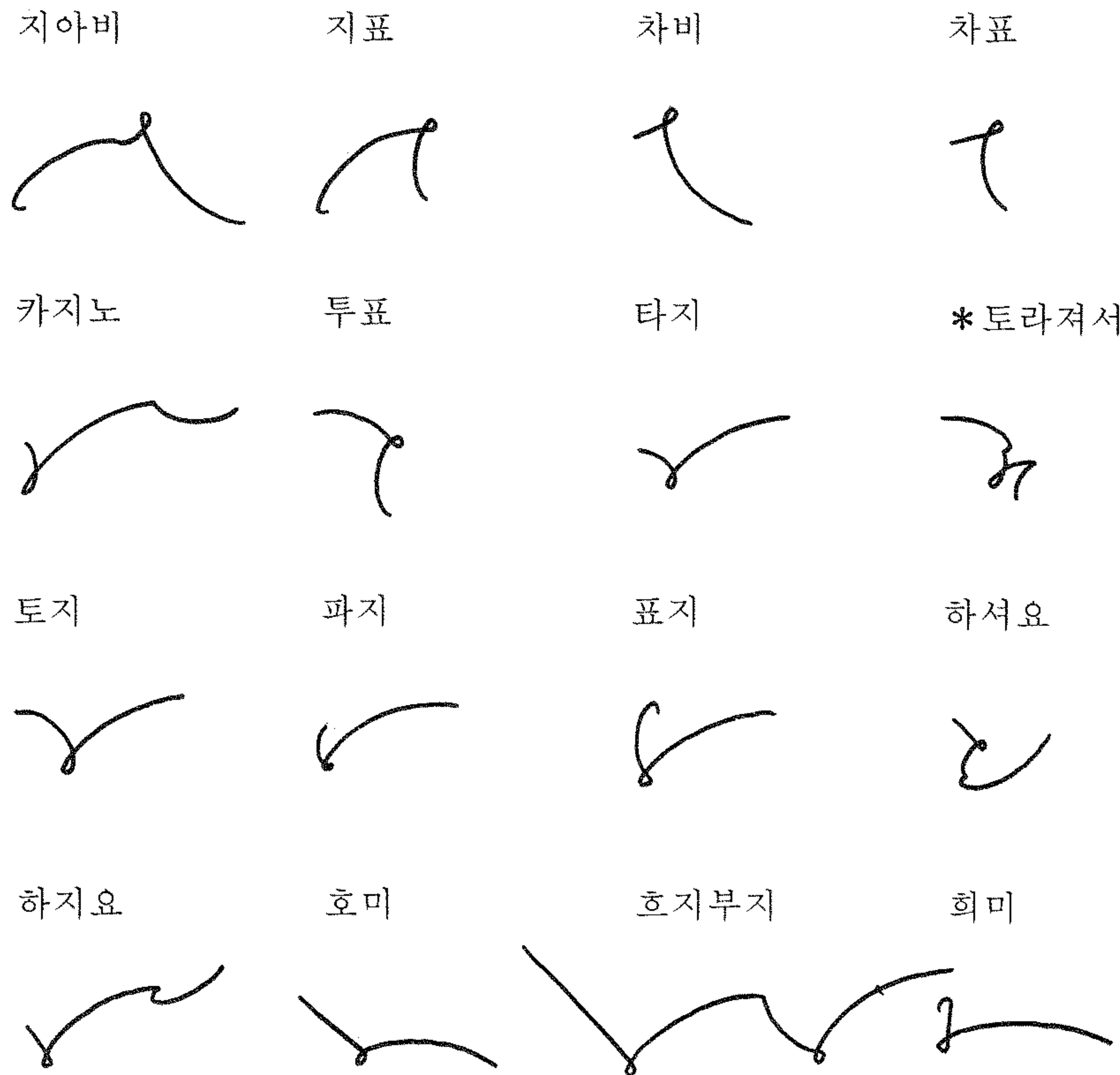
고시



그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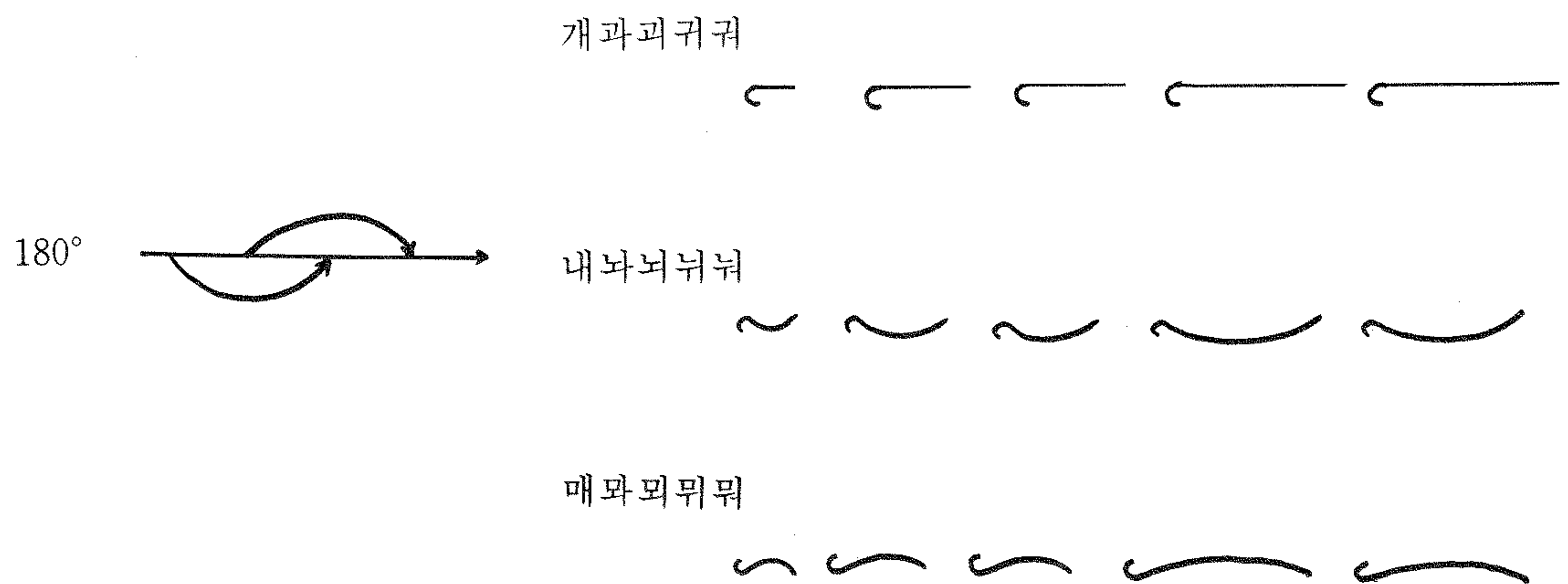
기표	기피	나비아	노다지
			
누비	다다미	따라지	다리미
			
더미	도라지	도지사	두루미
			
마셔라	무지	*무의미	미꾸라지
			
부서지다	부표	샤지	스미다
			
아씨	*아시아	어차피	여비
			
오로지	우표	이지	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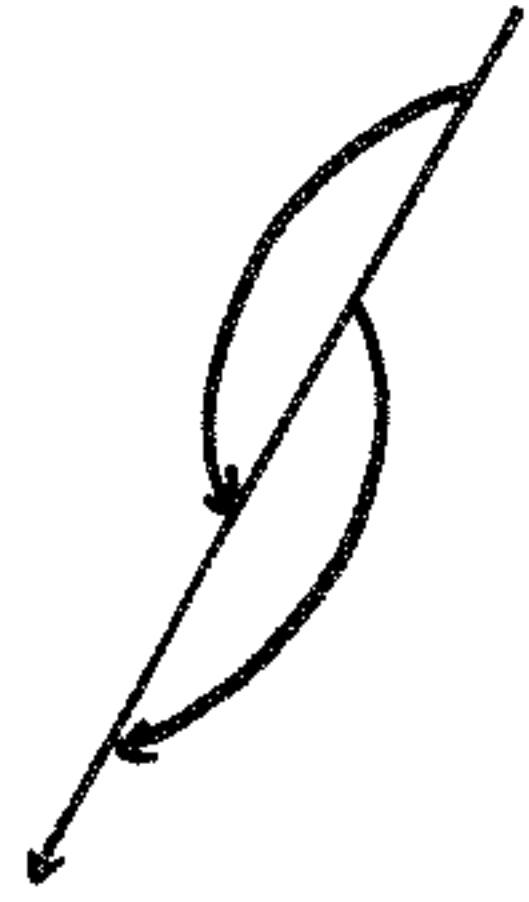
**4. H모음 : H사사귀귀**

- 4-1. H모음 : H사사귀귀...시작 때 반측에 반소원을 붙인다.
- ㅅ...4mm길이로 ㅅ, ㅆ, ㅅ와 같이 사용한다.
- ㅈ...8mm길이로 ㅈ, ㅊ와 같이 사용한다.
- ㅊ...16mm길이로 같이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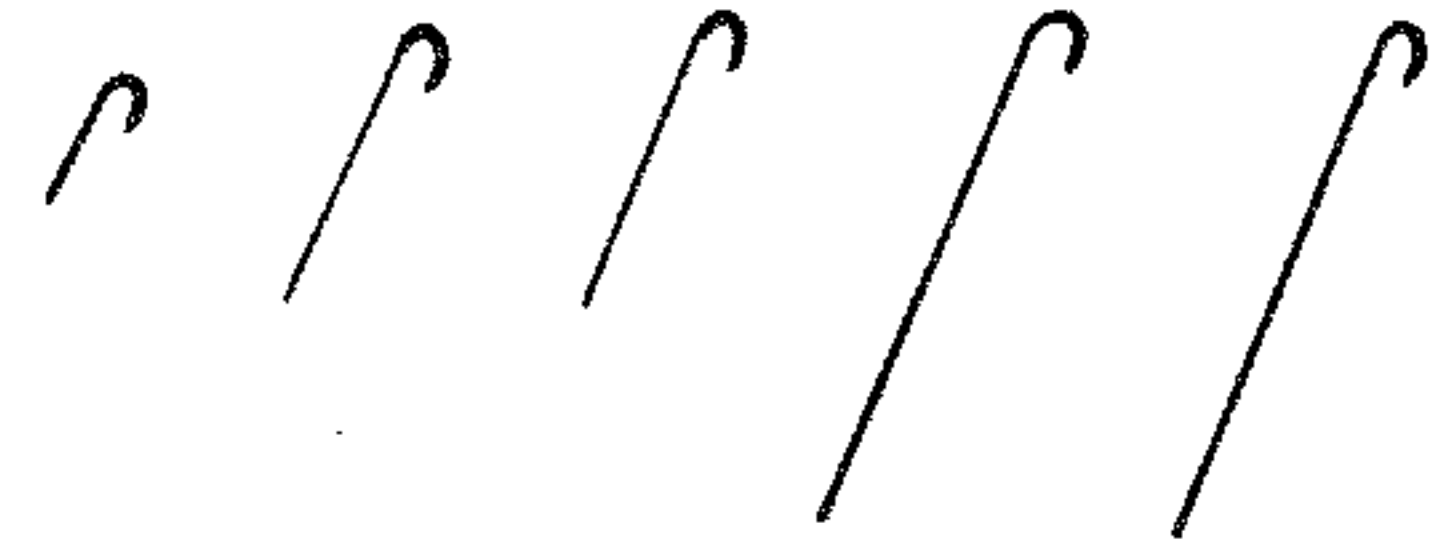
연습법 : 가줄을 10회 이상 연습하고 다음 줄로 넘어가서 5회 이상 연습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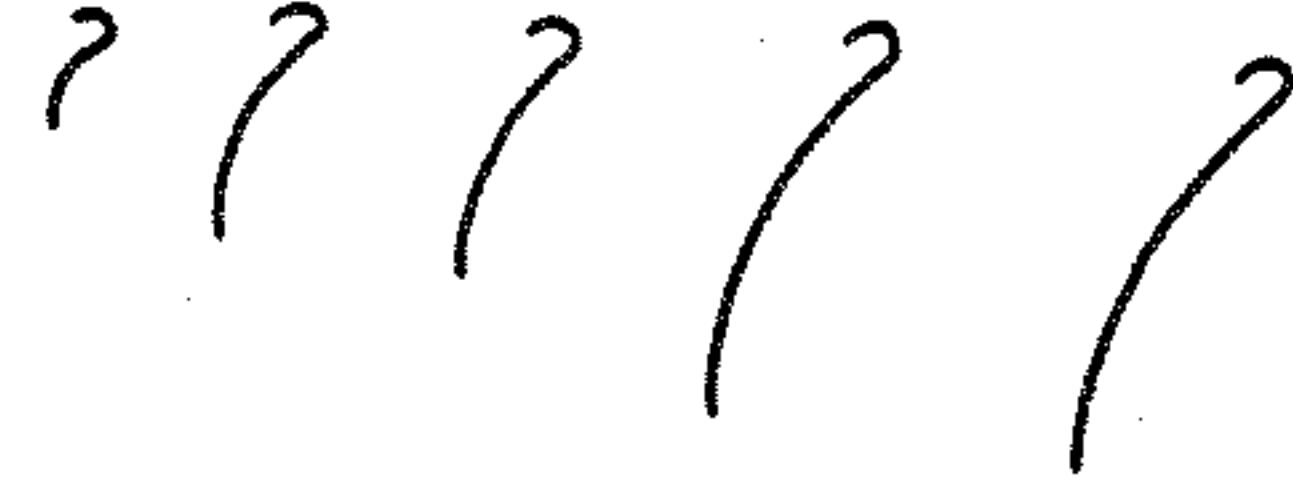
60°기준



대되되뒤뒤



새좌좌쉬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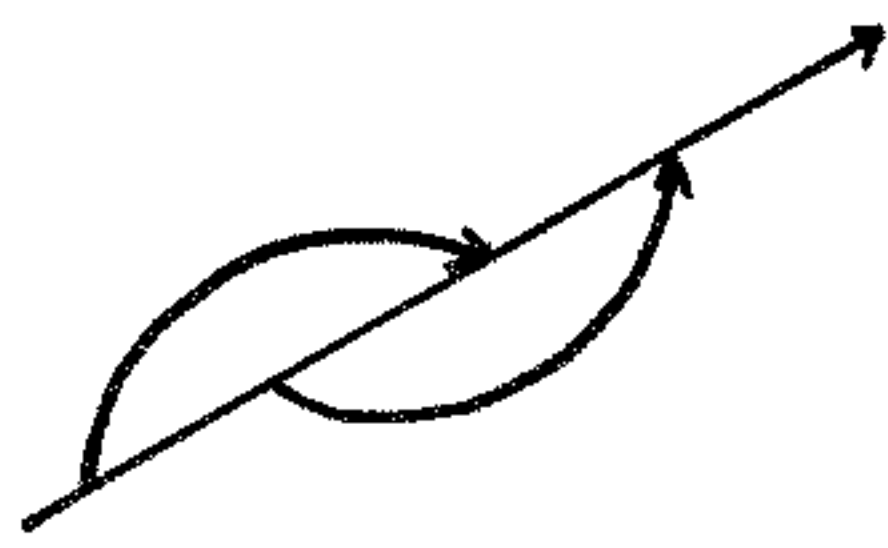
래좌좌뒤뒤



채좌좌취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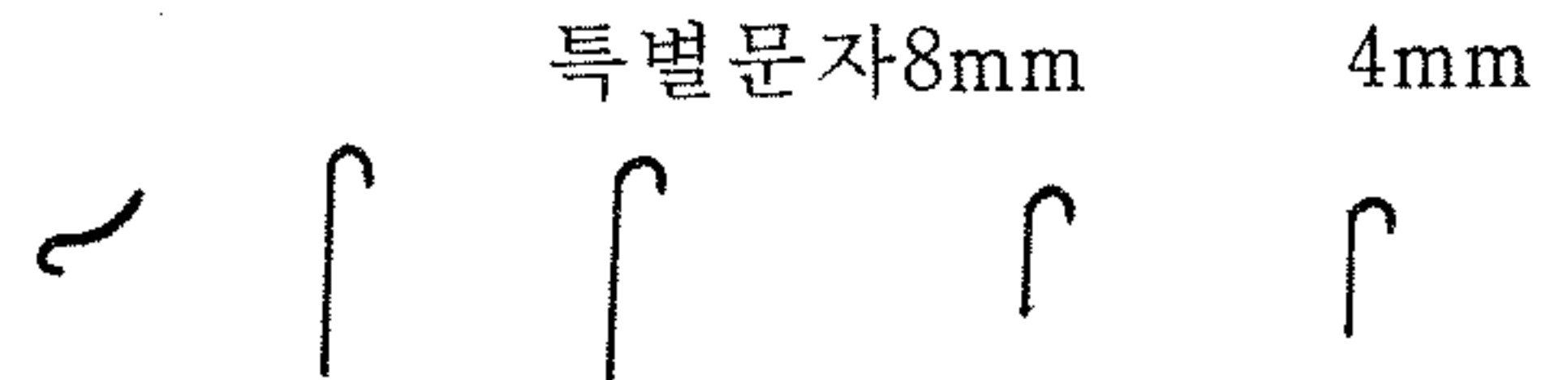
30°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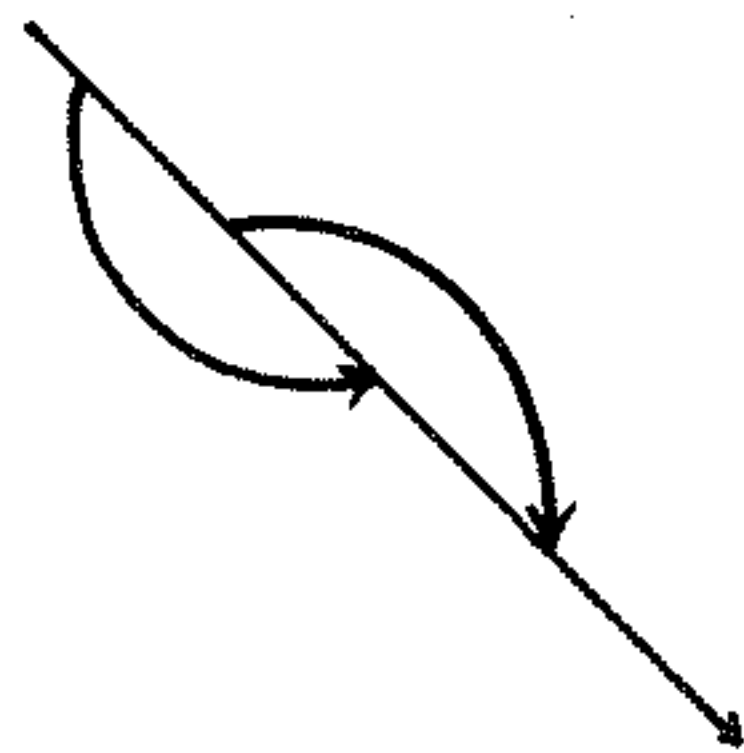
재좌좌취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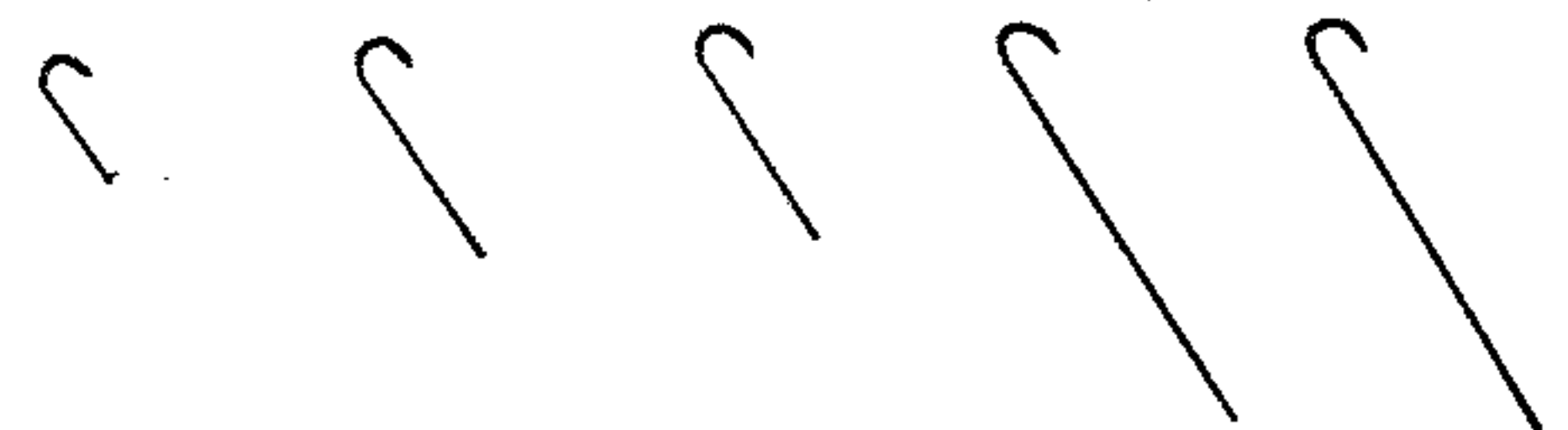
애와와위위



45°기준



해화화휘휘



배봐봐뵤뵤





태따따뒤뒤





4-2. H모음 이어쓰기 : 앞문자 끝에서 연필을 떼고 안으로 1mm 가량 들어가 반소원 없이 붙여 쓴다.

<보기> 사(4mm) 1) 

회(8mm) 2) 

<응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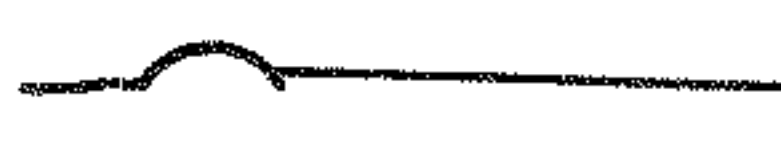
가내



가로채다



까마귀



가위



개재되어



개최해



개회사



계다가



겨레



개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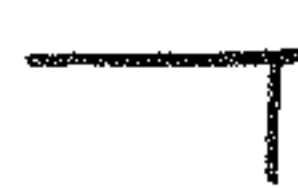
고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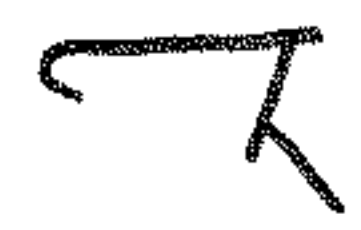
고래



교위



과대해



과외



레도



피꼬리



괴뢰



괴테



괴짜



교재대



구두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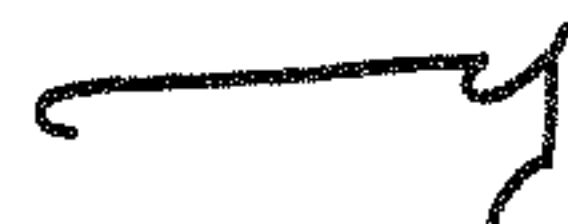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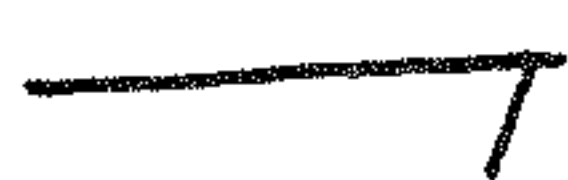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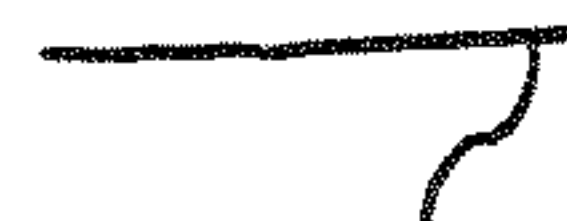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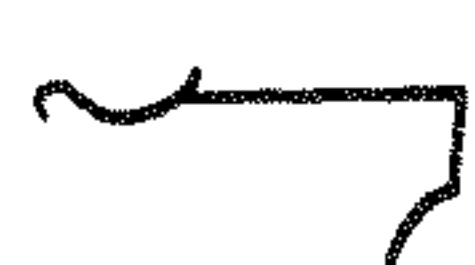








구제해야



구좌



<응용2>

구태여	꽤매다	귀여워서	기회주의
			
규제	그때	그래서	그대여
			
그제야	기지개	기뢰	내과 의사
			
*내세우며	내재되어	네트	노이로제
			
누계	나이체	다과회	대개
			
대체해야	도깨비	도매해서	도취되어
			
돼지	되새겨서	뜨내기	레저사회
			

**조사약기법(1)**

속기에서는 빈도가 높은 단어를 계속 기본문자로 반복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데 조사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제부터 조사는 간단히 처리하는 법을 배워 각 단어에 응용하도록 하자. 이것은 덤이다.

\_\_\_\_\_ } (s자 형태 씹) ~에서, ~에게서  
 \_\_\_\_\_ } (s자 형태 걸침) ~해서, ~께서

<응용3>

매매해서



마취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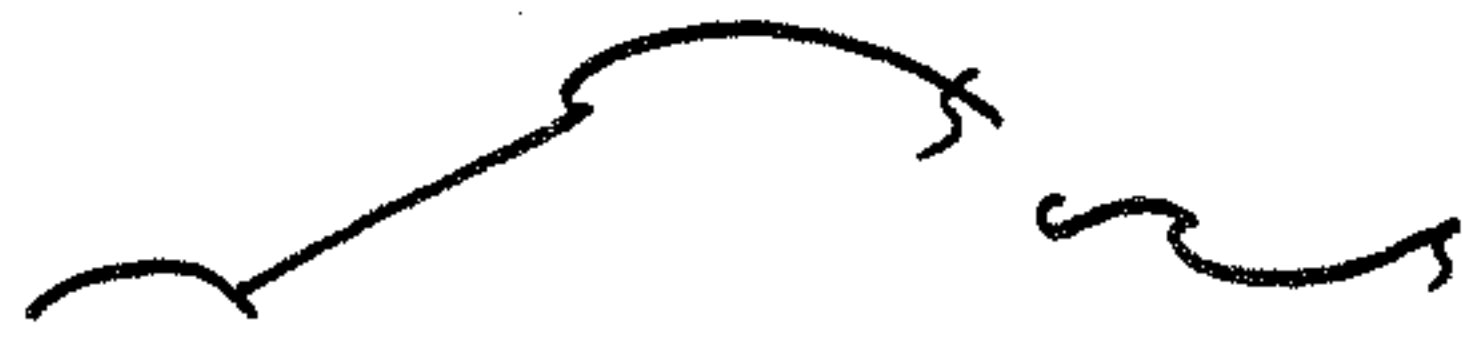
대화해서



모래에서



무취미해서



메뉴에서



미화해서



바위에서



배려에서



배제해서



배터리에서



베레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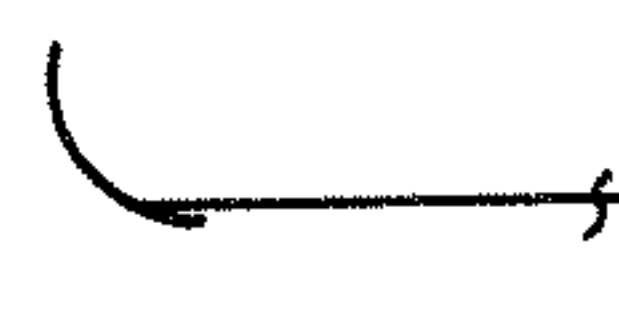
보라매



부과해서



부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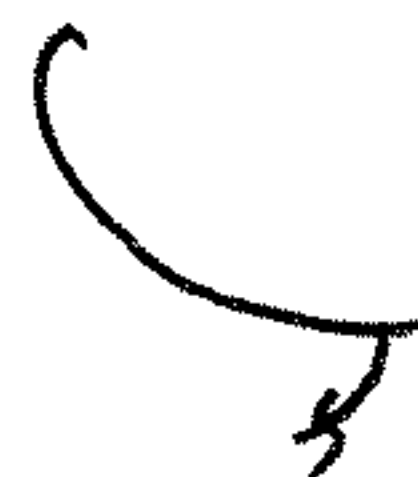


비과세해서



<응용4>

비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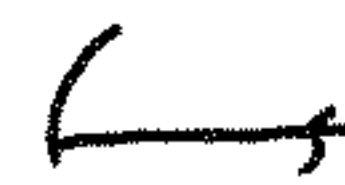
대표제에서



비위조사에서



사과해서



사례자께서



소개자께서



사회자께서



기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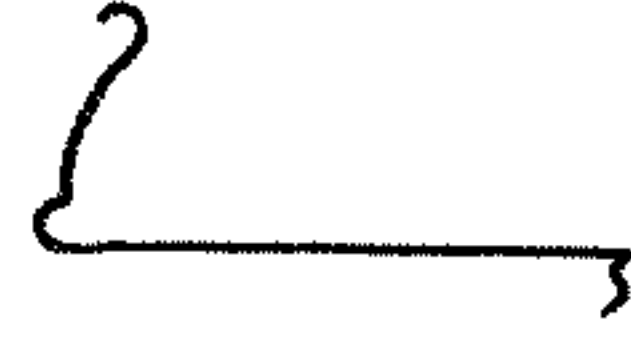
세뇌해서



세태에서



췌기에서



수뇌에게서



쉬쉬해서



스위치에서



스테레오에서



시계에서



시위해서



아래에서



아메바에서



아무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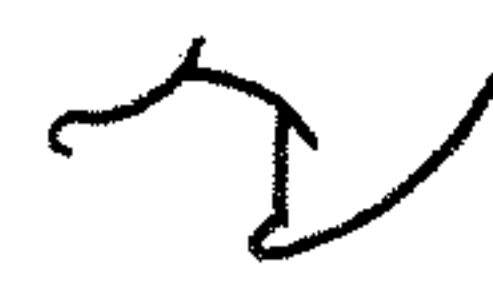
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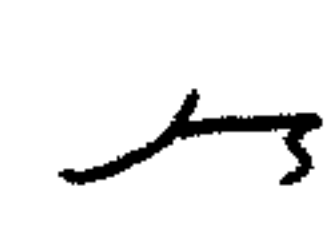
\*애매모호해서



애태워요



어깨에서



이봐요



자제해서



자취해서



재배해서



<응용5>

제대로



제외해서



조례에서



조퇴해서



좌표에서



좌우에서



주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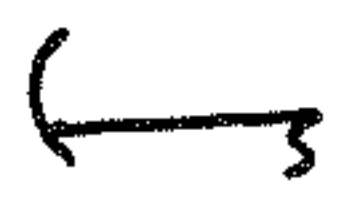



주최자에게서



찌개에서	지휘자께서	차내에서	차례 차례
			
채무자에게서	체계화해서	체포해서	초과해서
			
최대에서	최소에서	최초	치과의에게서
			
카레라이스	카세트	케냐에서	꽤 거라해서
			
꽤 유해서	쿠데타에서	타개해서	*태세아래에서
			

<응용6>

태초에	*테러가	퇴위해서	퇴짜
			
퇴폐해서	파계해서	파괴에서	패배자에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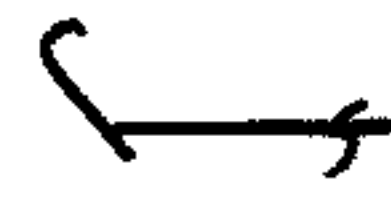
패자에게서



피해자에게서



해괴해서



해녀에게서



해외에서



해제해서



해태제과에서



해봐요



허세



헤매다



호외요



화재되다



화제



화폐



회개해서



회계사께서



후배에게서



후예에게서



히스테리해서



희대



4-3. 이어쓰기대로 해서 안될 때 : 앞문자 끝에서 제 문자를 그대로 시작한다.

<보기>

가게



가계



고개



교과서



기개로



기계에서



기괴해서



대대로



때때로



도대체



두대다



이외에



외워요



차체에서



채취해서



초취해서



하해와



하회해서



호혜주의



화해해서



회화해서



화회



후회해서



휴회해서



이상으로 받침 없는 문자는 다 배웠다.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배운 문자 및 이어쓰기와 조사 약기법을 철저히 복습해야 한다.

**받침없는 문자 총정리**

ㅏ 모음 : 반소원이 없다

ㅏ ㅑ ...4mm길이를 같이 사용한다.

ㅓ ㅕ ...8mm길이를 같이 사용한다.

ㅗ ...16mm길이

ㅑ 모음 : 반소원이 정측에 있다

ㅑ ㅓ ...4mm길이를 같이 사용한다.

ㅕ ㅗ ...8mm길이를 같이 사용한다.

ㅓ ...16mm길이를 ㅑ와 같이 사용한다.

ㅓ 모음 : 반소원이 반측에 있다

ㅓ ...4mm길이를 ㅑ, ㅓ, ㅕ와 같이 사용한다.

ㅑ ㅓ ...8mm길이를 ㅑ, ㅓ와 같이 사용한다.

ㅕ ㅓ ...16mm길이를 같이 사용한다.

지금까지 선긋기 연습을 겸해서 많은 문자의 연습이 있었겠지만 문장 속에서 나오는 문자는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많이 쓰이는 문자만을 골라서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특히 ㅏ모음의 ㅑ줄(겨녀더려...)와 ㅣ줄(기니디리...), ㅓ모음의 ㅕ줄(개내대래...)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 두면 빠른 학습효과를 올릴 수 있다.

앞으로 배울 받침 붙는 문자도 같은 규칙으로 길이가 전개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기본문자를 길이 연습을 중심으로 충분히 복습해 두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

종합연습문제

속기에서도 적당한 띄어쓰기를 하며 문장부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는 띄어쓰는 곳이며 숫자는 그대로 쓴다. 공책에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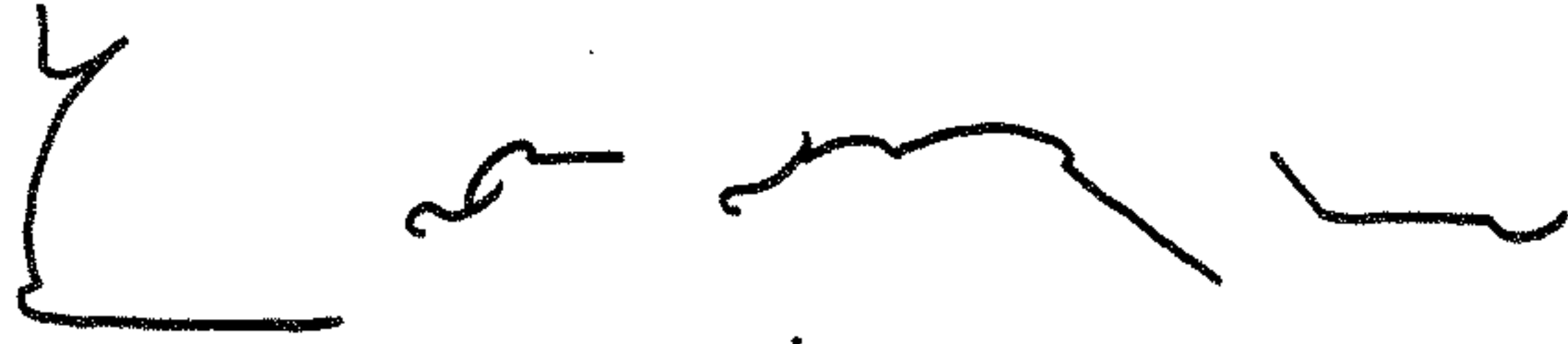
1. 이어쓰기/ 예제가/ 애매모호/하구나.
2. 대구사과/ 사가지고/ 대바구니에/ 채워오너라.
3. 야외에서/ 우리/ 세 자매가/ 유쾌하게/ 노래부르니/ 주위에서/ 모두/ 부러워하네.
4. 캐나다/ 주제/ 니카라과 대사와/ 케냐대사가/ 파티에서/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네.
5.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의사대회가/ 개최돼/ 우리나라/ 대표가/ 이사로/ 추대되니/ 쾌거로다.
6. 우리도/ 이제/ 세계지도/ 위에다가/ 코리아/ 위치/ 두드러지게/ 나타내보자.
7. 대구에서/ 세계/ 최대규모/ 야구대회가/ 개최되자/ 세계/ 20여개/ 나라가/ 서로/ 이기기 위해서/ 애태워요.
8. 너에게서/ 그때/ 얘기가/ 나오다니/ 도대체/ 이해가/ 아니되네.
9.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쉬쉬하며/ 회피하다.
10. 스테레오/ 카세트가/ 때때로/ 모노카세트가/ 되기도/ 하니/ 어찌/ 하오리까?
11. 어제부터/ 개내대래매배새애재채캐태패해와외위위/ 배우다.

자! 이제는 속기문자 아래에 한글로 번문을 해 보자.

\*\*정답은 다음 페이지에 있다.

종합연습문제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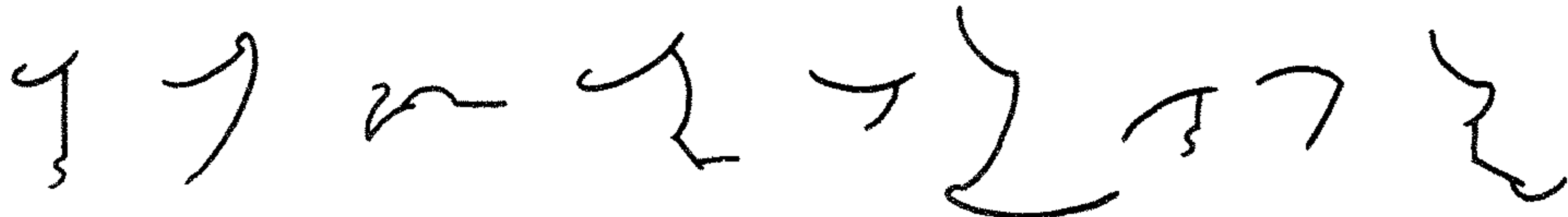
1. 이어쓰기/ 예제가/ 애매모호/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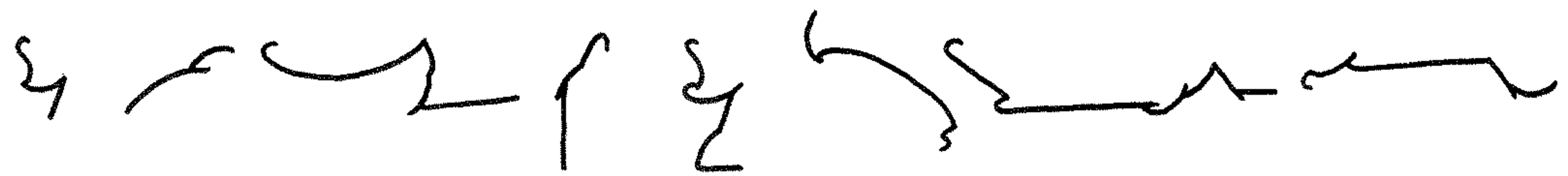
2. 대구사과/ 사가지고/ <sup>\*</sup>대바구니에/ 채워오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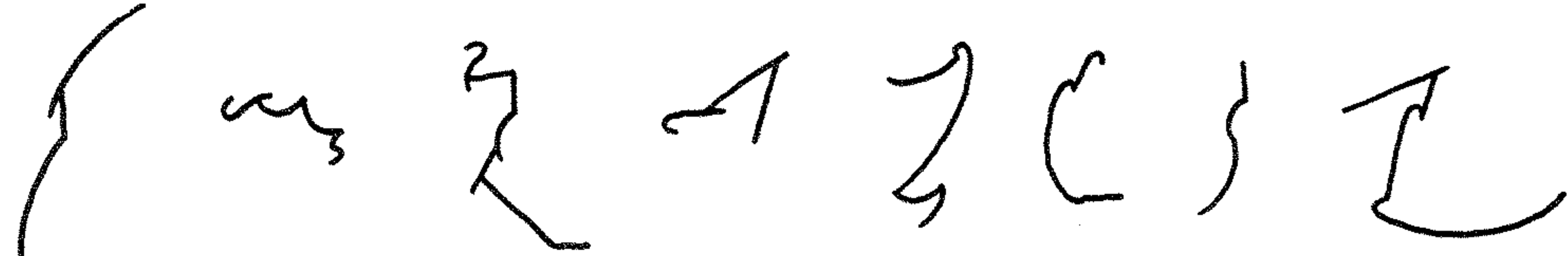
3. 야외에서/ 우리/ 세 자매가/ 유쾌하게/ 노래/ 부르니/ 주위에서/ 모두/ 부러워하네.



4. 캐나다/ 주제/ 니카라과/ 대사와/ 케냐대사가/ 파티에서/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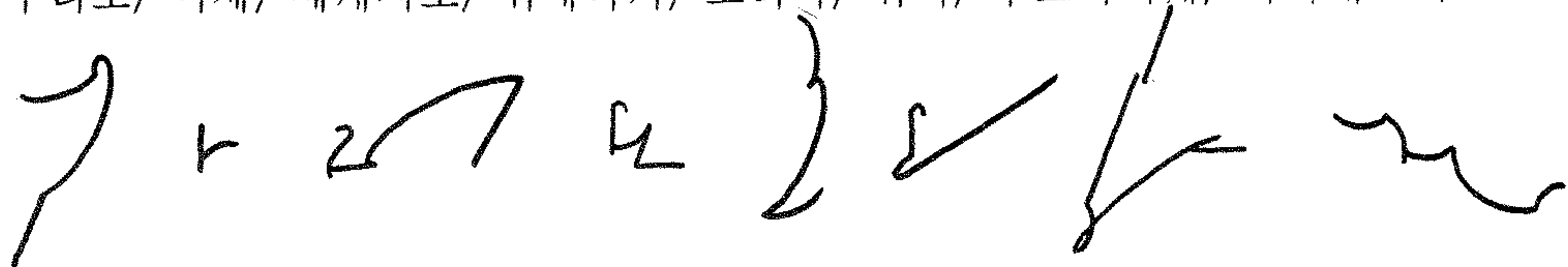
5.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의사대회가/ 개최돼/ 우리나라/ 대표가/ 이사로/ 추대되니/



꽤 거로다.



6. 우리도/ 이제/ 세계지도/ 위에다가/ 코리아/ 위치/ 두드러지게/ 나타내보자.



7. 대구에서/ 세계/ 최대규모/ 야구대회가/ 개최되자/ 세계/ 20여개/ 나라가/ 서로/ 이기

기 위해서/ 애태워요.

기 위해서/ 애태워요.

기 위해서/ 애태워요.

8. 너에게서/ 그때/ 얘기가/ 나오다니/ 도대체/ 이해가/ 아니되네.

기 위해서/ 애태워요.

9. 가해자와/ <sup>\*</sup>피해자가/ 서로/ 쉬쉬하며/ <sup>\*</sup>회피하다.

기 위해서/ 애태워요.

10. 스테레오/ 카세트가/ 때때로/ 모노카세트가/ 되기도/ 하니/ 어찌/ 하오리카?

기 위해서/ 애태워요.

11. 어제부터/ 개내대래매배새애재채캐태패해와외위워/ 배우다.

기 위해서/ 애태워요.



**5. 받침 이어쓰기**

5-1. ㄴ받침 이어쓰기(ㄴ, ㄴᄂᆞ): ㅏ · ㅑ모음이 뒤에 나올 때와 ㅓ모음이 뒤에 나올 때 두 가지로 처리한다.

5-1-1. ㅏ · ㅑ모음 붙은 ㄴ받침(ㅏ · ㅑ원칙)

앞문자 끝에서 안으로 1mm 가량 들어가 띄어서 제방향, 길이만큼 쓴다.



〈보기〉	모든	시간	자연	구현	그간
	차분한	과분한	후견인	사연인가	추천인

5-1-2. ㅓ모음 붙은 ㄴ받침(ㅓ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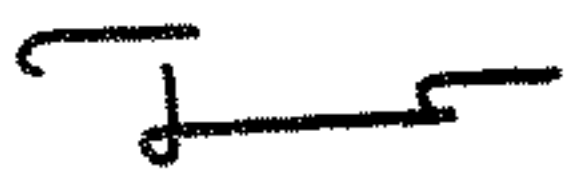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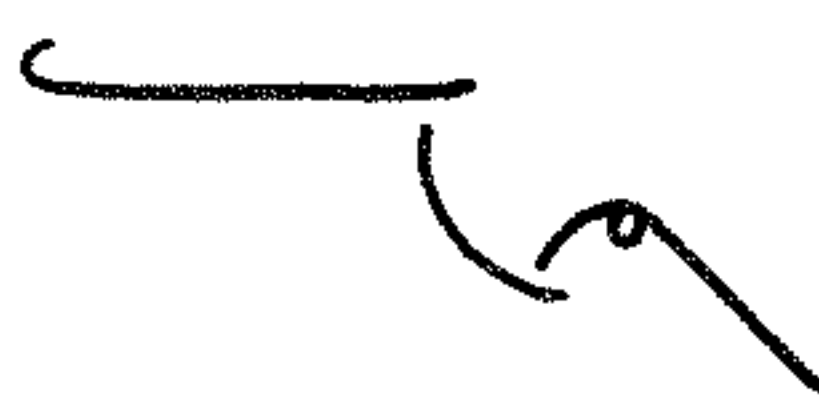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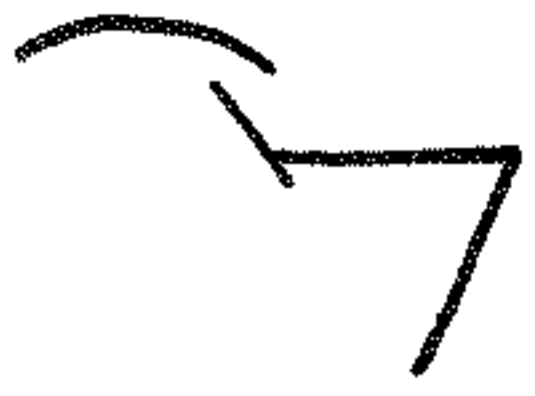



앞문자 끝에서 소원을 그리며 제방향, 길이만큼 쓴다.



〈보기〉	유엔	사관	수원	주된	나뉜
	이권	교환원	헤맨다	고관	의원

참고 : 모음 이어쓰기의 일부 형태와 비슷한 경우도 있으나 구별이 된다.

<응용1>

가관	가련한	개인관계	계산서
			
과연	꾸준한	구현해서	그러면
			
기관원	기분전환	내년	네온사인
			
내우외환	노끈	노인께서	다원론
			
대권도전	대한민보	라면에서	로맨스
			
* 마라톤에서	* 모순이	무선전화	무연탄
			
무한궤도	미안하게	빠근하군	베토벤
			

<응용2>

보관해서



\*보전하세



부관계서



부연해서



부채만



부관부에서



부친께서



브랜드



비원에서



\*사이렌에서



사원연수원



사진관



서운해서



시민에게서



소년단원



소원해서



소유권에서



소환해서



왜신해서



수난시대



수년간



수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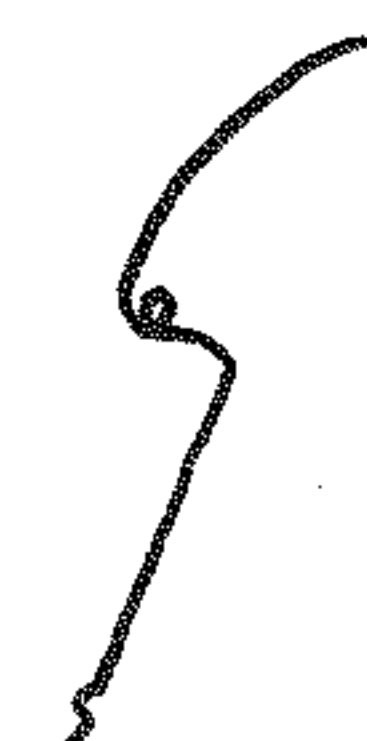
수원에서



수훈



스탠드에서



스폰서



시간문제



시련이야



<응용3>

시론	*시멘트	시민권	시원한
			
아니면	아전인수	야간근무	야반도주
			
어떤가	어원조사	어찌면	어쩐지
			
어촌에서	에센스	여권에서	여러분께서
			
여편네	예년보다	예민한	예산회계
			
예산에서	예찬론	오관	*오랜만시오
			
오손도손	외관	외환관리	요원에게서
			

<응용4>

우선권



우유부단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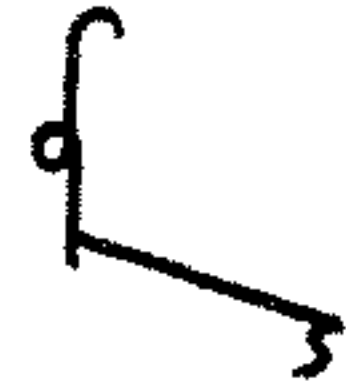
우환



위관에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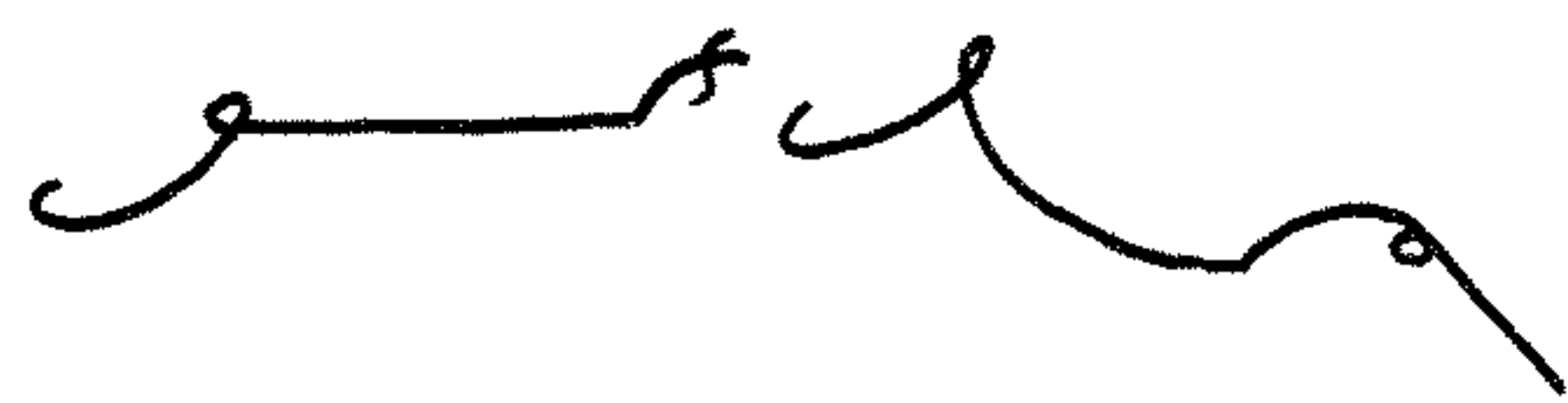
위원회에서



위인전에서



유권자께서



유비무환

유신전야



유언비어



유인원에서



유치원에서



의견교환



의료기관



의원께서



의존해서



이관해서



이권배제



이론상



이만저만해서



이연노의원



이원제



이전문제



이천에서



이한해서



자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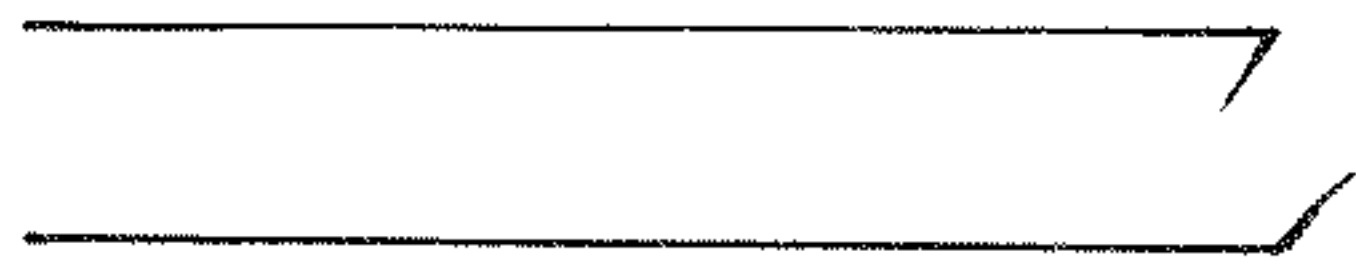


자본주의




자선단체



<b>조사약기법(2)</b>	
	(다줄로 2mm 빼침) ~의 (차줄로 2mm 빼침) ~을, ~를

<응용5>

자천타천의	자화자찬의	재난의	지원의
			
재판관의	재해를	제헌의회를	조간신문을
			
좌완투수를	주인의	주차위반을	지배권을
			
지원서를	* 지하자원의	차관을	차원의
			
채권을	채무를	채면을	초만원의
			
초안을	초원을	최대 한의	최루탄의
			

<응용6>

추산을



추진세력의



치산치수를



치안본부의



카페인을



키순서의



타관에서



타산을



타인을



타원을



퇴근을



투원반을



파견해서



파손된



패권을



퍼센트를



파안대소



파산된



파전을



페인트를



폐단을



폐륜을



폐문을



페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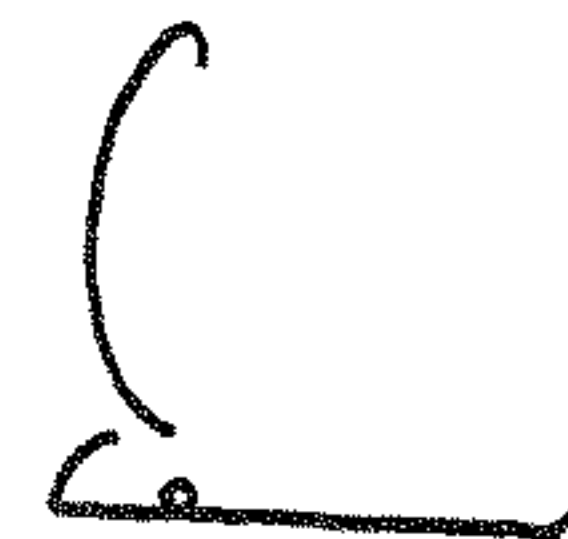
표현의



피곤하군



피선거권을



하원의원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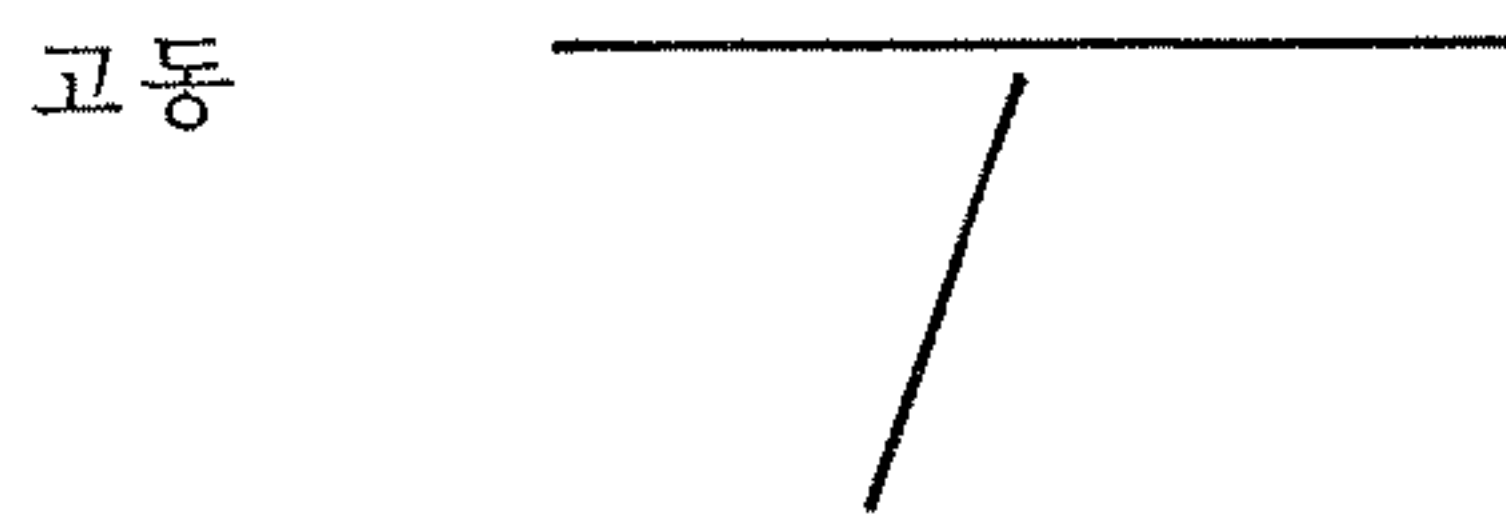
<응용7>

해군을	해면에서	허전해서	호인을
			
호전되어	후진사회를	화관무를	화면에서
			
회원권을	회전의자를	후련해요	후환을
			
훼손해서	휴면파워를	휴전선에서	희한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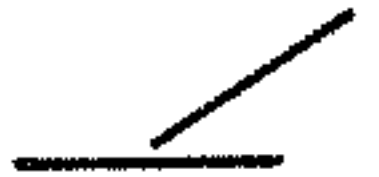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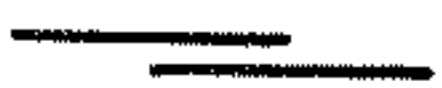





5-2. ○받침 이어쓰기 : ㅏ · ㅑ모음이 뒤에 나올 때와 ㅓ모음이 뒤에 나올 때의 이어쓰기 두 가지로 처리한다.

5-2-1. ㅏ · ㅑ모음 붙은 ○받침(ㅏ · ㅑ 원칙)

앞문자의 허리에서 띄어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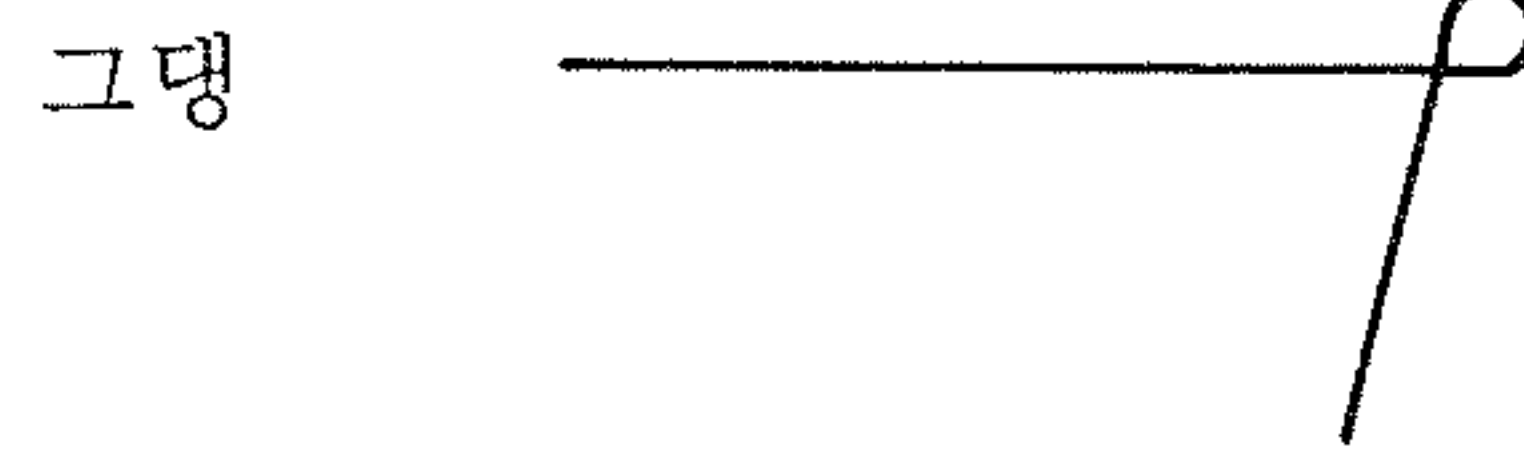
<보기>

노동	고층	고향	무명	고궁
				
개량종	대령	수영장	고향방문	차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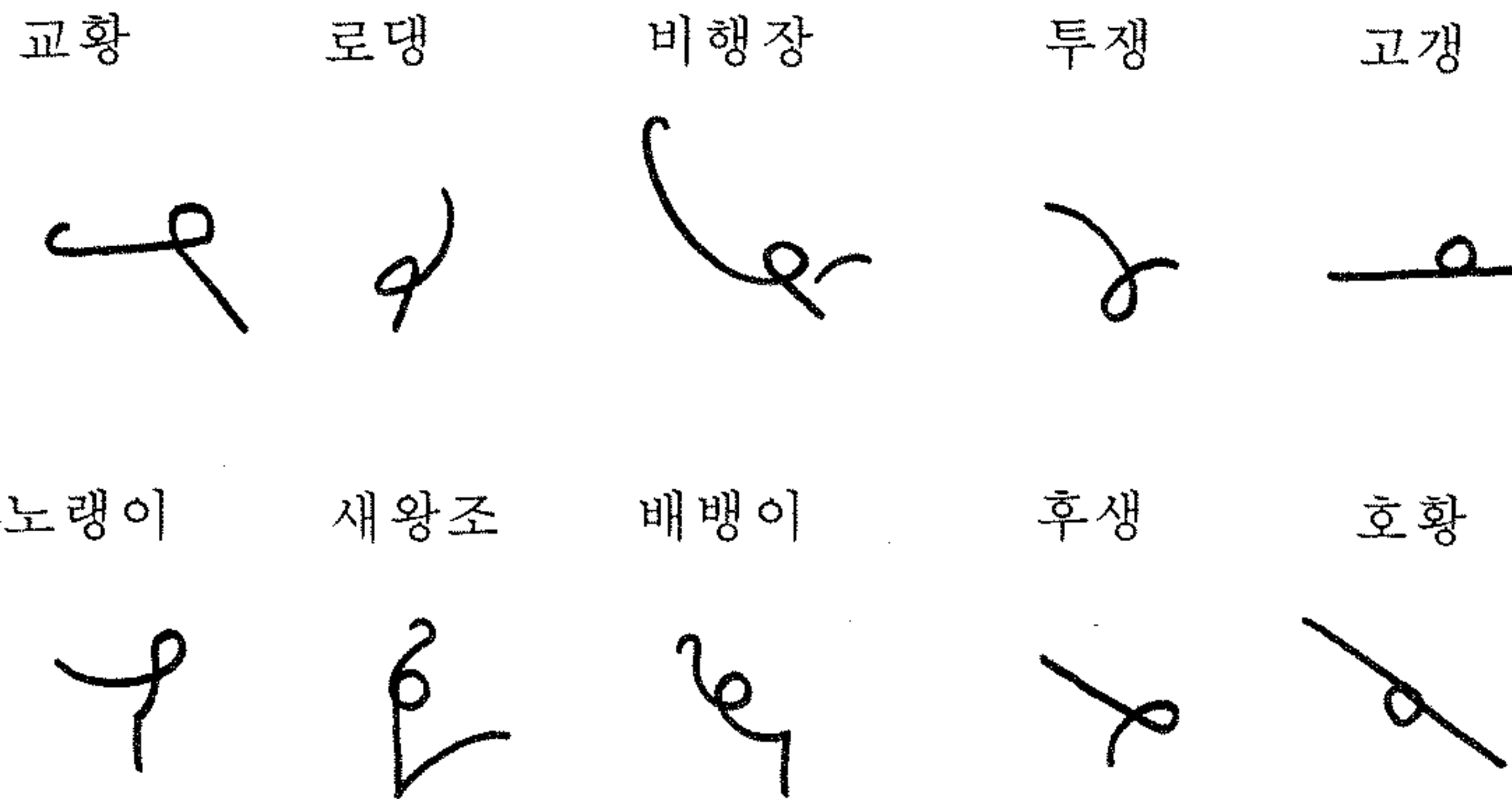


5-2-2. ㅈ모음 붙은 ㅅ받침(ㅈ원칙)

앞문자 끝에서 ㄴ받침의 2배 이상 큰 원을 그리며 제방향, 길이만큼 쓴다.



<보기>



















<응용1>




겨냥해서	계량기를	계몽주의의	계상해서
			
계통의	고정해서	꼬챙이를	과정에서
			
피병을	교황께서	구경꾼을	귀공자를
			





<응용2>

귀중한	그 중에서	기고해서	기관장께서
			
기상대에서	기생충을	기성세대의	기왕지사
			
기행문을	나중에	내공의	내왕해서
			
노동자의	노정해서	뇌성마비의	뇌진탕을
			





누명을                  다량생산의                  다양해서                  \*다행히

대서양의                  대장경을                  대통령께서                  도청에서

뚜껑에서                  두통을                  뒤송송한                  뚜쟁이를

<응용3>

두령에게서                  라인강의                  마냥                  \*마땅히

매사냥을                  매운탕을                  모성애를                  모형을













                                                      

묘령의                  무공훈장을                  무궁화를                  무기명의

무능력의                  무상원조를                  무인지경의                  무한정의

*미명하에	미상환의	미성년자의	미완성의
			
미증유의	미행해서	바탕에서	배경을
			
배짱을	벼락공부해서	벼랑에서	보강쇠를
			

<응용4>

보세공장을	보통선거를	부강해서	부동산의
			
부동항을	부양가족을	비동맹의	비망록을
			
비상사태를	비생산	사농공상의	사령관계서
			
사상성향을	사탕을	서양문명을	세상만사를
			

소량의

소방관을

소송을 해서

소행을

쇠고랑을

수강생의

수용해서

수행원을

시동생을

시행단계를

시황을

아량을

<응용5>

아우성을

애당초

애칭을

야광의

야당에서

야생화를

야행성의

어깨동무를

어리광을

어용단체를

여권신장의

여명의

예명을

예방을 해서

예상문제를

예증해서

오리무중의

오징어를

외상을

외양간을

외향성을

요령을

요청해서

요통을

우량계를

우왕좌왕

위령제를

위생과에서

<응용6>

위장해서

유공훈장을

유유상종

유행성의

의기양양

의당히

의향을

이동근선생

이성을

이양해서

이왕

이행해서

\*자가용을

자명한

자생의

\*자칭타칭의

재방송을



재청이오



저공의



저인망의



저장을



제공권을



제명처분을



좌경의



죄송해서



주마등의



주인공을



지경을



<응용7>

지명타자의



지성인의



지양해서



지장 많아



지칭해서



지탱해서



지향성의



차등배당의



차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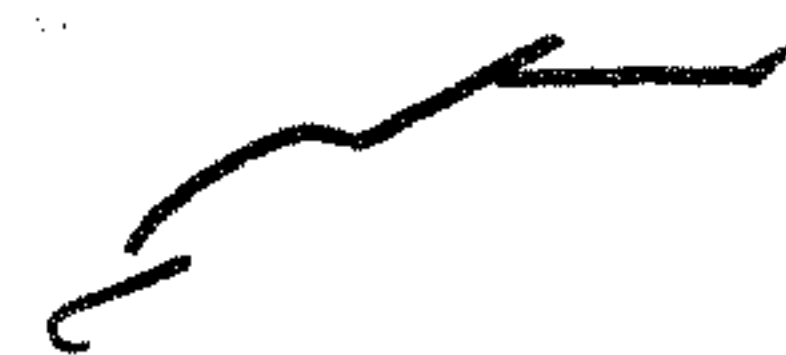
차종을



제공시간을



체중초과를



초창기의



초청장의



초행의



최강자의



추궁해서



추기경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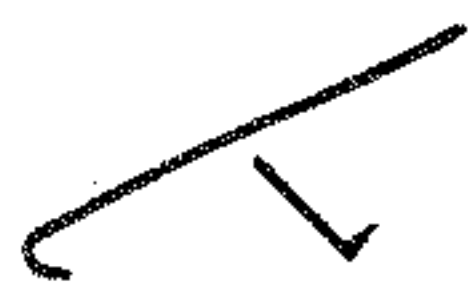
추종자를



취생몽사



취항을



취항을



치렁치렁



치명상을



치중해서



치통을



코방귀를



쾌승을



<응용8>

쾌청해서



타당성을



태몽을



토성에서



퇴장해서



퇴청해서



투명인간을



투영된



투쟁사를



파동을



파랑새를



파병해서



파생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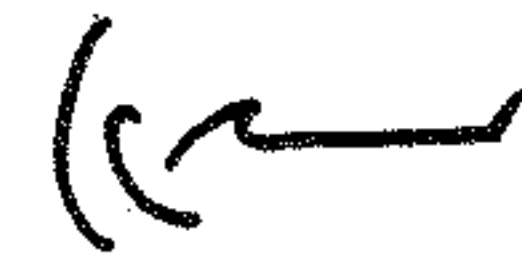
파충류를



폐병을



포병장교를





포용해서



포장용지



표명해서



표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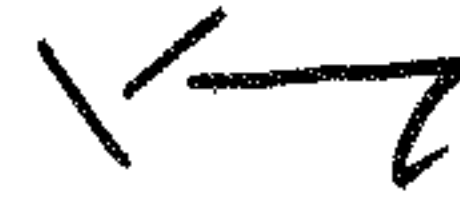
푸딩을



피동의



하청공사를



하행선의



하향성의



해당화를



해병대의



해양선을



<응용9>

해왕성을



해장주를



허둥지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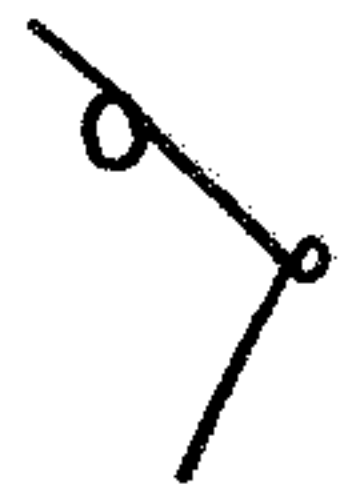
허영을



허탕쳐서



허황된



혜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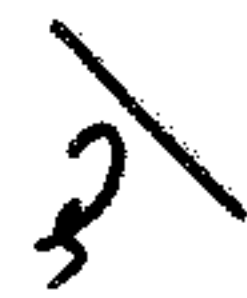
호경기를



호랑이를



호령해서



호봉인상



호승경관을



호황을



화랑정신의



화생방전을



화승총을



화중지병의      화형을      회동해서      회향해서



회현동에서

회견장에서

회령에서

효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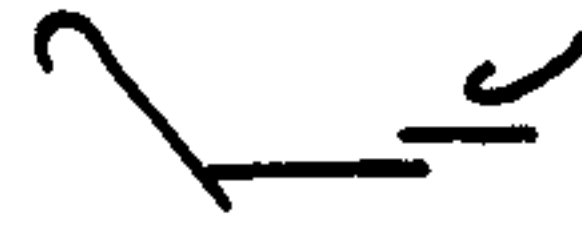


효능을

효과거양

효성을

효종의



<응용10>

효행을

후방방위를

후생가외의

후생성에서



후송된

후유증의

훼방해서

훼손방지



회장전문

회청거려

휴양지의

휴전선상에



희망해서

희망사항

희망봉을

희생양의



희생정신을

희성의

희롱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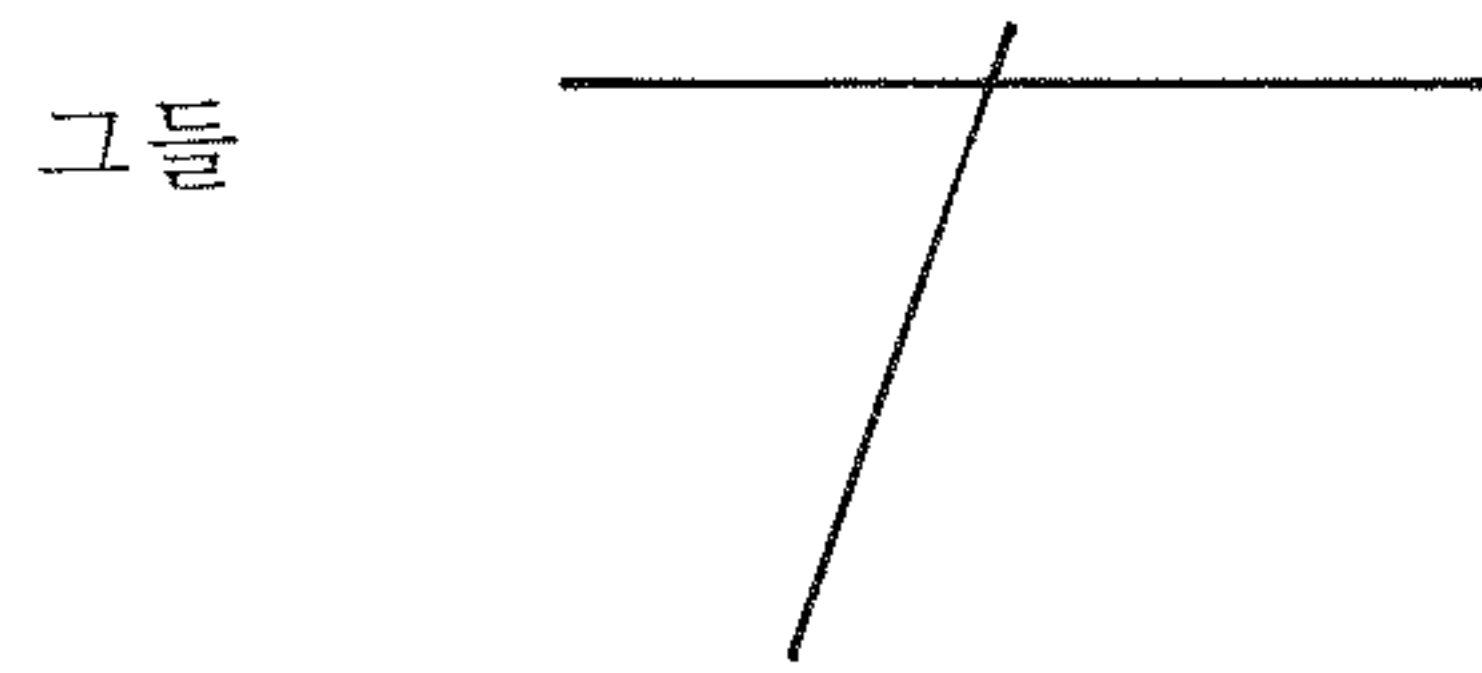
희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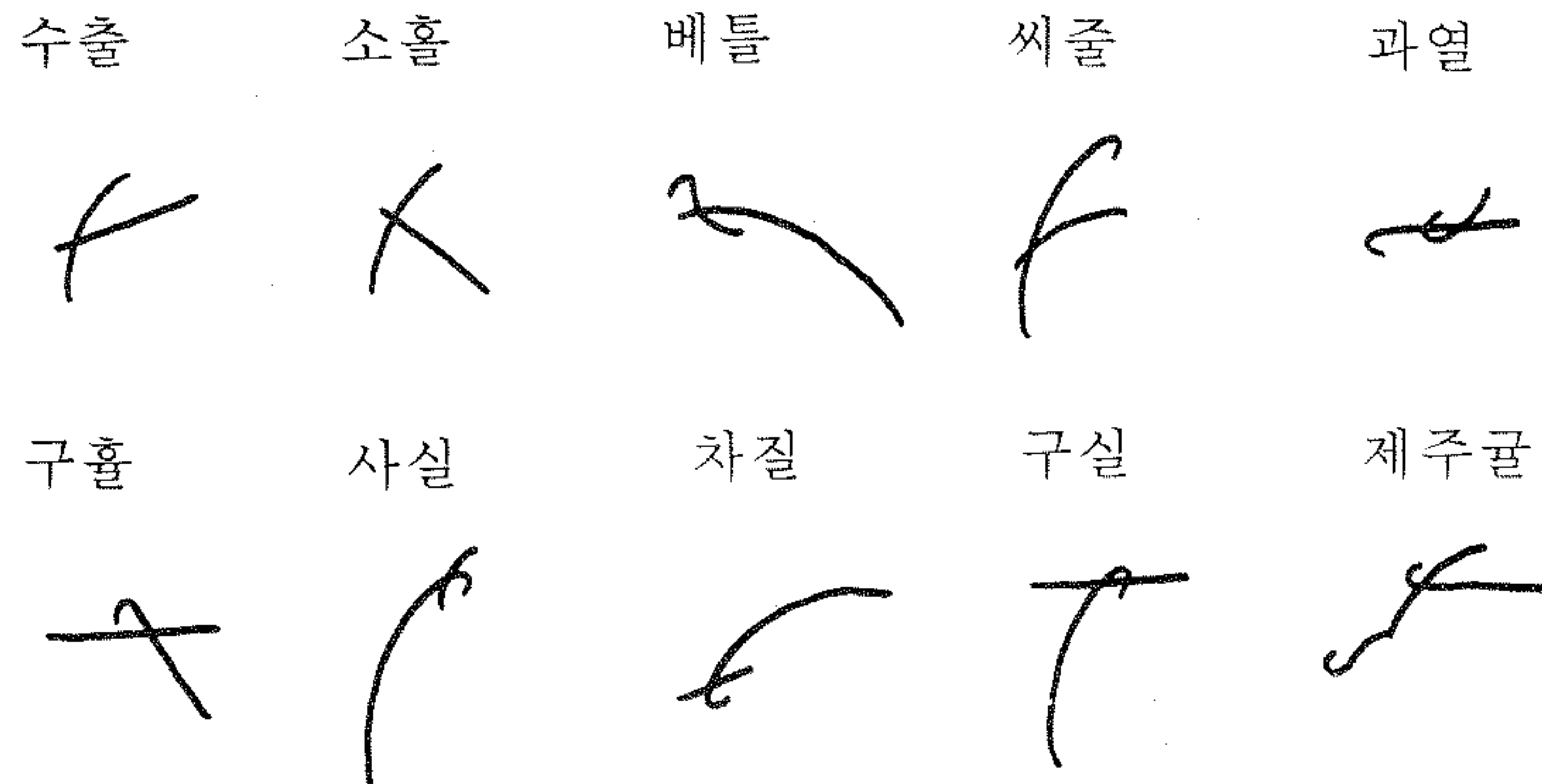
5-3. ㄱ받침 이어쓰기 (ㄱ, ㄲ, ㄴ)

5-3-1. ㅏ · ㅑ 모음 붙은 ㄱ받침(ㅏ ㅑ원칙)

앞문자의 허리에 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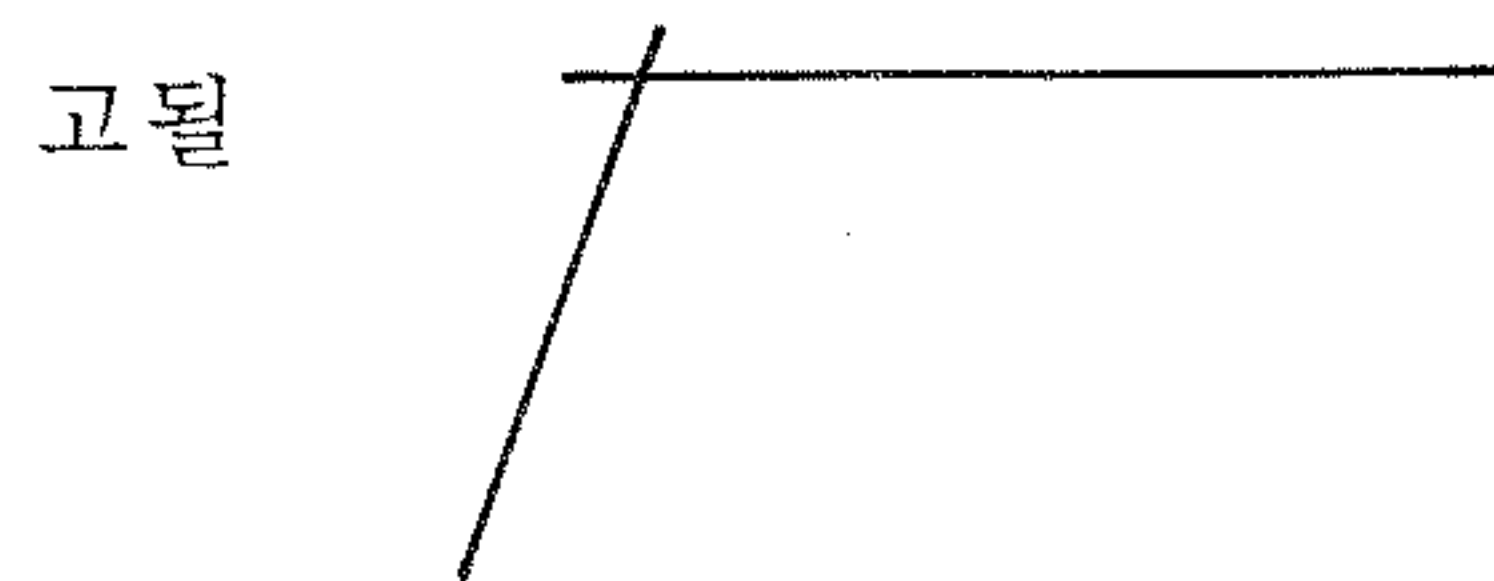


<보기>



5-3-2. ㅓ 모음 붙은 ㄱ받침(ㅓ원칙)

앞문자의 머리에 걸친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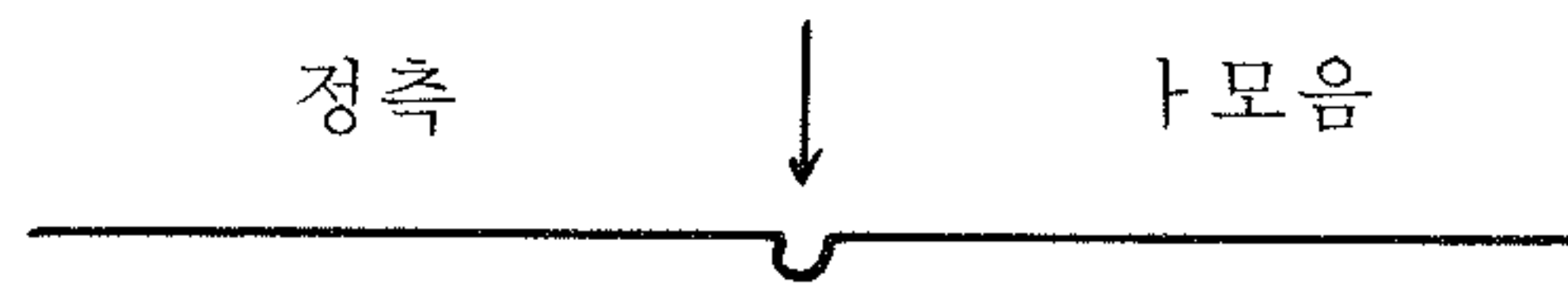


62 동방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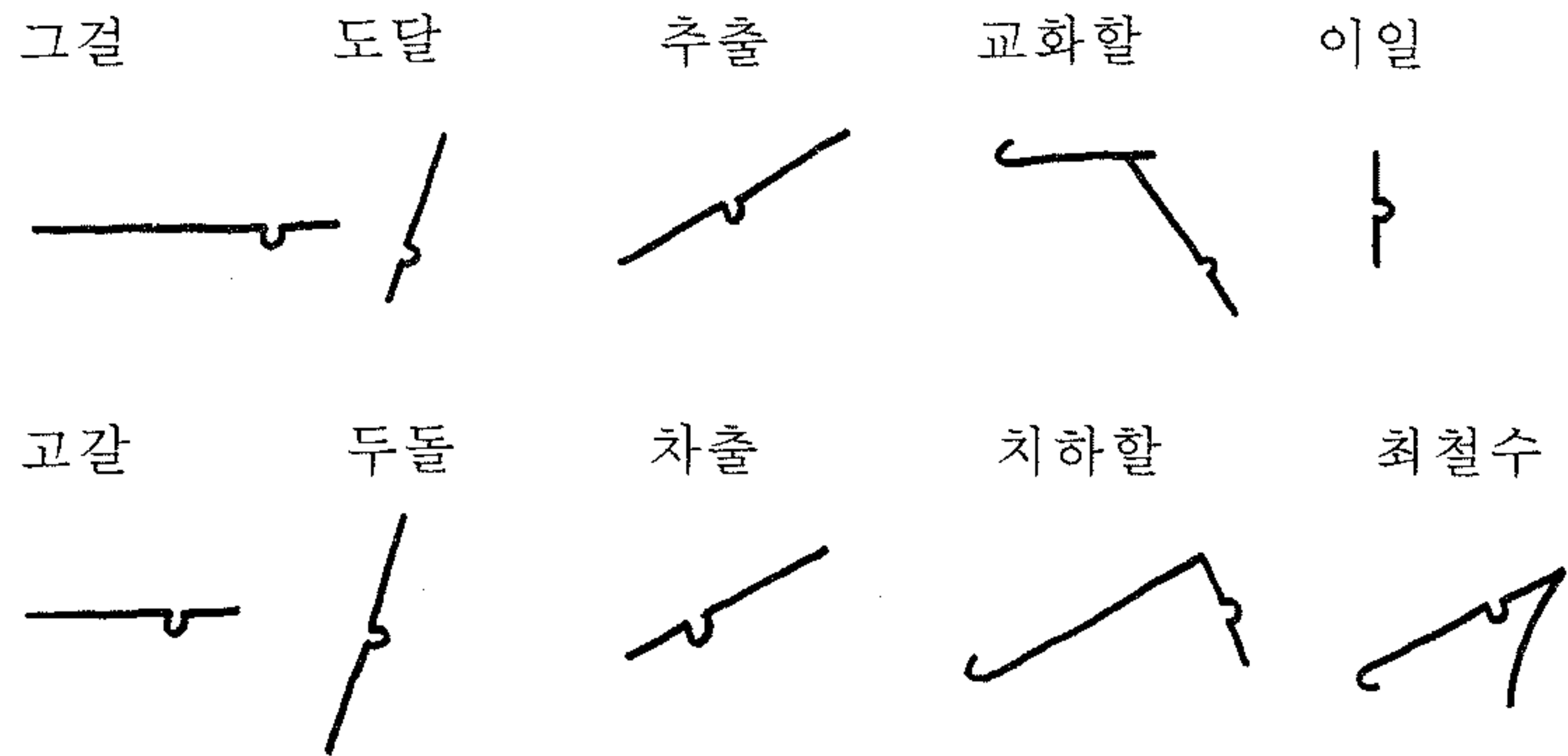
5-3-3. 이어쓰기가 어려울 때(예외)

5-3-3-1. ㅏ모음 붙은 ㄱ받침(ㅏ 예외)

앞문자 끝에서 정측에 반소원을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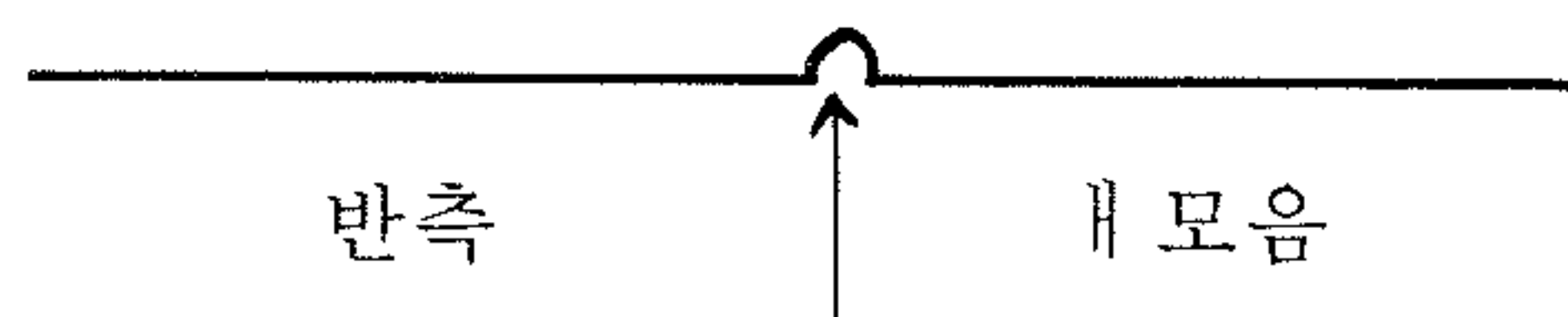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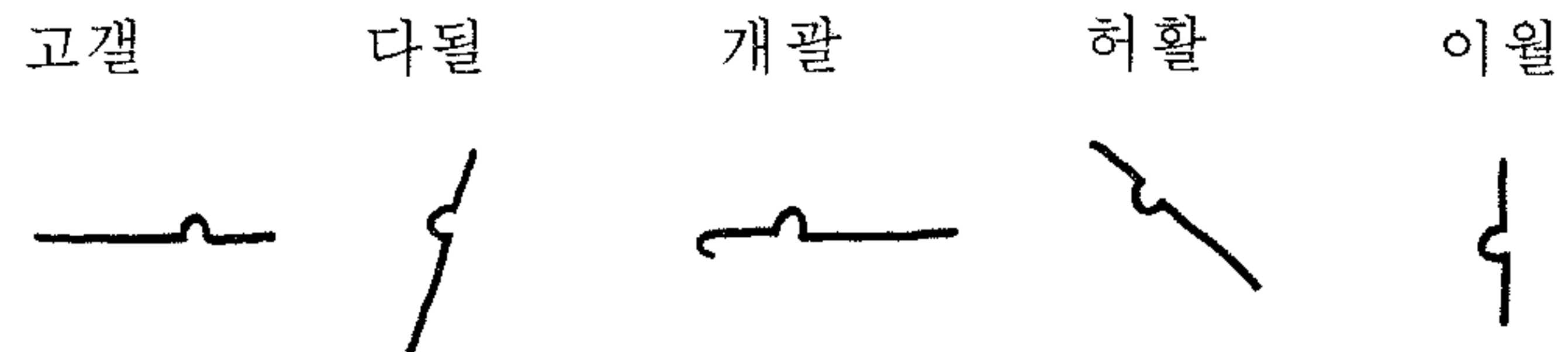


5-3-3-2. ㅐ모음 붙은 ㄱ받침(ㅐ 예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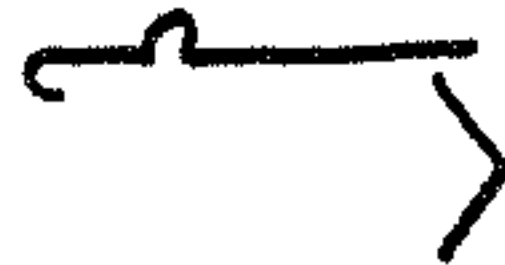























앞문자 끝에서 반측에 반소원을 붙인다.



<보기>



<응용1>

가건물	가결되어	겨울을	가일층
			
개발한다	개발도상의	개천절을	거두절미
			
거실에서	게릴라를	거울을	개발을
			
계열회사를	계절을	고갈돼서	고결해서
			
고달픈	고대광실	고인들을	과실치사의
			
괴결	괴혈병을	교활한	구사일생의
			
*구우일모	구절양장	구중궁궐	귀결해서
			

<응용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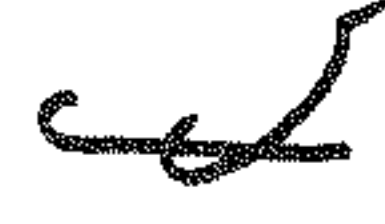
귀일해서



퀘멸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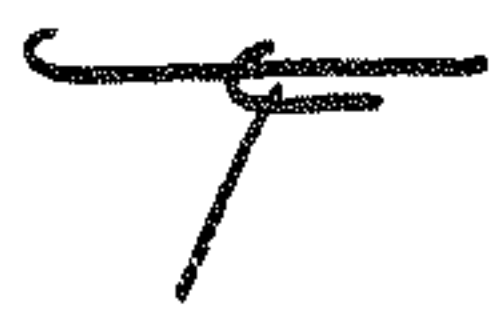
규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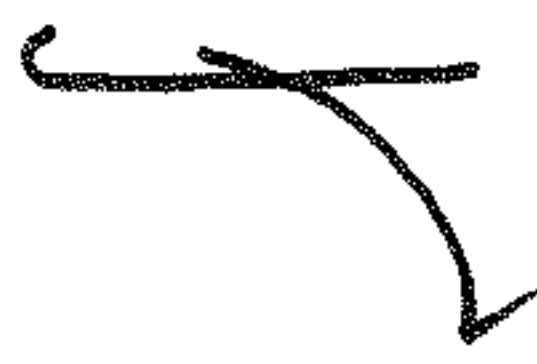
그럴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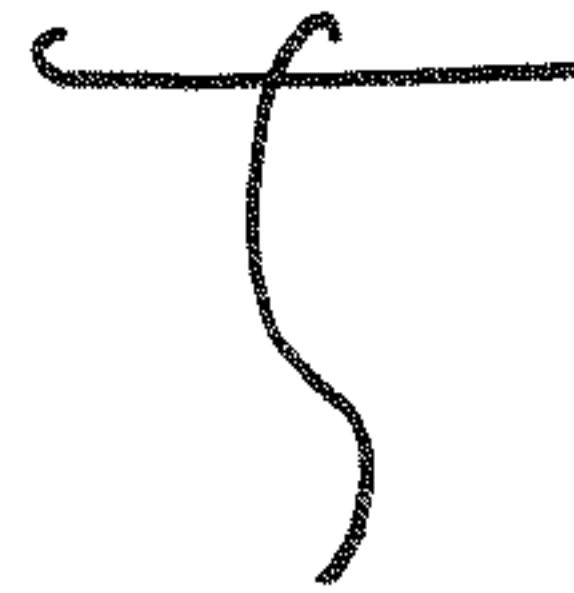
기결될



기틀을



기필코



퀘뚱어



나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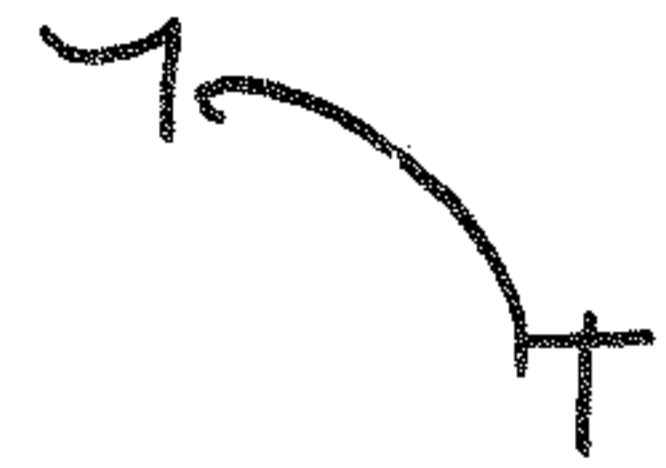
\*나똥굴어



나열된



나이팅게일



나일강



나폴레옹



나프탈린



\*내걸어서



내실위주의



내일모레



너울이



\*너희들



네덜란드



네팔의



노발대발



노벨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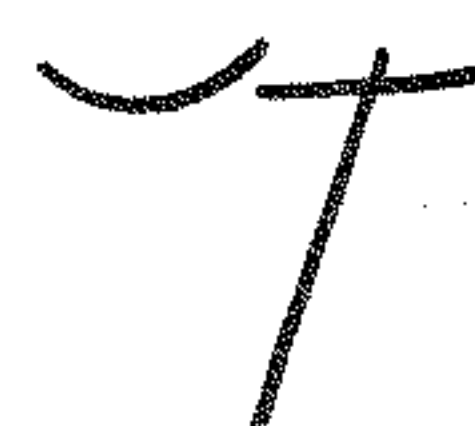
노출광



뇌출혈



누군들



누출사고



<응용3>

뉴텔리



뉴스해설



니켈을



다달이



다수결의



다이얼을



다혈질의



대결해서



대동단결



떠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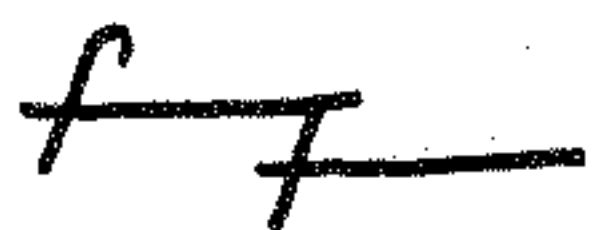
\*더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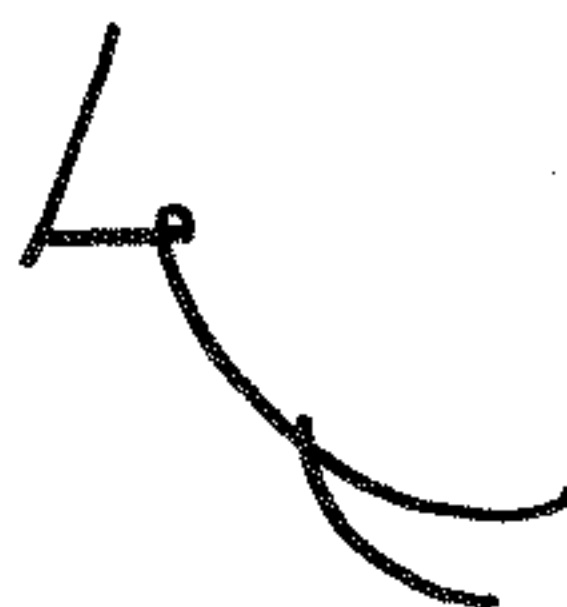
더블린



데굴데굴



도깨비불



도로건설



도열병



\*되살아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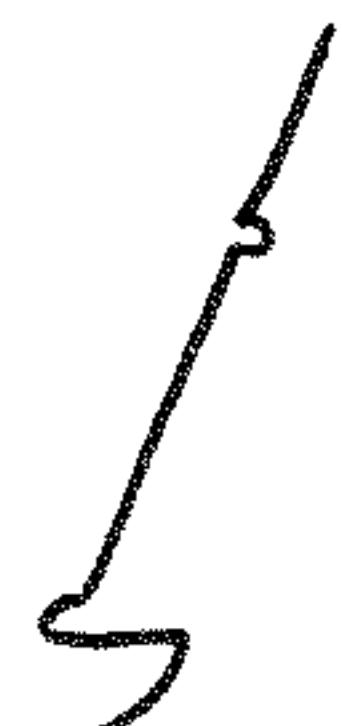
되풀이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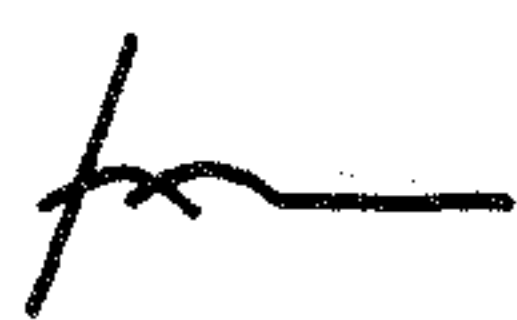
두개골을



두들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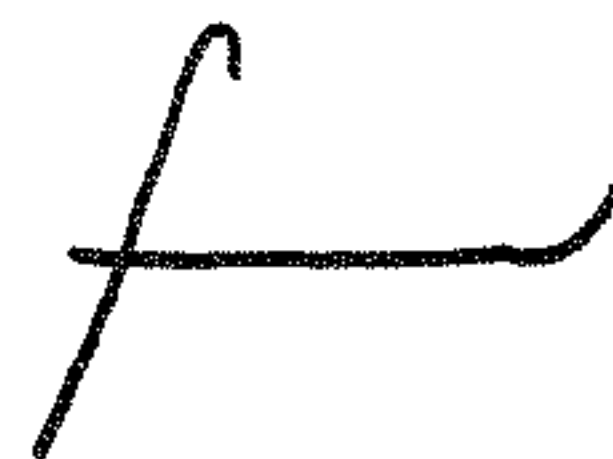
두말말고



두문불출



뒤꿍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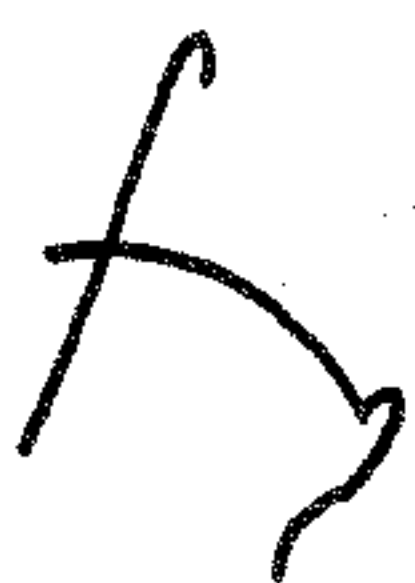
뒤떨어져서



뛰어들어



뒤틀려서



뜨개질이



드물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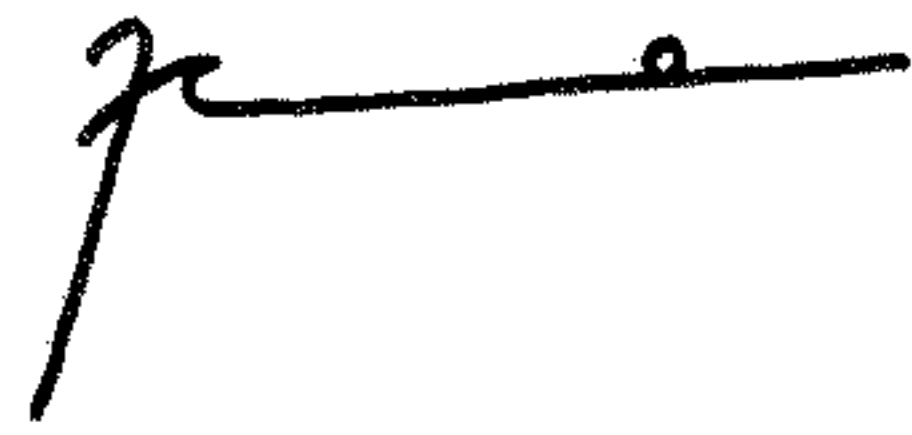


<응용4>

디딜방아



디젤기관



라이벌의



로울러를



리바이벌해서



마멸해서



\*리사이틀



마닐라에서



마젤란의



매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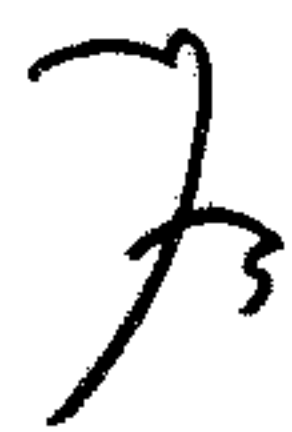
매실주를



머나멀다



머리말에서



머풀러를



메틸알콜을



며칠을



매별하다



모골송연



모노레일



모놀로그



모델라인



모멸해서



모세혈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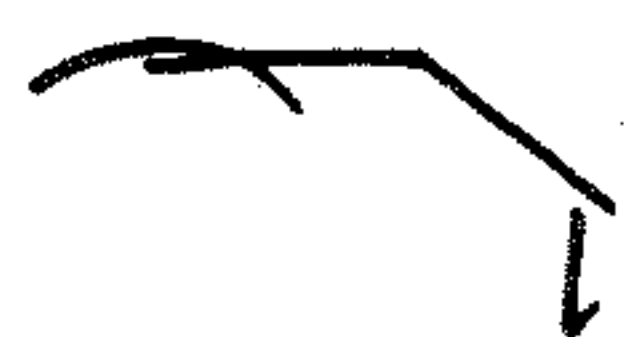
모월모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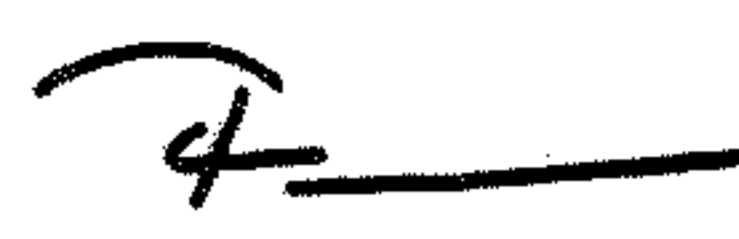
묘혈을



무골호인을



무단결근



무단외출을





<응용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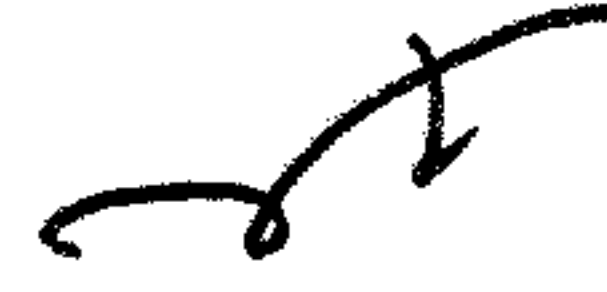
무대생활을



무질서를



뮤지컬을



미네랄을



미늘을



미발달



미발행의



미주알



고주알



바른말해서



배달거래의



빼돌려



베럴당



배얹이



배열을



배탈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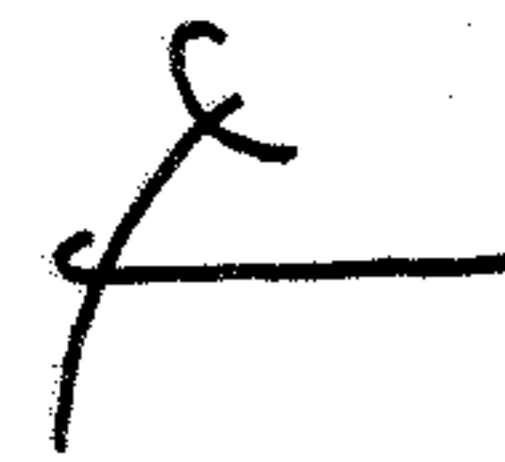
버선발



베네수엘라



벼슬길



보결생을



보궐선거를



\*보일러를



보호관찰을



부결된



부산물을



부채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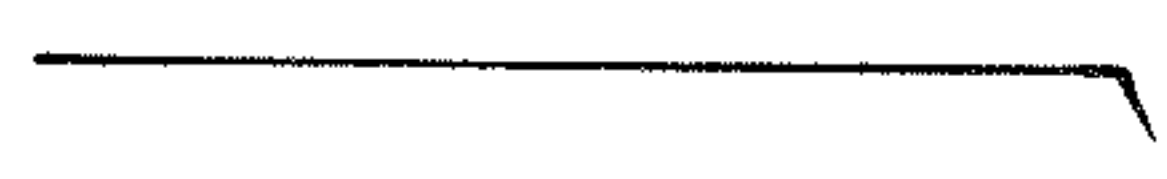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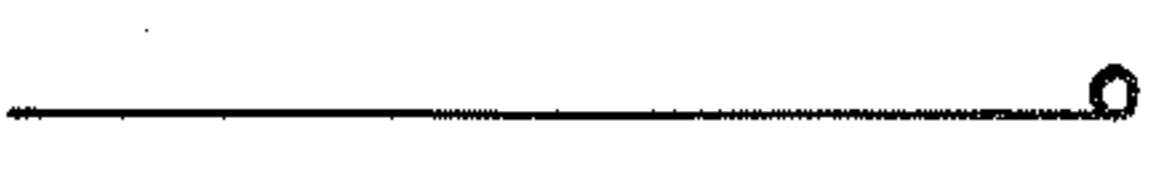



부활절을



브라질의



조사약기법(3)	
	(하줄로 2mm 빠침) ~은, ~가
	(정측끝에 소원) ~는, ~이
	(반측끝에 소원) ~에는

<응용6>

비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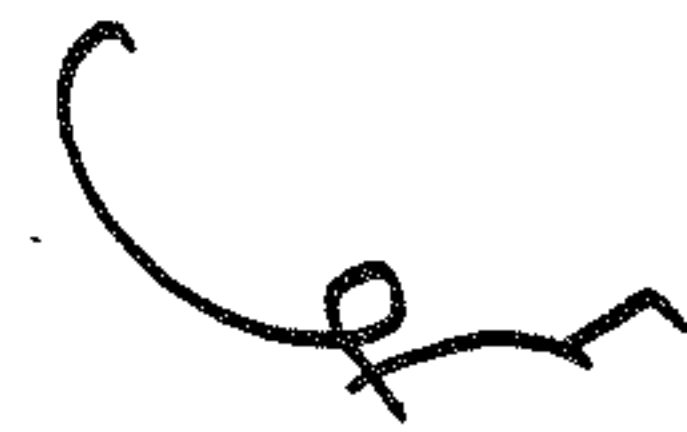
비능률은



\*비서실은



비행물체가



비상조치가



사방팔방은



\*사분오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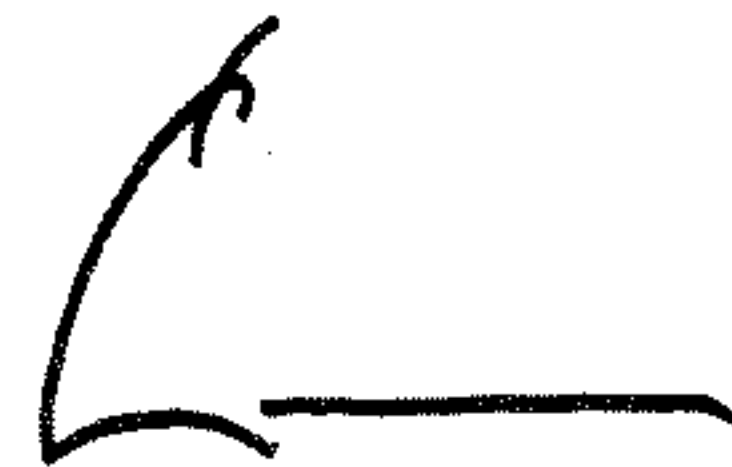
사생결단은



사생활은



사실무근은



\*사이클은



사절단은



사채가



사통팔달은



사할린은



사회생활은



사필귀정이



새끼줄은



새생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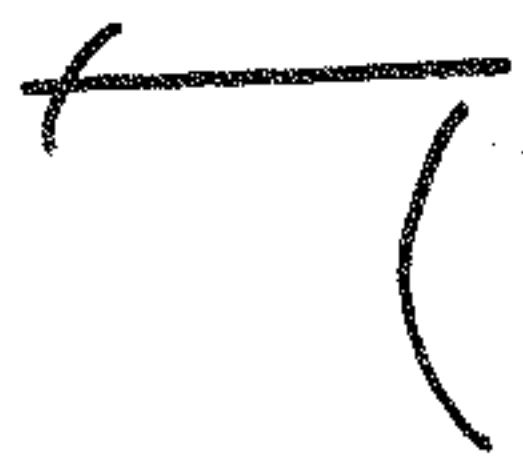


새질서가



<응용7>

서글픈



서둘러



서술이



서열이



서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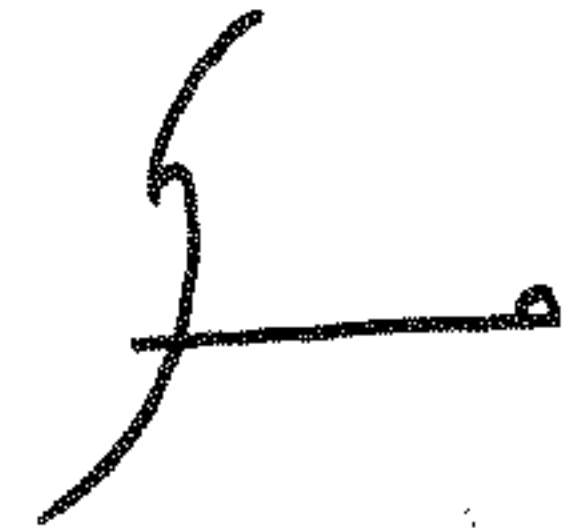
세계일주는



세계는



소리글이



소멸이



소용돌이가



소유물이



소화불량이



쇠뿔이



수술절차가



수양버들이



수출이



스타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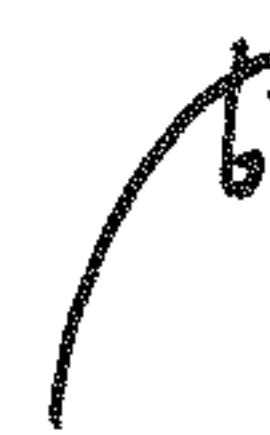
시골에는



시사해설은



시월에는



사월에는



씨줄은



시청률은



아날로그가



아빨싸



아세틸렌은



아일랜드는



애꿎는



<응용8>

애벌레는



야들야들



어깨걸이



어플어플



어불성설은



에타늘은



여울에는



여필종부



예결위에는



예절에는



오뉴월에는



오리지날



오매불망



오불관언의



오일달리는



왜말은



외아들이



외출중에는



요구불은



우물에는



우물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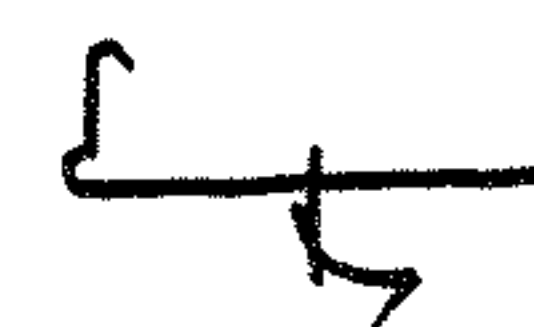
우여곡절이



우편배달이



위기일발의



유니버설한



유명무실의



유물사관이



유실물센타는



<응용9>

유인물에는	의결된	의사일정이	의술인술
			
이끌어온	이니셜이	이데올로기	이열치열
			
이월에는	이율배반의	이퀄은	이팔청춘
			
자결주의	자매결연	자물쇠는	자연소멸
			
자율은	자활을	재떨이가	재발견을
			
저녁놀이	가물가물	저울질을	*제일인자가
			
제철소에서	조달청장께서	좌충우돌	주말여행을
			

<응용10>

주일에배를



쥐방울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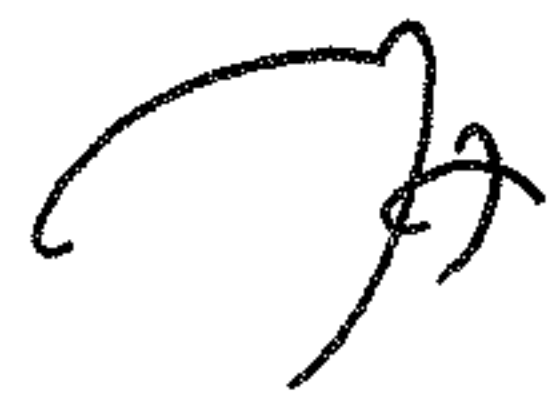
지난날에는



찌들은



지리멸렬



\*지방질은



\*지하철에는



체벌을



초가을은



초열흘날



초월을 해서



최면술을



추돌사고가



추출해서



치밀한



카르텔을



카니발을



카운슬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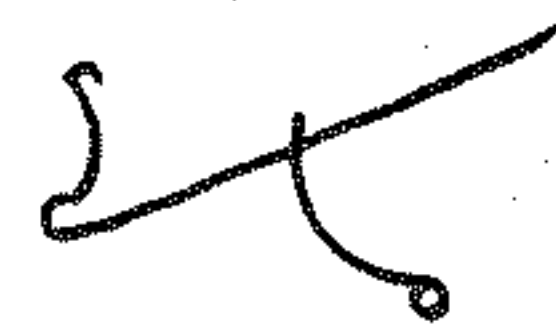
\*카탈로그에는



코펠을



캐치볼에는



\*케이블에는



코걸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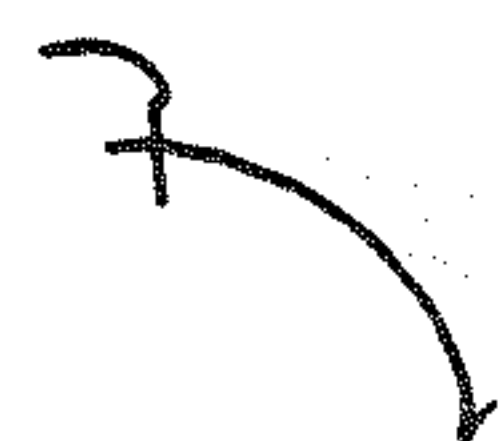
쾌활한



타결된



\*타이틀을



\*터널을



토론회는



<응용11>

토산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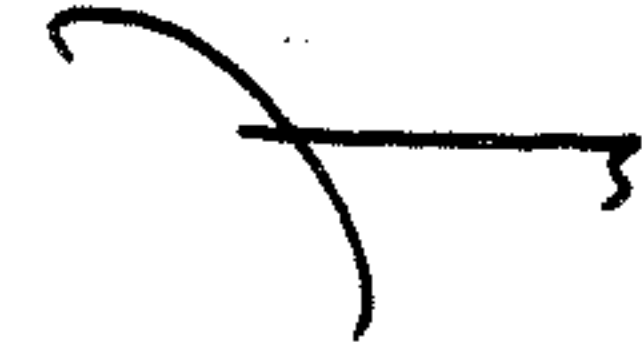
투철한



퇴물이



티끌에서



파라솔에서



파멸의



파스텔의



파열된



파인애플에는



파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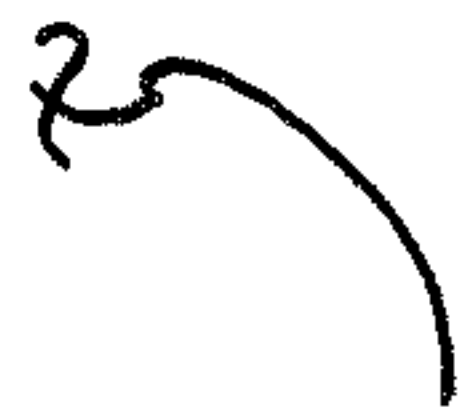
폐물에는



퍼즐을



페널티



페달의



폐기물이



폐일언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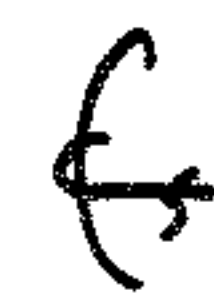
폐활량이



포플러에는



표결해서



표찰을



피눈물이



피차일반



하늘에는



\*하루살이의



하물며



하필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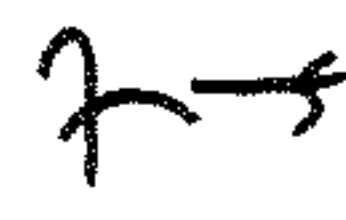



해질 때의



허송세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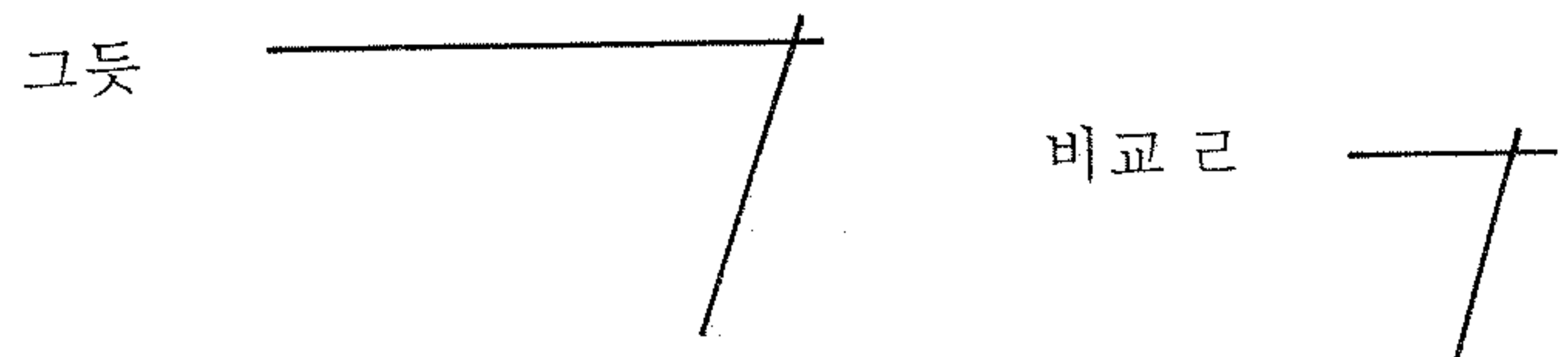
<응용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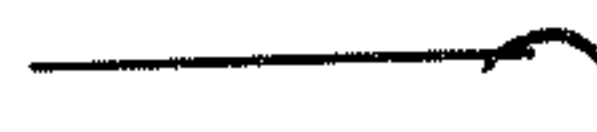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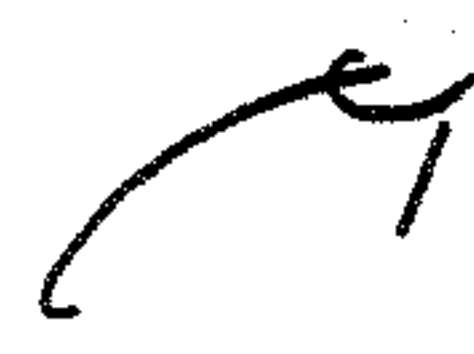






헤어질 때를	호텔에는	효율이	휘날리는
			
휘슬을	휴일은	희멀건해서	희열을
			
희성인 줄이야	*히말라야의		
			

5-4. ㅅ받침 이어쓰기(ㄷ, ㅈ, ㅊ, ㅌ, ㅎ, ㅆ)

5-4-1. ㅏ · ㅑ모음 붙은 ㅅ받침(ㅏㅑ원칙)

앞문자의 꼬리에 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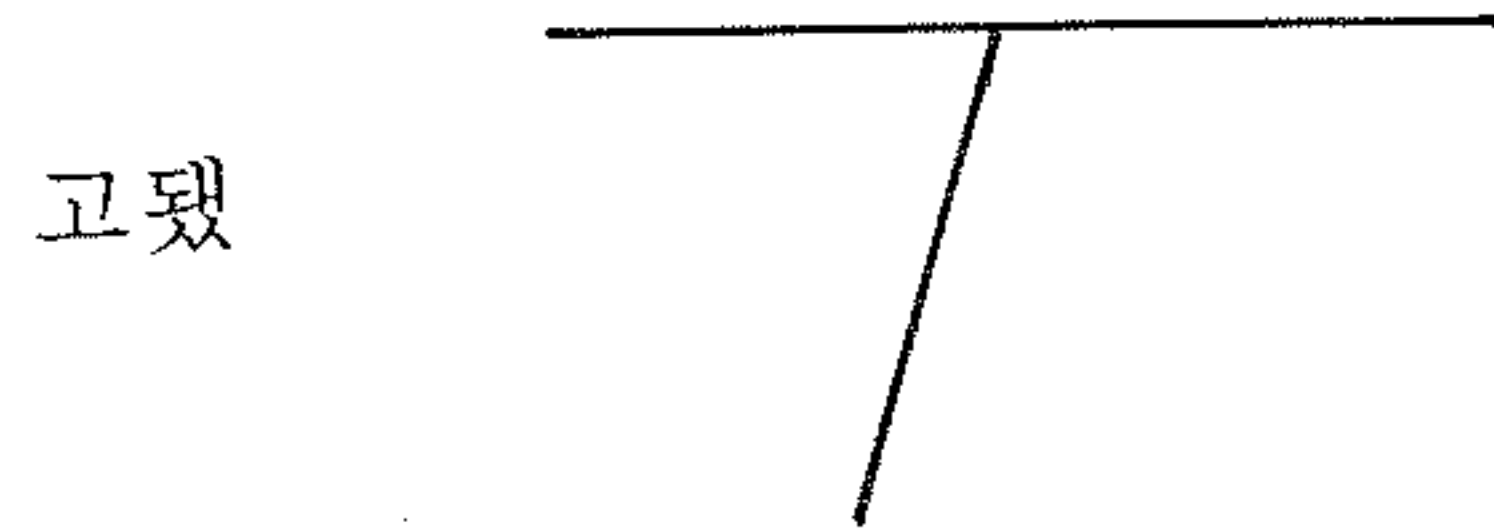


<보기>	나갔다	이것	따랐다	그맛	노젓다
					
	가마솥	해돋이	내걸	지냈던	뚜렷이
					
	*계셨어요	깨졌다	구졌다	하였구나	버렸다
					



5-4-2. ㅐ모음 붙은 ㅅ받침(ㅐ원칙)

앞문자의 허리에 반소원 없이 붙여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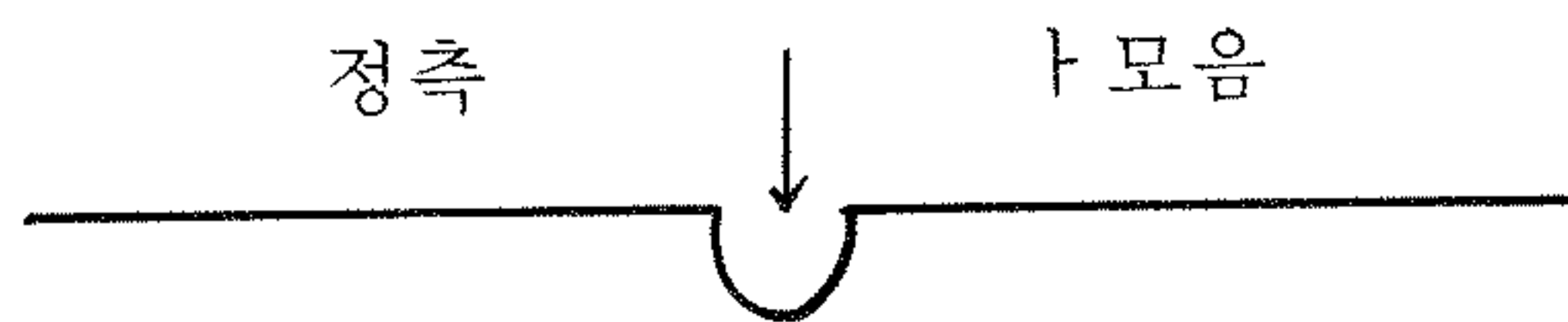
<보기>

주졌다	하졌다	오렸다	노랫말	어쨌든
보냈던	내뺐다	헤맸다	구해왔다	되겠다

5-4-3. 이어쓰기가 어려울 때(예외)

5-4-3-1. ㅏ모음 붙은 ㅅ받침(ㅏ예외)

앞문자 끝에서 정측에 ㅅ받침 2배 이상의 큰 반소원을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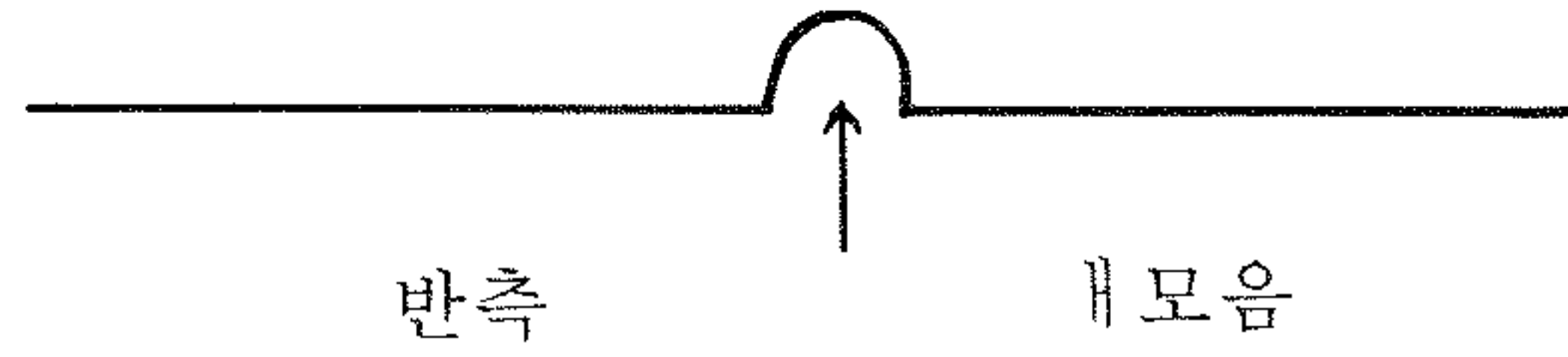


<보기>

고갈	그것	따뜻	그같이	기껏해야
그곳	나와있고	두뚝	가치찾아	이의 있다

5-4-3-2. ㅞ모음 붙은 ㅅ받침(ㅞ 예외)

앞문자 끝에서 반측에 ㅞ받침 2배 이상의 큰 반소원을 붙인다.



<보기>

고갯	가졌다	초대됐다	다됐다	누이 왔다
외웠다	이혼했던	고갯길	치하했던	뒤뚱어요

<응용1>

가마솔의	까망게	가듯이	가졌다고
가놓고	가룻유다	가렸다	*가셨어요
가졌다	가봤다고	가시밭을	거짓말을
꾸짖을	귀엣말을	기다랗다	나흔날에는

내놓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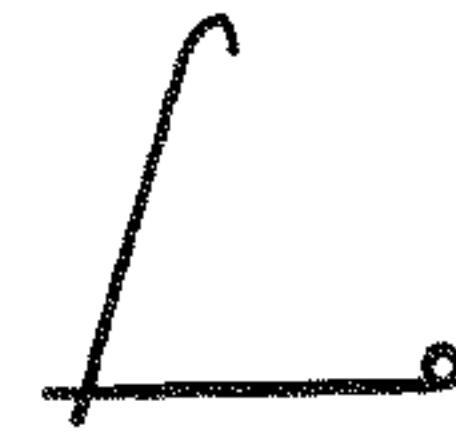
노랗다



내뺄을



뒤끝이



마지못해



무릇



바깥양반



빼앗긴



부딪쳤다



부르짖는



비슷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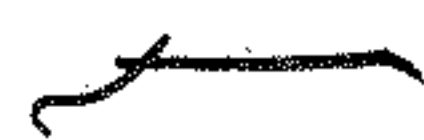


사흘날에는



<응용2>

애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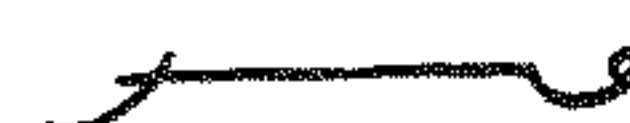
애뜻한



야릇한



어긋나는



어느 것은



어떻게



어릿광대



어엿한



어쨌든



이까짓것



이것저것



이렇게 해서



이맛살을



이웃사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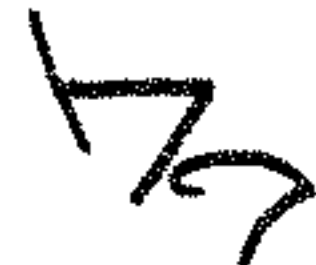






이튿날에는



주춧돌을



캐묻고는	코끝이	파랗게	하겠다면서
			
헤맸다고	호젓해서	*화젯거리	후려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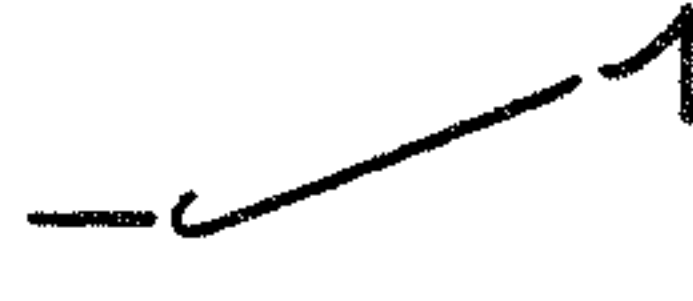


5-5. ㄹ 받침 이어쓰기(ㄹ, ㄹ, ㄹ, ㄹ, ㄹ)

5-5-1. ㄷ · ㅌ · ㅊ 모음붙은 ㄹ 받침(원칙)

자기문자 그대로 앞문자의 끝에서 살짝 띄어쓰며 예외가 없다.

고급

<보기>

가감	보급선	소감	보람	차츰
				
아침밥	수렵장	가렵다	거침없이	수협
				
보냄	도마뱀	보칩니다	아쉽게	스냄
				
사کم성	모뎀	아름	자연샘	보탬
				

확인 : 앞문자 끝에서 살짝 떨어진 문자가 무슨 모음인가 살펴보면 정확히 확인된다.

반소원 없는 ㄷ모음이면 ㄷ ㄷ ㄷ ㄷ 이고  
반소원이 정측에 있는 ㄷ모음이면 ㄷ ㄷ ㄷ ㄷ 이고  
반소원이 반측에 있는 ㄷ모음이면 ㄷ ㄷ ㄷ ㄷ 이다.

<응용1>

가깝다	까다롭게	가려움을	가볍게
			
*가입절차	개업을	거침없이	고맙다
			
고집을	괴롭다	꾸밈없이	귀엽다
			
기갑부대	기념패	기쁨을	나눗셈
			
나침반	내뿜는	노동조합	노여움
			
뇌염이	누범자를	느낌이	다듬어서
			
다름없다	다음은	다정다감한	때마침
			

<응용2>

더럽다



도합



\*되씹어서



두려움이



두텁다



드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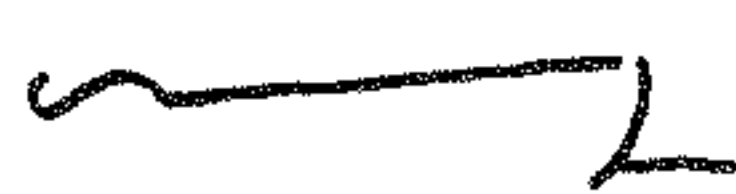
리셉션



마침내



매끄럽게



매점



모범답안



모처럼



무념무상



무렵에



무임승차



미남청년



바람맞아



배금주의



배당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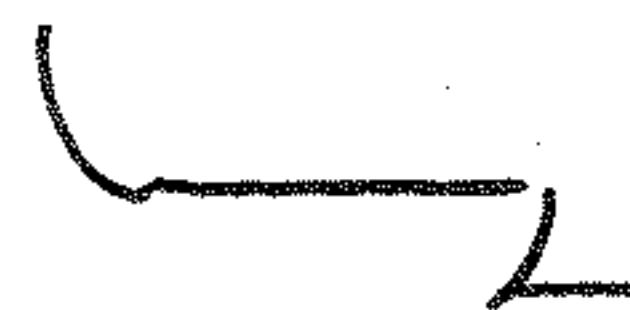
보금자리를



보험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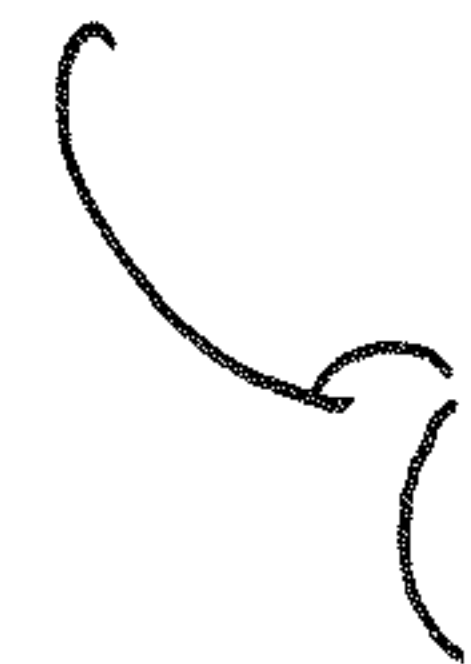
\*부끄럽게



부업본업



비매품



비바람



사기업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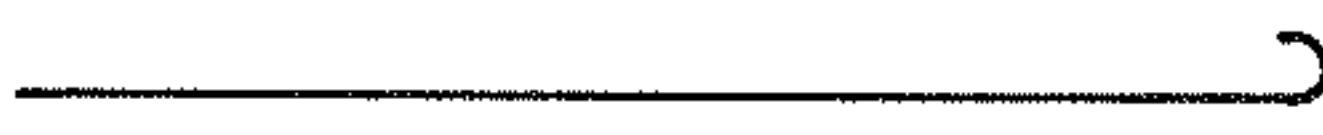



사람답게



사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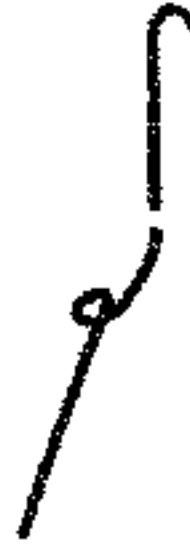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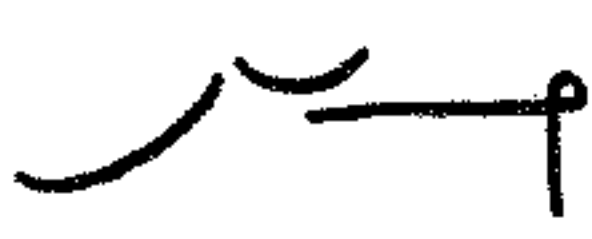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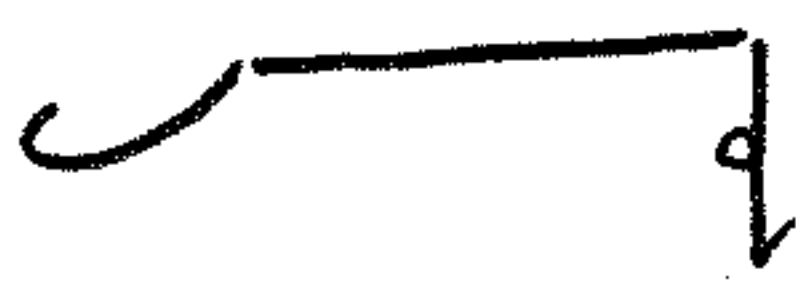





조사약기법(4)	 (정측에 반소원) ~에, ~께
	 (반측에 반소원) ~에게

<응용3>

싸움터에	새김질에	새샘에	서슴없이
			
세금에	세습체제에	소금에	소금입법에
			
소요금액에	소탐대실의	수출입업에	스텝에게
			
시험관에게	아랫사람에	아랑곳없이	야심가에게
			
어깨춤에	어렴풋이	어림없는	어음발행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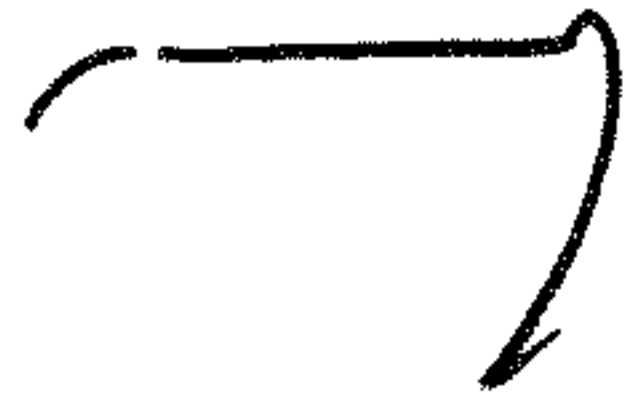
<응용4>

여념이	여쭙겠다	예금통장에	예습을
			
외람된	외자도입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염한	우남공원	우라늄을	위업에
			
위법을	위임장에	위험부담을	위협을
			
유급임원을	유럽여행이	의연금을	의협심을
			
이념분쟁에	이듬해에	이합집산을	자립경제를
			
자금과에	자급에	자영업의	*재검토를
			



<응용5>

저금리를



저임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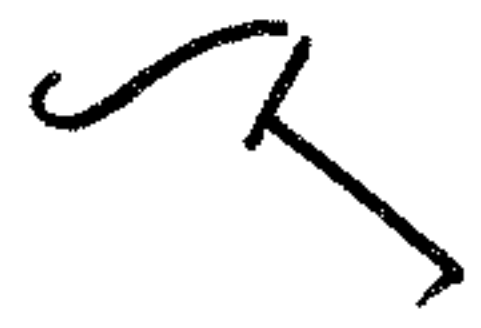
\*제라눔에



조업재개에



좌담회의



\*주님께서



주제넘게



지겹다



지압요법



차림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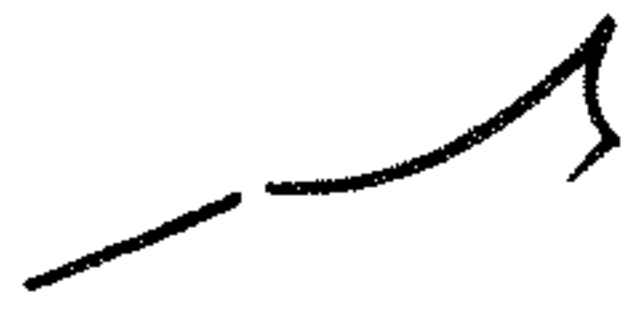
채집자에게



체불임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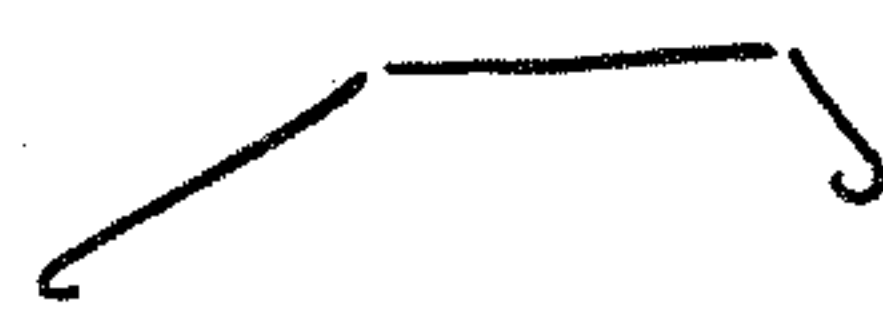
초음파의



추렴해서



취급함에



취업보장을



쾌남아에게



타임즈에는



튀김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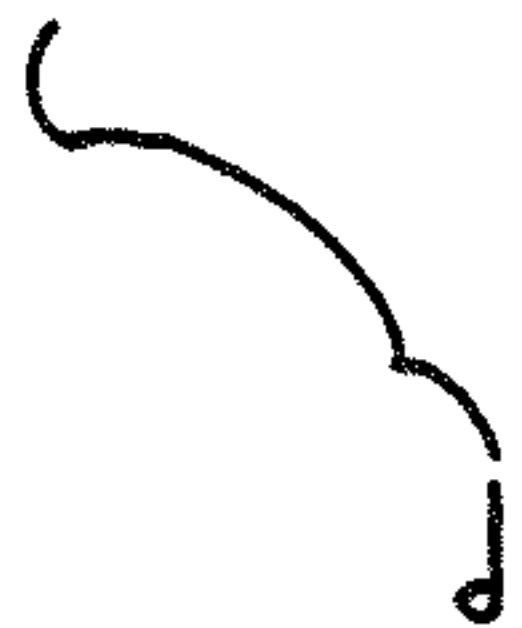
트랩을



파렴치한



파트타임이



폐습에



폐품에



포함해서



푸대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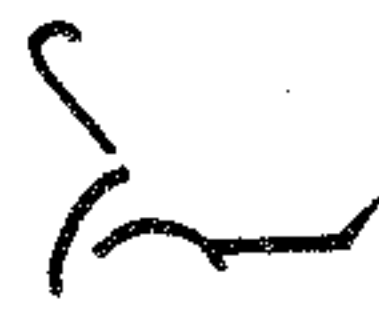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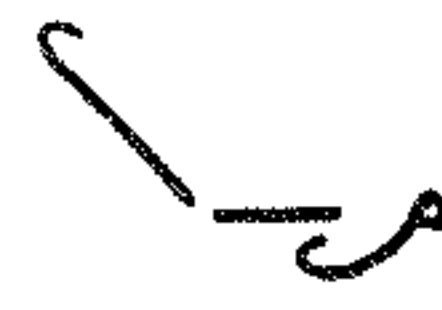
피뢰침에



하급생에게



<응용6>

*하느님께	하루아침에	하염없이	해답의
			
해삼명계를	해협에는	허심탄회	해엄을
			
호흡해서	화답을	화룡점정의	화염방사
			
화합에	회답에서	효험이	휘파람을
			
휴업을	희랍에는	회갑연에는	
			

참고 : 「희, 히」는 첫자가 아니고 둘째자 이후에는 「이」로 표기하여도 좋다.

5-6. ㄱ받침 이어쓰기(ㄱ, ㅋ, ㆁ, ㄷ)

5-6-1. ㅏ · ㅑ · ㅓ모음 붙은 ㄱ받침(원칙)

앞문자 끝에 이어 쓸 문자의 머리를 내민다.



<보기>

호박죽	다목적	차익	대학교	과학적
구역	노력	개혁	규격	의욕적
구획	시책	대책	수확	어획
주객	그객	고액	스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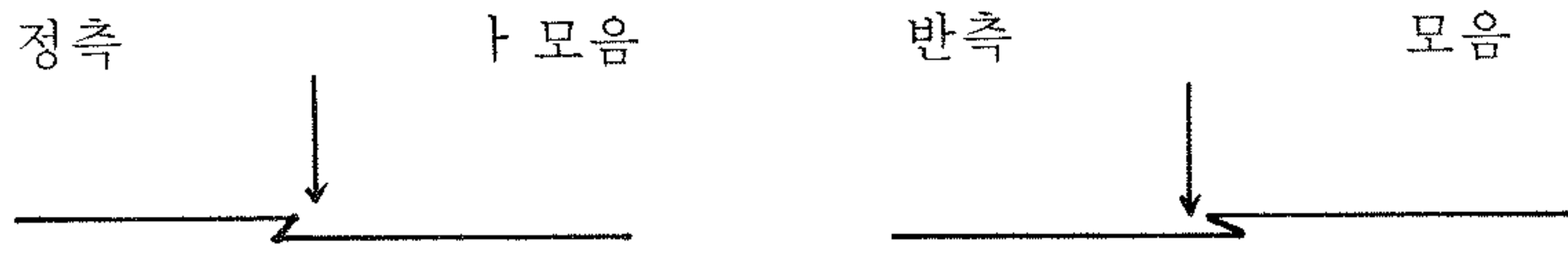
확인 : ㅏ ㅑ ㅓ받침과 마찬가지로 앞문자 끝에서 머리를 내민 문자가 무슨 모음인가 살펴보면 정확히 확인된다.

반소원 없는 ㅏ모음이면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이고  
반소원이 정측에 있는 ㅑ모음이면 ㅑ ㅓ ㅕ ㅗ ㅛ ㅜ ㅠ 이고  
반소원이 반측에 있는 ㅓ모음이면 ㅓ ㅕ ㅗ ㅛ ㅜ ㅠ 이다.

5-6-2. 이어쓰기가 어려울 때(예외)

5-6-2-1. ㅏ모음 붙은 ㄱ받침(ㅏ 예외)

앞문자 끝에서 ㅏ모음은 정측에, ㅓ모음은 반측에 날카로운 갈고리 형태로 세 문자를 쓴다.



<보기>

정측	ㅏ 모음	반측	ㅓ 모음
가각	가객	고국	고객
개국	과객	도독	차축
화학	이익	대독	추축
후학	따닥	두덕	배차책임

이상으로 받침의 이어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다.  
 각 받침의 이어쓰기는 서로 간에 명확한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명제 아래 개성이 뚜렷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점을 잘 인식하고 단어를 통해 충분히 연습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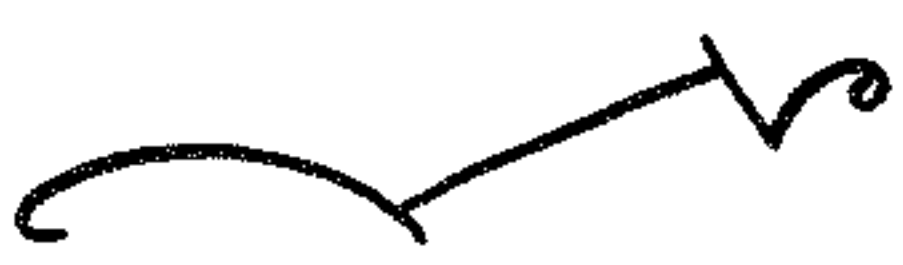



















<응용1>

까닭에	가락국수를	가속도에	가약이
가족에	가축사육을	가격에	*가지각색의
가책과	가택수색을	개각을	개국을
개혁은	가룩해서	거룩해서	거액을
거역해서	계곡을	계락을	계책을
계획은	괴이쩍은	괴팍해서	교각을
교육청에	구색을	궤짝에서	귀국중에

<응용2>

귀족이	규격에서	그럭저럭	기각이
기력을	기백은	기획은	나약해서
내각각료의	내려찍는	내려찍은	내륙국가가
노력부족에서	누락된	다각적인	대가족의
대책이	도덕이	도벽을	도약해서
뒤축에는	마력을	*매국노를	매혹적인
모색을 해서	모욕을 해서	묘책이	무식해서

<응용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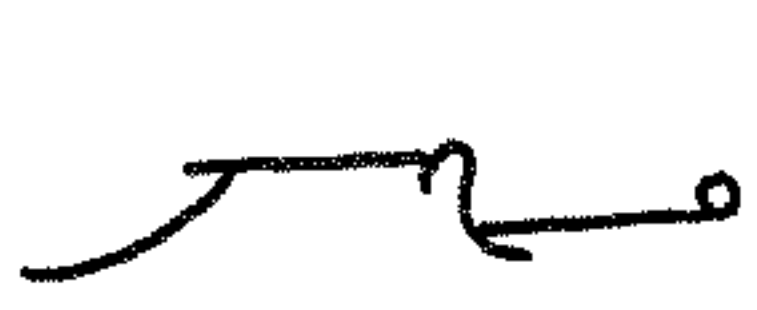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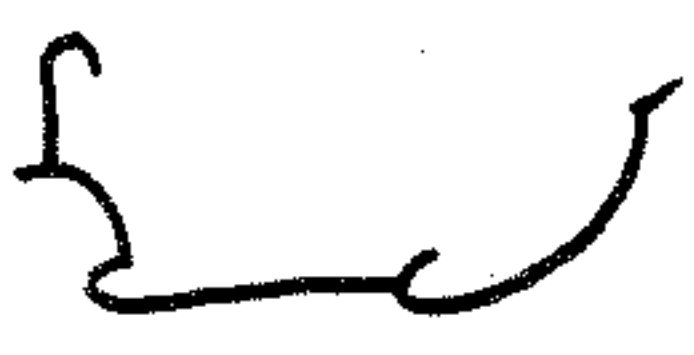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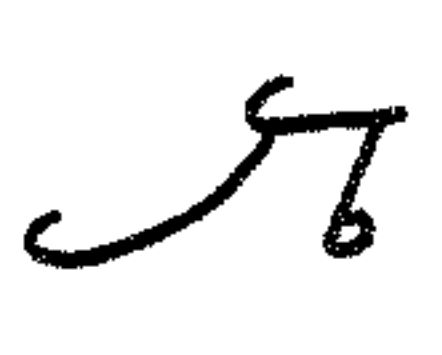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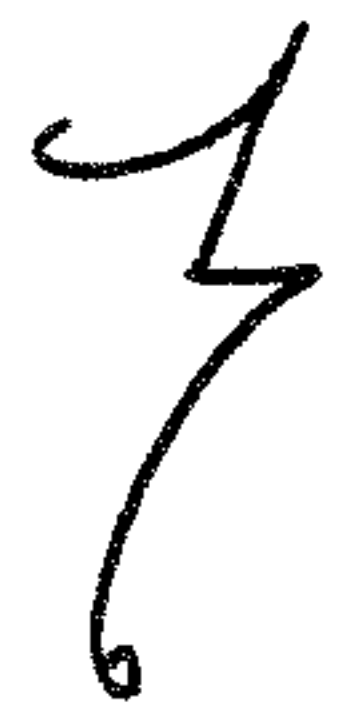


무역역조의	무역적자의	무역흑자의	무자격의
			
미개척의	미국에	미식축구의	미역국먹다
			
미취학자는	바닥세에	바짝바짝	배격해서
			
빼먹었다	배척했던	뼈꼭새가	벼락부자에게
			
부엌에서	*부익부의	부적격해서	부탁해요
			
비록	비약해서	사각지대에	사격개시를
			
사력을	사색을	사육제를	사칙에
			

<응용4>

사택에서	새벽에	새싹이	새색시가
서약서에	*서적코너에	서쪽에	세탁기가
세탁을	소극적인	소득세액	쇠가죽을
수도꼭지에	수박이	수백만원의	수액을
수직의	수확책에서	수확기에	시력에
씨족사회에	아낙네가	아래쪽은	야학은
어리석은	어색한	어족어획	여객기는



<응용5>

여력이	여백이	여학교가	예각이
			
예복에는	예속적인	예식장에는	예약에는
			
예측은	오곡백과는	오색무지개는	오직
			
외곽에는	외국유학을	외척배척을	요약해서
			
우뚝한	우락부락한	위독해요	위력적인
			
위탁교육을	유가족의	유격대에는	유독가스는
			
유유자적한	의식주를	의학계에서	의혹이
			

<응용6>

이석연선생

이색적인

이해력을

\*자각하자

자책을

자학을

재력이

재촉해서

저녁때에

주택부족

\*제각기의

제목선정을

제뭉찾기

\*조국애가

조반석죽의

조약체결의

좌석에서

좌우익의

좌책감에

주객전도의

주식회사는

쥐어박는

\*지각변동의

\*지각대장에게

지략을

지식욕구를

세계가족의

차곡차곡

<응용7>

시대착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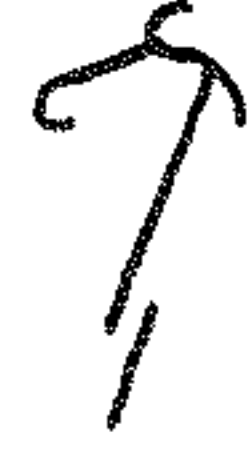
채식주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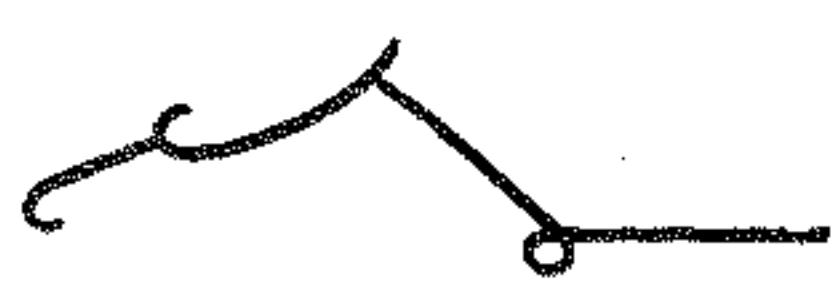
채찍에



채택됐던



체육회관



초복더위



초식동물



최적격자



추격자에게



추락직전



추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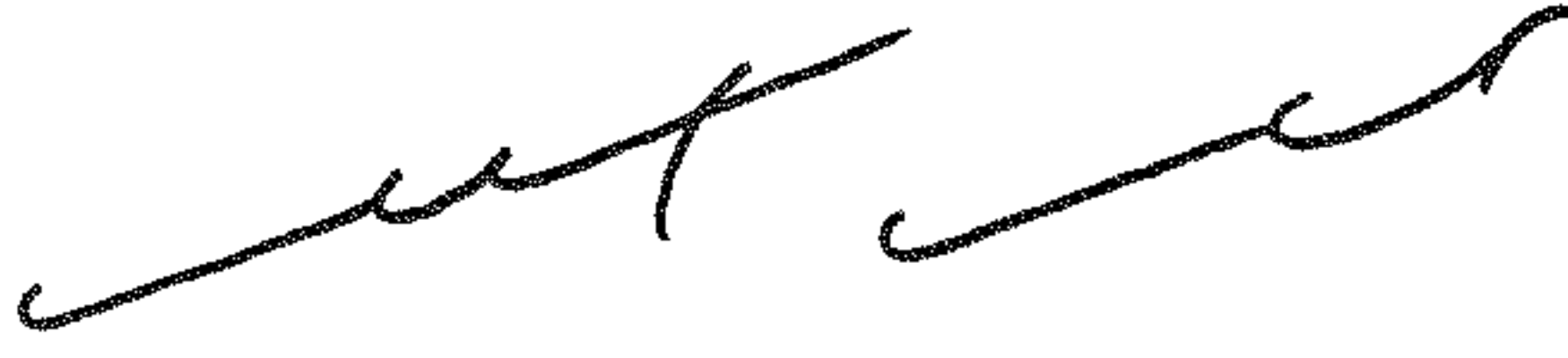
추측을 해서



취득자가



치약치솔



치욕적



케케묵은



쾌락은



쾌속정에



쾌적한



크낙새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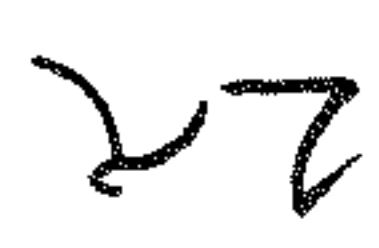
타격자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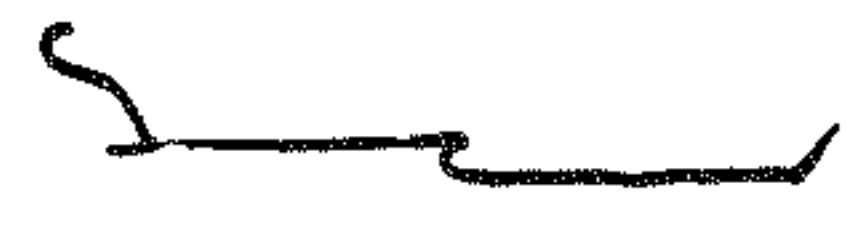
타박해서



타액검사를



태극기를



터득해서



토닥토닥































토막극에



토막이



<응용8>

토박이가	톡톡톡	퇴각을	퇴색해서
			
퇴역장군	*퇴학불가	투석전을	튀각을
			
트랙터를	파격적인	파죽지세의	패색이
			
폐백을	표백제를	피혁업계를	하객이
			
하직을	해석해 봐요	호떡을	화백께서
			
회색이	회백색의	희색만면	희소식을
			
고관대작이	고작해서	고전문학이	다원적
			

<응용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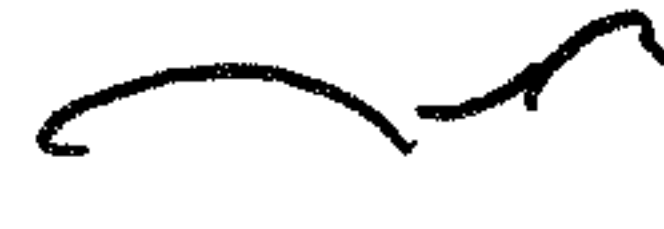
대문짝만한



대한민국은



미안쩍은



사관학교에



사륙배판에



세원포착



수만관객의



시원한



오렌지 넥타를 마시자



시한폭탄처럼



위험한데



마약단속반에



어민대책을



오목렌즈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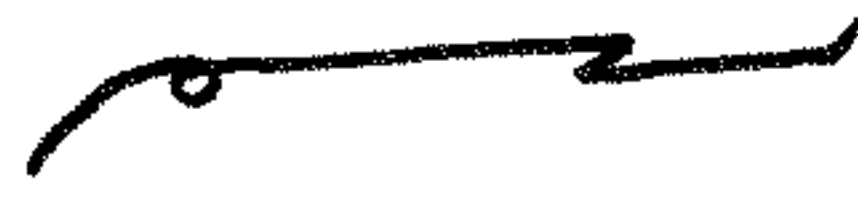
자기만족의



저작권을



주권국을



지적소유권을



채권국에

채무국의



추진세력을



투자신탁에



표면적



프리덕션에는



호전적인



가격변동에



가맹국에



<응용10>

가정학과에는



수색영장을



고등학생이



구약성서에



대동맥을



대응책을



벼락공부는



부적당한



부양가족의



비동맹국에



비망록을



수랭식의



예방책이



자생적인



주경야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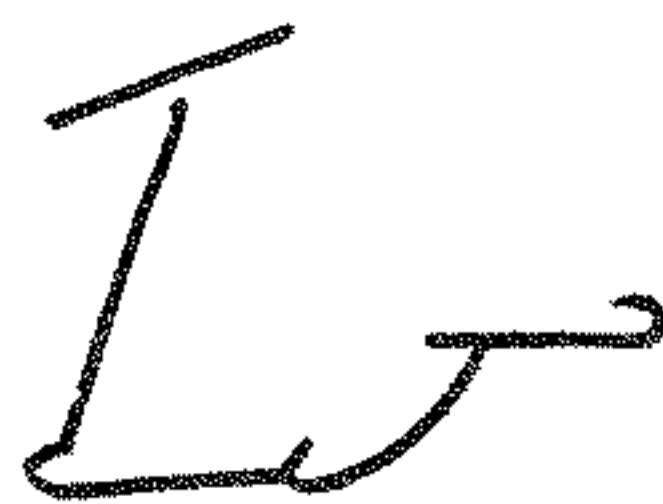
주택공사에



주황색의



초등교육국에



하극상의



해장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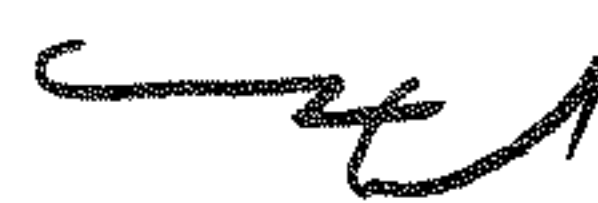
호황국면에



카톨릭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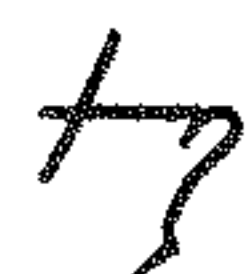
교각살우의



기술직에



다갈색의



대경실색의



대량학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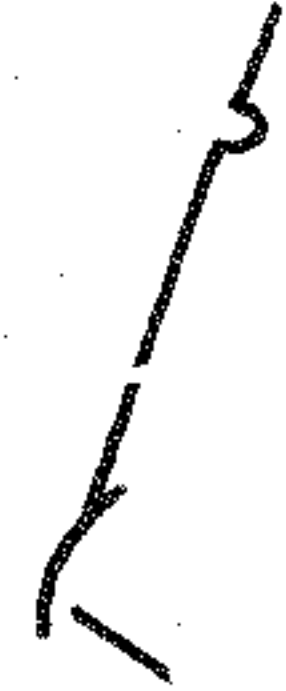


대서특필의



<응용11>

떠들썩한



모닥불을



부득불



수출목표가



저녁놀이



포복절도



도둑질을



물리적인



부실공사



수출실적은



조약돌을



포악하여



매출액의



바늘방석에



세탁물을



수출액은



좌불안석



푸닥거리를



매달 획득



바둑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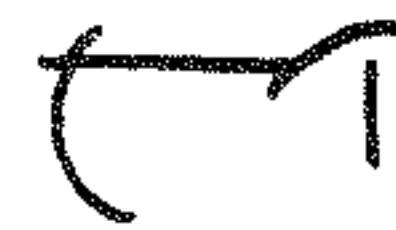
수력발전애



우여곡절을



포괄적인



화덕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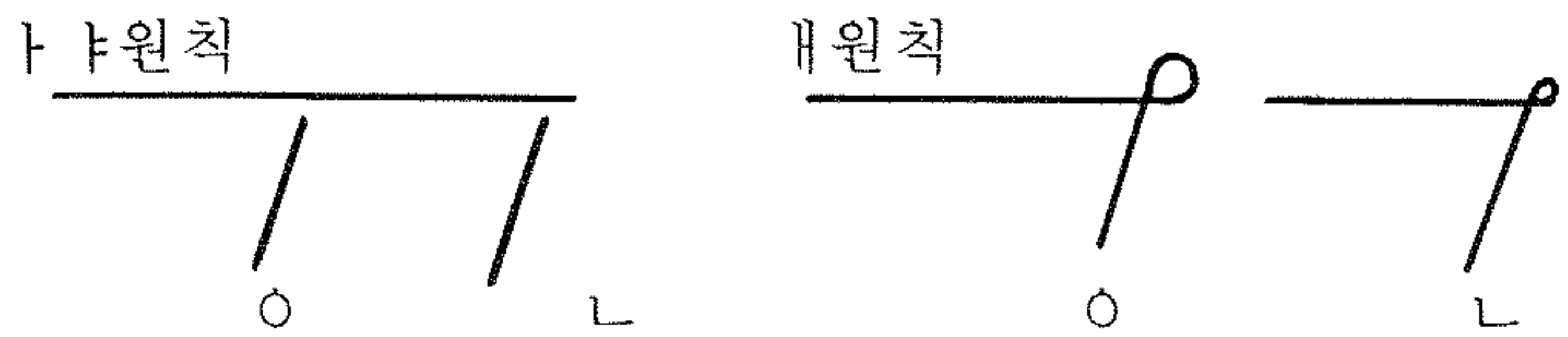


받침 이어쓰기 총정리

받침 이어쓰기를 할 때의 요령은 1)어떤 받침인가? 2) ㅏ·ㅑ모음인가? ㅓ모음인가? 3)예외인가? 세 형태를 먼저 파악하고 대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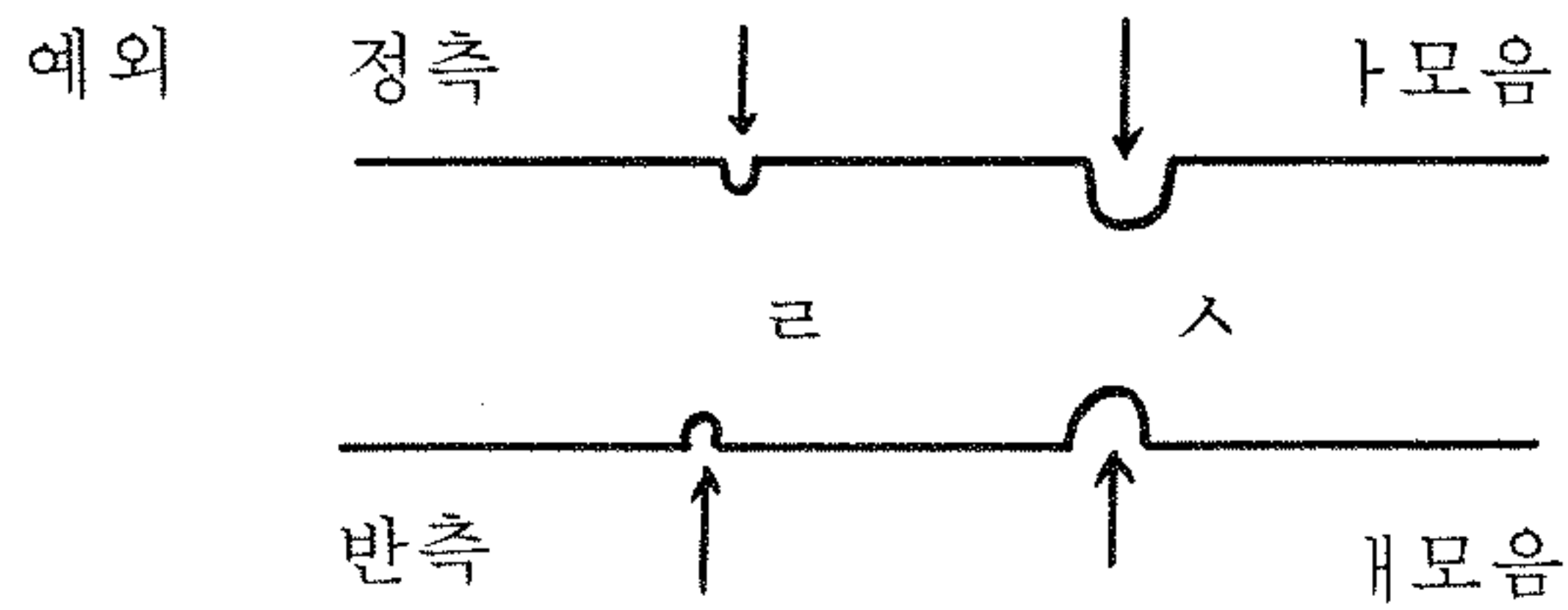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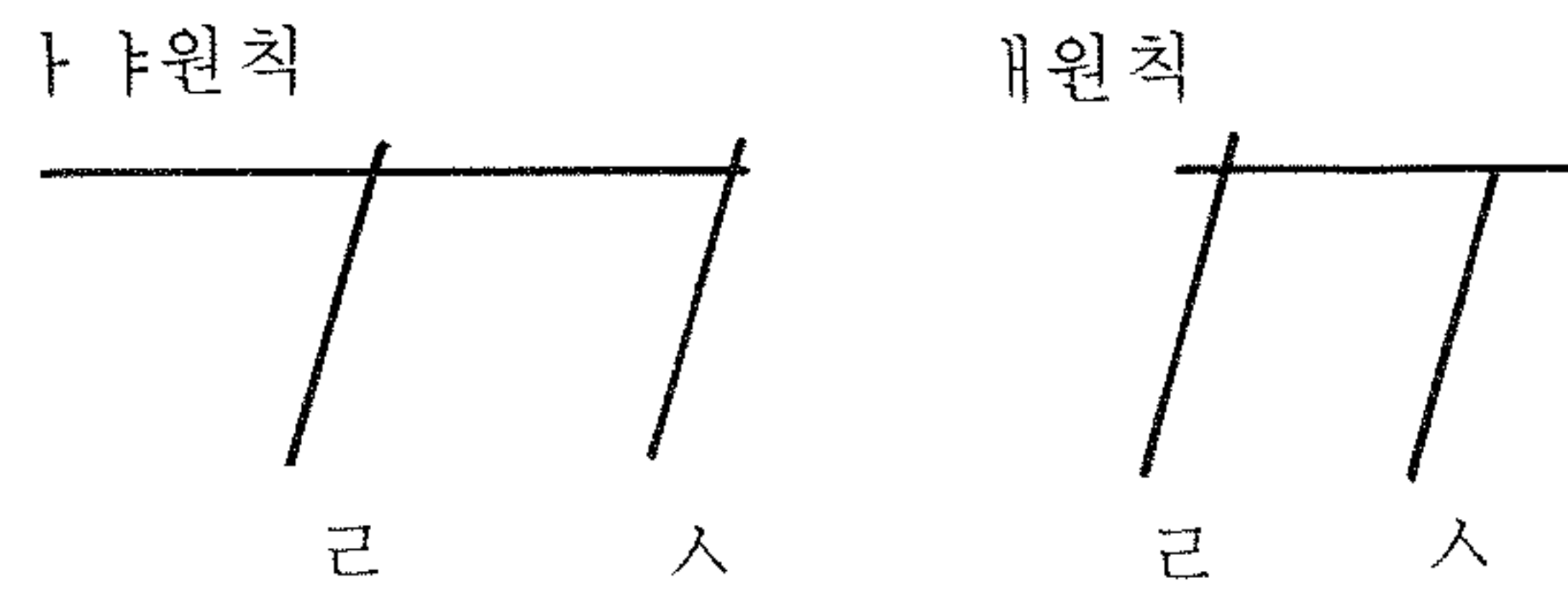
ㄴ받침 : 2원칙

ㅇ받침 : 2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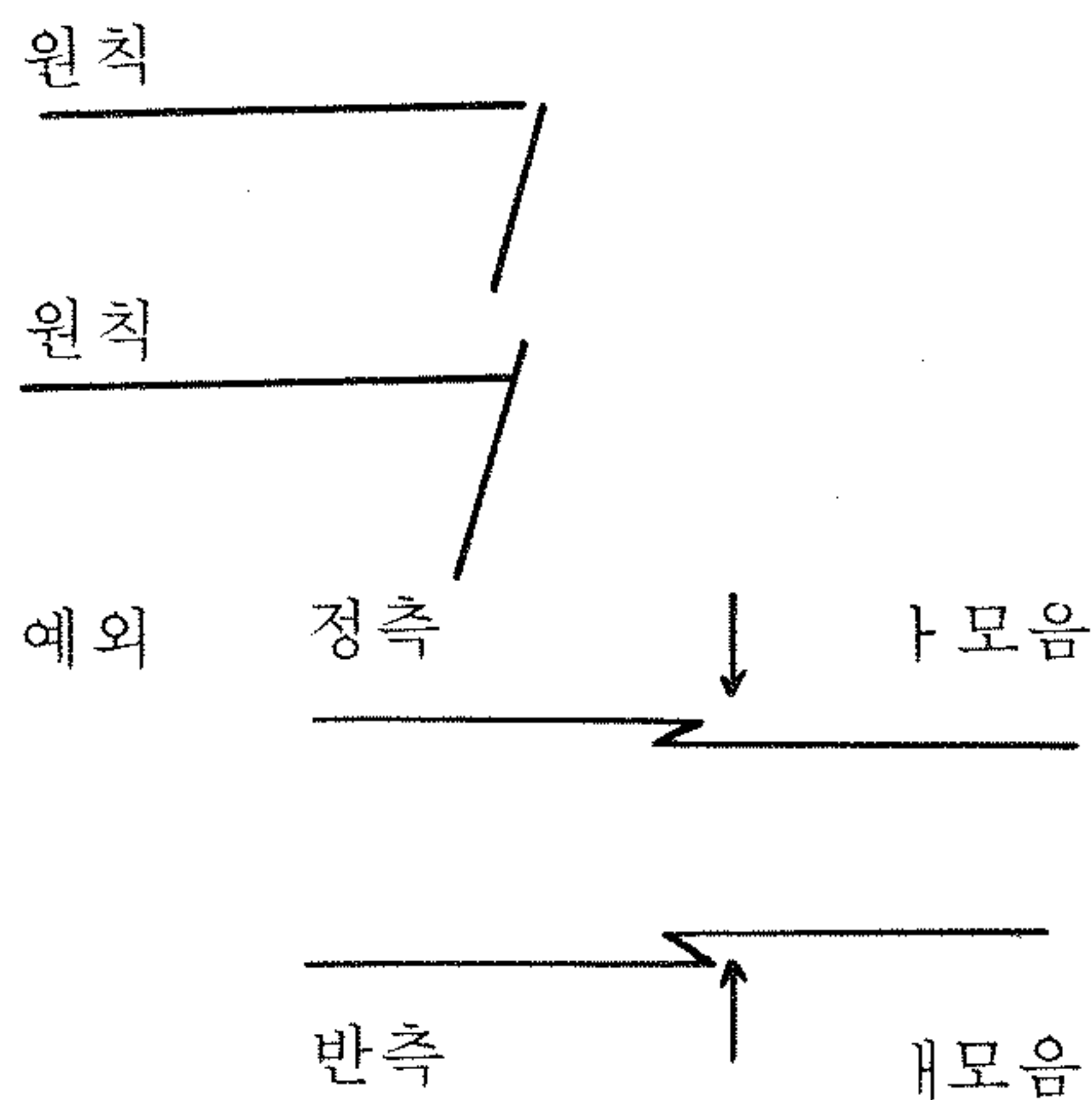
ㄹ받침 : 2원칙 2예외

ㅅ받침 : 2원칙 2예외



ㅁㅂ받침 : 1원칙

ㄱ받침 : 1원칙 2예외



참고 : 대부분의 ㅓ모음 이어쓰기에서는 반측에 붙은 반소원이 생략되면서 독특한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반해서 ㅁㅂ, ㄱ의 ㅓ모음은 ㅓ모음을 그대로 쓴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연습문제
--------

/는 띄어쓰는 곳이다. 공책에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1. 기차가/ 지나간/ 뒤에는/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
2. 버스 타고/ 교외로/ 나갔더니/ 기분이/ 기막히다.
3. 서로/ 화해하였으면/ 마음을/ 펴고/ 지내도록/ 하자.
4. 사람이/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는/ 서로/ 에티켓을/ 지켜야만/ 화기애애해진다.
5. 요즘/ 아파트들은/ 고층을/ 지나/ 초고층의/ 아파트가/ 너무/ 거침없이/ 지어지는/ 추세다.
6. 아침 먹고/ 나면/ 저녁 걱정이 되는/ 사람도/ 가끔/ 호화롭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7. 대구역과/ 버스터미널이/ 지척에 있어/ 이용하기가/ 쉬운 것처럼/ 어느/ 지역이나/ 다 / 그런/ 교통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용객이/ 대환영을/ 하리라.
8. 서울올림픽은/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수만명의/ 대표선수가/ 모여/ 대성황을/ 이룬/ 오래/ 기억될/ 세기적인/ 대사건이었다.
9. 외국에/ 유학을/ 가려는/ 사람은/ 외국어가/ 유창해야/ 하며/ 이해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학/ 자체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10.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닐 것이다.
11. 사람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자면/ 기본문자를/ 보강하는/ 기본약기법을/ 배워야만/ 가능하다.
12. 교육개혁과/ 교육계획이/ 유사하니/ 주의해서/ 기록해석/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13.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로/ 가면/ 4시간이/ 소요되지만/ 고속전철을/ 타고/ 가면/ 2시간이면/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14. 이웃과/ 어울려/ 지내는/ 시골생활에/ 비하여/ 도시생활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배타적이다.
15. 세계는/ 무기의/ 우열이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체제에서/ 지구촌의/ 시민들을 위한/ 시민 지향적/ 가치추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자! 이제는 속기문자 아래에 한글로 번문을 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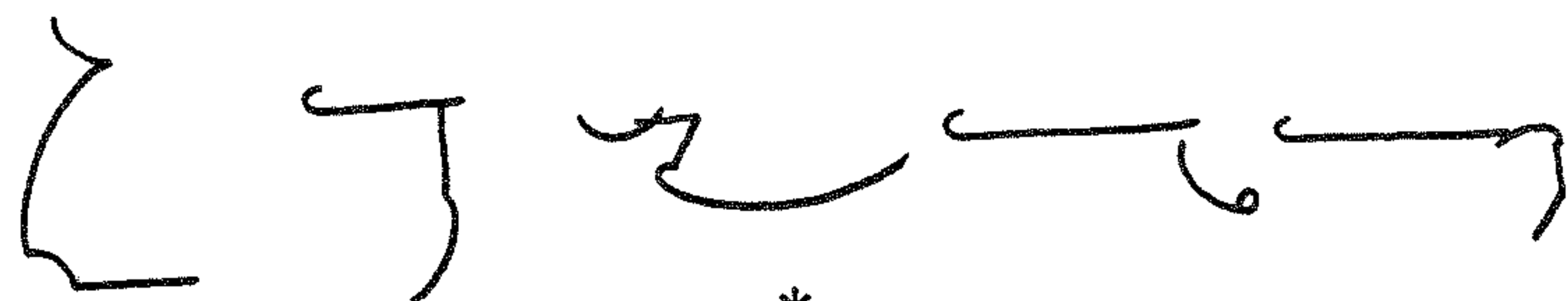
\*\* 정답은 다음 페이지에 있다.

종합연습문제 정답

1. 기차가/ 지나간/ 뒤에는/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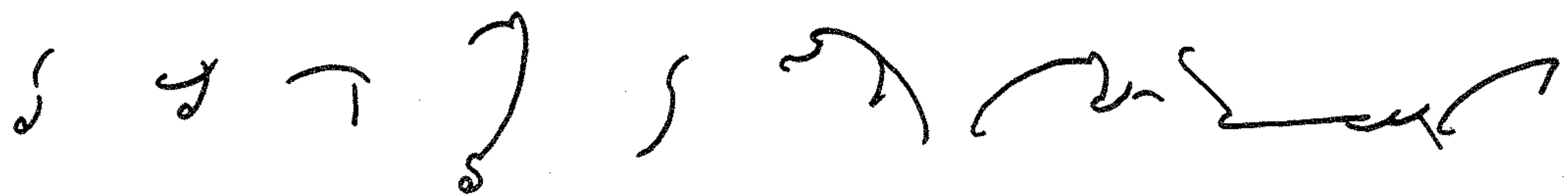
2. 버스 타고/ 교외로/ 나갔더니/ 기분이/ 기막히다.



3. 서로/ 화해하였으면/ 마음을/ <sup>\*</sup>펴고/ 지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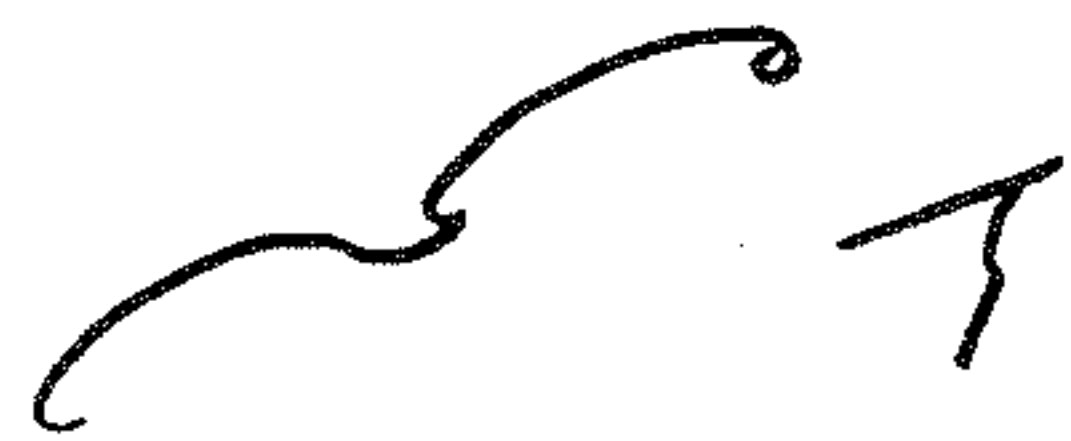
4. 사람이/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는/ 서로/ 에티켓을/ 지켜야만/ 화기애애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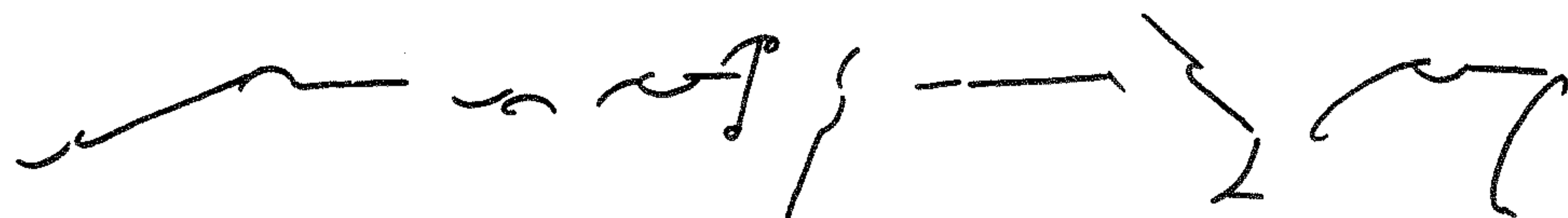
5. 요즘/ 아파트들은/ 고층을/ 지나/ 초고층의/ 아파트가/ 너무/ 거침없이/



지어지는 /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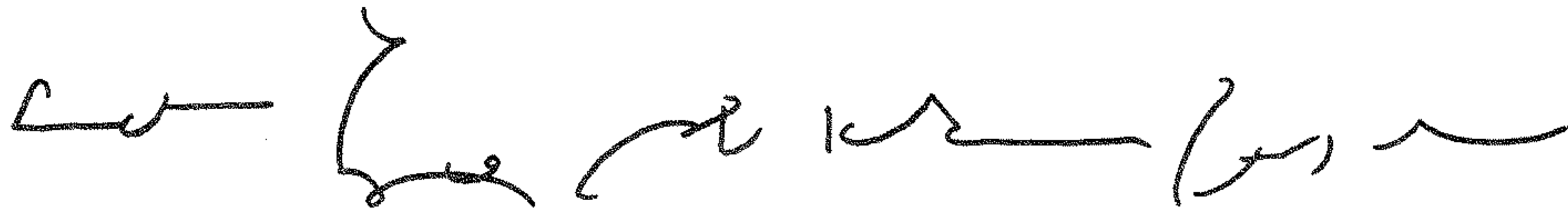
6. 아침 먹고/ 나면/ 저녁 걱정이 되는/ 사람도/ 가끔은/ 호화롭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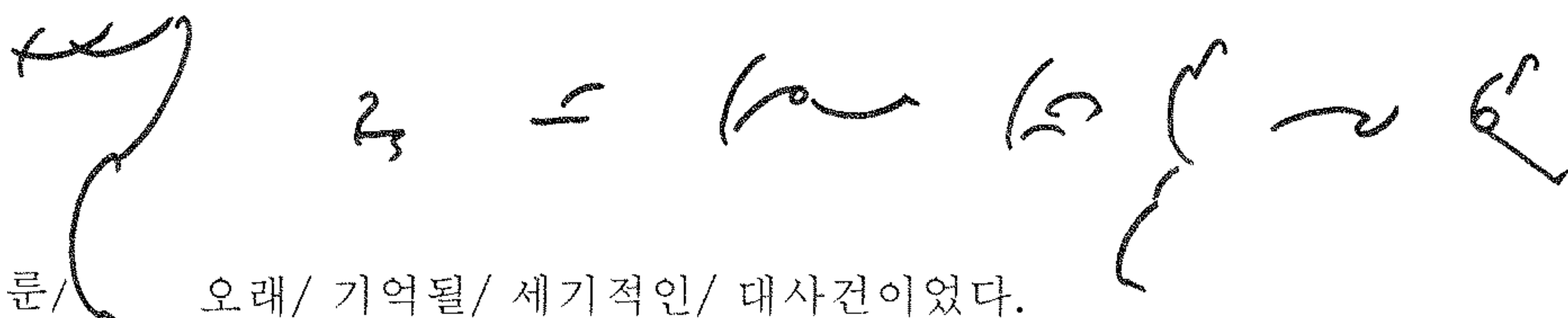
7. 대구역과/ 버스터미널이/ 지척에 있어/ 이용하기가/ 쉬운 것처럼/ 어느/



지역이나 / 다/ 그런/ 교통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용객이/ 대환영을/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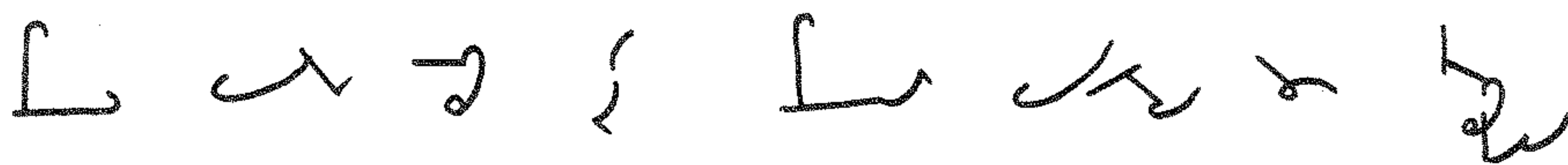
8. 서울올림픽은/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수만명의/ 대표선수가/ 모여/ 대성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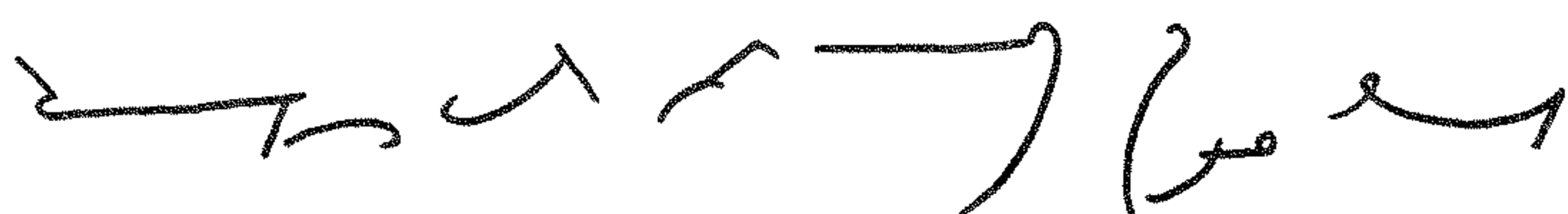
기룬/ 오래/ 기억될/ 세계적인/ 대사건이었다.



9. 외국에/ 유학을/ 가려는/ 사람은/ 외국어가/ 유창해야/ 하며/ 이해력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유학/ 자체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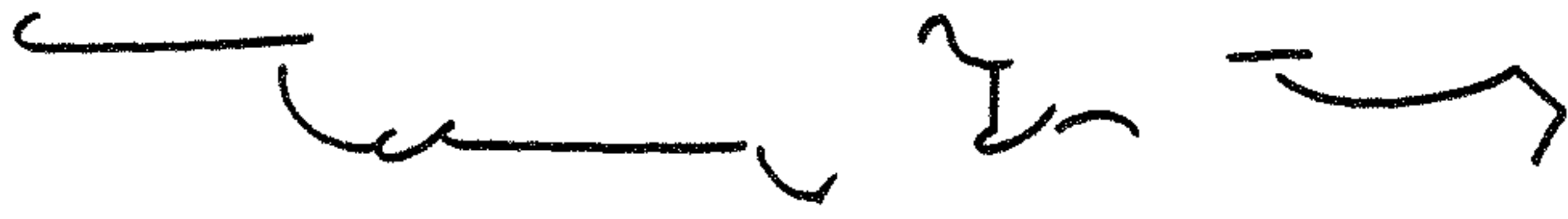
10.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닐 것이다.



11. 사람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자면/ 기본문자를/ 보강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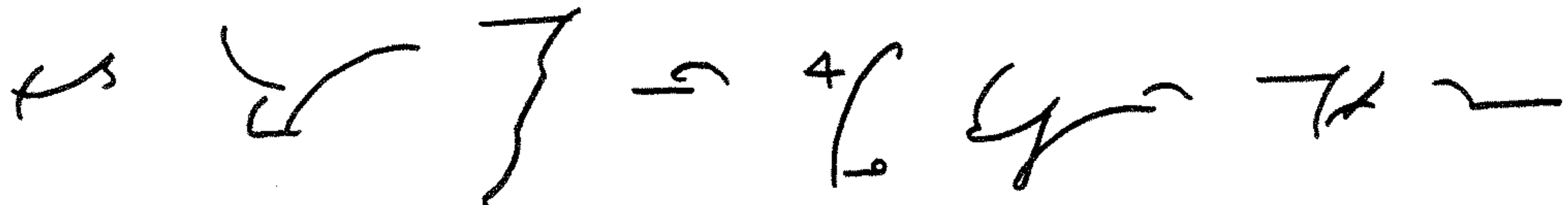
기본약기법을/ 배워야만/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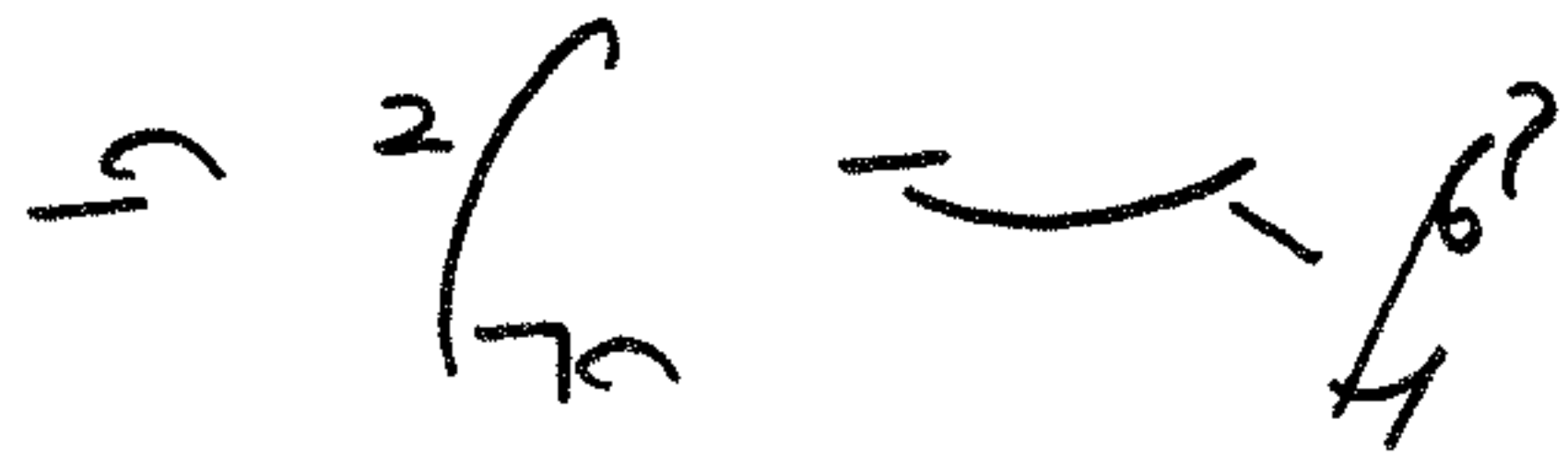
12. 교육개혁과/ 교육계획이/ 유사하니/ 주의해서/ 기록해석/ 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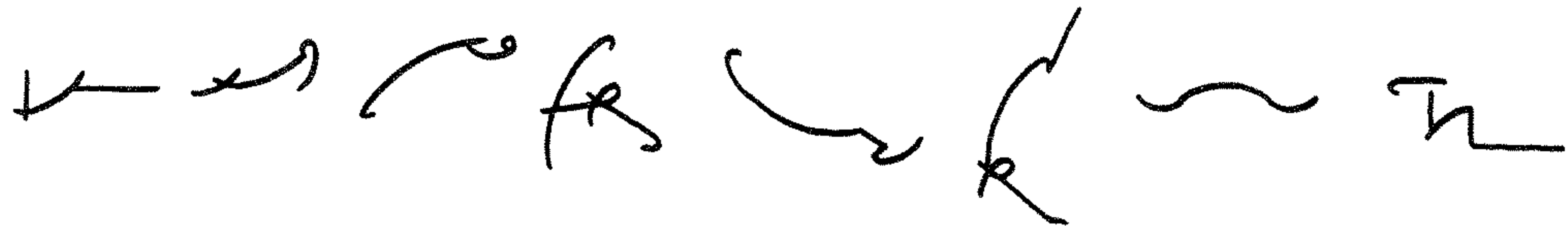
13.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로/ 가면/ 4시간이/ 소요되지만/ 고속전철을/ 타고/



가면/ 2시간이면/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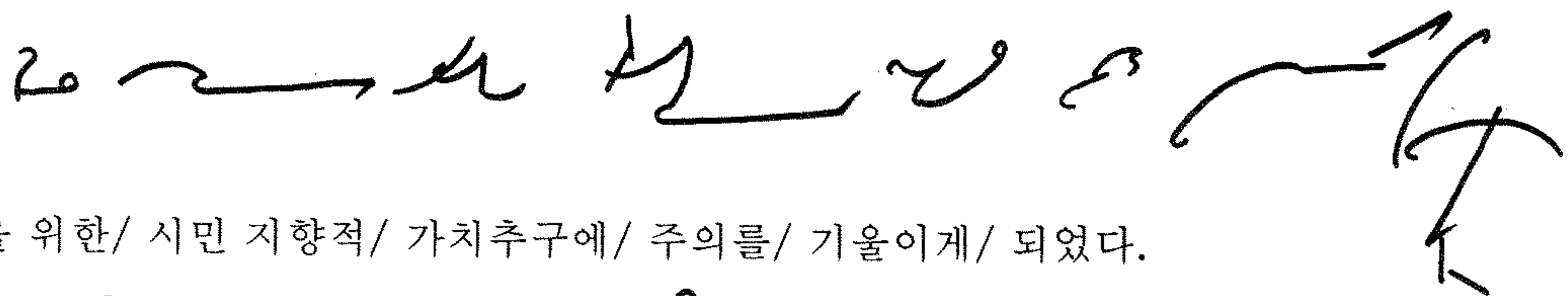
14. 이웃과/ 어울려/ 지내는/ 시골생활에/ 비하여/ 도시생활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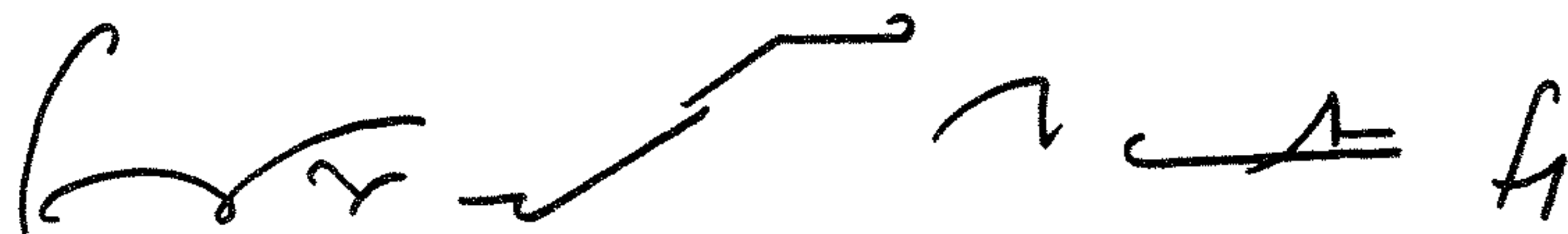
배타적이다.



15. 세계는/ 무기의/ 우열이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체제에서/ 지구촌의/ 시민들



을 위한/ 시민 지향적/ 가치추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6. 받침이 앞에 나올 때

6-1. ㄴ받침 (ㄴㅏ, ㄴㅑ) : 머리에 작은 원(극소원)을 붙인다.

ㅏ모음 : 간 난 단 란 만 반 산 안 잔 찬 칸 탄 판 한 인 : 정측



ㅑ모음 : 갠 낸 단 랜 맨 탠 섰 언 쟌 찬 캔 탠 판 헐 : 반측



ㅑ모음 : 간 난 단 란 만 반 산 안 잔 찬 칸 탄 판 한 : 반소원



주의 : 처음 연필을 대는 시작점의 각도를 파악하라!

연습법 : 이 외 모음들은 간건곤균근... 갠관권권권... 간견곤균긴...과 같은 방법으로 연습하기 바란다. 이하 다른 받침들도 같다.

6-2. ㅇ받침 : 머리에 ㄴ받침보다 2배 이상 큰 원을 붙인다.

ㅏ모음 : 강 낭 당 량 망 방 상 양 장 창 강 탕 광 향 잉 : 정측



ㅑ모음 : 갱 냉 땡 령 맹 뱅 생 앵 쟡 창 쟡 탱 팡 행 : 반측



ㅑ모음 : 강 낭 당 량 망 방 상 양 장 창 강 탕 광 향 : 반소원



연습법 : 강경공궁궁... 갱광굉굉굉... 강경공궁궁...

정리 : ㄴ받침은 작고 ㅇ받침은 크다.

집중연습 : ㅏ모음에서는 갠낸댄... 갱냉댕...

ㅑ모음에서는 견년뎌... 긴닌딘... 경녕딩... 킹닝딩...을 우선 연습한다.

<단어응용1>

간성을	간장을	간행해서	강경해서
강권을	강당을	강력해서	강렬해서
강박관념	강약을	강요하다	*강우량을
갱년기의	갱생을	건강에	건망증의
경계의	경고의	경과의	경기변동의
경력의	경망한	경비의	경영의
경쟁의	경쾌한	경향의	곤경의

<단어응용2>

공격해서

공동경영을

공백을

공식방문을

공원을

공익을

공장을

공중위생을

풍지는

공항은

관광은

관청은

광경은

광맥은

광택은

괘이는

군왕은

군용은

군정은

궁극적

권총이

귀향을

균등을

균형이

근성이

근황이

긴장이

난방장치가

<단어응용3>

난생의

난청이

난형난제가

낭독이

낭비가

냉각이

냉랭해서

냉방병이

냉전이

냉혹한

논공행상이

논쟁이

농과대학에

농원에

농작물에

눈동자에

눈병에

능력에

능변에

능통한

단명한

단층이

단행해서

당대의

당면과제를

땅바닥에

당선이

당쟁이



<단어응용4>

땅콩이



당황해서



동거해서



동네방네에



동독에



동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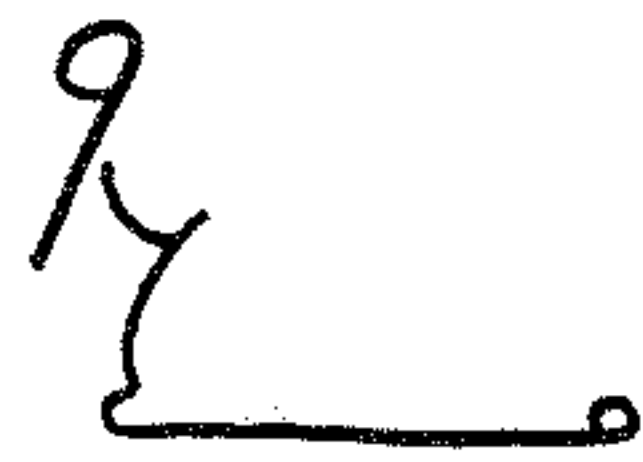
동맥이



동맹국이



동방속기는



\*동북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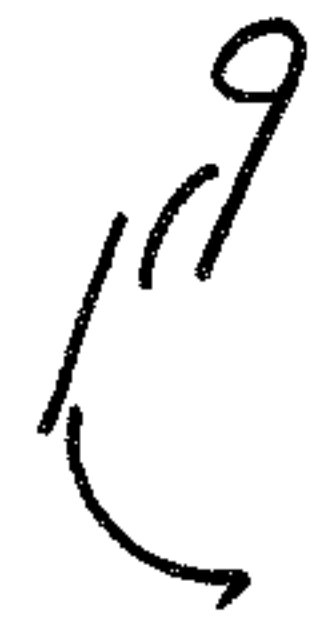
동산은



동생은



동성동본의



동양의



동족의



동해의



된장에는



\*똥보는



등단을



등락을



등뼈가



등원해서



랭킹이



롱런을



링컨은



만고풍상을



만리장성을



만병통치약은



<단어응용5>

만행에	망각에	망망대해에	망명을
			
망언을	망원경을	망치를	*맨투맨방어를
			
맹목적	맹추에게	맹훈련을	명예를
			
면장이	명곡을	명단에	명동성당에
			
명맥을	명백한	명색이	명세서가
			
명약관화한	명예가	명쾌한	몽땅
			
몽둥이가	*문맹타파를	문장파악이	문지방이
			

<단어응용6>

뭉개다



뭉치면



민망한



민생문제가



민영이



민정을



민중에게



반공정책을



반생을



반영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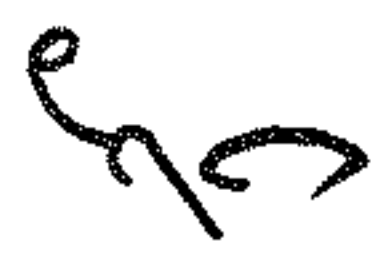
반작용의



반항이



반혁명의



방계회사가



방랑을



방명록의



방송의



방위를



방직을



방패의



방편이



방향이



방황이



변성이



번영해서



\* 병어리에게



변경을



\* 변명하다



<단어응용7>

변형된	병기를	병력에	병무청에
			
병색이	병원에는	병폐에는	본능에는
			
본명에	본성에	봉변을	*봉쇄하다
			
봉황이	분량을	분수령에	분쟁은
			
분향을	빈농을	*빈정거렸다	빙과에는
			
빙산의	빙판을	산통깨다	산학공동체가
			
상경해서	상과대학에	상관이	상기해서
			

<단어응용8>

상당수의	상무위원이	쌍방의	상봉을
상사병에	상속세에	상승에	쌍안경에
상원의원이	상장을	*상중하를	상패가
상해해서	상형문자에는	상환하려는	상황에는
생각이	생계유지가	생년월일이	생맥주가
생색을	생애의	생존경쟁을	*생후에는
선경에	선망을	선생이	선제공격을

<단어응용9>

성격이



성공사례를



성과에는



성능검사를



성명의



성애가



성원이



성패를



성황을



손가방에



손해배상을



송구영신의



송사가



송충이가



송환하라고



순경이



순정을



승능을



승배를



승상을



승객이



승격이



승계를



승무원이



승용차에



승패에



신경에



신망에



<단어응용10>

신병을

신분증명을

신상에

신생국에

신앙이

신용장이

신토불이는

신흥공업국은

안과병원에

안전보장을

안정성장을

양등의

양양해서

양계장의

양곡이

양궁에서

양도세를

양면전술을

양분해서

양원제도는

양쪽은

양행은

언동은

없다

언밸런스는

언행은

\* 엉덩방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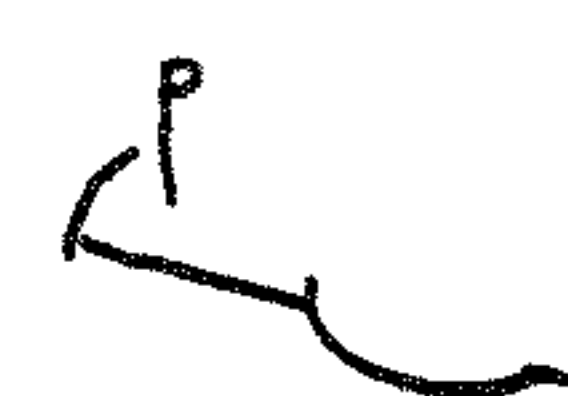

엉뚱한

<단어응용11>

영망이	영터리가	연공서열이	연년생이
			
연령이	연맹이	연방정부가	연쇄반응을
			
연정이	연중행사가	영계가	영광이
			
영농단지를	영단을	영령에게	영상을
			
영생불멸의	영양의	영예의	영웅의
			
영유권이	영장이	영해가	온상이
			
은정에는	은통	용색한	완성에는
			



<단어응용12>

완충작용에는	완행에는	왕관에는	왕국에는
			
왕래해서	왕복해서	왕생극락해서	용건을
			
용기에는	용단을	용두사미의	용량을
			
용맹한	용사가	용어가	용지가
			
운동장은	운명은	운영은	운용은
			
운행은	운변은	원동력은	원상회복은
			
원장께서	용기해서	용단폭격을	용성이
			

<단어응용13>

윙통성을



은장도가



은행에



응분의



응어리를



응원을



응전해서



인생은



인용구가



인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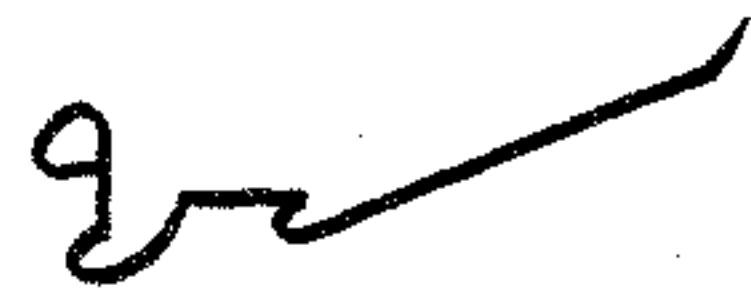
인증을



잉어를



잉여가치를



잉태를



장관에게서



장래에



장방형을



장병을



장벽을



장시간에



장악해서



장애자에게



장차에



장학관에게



장황한



쟁기를



쟁의를



\*쟁투를



<단어응용14>

전경은	전공은	전광석화의	전군의
			
전권대사가	전년도에는	전당대회에는	전략에는
			
전례가	전쟁이	전통을	전향적
			
전횡을	정견이	정계가	정관이
			
정년연장을	정년퇴직을	정략적	정면은
			
정복의	정상회담의	정세분석을	정식의
			
정신대에	정신병이	정신상태가	정예의
			

<단어응용15>

정유공장에



정착에



정쟁에



정정당당한



정족수가



정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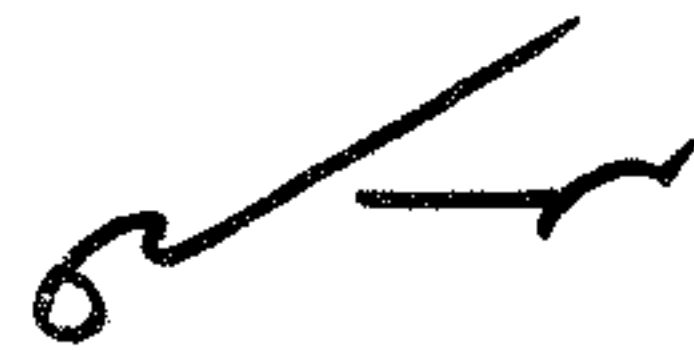
정진을



정취가



정치공작을



정통파가



정화운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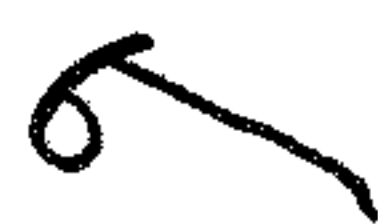
정확한



정황이



정회가



젠장



존경을



존중해서



종군해서



종량세는



종류는



종이는



종전에는



종족이



종착역이



종횡무진의



준용해서



중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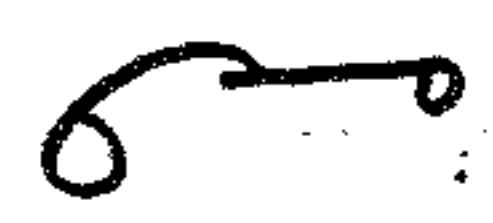


중개무역에는



<단어응용16>

중국에는



중금속이



중대한



중등교육의



중론이



중성자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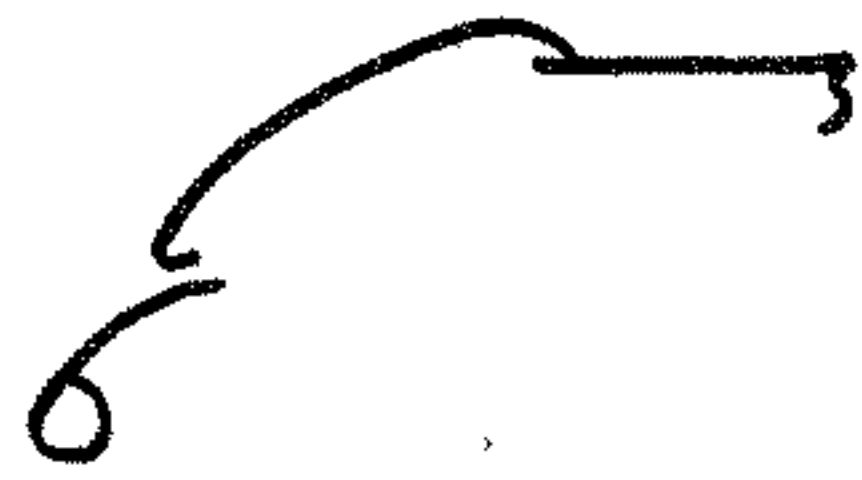
중양에



중장비에



중진국에서



중책을



중학교에서



\*증가해서



증원에서



증대해서



증명해서



증빙서류에



증세를



증액을



증언을



증원군을



증정을



진공상태에서



진상규명을



\*진정하세요



진통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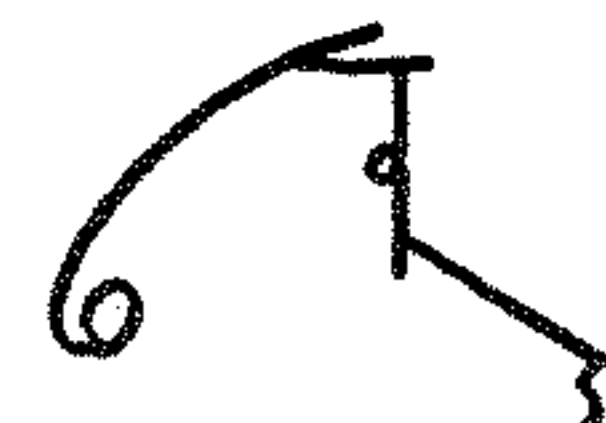
진행형이



진홍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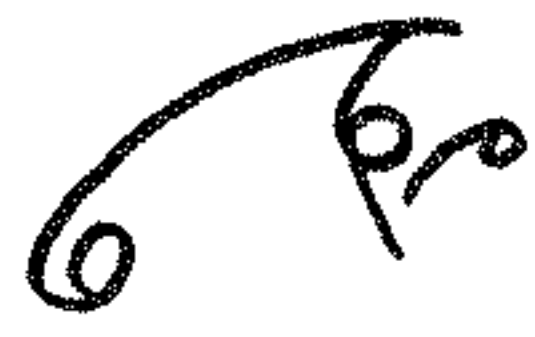


징계위원회에서



<단어응용17>

징세행정이



징용거부가



\* 징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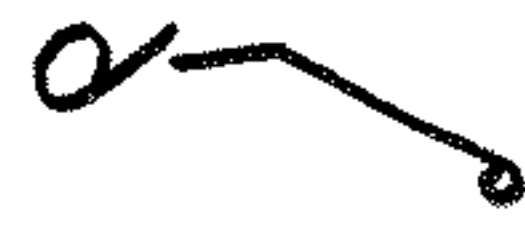
찬성은



찬양은



창간호는



창공은



창당대회는



창안자는



창의력을



창조자가



챙기다



천당에서



천만다행



천명을



천부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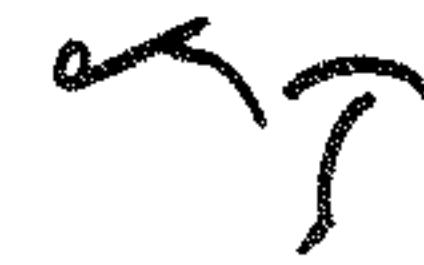
만부당한



천생연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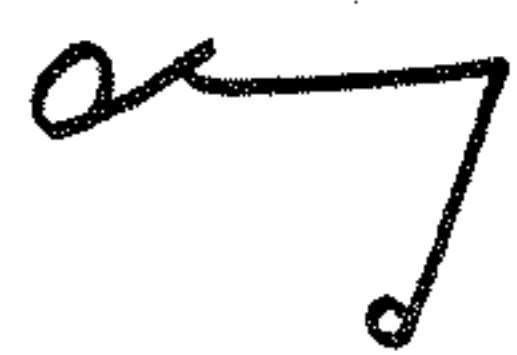
천태만상의



청개구리는



청교도는



청량한



청백리는



청사진을



청산유수는



청신호는



청약은



청와대는



<단어응용18>

청중은



청천벽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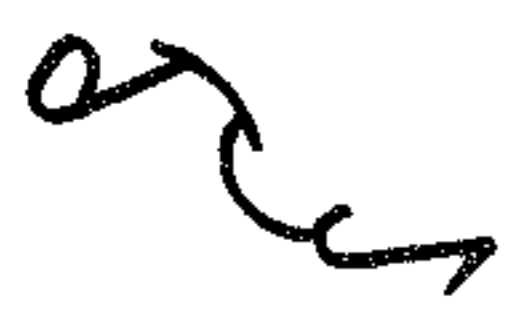
청춘에



청취자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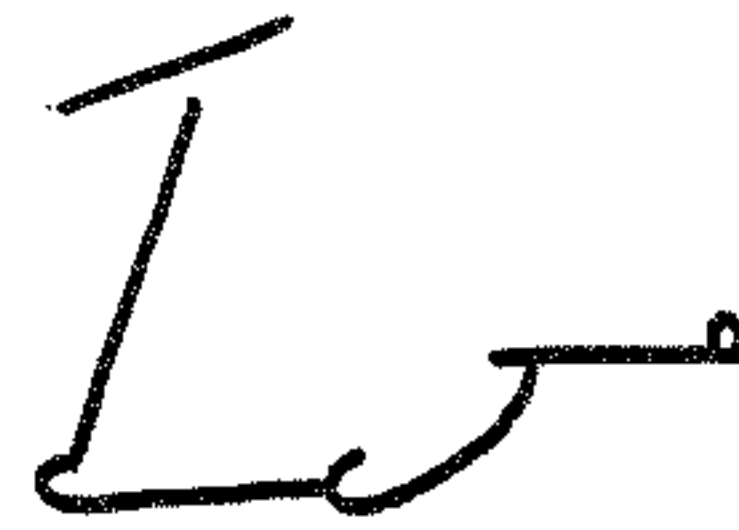
청탁배격의



체중초과가



초등교육국이



초창기는



초청장을



초행의



축성을



촌평을



총각이



총계는



총공격을



총동원을 해서



총력경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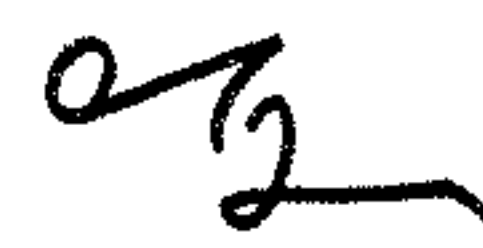
총리가



총본산이



총사령관은



총선거는



총애는



총액은



총영사는



총원이



총장을



총재는



총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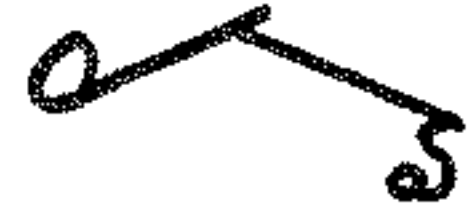


<단어응용19>

총칭해서



총회에서는



춘궁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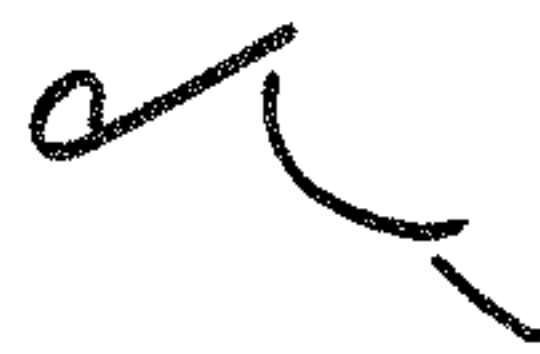
춘하추동이



충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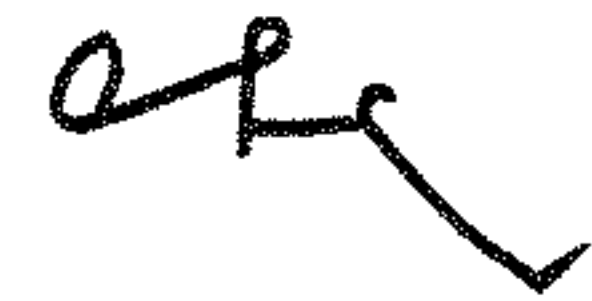
충분한



충성이



충원계획을



총무공께서는



총효사상이



총계가



\*총총시하의



친정의



친형제의



칭찬해서는



칭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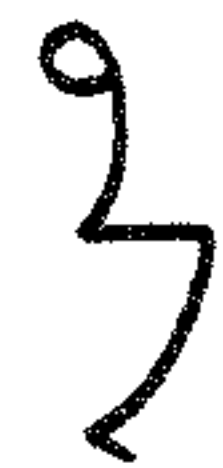
컨닝은



켁겨서



콩가루가



콩깍지는



콩자반이



큰형이



탄광촌에서



탄생해서



탄성을



탕수육은



탕진해서



통계가





<단어응용20>

통곡을



통과를



통관절차를



통례를



통사정을



통성명을



통신강의를



통역을 해서



\*통제로



통치를



통쾌한



통행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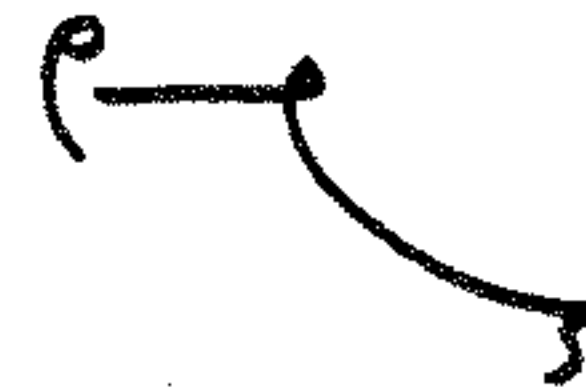
통화량이



튼튼한



판공비에서



판명을 해서



팽개쳐서



팽배한



팽창예산이



편중해서



평가를



평균을



평년작을



평민을



평사원을



평생소원이



평안한



평원을



<단어응용21>

평지풍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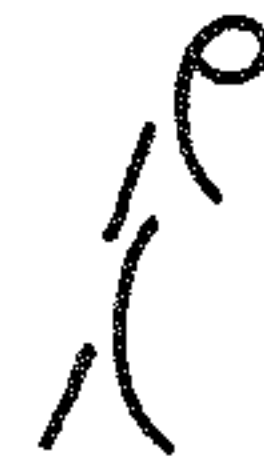
평행봉은



평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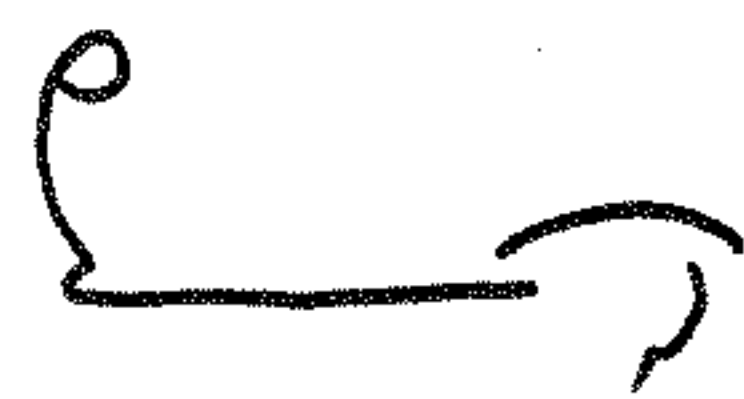
풍당풍당



풍경에



풍기문란의



풍년가가



풍미한



풍상고초를



풍수지리가



풍요한



풍전등화의



풍조가



풍토병이



풍향계를



한동춘 선생



한랭전선이



한바탕



한세상을



한영사전이



한중무역의



한층



한통속



한평생을



항간에서는



항거해서



항공장비의



항만청장께



<단어응용22>

항명사건을	항의를	항쟁을	항체를
			
항해를	항간을	항군을	항동전략을
			
행복은	행사장은	행색이	행여나
			
행위에는	행정만능의	행주치마를	행진곡을
			
행패를	향기로운	향락산업이	*향수어린
			
향토예비군을	향해서	향후에	헌병대장이
			
헌정사를	헝가레를	현명한	현상대는
			

<단어응용23>

현행은



현황은



형무소는



형사대는



형용사를



형이상학



형이하학



형제애를



형태를



형편을



형평을



형형색색의



혼돈을



혼동을



홍두깨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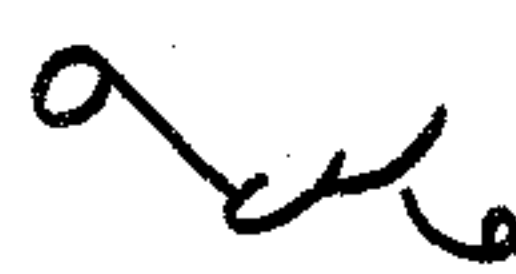
홍보조정관계



홍색이



홍역예방이



홍콩관광을



환경청장께



환상속의



환송연을



황당무제한



황량한



황색인종은



황야를



황제가



황태자는



<단어응용24>

황폐화를



황하의



황령죄의



황단을



황재를



황포를



황행해서



훈령을



훈장을



횡하니



흉계를



흉기를



흉내를



흉년을



흉악한



흉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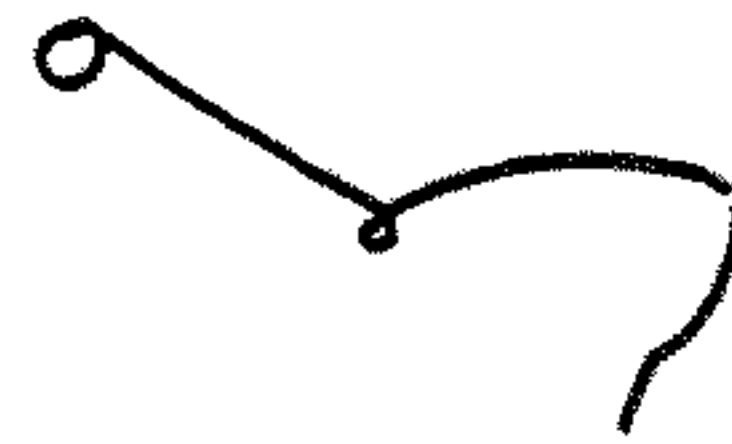
흉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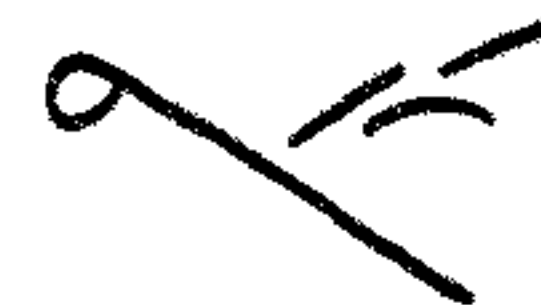
흉건한



흥미롭다



흥청망청



흥취는



흥행에서



종합연습문제

/는 띄어쓰는 곳이다. 공책에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1. 이견/ 어려운/ 문제임이/ 분명하다.
2. 비가/ 오는데/ 빈대떡이나/ 부쳐먹자.
3. 선진사회와/ 후진사회를/ 판가름하는 것은/ 시민의/ 수준의/ 차이다.
4. 전국의/ 소년소녀들이/ 친선과/ 기량을/ 겨루는/ 전국체육대회가/ 매년/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된다.
5. 선진제국들이/ 농산물/ 수입을 전면개방할 것을/ 요구하여/ 농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정부는 정부대로/ 대체작물의/ 개발에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
6. 저는/ 동방속기를/ 배우는/ 학생이올시다.
7. 충고에 인색한/ 사람은 칭찬에도/ 인색하다.
8. 한 사람의 엉뚱한/ 행위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는/ 경우가 많다.
9. 저는/ 태평양/ 여러 나라로/부터/ 초청 받아/ 우리의/ 이웃/ 호주/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공식방문 길을/ 지금/ 떠나려/ 합니다.
10. 오늘의/ 세계는/ 냉전체제에서/ 새로운/ 화해의/ 시대로/ 진일보하는/ 전환기를/ 거쳐서/ 동서간의/ 이념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이다.
11. 우리의/ 민주발전은/ 선진제국과/ 견주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신뢰할 수 있으며/ 무역대국이/ 된/ 우리/ 경제력은/ 세계 번영과/ 개발도상국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12. 태평양/ 지역은/ 풍부한/ 자원과/ 인력으로/ 가장/ 왕성한/ 번영의/ 진취적/ 기상이/ 가득한/ 지역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
13. 우리는/ 전통문화를/ 부흥시켜/ 이/ 사회가/ 아름답고/ 부드럽게/ 또한/ 조화롭게/ 성장해/ 나가도록/ 튼튼한/ 기초를/ 세워야/ 하겠다.
14. 의사일정/ 제1항/ 정치/ 경제부문에/ 관한/ 사항중/ 먼저/ 정치부문에/ 관한/ 오전회의를/ 시작하겠다.
15. 긴장완화를 위해/ 동서간에/ 군축협상이/ 진행되어/ 많은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의 군축문제도/ 세계인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자! 이제는 속기문자 아래에 한글로 번문을 해 보자.

\*\*정답은 다음 페이지에 있다.

종합연습문제 정답

1. 이<sup>\*</sup>건/ 어려운/ 문제임이/ 분명하다.

이 건 어 려운 문 제 임 이 분 명 하 다

2. 비가/ 오는데/ 빈대떡이나/ 부쳐떡자.

비 가 오 는 데 빈 대 떡 이 나 부 처 떡 자

3. 선진사회와/ 후진사회를<sup>\*</sup>/ 판가름하는 것은/ 시민의/ 수준의/ 차이다.

선 진 사 회 와 후 진 사 회 를 판 가 름 하 는 것 은 시 민 의 수 준 의 차 이 다

4. 전국의/ 소년소녀들이/ 친선과/ 기량을/ 겨루는/ 전국체육대회가/ 매년/

전 국 의 소 년 소 녀 들 이 친 선 과 기 량 을 겨 루 는 전 국 체 육 대 회 가 매 년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된다.

전 국 을 순 회 하 면 서 개 최 된 다

5. 선진제국들이/ 농산물/ 수입을 전면개방할 것을/ 요구하여/ 농민들의 항의가/

선 진 제 국 들 이 농 산 물 수 입 을 전 면 개 방 할 것 을 요 구 하 여 농 민 들 의 항 의 가

계속되고/ 정부는 정부대로/ 대체작물의/ 개발에 신경을/ 곤두<sup>\*</sup>/ 세우고 있다.

계 속 되 고 정 부 는 정 부 대 로 대 체 작 물 의 개 발 에 신 경 을 곤 두 세 우 고 있 다

6. 저는/ 동방속기를/ 배우는/ 학생이올시다.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for sentence 6.

7. 충고에 인색한/ 사람은 칭찬에도/ 인색하다.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for sentence 7.

8. 한 사람의 엉뚱한/ 행위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는/ 경우가 많다.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for sentence 8.

9. 저는/ 태평양/ 여러 나라로/부터/ 초청 받아/ 우리의/ 이웃/ 호주/ 인도네시아/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for sentence 9.

브루나이/ 공식방문 길을/ 지금/ 떠나려 합니다.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for sentence 9 continuation.

10. 오늘의/ 세계는/ 냉전체제에서/ 새로운/ 화해의/ 시대로/ 진일보하는/ 전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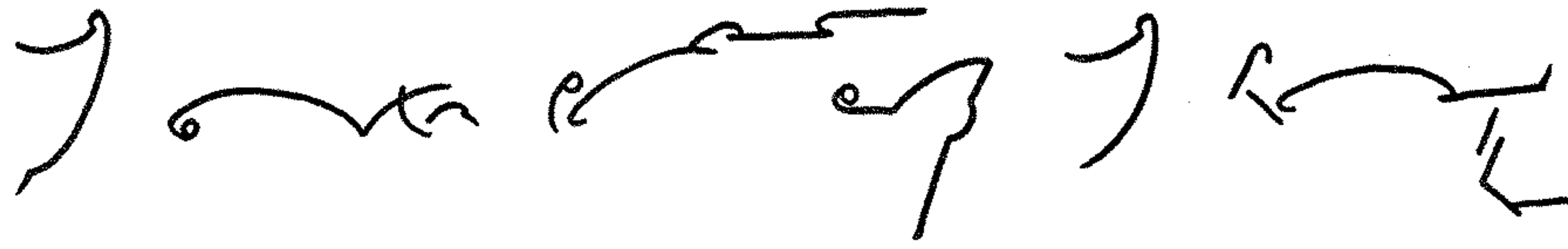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for sentence 10.

거쳐서/ 동서간의/ 이념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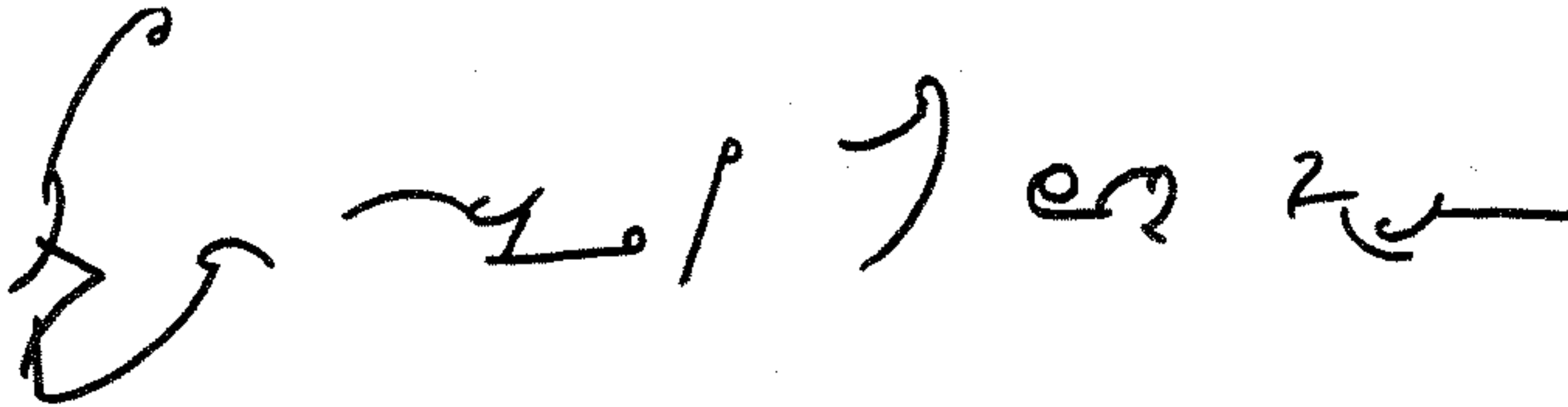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for sentence 10 continuation.



11. 우리의/ 민주발전은/ 선진제국과/ 견주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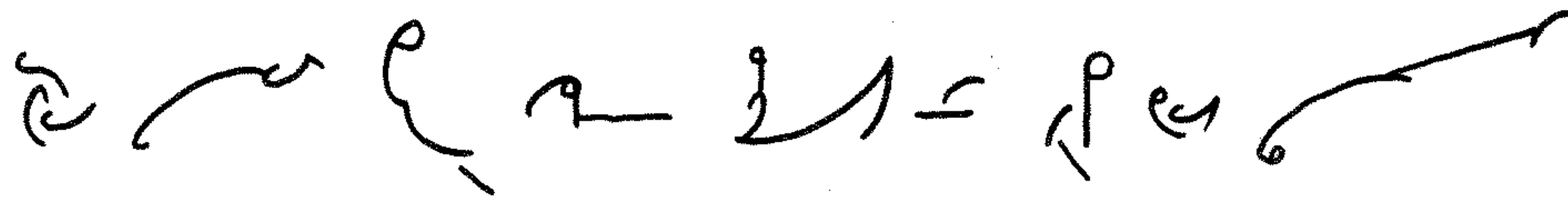
신뢰할 수 있으며/ 무역대국이/ 된/ 우리/ 경제력은/ 세계 번영과/



개발도상국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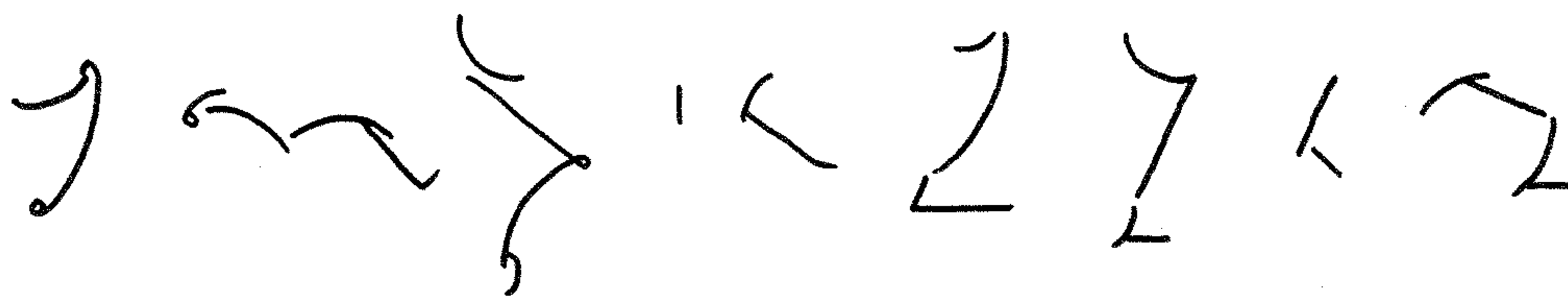
12. 태평양/ 지역은/ 풍부한/ 자원과/ 인력으로/ 가장/ 왕성한/ 번영의/ 진취적/



기상이/ 가득한/ 지역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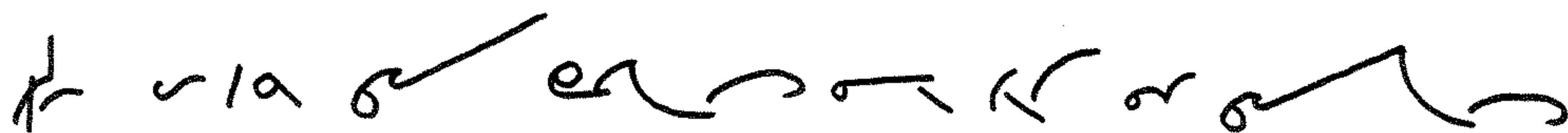
13. 우리는/ 전통문화를/ 부흥시켜/ 이/ 사회가/ 아름답고/ 부드럽게/ 또한/ 조화롭게/



성장해/ 나가도록/ 튼튼한/ 기초를/ 세워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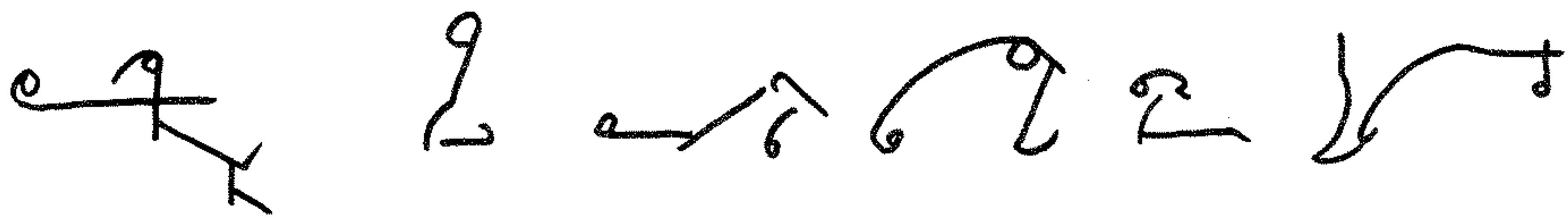
14. 의사일정/ 제1항/ 정치/ 경제부문에/ 관한/ 사항중/ 먼저/ 정치부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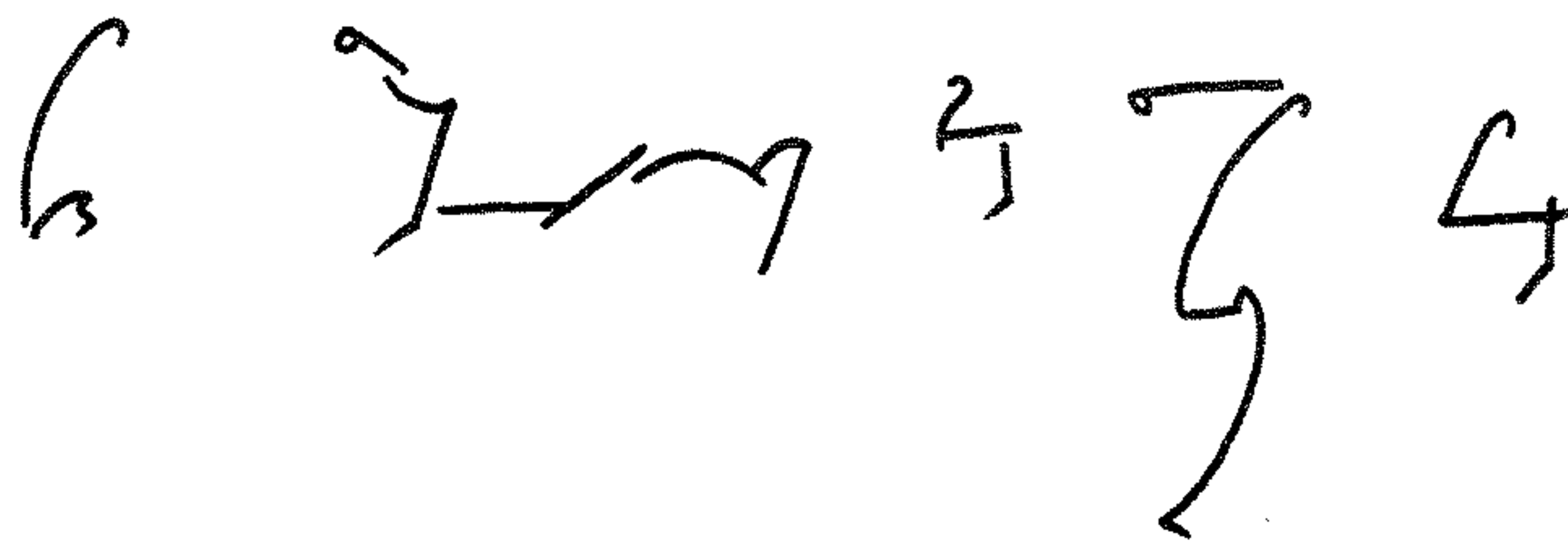
관한/ 오전회의를/ 시작하겠다.



15. 긴장완화를 위해/ 동서간에/ 군축협상이/ 진행되어/ 많은 성과가/ 이루어지고<sup>\*</sup>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의 군축문제도/ 세계인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6-3. ㄹ받침(ㄹ, ㄹㄹ, ㄹㄹ) : 머리에 머리카락 있는 작은 원을 붙인다.

ㅏ모음 : 갈 날 달 랄 말 발 살 알 잘 찰 칼 탈 팔 할 일 : 정측

ㄱ ㄴ ㄷ ㄹ ㅁ ㄴ ㄷ ㄹ ㅁ ㄴ ㄷ ㄹ ㅁ ㄴ ㄷ ㄹ

ㅓ모음 : 겔 널 델 랐 땨 벨 셀 엘 쟈 철 쟈 텔 땨 헬 : 반측

ㅏ ㄴ ㄷ ㄹ ㅁ ㄴ ㄷ ㄹ ㅁ ㄴ ㄷ ㄹ ㅁ ㄴ ㄷ ㄹ

ㅑ모음 : 갈 날 달 랄 말 발 살 알 잘 찰 칼 탈 팔 할 : 반소원

ㄱ ㄴ ㄷ ㄹ ㅁ ㄴ ㄷ ㄹ ㅁ ㄴ ㄷ ㄹ ㅁ ㄴ ㄷ ㄹ

연습법 : 갈걸굴굴글... 겔팔꺾꺾꺾... 갈걸굴굴갈...

6-4. ㅓ받침(ㅓ, ㅓㅓ, ㅓㅓ) : ㄹ받침보다 2배 이상 큰 원을 붙인다.

ㅏ모음 : 갓 낫 닷 랫 맛 밧 샷 앓 잣 찻 캣 탕 팻 핫 잇 : 정측

ㄱ ㄴ ㄷ ㄹ ㅁ ㄴ ㄷ ㄹ ㅁ ㄴ ㄷ ㄹ ㅁ ㄴ ㄷ ㄹ

ㅓ모음 : 갓 넷 땨 랫 땨 밧 샷 앓 잣 캣 캣 탕 팻 핫 : 반측

ㅏ ㄴ ㄷ ㄹ ㅁ ㄴ ㄷ ㄹ ㅁ ㄴ ㄷ ㄹ ㅁ ㄴ ㄷ ㄹ

ㅑ모음 : 갓 낫 닷 랫 맛 밧 샷 앓 잣 찻 캣 탕 팻 핫 : 반소원

ㄱ ㄴ ㄷ ㄹ ㅁ ㄴ ㄷ ㄹ ㅁ ㄴ ㄷ ㄹ ㅁ ㄴ ㄷ ㄹ

연습법 : 갓갓긱긱긱... 갓팍꺾꺾꺾... 갓갓긱긱긱...

정리 : 큰 작고 ㅓ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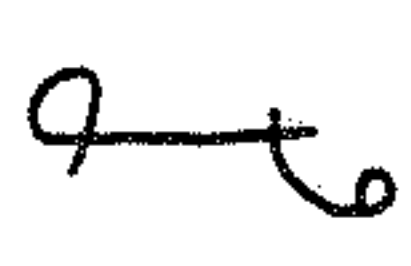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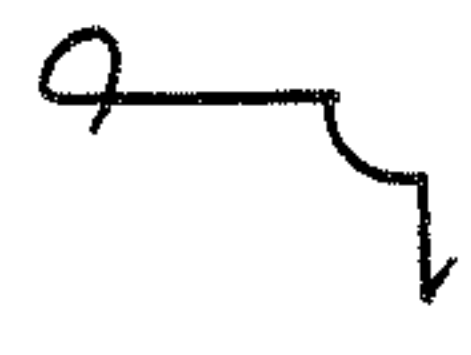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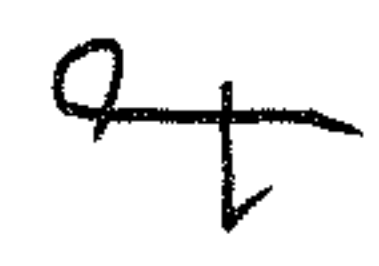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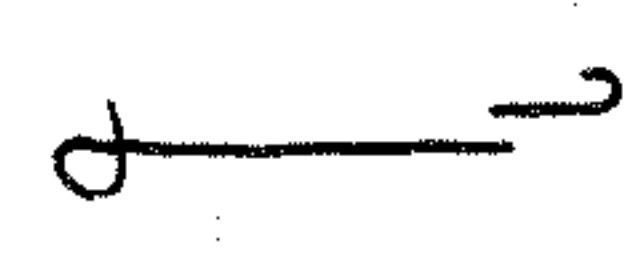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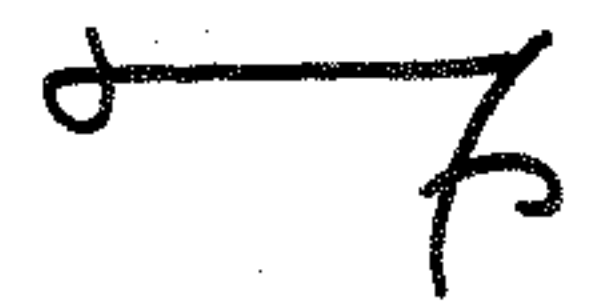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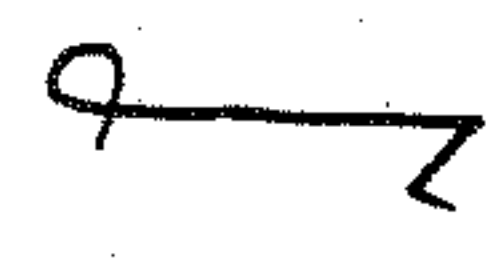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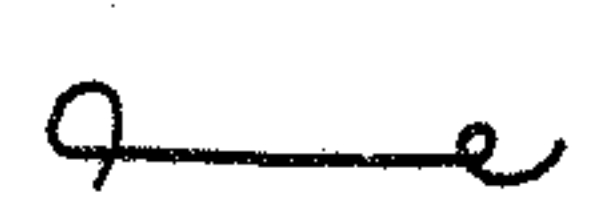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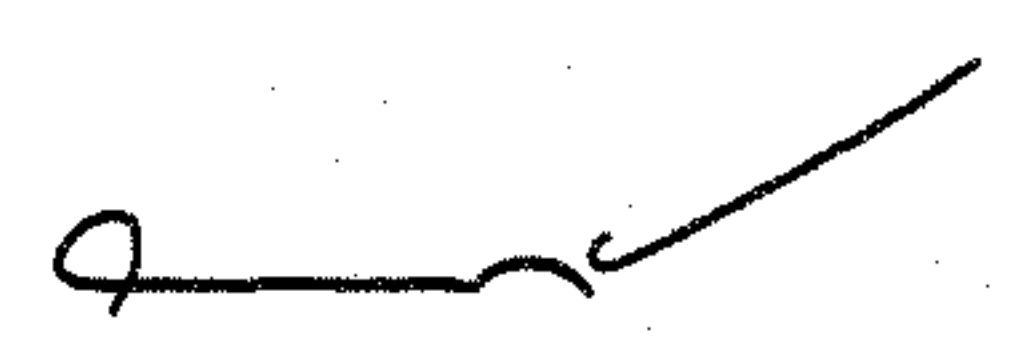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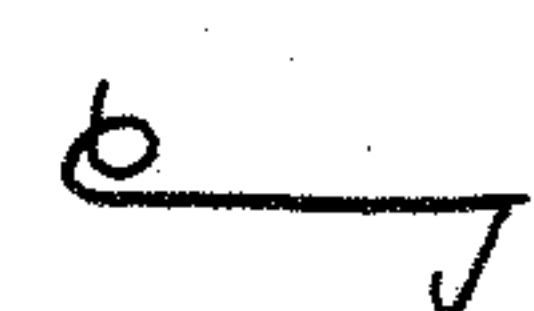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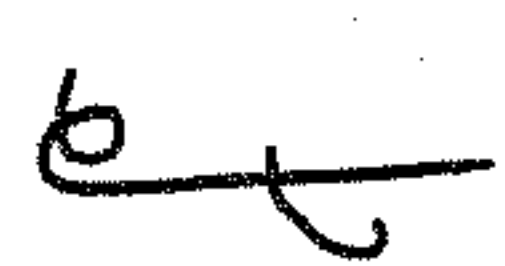


집중연습 : ㅓ모음에서는 겔널델... 갓넷땨...

ㅑ모음에서는 겔널델... 길널델... 겹넛땨... 깃넛땨...을 우선 연습한다.

<단어응용1>

간결한	간절한	간헐적인	갈고리를
			
간헐	갈고	걷다가	걸눴다
			
갈길이	갈매기는	갈비는	갈색이
			
갈모양만	갈치레는	곧바로	곧장
			
갈수록	갈채는	갈팡질팡	걸레는
			
꽃꽂이	꽃다발이	꽃동산을	꽃피워
			
결인이	결출한	결과는	결국은
			

<단어응용2>

꽃밭이	* 꽃송이는	긱바이를	긱은일을
			
결단을	결례를	결론을	결백을
			
긱가에	긱속말에	긱다가	끝끝내
			
결벽에	결별에	결사에	결산일에
			
끝낸	끝마친	끝장을	끝판에
			
결석에	결성에	결속에	결손가정에
			
긱대에	긱발에	긱털에	낯게
			

<단어응용3>

결실의



결언의



결의의



결재의



결정의



결제의



결탁의



결행의



낯알에



낯잠에



낯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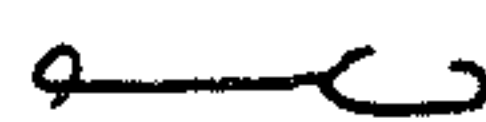
낯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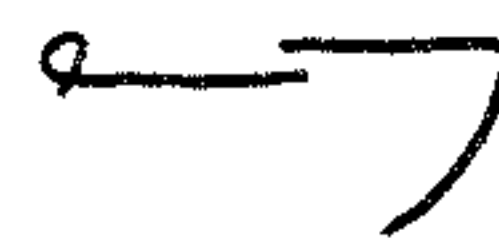
결혼에



골격에



골고루



골몰해서



골목길에서



골육상쟁을



골절을



골치를



낯익은



낯개의



낯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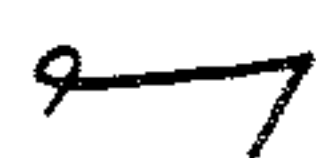
넣었다



골프의



\*끓다



끓아떨어지다



골곡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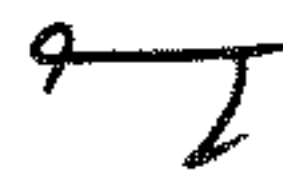


<단어응용4>

굴뚝을



굴레를



굴욕적



꺾기를



놓다



놓아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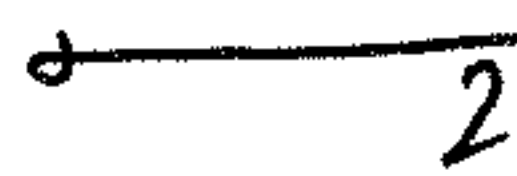
놓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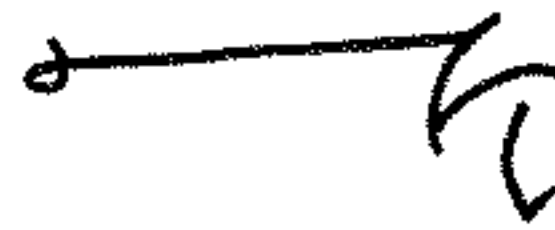
늦어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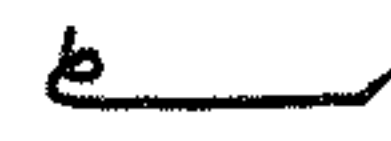
꺾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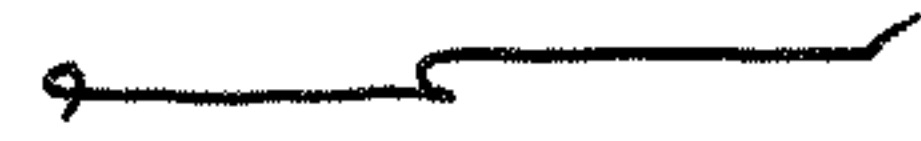
꺾석재판을



꺾을



꺾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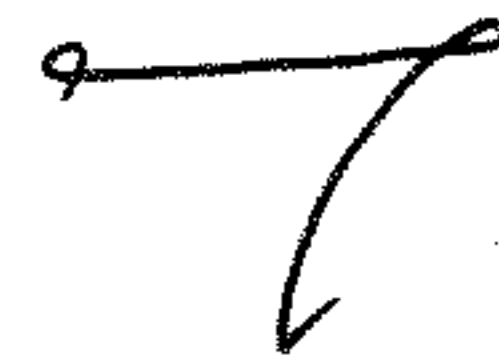
꺾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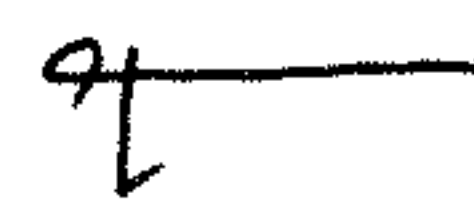
꺾세요



꺾씨를



꺾월을



늦더위가



늦장을



늦춰서는



닫아걸면은



꺾자의



꺾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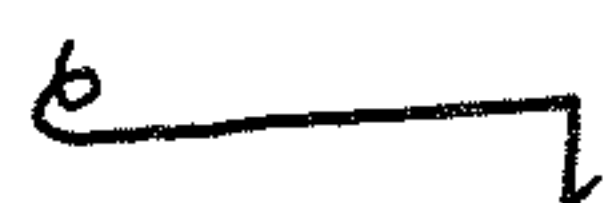
꺾들여서



꺾몽을



꺾이를



꺾일을



꺾흥화복을



꺾갈한



<단어응용5>

닷새날을	닿았다	덧니가	뗏뗏이
			
갈매기가	걸렁한	꼴뚜기가	꼴불견이
			
꼴찌는	꼴걱	*꼴다	*꼴어았다
			
덧붙여	덧없이	뗏목이	돈보였다
			
꼴려서	꼴어내다	*꼴다	날강도를
			
날뛰고	날려보낸다	날마다	날벼락을
			
돛자리를	돛대를	뒷골목을	뒷덜미를
			



<단어응용6>

날쌔	날씬한	날아들어	날짜가
			
날치기는	널뛰기를	*널찍하다	놀라다
			
뒷일을	뒷조사를	듣고서	뜯어내다
			
놀부흥부는	놀이터에	놀러	놀변
			
늘그막에	늘려서	*늘씬하게	늘어서다
			
뜯어버렸다	뜻밖에	뜻있는	뜻한 바가
			
달같은	달관해서	달구질	달라져서
			

<단어응용7>

달려화를



달력에



달마대사께서



\*달변가가



말형이



맛보자



맛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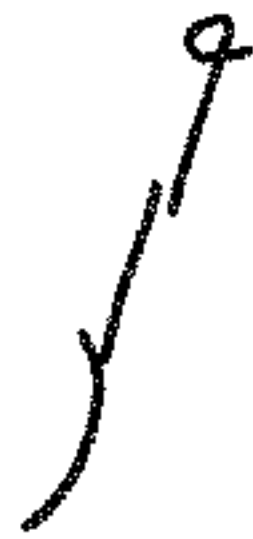
맛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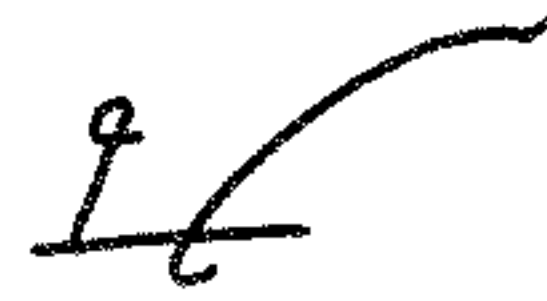
달인이



달도록



딸꾸질을



딸기를



딸랑딸랑



딸자식이



덜덜떨다



떨어지다



맞대면



맞먹다



맞아요



\*맞장구는



돌격전이



돈벌이를



돌다리를



돌려보낸



돌멘



\*돌맹이에는



돌발적



돌베껴서



<단어응용8>

맞이하여



맞벌이를



\*맞붙어서



맞선



똥망똥망



돌아가야



돌아앉아



돌연변이는



돌출간판이



돌팔매질을



돌잔치가



\*될성부른



맞수는



\*맞물려서



맞춰라



말겨서는



둘러대는



둘러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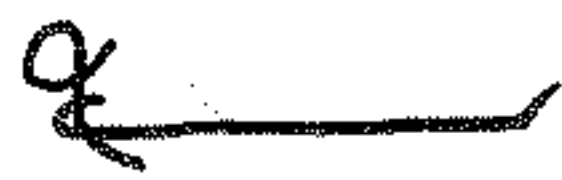
둘러앉은



뚫은



뱃길을



뱃노래는



뱃삿을



벗겨서



맷어서



맷혀서



맷혔군



멋들어진



<단어응용9>

붙들어라



붙였다



빛나간



빛맞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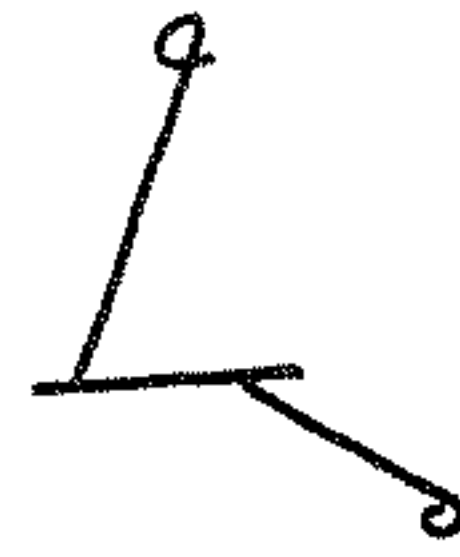
뚫어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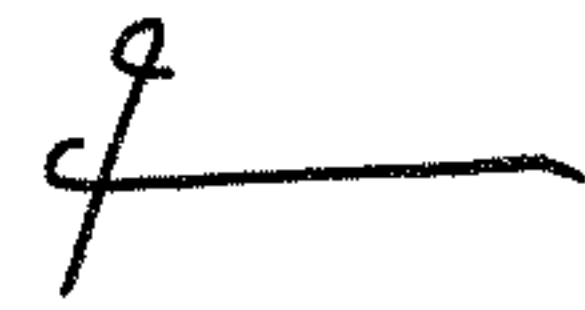
뜯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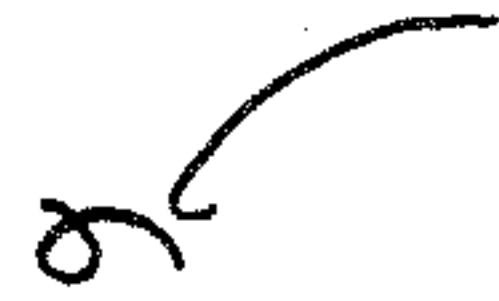
들국화는



들길은



멋진



못난이는



못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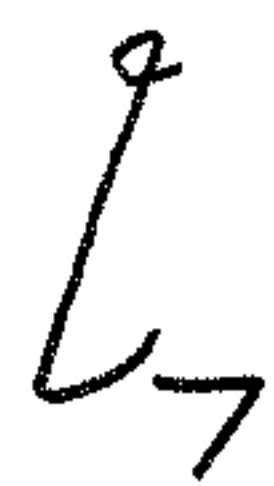
못된



들락날락



들어간다



\*들여다보면은



들취내서



들통난



들판에



덜력스



덜레머에



\*못살아서



못매를



믿음을



밑바닥을



릴뉘시를



릴레이를



릴리프



말꼬리를



<단어응용10>

말년병장은	말되네	* 말라빠진	말레이지아는
			
말바탕이	밀저서	밀창이	밀천이
			
말복에는	말살정책은	말썹꾸러기는	말소리는
			
말장난이	말재주가	* 말죽거리는	* 말하자면
			
받들자는	받아들여서	* 받아써라	받침법이
			
말까요	말거니	말구나	말미를
			
말지 않아	* 멜라닌색소를	* 멜로디를	멜론을
			

<단어응용11>

뺏뺏한



밭농사는



밭일을



\*뺏고동을



멸균해서



멸망해서



멸사봉공은



멸치를



물골보소



물두해서



물락해서



물래물래



\*벗어나고파



\*벗어났다



\*벗나무에



벗단을



물상식한



물아내는



물인정



물지각한



물가안정은



물개를



물건은



물결치는



빗발치듯



빗줄기는



빗어낸



빗갈은



<단어응용12>

물권 확보를



물난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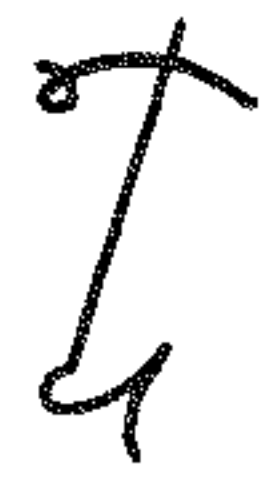
물놀이는



물동이는



물들여서



물량공세를



\*물러날 줄



물려줄



삿갓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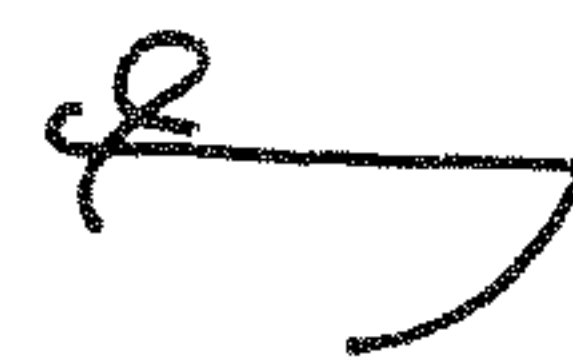
삿대질을



쌍고서



셋길로



물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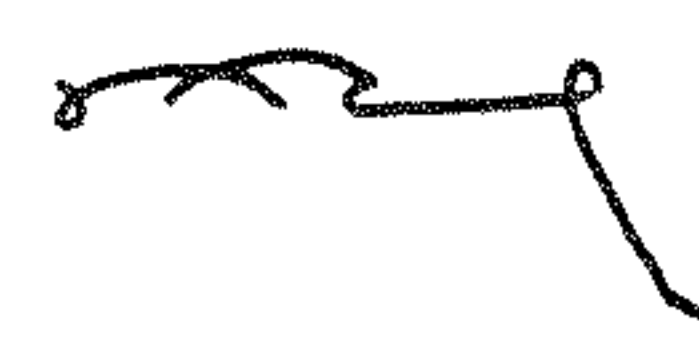
물만두는



물망초는



물물교환은



\*물방아간에서



물불기를



물색중



\*물실호기



선달



선불리



셋방에서



셋집에서



물어봤던



물줄기는



물질문명은



물통이



<단어응용13>

밀가루는	밀려온다	밀매행위는	밀실정치는
			
*쏟아붓는	숫구치는	*숫아나는	숫물이
			
밀월관계는	밀착을	*발가락을	발간해서
			
빨강	빨갱이를	발굴조사단을	발권력을
			
숫가락이	숫기가	숫총각이	숫덩이를
			
발길질에	발랄한	빨래를	발레리나는
			
빨리	발명특허를	*발병나는	발본색원해서
			



<단어응용14>

실고	식별건	*씻어라	씻은듯이
			
발생해서	발언권이	발자취가	발체개헌해서
			
발탁된	발행부수를	발휘해야	밸런스를
			
앗아가는	엇된	얏보았다가는	얏은 피를
			
밸브에서	벌꿀이	벌떡벌떡	벌레를
			
빨빨	벌써	벌칙에	벌꿀이반쪽
			
얻어맞았군	엇갈린	엇그제	엇저녁에
			

<단어응용15>

별미를



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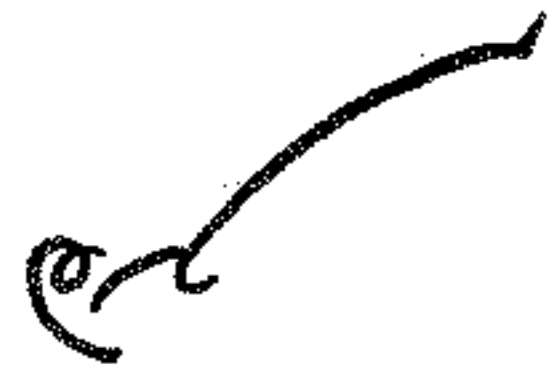
별세를



별안간에



별정직을



불기를



블록렌즈에서



불멘소리해서



옛장수는



옛든다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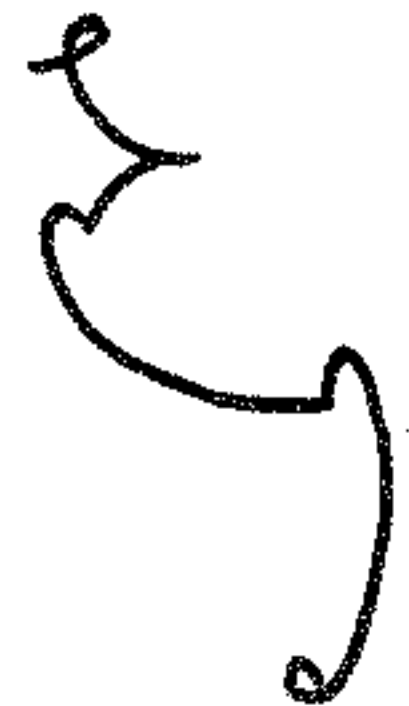
옛날에



옛일이



불세비키는



\*불가결을



\*불가불을



\*불가항력이



불결해서



불경기에



불공대천은



불굴의



웃걸이에



웃자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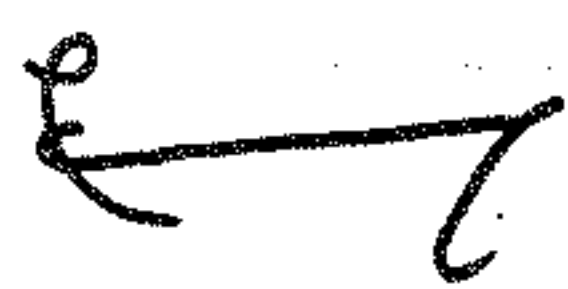
웃칠을



웃다가는



불길속에



불도저를



불란서에는



불러왔다



<단어응용16>

불로장생해서



불매동맹해서



불명예를



불명확해서



웃웃을



웃놀이를



잇달은



잣죽을



불문곡직해서



빨빨이



불상사를



불성실해서



불세출해서



불순분자를



불야성을



불연속선을



잣더미에



잣빛에



\*젓가락이



\*젓먹이가



불요불굴의



불원해서



불철주야



불체포특권을



불초소생이



불쾌한



불퇴전



불특정다수를



<단어응용17>

쫓겨가는	좋다면	짓궂게	* 짓밟아서
* 불편부당	불행중다행	불확실성의	블랙홀을
블록이	빌딩은	빌려주면	* 빌어먹을
짓밟았네	짓이겨	찢어지면	질푸른
살결이	살길이	살려줘요	쌀쌀한
살신성인해서	살찌우는	살췌이는	샐러리맨은
짙다가	찾길에서	찾잔이	찾아내는

<단어응용18>

\*셀쪽하는



설계사무소에



설득력이



설마가



셀물이



설상가상



설왕설래



설탕을



찾아내는



첫글자를



첫날은



첫마디가



설해를



셀로판을



솔선해서



솔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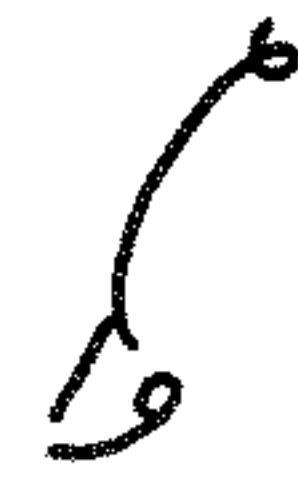
솔회를



쓸개에



쓸데없는



슬로건에



첫사랑에



첫술에



첫인상에



첫출발에



쓸모가



쓸쓸한



슬퍼서



실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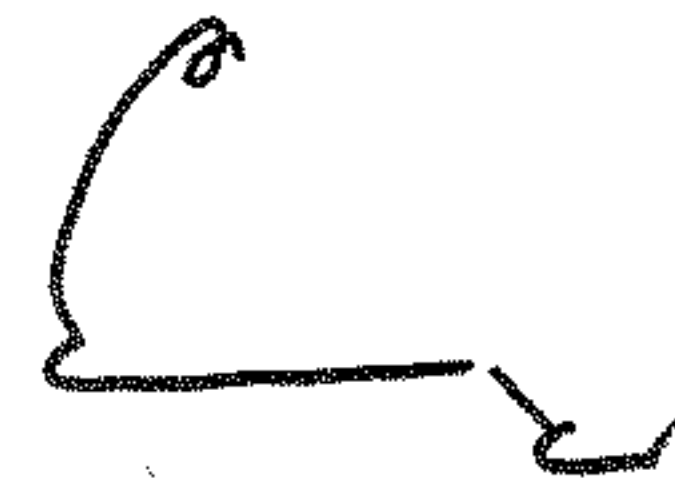


<단어응용19>

실격은



실기합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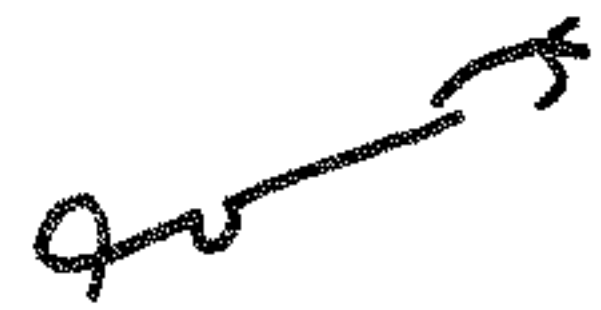
실력자는



실리를



첫출전해서



첫해를



첫술은



콧노래를



실망해서



실물경제를



실상을



실생활을



실수요자를



실연을



실용주의의



실익을



탓해서는



텃새를



\* 팔고물이



팔죽은



\* 실제로



실질적



실책을 해서



실천을 해서



실패가



실패가



실행이



실행방송이



<단어응용20>

싫은	싫증나는	*싫어져서	싱글벙글
알갱이가	알뜰한	*알맹이가	알아낸다
알아채는	알콜중독은	알았다	얼굴은
얼떨결에	얼렁뚱땅	얼마가	엘리트가
열강각축	열광적	열망이	열매가
열쇠가	열정이	열팽창이	열혈
열친에게서	올라설	올망졸망	올바로

<단어응용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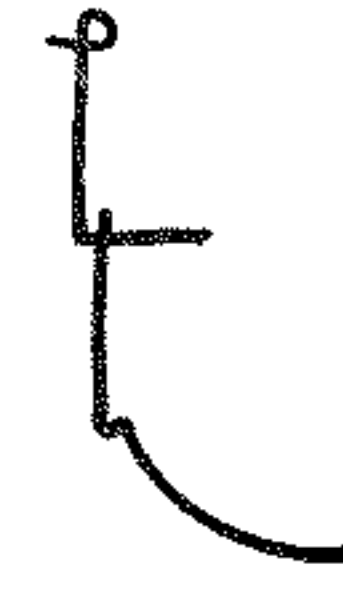
올챙이가



옳은



\*왈가왈부



왈츠를



왈각



울렁울렁



울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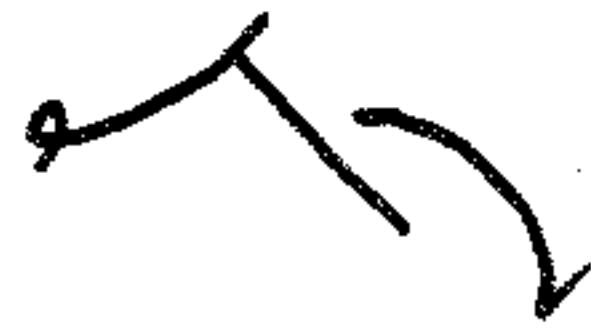
울컥



울타리에는



울화통을



월간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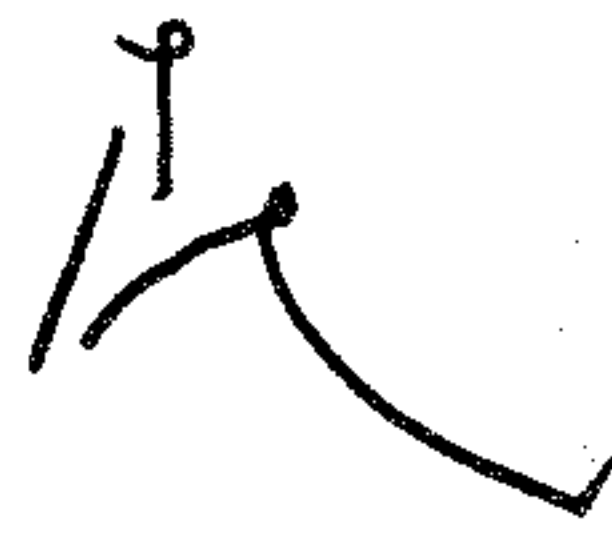
월계관을



월광을



월동준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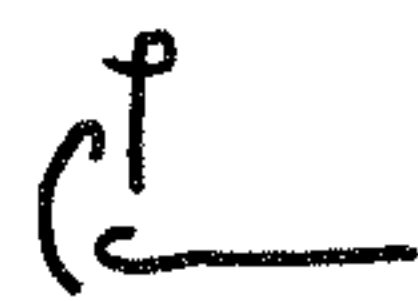
월북자를



월일을



월평균



울동에는



울무에는



을사조약에는



일가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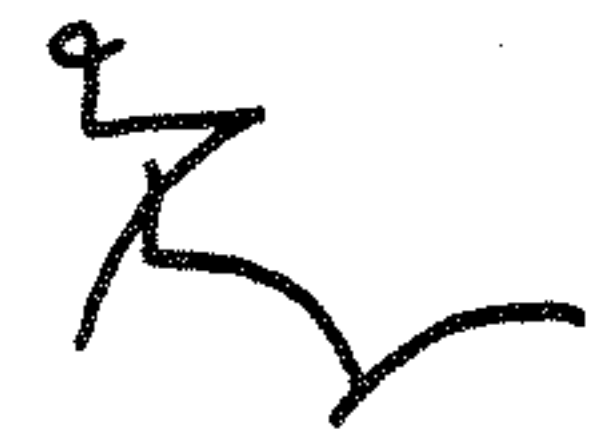
일가족이



일깨워



일거수일투족



일거양득



일거일동



일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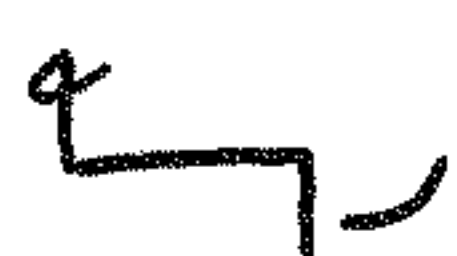
일팔타결





<단어응용22>

일구이언



일기예보는



일당백이



일도양단



일류가



일률적



일발필살



일별해보면



\*일부러



일사불란



일샷은



일생에는



\*일석이조



일순간에



\*일언반구



일언이폐지



일월은



일인당은



일일이



일자리는



일자무식



일장일단



일장춘몽



일정한



일제히



\*일조일석



일찍이



일진일퇴



<단어응용23>

일촉즉발



일취월장



일평생을



일할



일희일비



잃어버린



잘난



잘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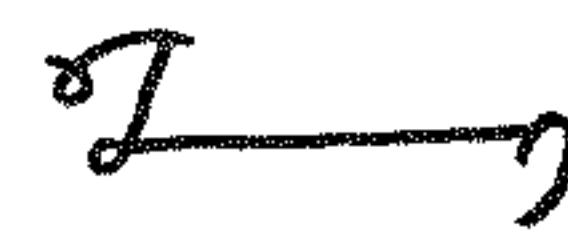
잘못해서



절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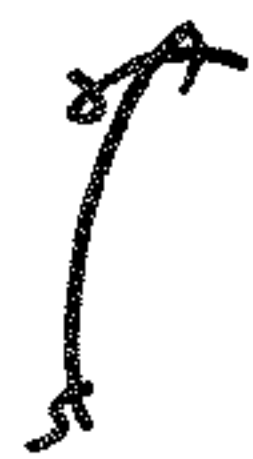
절대권력



절망을



절실해서



절약정신



절차탁마



절취선을



절해고도



젤리를



\*줄라매는



줄렬한



줄병이



줄속행정



줄아들면



줄줄줄



줄필



찰찰



줄기차게



줄무늬를



<단어응용24>

*줄타기를	줄행랑을	즐겁게	즐비하다
			
질권설정	질근질근	질문에서	질색을
			
질서는	질의연설	질책은	*질투하는
			
질풍을	질환에는	찰과상에는	찰나주의는
			
철강산업을	철광석을	*철도부설	철두철미
			
철면피는	철자법에는	철조망에서	철책에서
			
철폐해서	철학자가	철회를	철썩댄다
			

<단어응용25>

출력에는



출몰해서



출생에



출연에는



출영



출원자는



출제위원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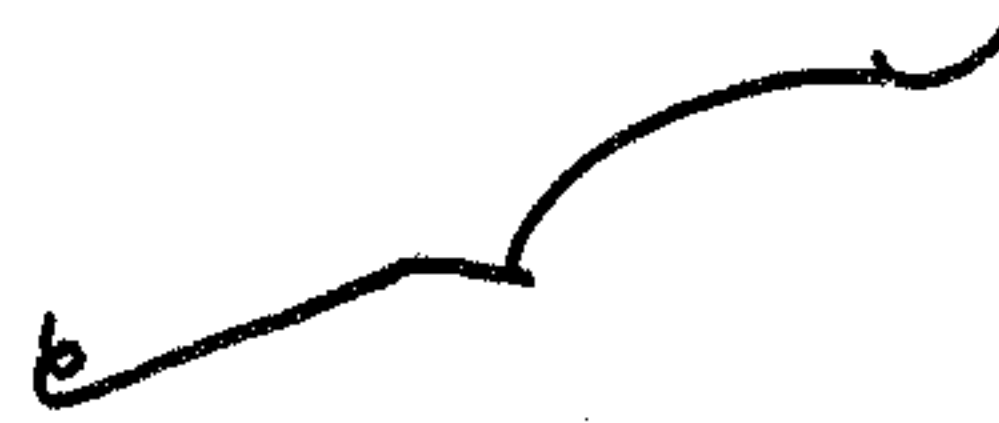
출판물에는



출혈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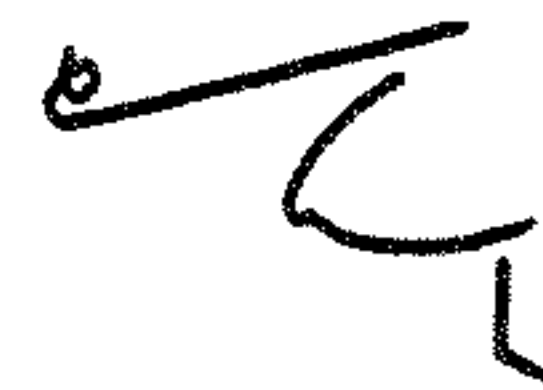
칠거지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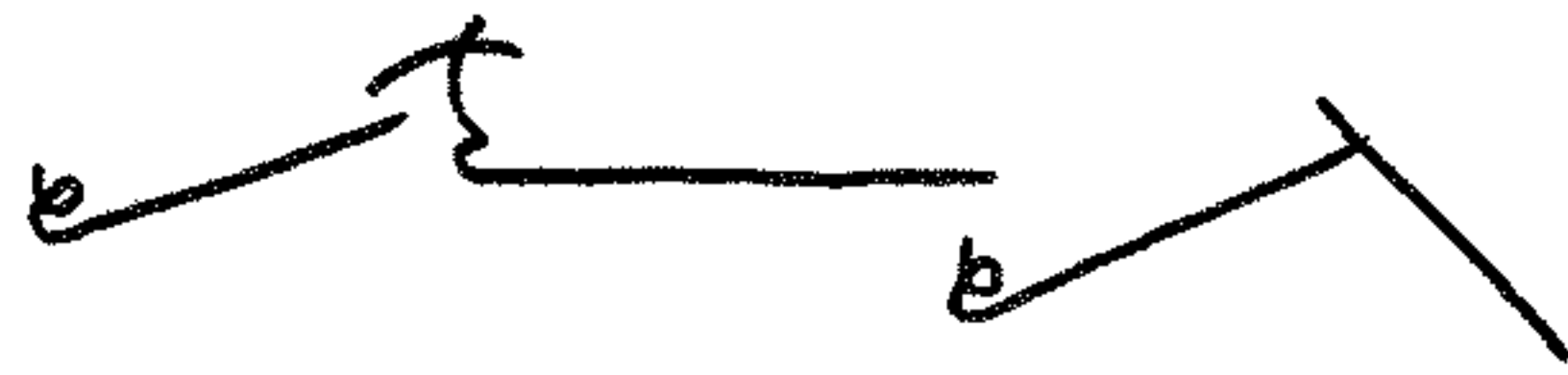
칠레에는



\*칠순노인은



칠전팔기



칠후

칼국수에는



칼날에는



칼질을



캘린더를



콜라를



콜레라를



칼칼



쿨쿨



클린치



킬킬



탈곡을



탈당설을



\*탈선하는



탈색을



<단어응용26>

탈세해서



\*탈의실에서



탈출해서



탈퇴해서



탈환을



털가죽에



털터리



텔레비전에서



톨게이트에는



털어먹은



틀어박혀서



팔각정에



팔다리를



팔만대장경



팔베개를



팔촌



필러이는



필필



필프를



폴란드에서



폴카를



폴벌레를



폴무질을



\*풀어준다



풀칠해서



폴리처상을



플라밍고를



플라톤은



<단어응용27>

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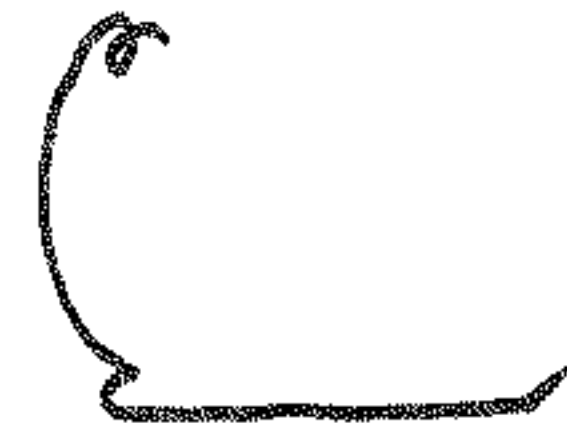
플룻을



필경사



필기를



필멸



필생



필수



필승



필화사건



할당을



할렐루야



\*할로겐



할는



할리혜성



햇별이



햇빛이



했겠다



혈떡이는



혈레벌떡



헛된



헛소문이



혈관이



혈맹



혈색이



혈액형을



혈연을



혈육상봉



혈통을



<단어응용28>

헐헐단신



헛갈리는



홀가분한



홀딱



홀연히



활개를



활달한



활동적



활력소를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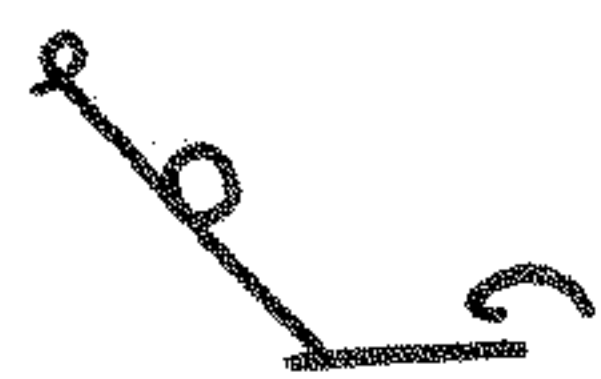
활약상을



활짝



활황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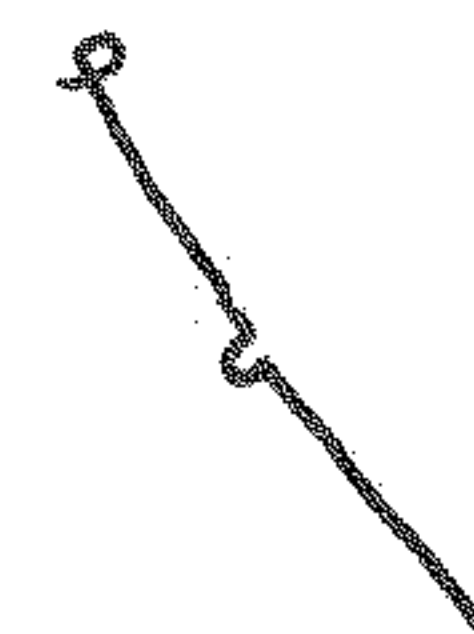
홀륭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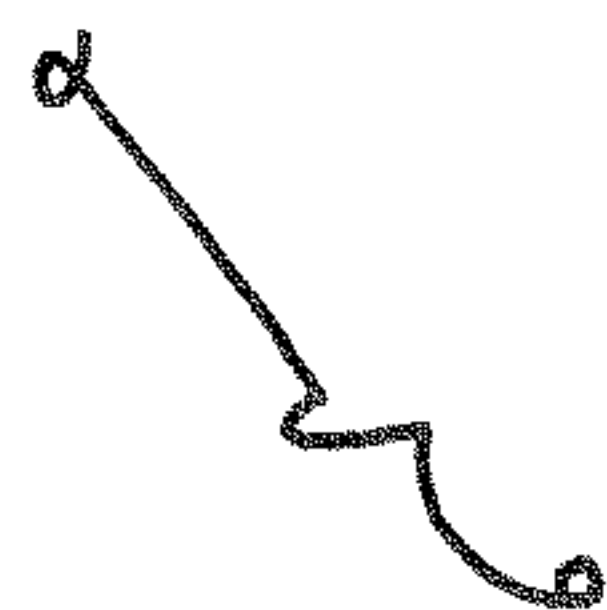
\*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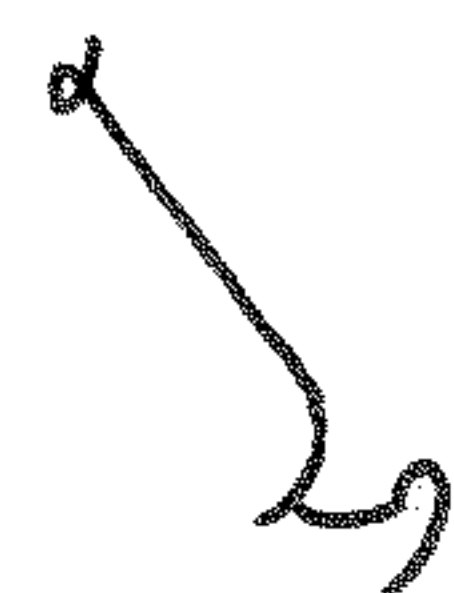
활활



홀겨보는



\*홀러내려



홀날리는



홀뿌리누나



홀어진



힐난을



힐문해서



힐책해서



종합연습문제

/는 띄어쓰는 곳이다. 공책에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1. 훌륭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이나/ 수완에/ 의지하기/ 보다/ 오직/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일이/ 중요하다.
2.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 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3. 말은/ 배열을/ 달리하면/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의미는/ 배열을 달리하면/ 딴/  
효과를/ 가지게/ 된다.
4. 오랜만에/ 서울에 와서/ 길을 잃고/ 헤맨다는/ 사람들이/ 많다.
5. 첫번째/ 일요일에는/ 서울에 갔었더니/ 수많은/ 차량의 홍수 속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불일도/ 제대로/ 끝내지/ 못했다.
6. 선생님께서/ 보내 주셨던/ 연설문을/ 잘/ 받아/ 보았어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서라/ 할까/ 행동강령이라 할까/ 저에게 있어서는/ 할일  
을/ 잊고/ 몰두하게/ 만든/ 연설문이었어요. 다음에/ 문안편지/ 올릴 때에는/ 느낀/ 점  
을/ 소상히/ 글로/ 적어/ 선생님의/ 가르침을/ 청하고자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7. 한 가지/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가라/ 잘못도/ 있으리라/ 실패도/  
있으리라. 그러나/ 다시/ 일어나/ 그/ 길로/ 매진하라.
8. 새로운 맞춤법에/ 따라/ 한글을/ 표기하자니/ 전에 공부한 것과/  
혼동되는/ 부분이/ 가끔/ 있어서/ 언제나/ 사전을/ 뒤적여/ 보곤 한다.
9. 명백한/ 이론으로/ 연구의 체계를/ 세워놓기 전에는/ 자신의/ 이론을/ 세상에/  
공표하기가/ 어렵다.
10. 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자랑할만한/ 진척을/ 이루었다.
11.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 영위하고자 한다면/ 장차/ 머나  
먼/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2. 설악산/ 골짜기마다/ 진달래가/ 활짝/ 피어/ 완연한/ 새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13. 처음/ 회의장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은/ 분위기에/ 눌려/ 당황한/ 나머지/  
무엇을/ 기록하였는지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14. 민주사회는/ 몇몇/ 사람끼리/ 모여/ 중대한/ 결정을/ 하거나/ 장막 속에서/ 얘기가/ 왔  
다 갔다/ 하면서/ 자신들만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  
민의/ 안녕과/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투표로/ 선출되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키는/ 공개행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15. 자신의/ 상사에게/ 항상/ 묘책을/ 개진하여/ 자신이/ 소속된/ 단체를/ 발전시키는/ 사  
람도/ 자기자신에 대하여/ 충고하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멸망하는/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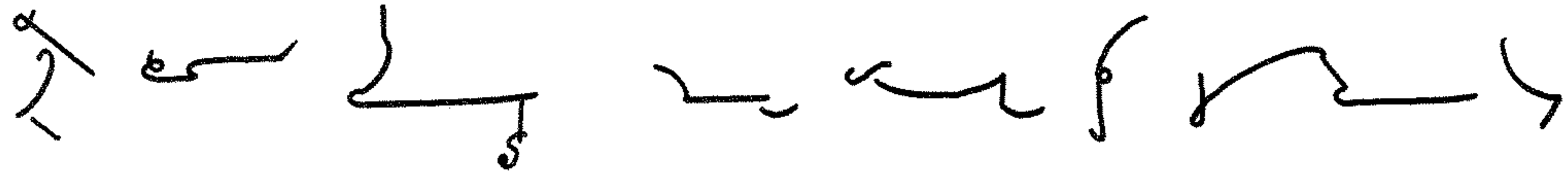
자! 이제는 속기문자 아래에 한글로 번문을 해 보자.

\*\*정답은 다음 페이지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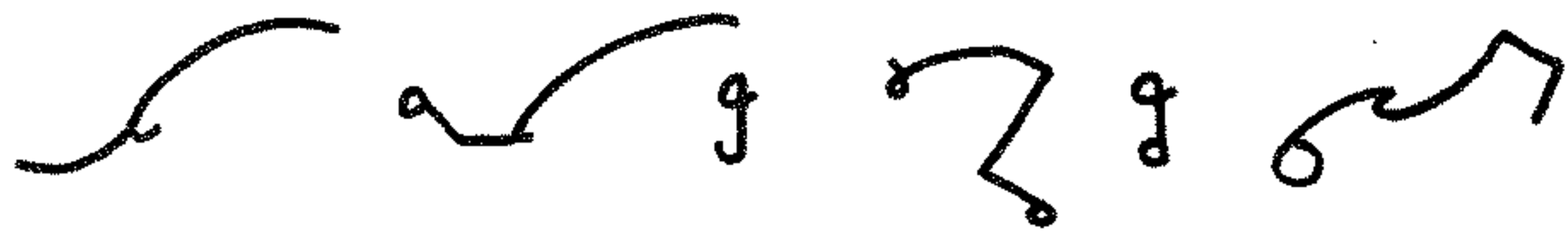


종합연습문제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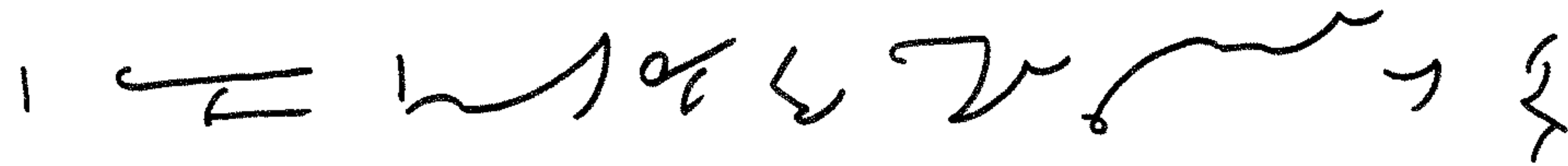
1. 훌륭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이나/ 수완에/ 의지하기/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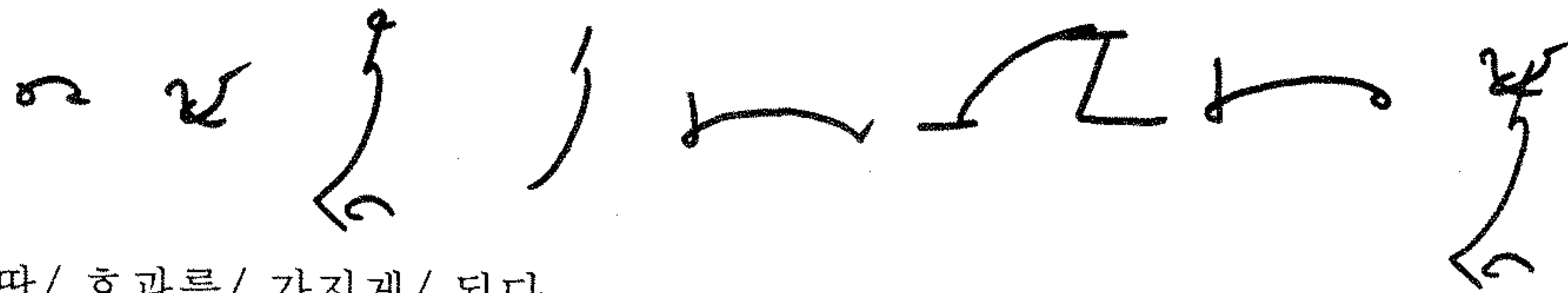
오직/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일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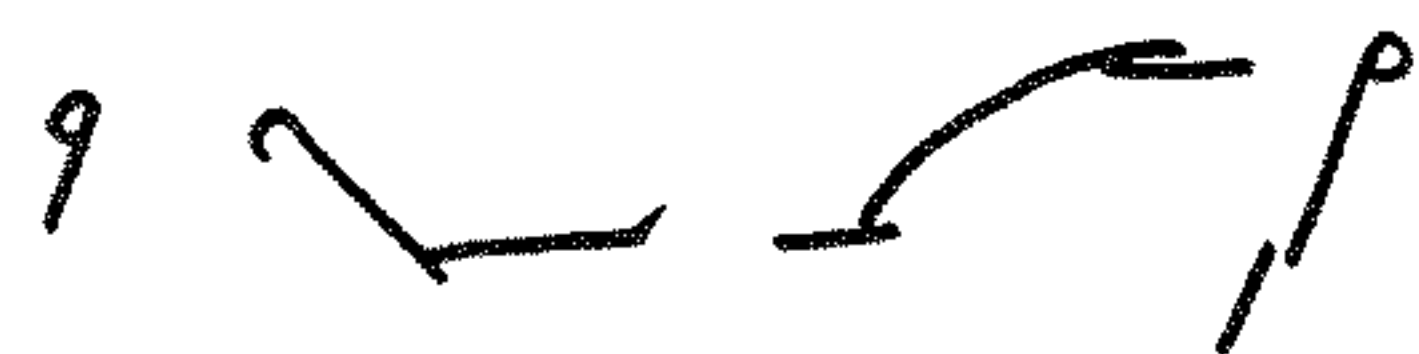
2.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 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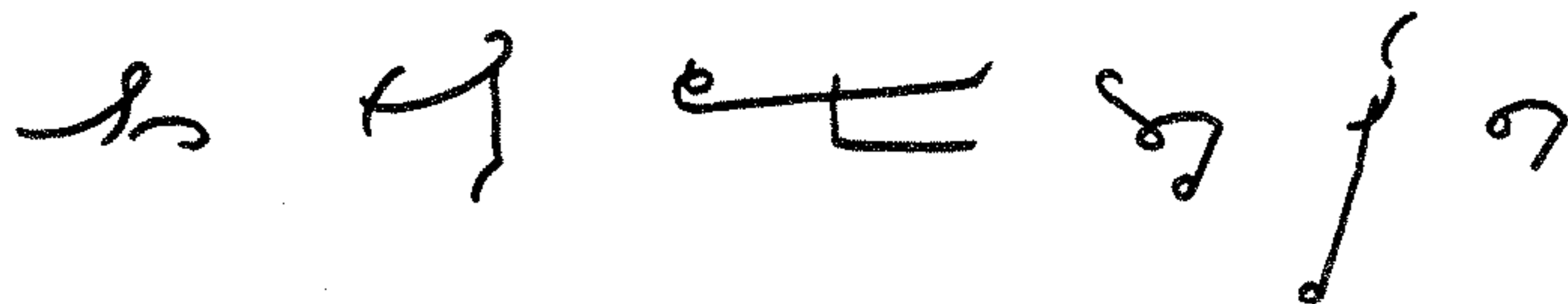
3. 말은/ 배열을/ 달리하면/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의미는/ 배열을 달리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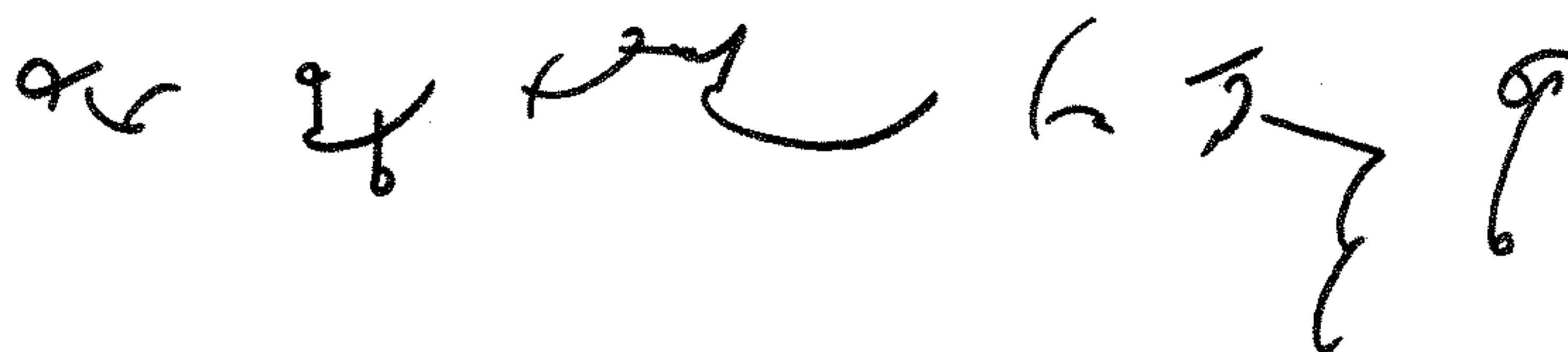
딴/ 효과를/ 가지게/ 된다.



4. 오랜만에/ 서울에 와서/ 길을 잃고/ 헤맨다는/ 사람들이/ 많다.



5. 첫째/ 일요일에는/ 서울에 갔었더니/ 수많은/ 차량의 홍수 속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불일도/ 제대로/ 끝내지/ 못했다.

왔다 갔다 해서/ 불일도/ 제대로/ 끝내지/ 못했다.

6. 선생님께서/ 보내 주셨던/ 연설문을/ 잘<sup>\*</sup> 받아/ 보았어요.

선생님께서/ 보내 주셨던/ 연설문을/ 잘<sup>\*</sup> 받아/ 보았어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서라/ 할까/ 행동강령이라 할까/ 저에게 있어서는/ 할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서라/ 할까/ 행동강령이라 할까/ 저에게 있어서는/ 할

일을/ 잊고/ 몰두하게/ 만든/ 연설문이었어요. 다음에/ 문안편지/ 올릴 때에는/

일을/ 잊고/ 몰두하게/ 만든/ 연설문이었어요. 다음에/ 문안편지/ 올릴 때에는/

느낀/ 점을/ 소상히/ 글로/ 적어/ 선생님의/ 가르침을/ 칭하고자 합니다.

느낀/ 점을/ 소상히/ 글로/ 적어/ 선생님의/ 가르침을/ 칭하고자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7. 한 가지/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가라/ 잘못도/ 있으리라/ 실패도/

한 가지/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가라/ 잘못도/ 있으리라/ 실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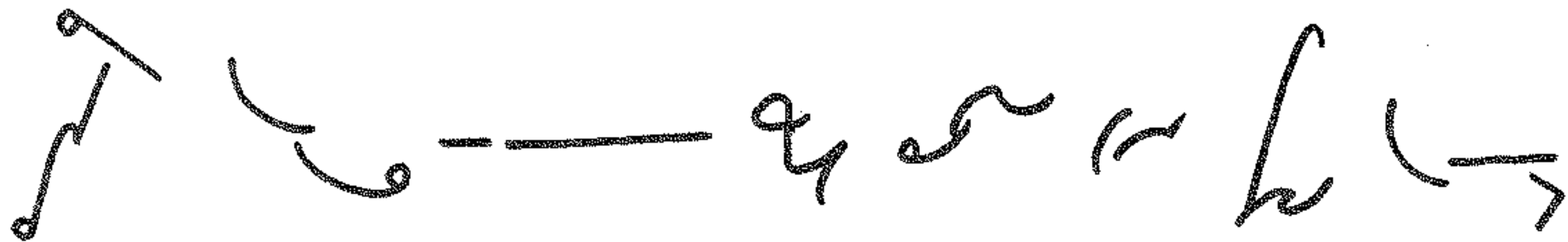
있으리라. 그러나/ 다시/ 일어나/ 그/ 길로/ 매진하라.

있으리라. 그러나/ 다시/ 일어나/ 그/ 길로/ 매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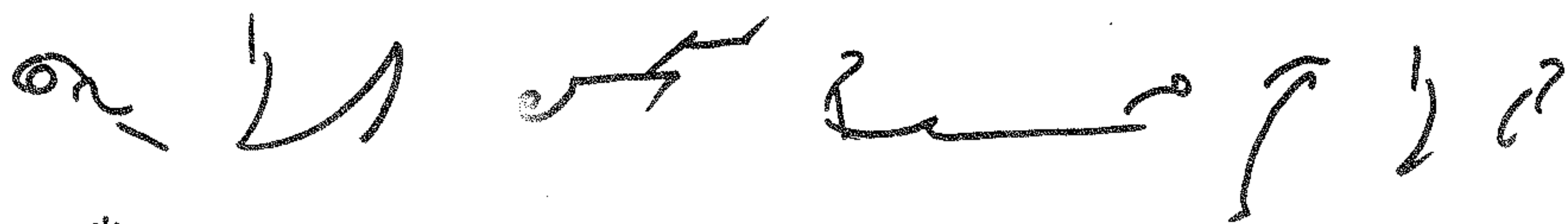
8. 새로운 맞춤법에/ 따라/ 한글을/ 표기하자니/ 전에 공부한 것과/



혼동되는/ 부분이/ 가끔/ 있어서/ 언제나/ 사전을/ 뒤적여/ 보곤 한다.



9. 명백한/ 이론으로/ 연구의 체계를/ 세워놓기 전에는/ 자신의/ 이론을/ 세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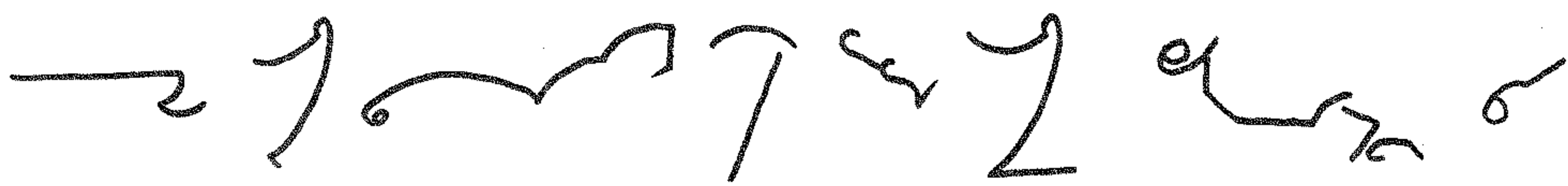
\*  
공표하기가/ 어렵다.



10. 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자랑할만한/ 진척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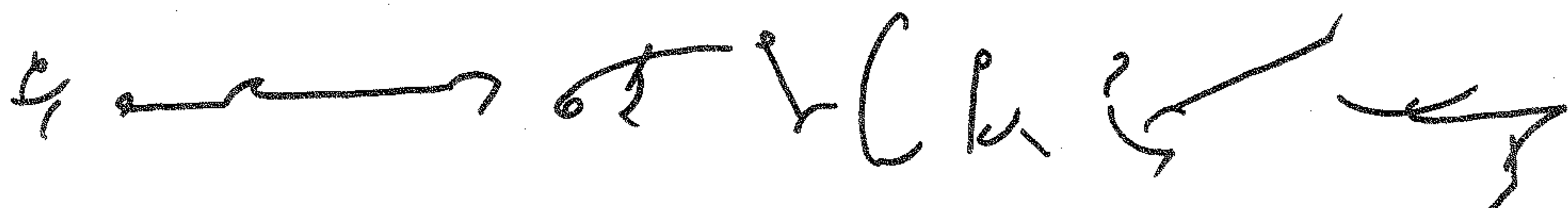
11.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 영위하고자 한다면/ 장차/



머나먼/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2. 설악산/ 골짜기마다/ 진달래가/ 활짝/ 피어/ 완전한/ 새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13. 처음/ 회의장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은/ 분위기에/ 눌려/ 당황한/ 나머지/

무엇을/ 기록하였는지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민주사회는/ 몇몇/ 사람끼리/ 모여/ 중대한/ 결정을/ 하거나/ 장막 속에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들만을 위한/ 정책<sup>\*</sup>을/ 세우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녕과/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투표로/ 선출되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키는/ 공개행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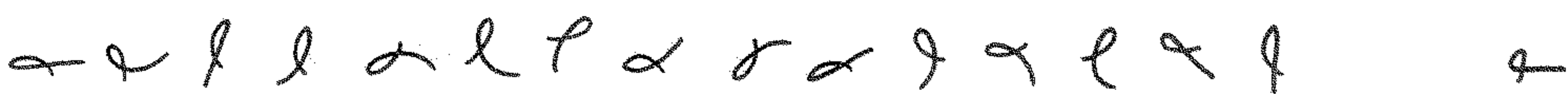
자신의/ 상사에게/ 항상/ 묘책<sup>\*</sup>을/ 개진하여/ 자신이/ 소속된/ 단체를/ 발전시키는/


사람도/ 자기자신에 대하여/ 충고하는/ 부분<sup>\*</sup>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멸망하는/ 수가 있다.


사람도/ 자기자신에 대하여/ 충고하는/ 부분<sup>\*</sup>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멸망하는/ 수가 있다.

사람도/ 자기자신에 대하여/ 충고하는/ 부분<sup>\*</sup>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멸망하는/ 수가 있다.

6-5. ㄱ받침(ㄱ, ㅋ, ㆁ, ㄷ, ㄹ) : 머리에 머리카락 있는 긴 타원을 붙인다.


ㅏ모음 : 감 남 담 람 맘 밤 삼 압 잠 참 캬 탐 팜 함 임  
 갑 납 답 랑 맵 밥 삽 압 잡 찹 캷 탐 팜 함 입 : 정측 갈  



ㅓ모음 : 겼 념 댜 램 맴 뵤 섹 엠 챔 췌 캬 텨 폼 험  
 겹 녑 땡 랑 맵 뵤 섹 엠 챔 췌 캷 텨 폼 험 : 반측 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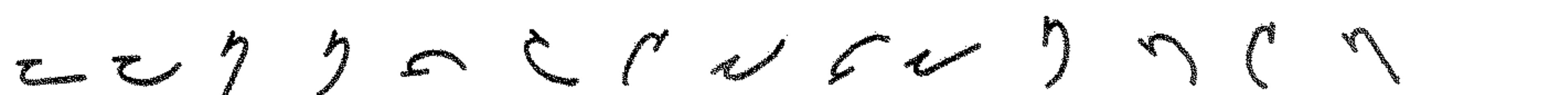
ㅗ모음 : 감 남 담 람 맘 밤 삼 압 잠 참 캬 탐 팜 함  
 갑 납 답 랑 맵 밥 삽 압 잡 찹 캷 탐 팜 함 : 반소원 갈  


연습법 : ㄱ과 ㅏ을 같이 쓰나 발음이 다르므로 감검곰굼금, 갑겹곰굽금... 겼괸괸괸괸, 겹괸괸괸... 감검곰굼김, 갑겹곰굽김...처럼 각각 연습한다.

6-6. ㄱ받침(ㄱ, ㅋ, ㆁ, ㄷ, ㄹ) : 머리에 날카로운 갈고리를 붙인다.

ㅏ모음 : 각 낙 닥 락 막 박 삭 악 작 착 각 탁 팍 학 익 : 직선-정측  


ㅓ모음 : 객 녀 댕 렉 맥 백 색 액 책 췌 객 택 팩 핵 : 직선-반측  


ㅗ모음 : 각 낙 닥 락 막 박 삭 악 작 착 각 탁 팍 학 : 반소원  


연습법 : 각격곡국극... 객곽곽곽곽... 각격곡국각...

정리 : ㄱ받침 곡선문자는 모든 받침이 「ㅏ모음은 정측, ㅓ모음은 반측」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부분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집중연습 : ㅓ모음에서는 겼(겹)념(녑)땡(땡)... 객녀댕...

ㅏ모음에서는 겼(겹)념(녑)땡(땡)... 겼(겹)녀(녑)댕(땡)...을 집중연습한다.

<단어응용1>

감각이

감개무량이

감격이

감금당했다

감당을

감독을

감명받았다

감박

감방을

감소를

감시를

감쪽한

감질이

감찰이

감촉이

\*감탄고토

감행의

감감한

감론을박

값어치의

값다가

검찰의

겉낸다

겉테기의

검비의

검손의

겉치면

끓아서

<단어응용2>

곰팡이에



곰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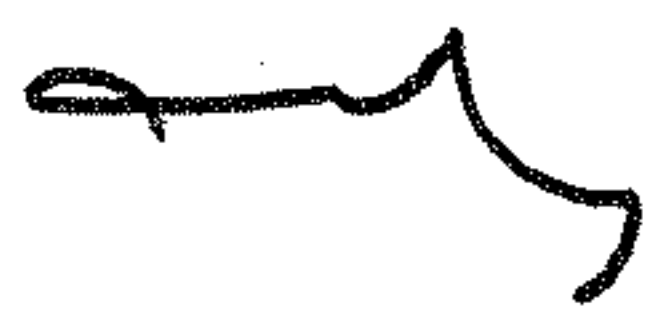
곰결에



곰은



곰어보라



곰강산을



곰팡이



곰괴가



곰권선거는



곰력은



곰명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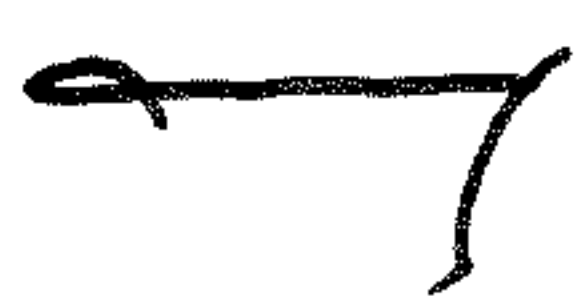
곰번에



곰상침화의



곰속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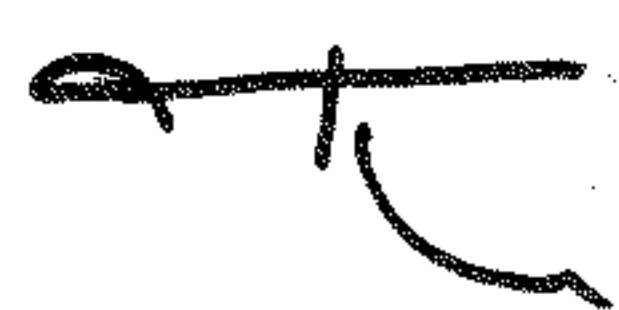
곰액을



곰육을



곰일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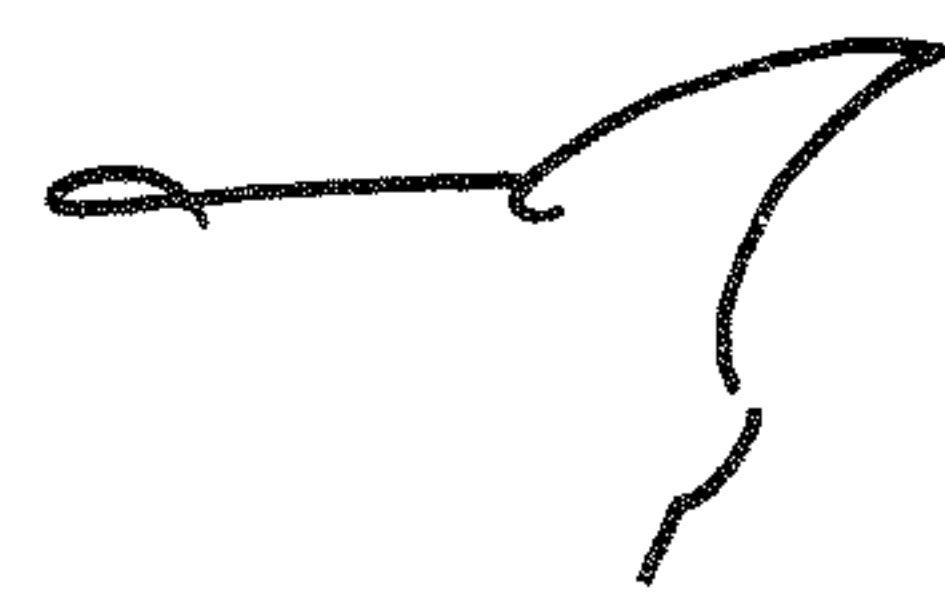
곰자탐은



곰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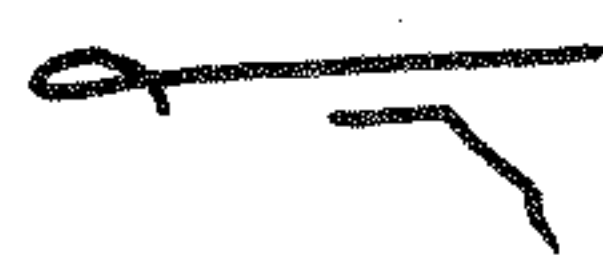
곰찍스럽다



곰테안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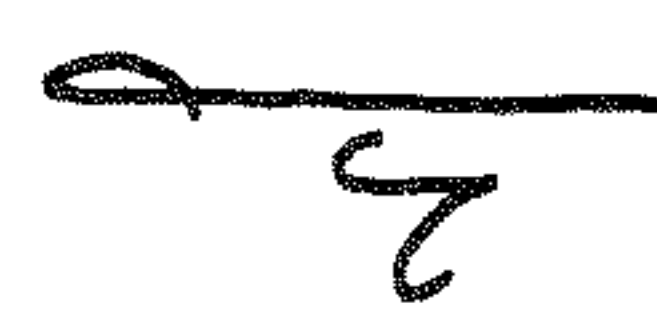
곰강하가



곰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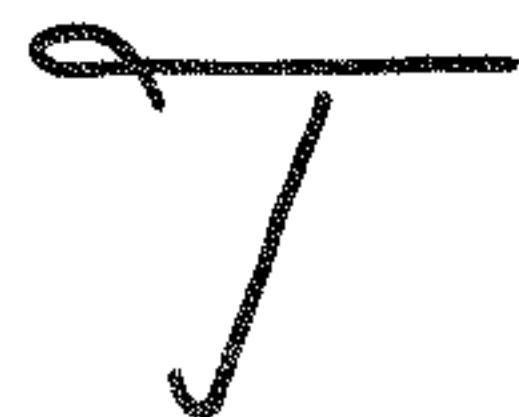
곰경사에



곰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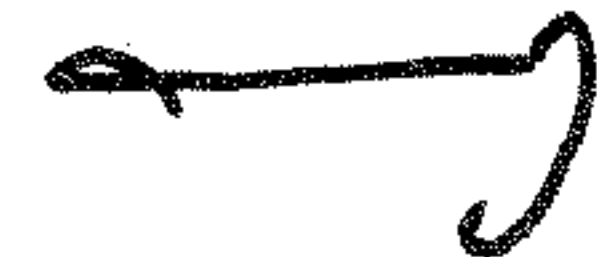
곰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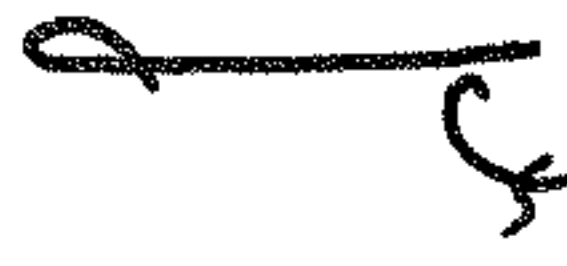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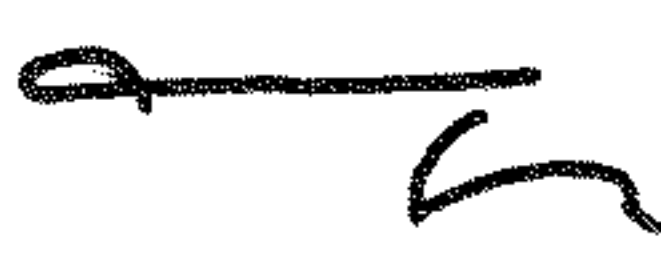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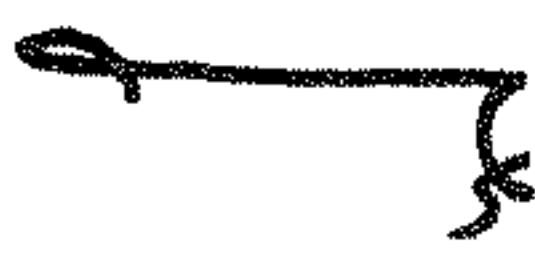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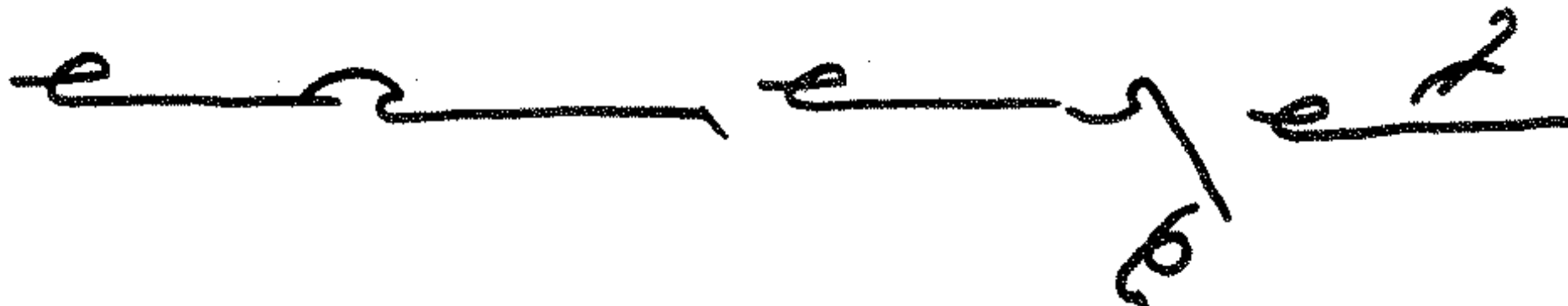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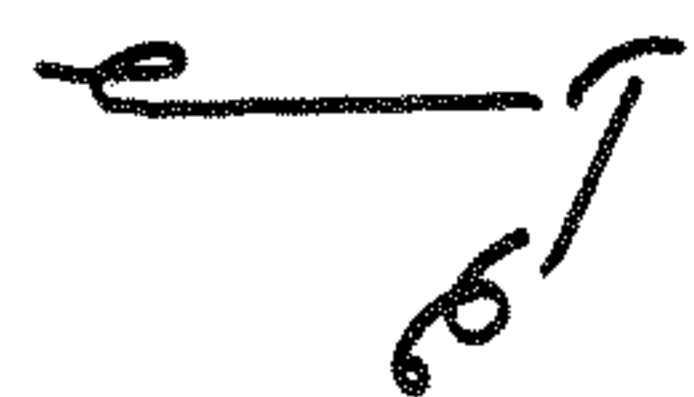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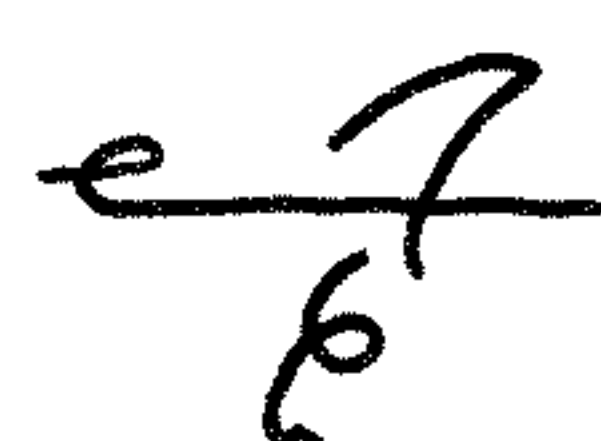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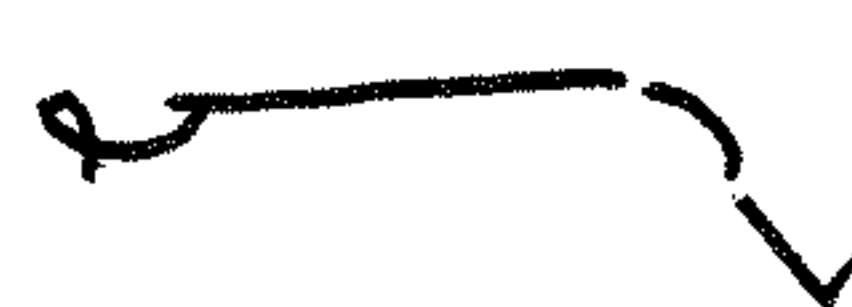











곰락에



곰료에



<단어응용3>

급변해서	급선무가	*급전직하의	급증해서
			
급진좌경의	급파해서	급행열차가	급히
			
김매기가	김남호 선생은	김장철에	김점동 선생이
			
김종수 선생은	김치에	깊이	남가일몽의
			
남극탐험을	남남북녀	남달리	남부여대해서
			
남성적	남존여비의	남해의	남한의
			
남획을	남기에	남세에	남입에
			



<단어응용4>

납치해서



납품업자를



냄새가



넘겨짚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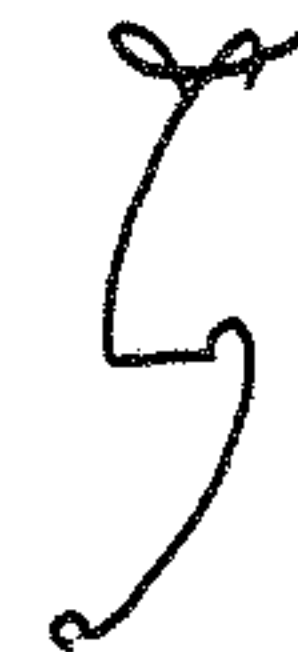
넘나들어



넘보네



넘실거리는



넘어가서



넘어오는



넘침을



눔들은



높낮이가



높다란



높임말에는



눔름한



높지대에는



답았다



땀냄새가



담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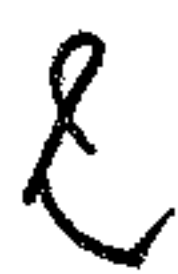
땀띠가



답력은



담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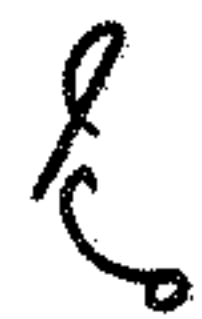
담보를



\*담쟁이가



답변에는



답신에는



\*담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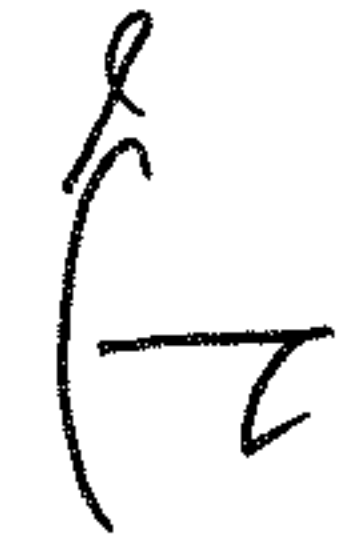


\*덤빙거려요



<단어응용5>

덤핑공세를



덧개를



덧어놓고



덧쳐서



둑고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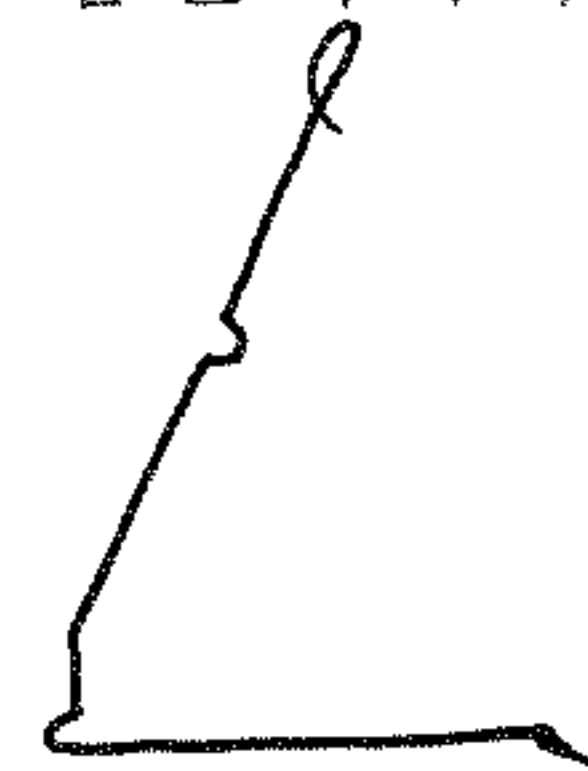
뒹뒹이가



땀박질이



땀들이기가



듬성듬성



땀질을



땀하군



림프샘



맵시가



맵다



맵쌀을



몸가짐을



몸값을



몸똥이가



몸매가



몸부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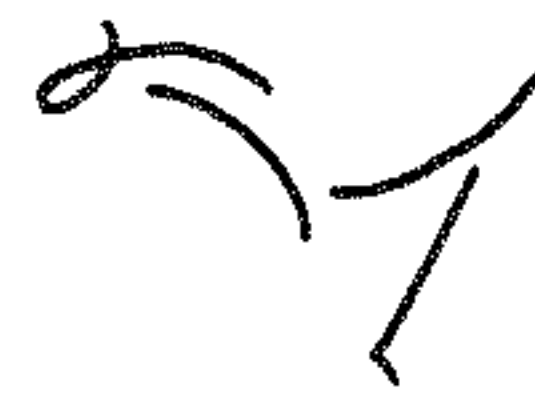
몸서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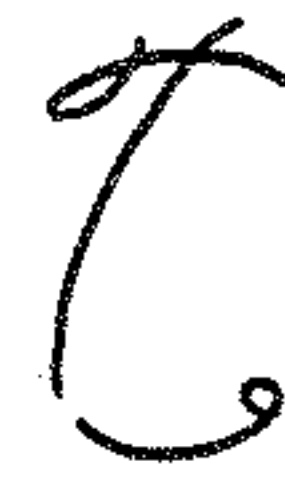
몸집은



몸통운동은



몸쓸놈이



몹시



몹다고



몹살스럽다



몹상을



<단어응용6>

밤길에

밤낮없이

밤새워

밤손님에게

\*밥그릇에

밥통에

밥투정을

뱀장어를

범람을

범례가

범범행위를

범위내에서

범죄단체를

범칙행위를

범퇴해서

범행자백이

범과대학에

범규위반에는

범령집에는

범률에는

범안제출에

범원행정처에

범조계에

범칙에

봄눈에

봄비에

뿔혔던

\*뿔어올려서

<단어응용7>

뽀비다	삼갑시다	삼각형에	*삼강오륜을
			
삼권분립에	삼단논법에	삼라만상에	삼림에
			
삼민주의는	삼복더위에	*삼삼오오	삼성에서는
			
삼엄한	삼원색은	삼척동자가	삼촌께서는
			
삼층밥을	삼한사온에	삼살개가	삼시간에
			
삼입해서	삼물이	삼터에	삼페인을
			
삼광처럼	*삼나라에는	삼삼옥수	삼렵하다
			

<단어응용8>

섭생해서



\*섭외부장께서



섭취량을



셈본을



숨씨가



숨웃이



숨털이



숨결이



숨넘어가는



숨찬



숨통을



숨표가



쉽사리



쑤쑤이



습격해서



습관에는



습성에는



쑤쑤한



습진에는



심각한



심경이



심사가



심신이



심야에



심장병에



심정에



심증에



심지어



<단어응용9>

심취해서



심판을



심혈을



심히



십분발휘해서



십시일반



암담한



암만해도



암모니아가



암산해서



암살을



암시해서



암암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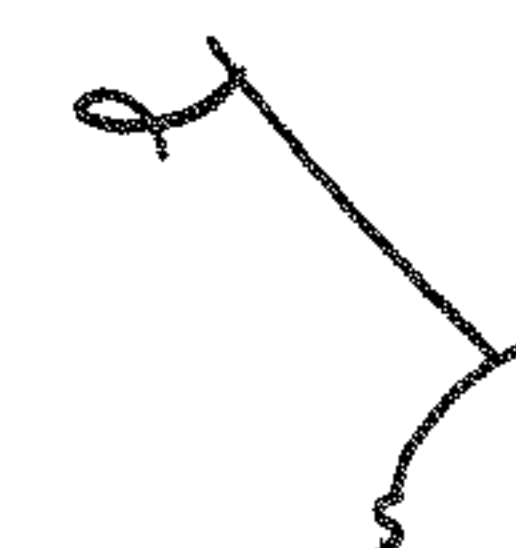
암중모색



암탉이



암흑속에서



암권의



압도해서



압력단체가



압류해서



압박해서



압수해서



압착해서



압축해서



앞가림을



앞길에서



앞당기자



앞뒷집에서



<단어응용10>

앞문에	앞서서	앞세우다	앞잡이를
			
앞집에서는	앰프에서	얇다란	얇전한
			
엄격한	엄동설한에	엄마야	엄벌주의의
			
엄병덤병	엄숙한	엄연한	엄중한
			
엄청난	업무집행을	엄신여김	엄저버께서
			
없음이	없애서	없이	엮어졌다
			
엮질렀다	엮친 데	엮친 격	엮은
			

<단어응용11>

염가할인판매



염려해서



염색해서



염세주의는



염원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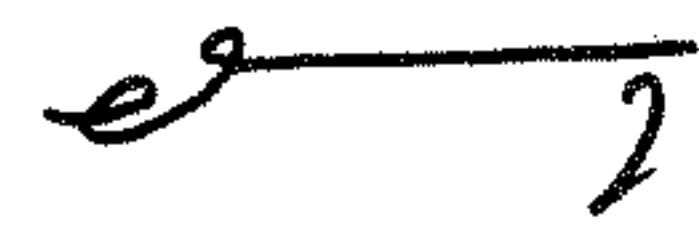
염증을



염탐꾼이



염권련을



엽전을



옆모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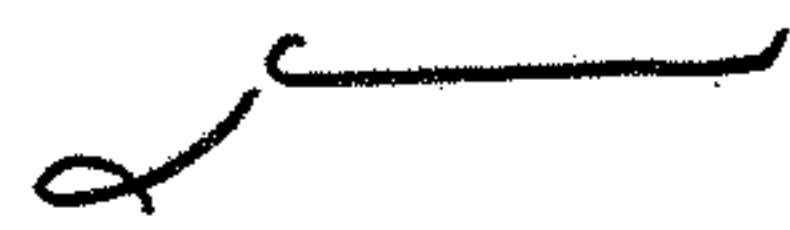
옆집을



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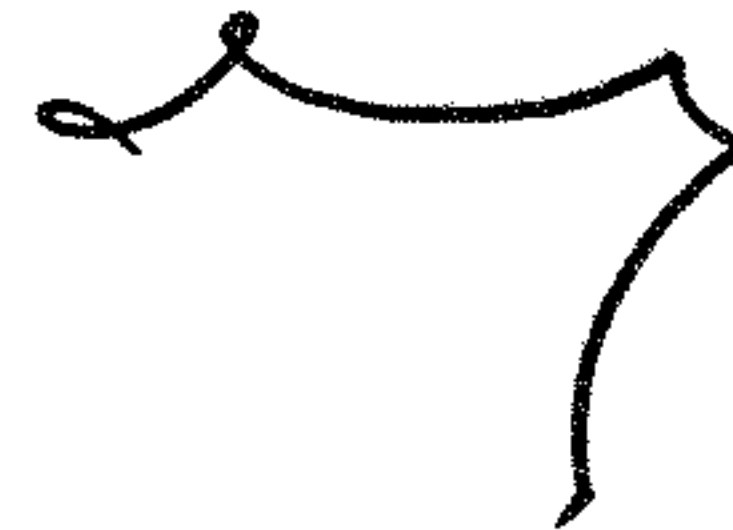
옴김을



옴아왔다



옴니버스의



옴쪽달짝



\*옴사이드를



옴돈다



옴막에서



옴직임이



옴켜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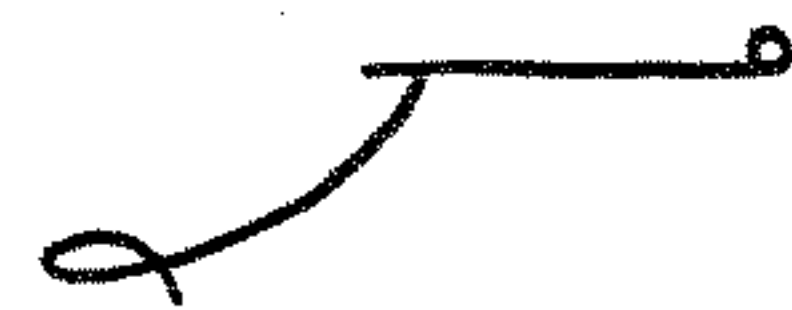
\*옴어서



옴계가



옴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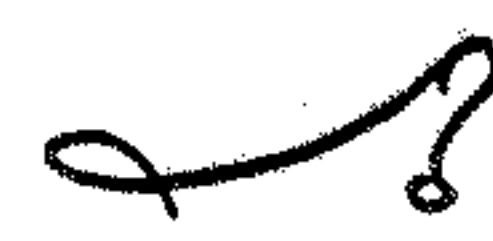
옴력에는



옴료수에는



옴색에는



옴식점에는





〈단어응용12〉

음양오행설에



음주운전에



음절에



음면동에



음소재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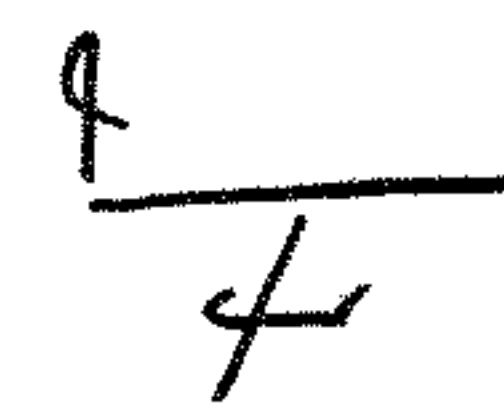
임검석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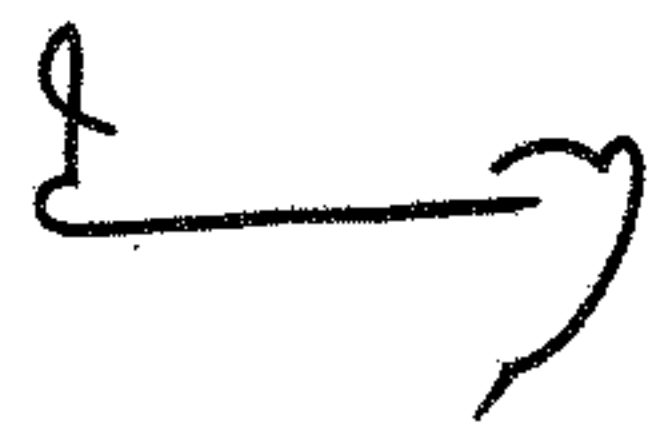
임관해서



임금동결을



임기만료의



임면권의



임업시험장에



임원선임의



임대차보호법



임진각에서



입각해서



입건해서



임금을



입술을



입신양명을



입안해서



입원해서



입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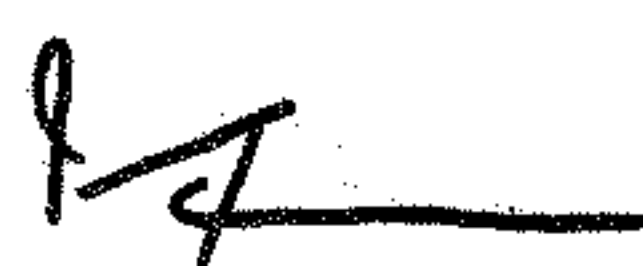
입찰해서



입추의



입춘대길



입후보해서



잠결에



잠망경을



<단어응용13>

잠수함에



잠실운동장에



잡담해서



잡목을



잡무를



잡아냈다고



잡아떼다



잡아들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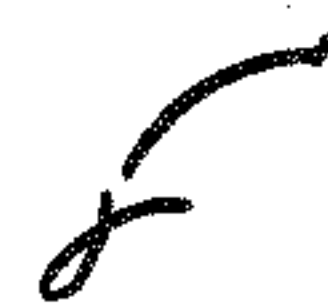
잡음이



잡잡한



잡종을



잡지를



잡혔다



잡화점을



잡머리에서



잡싸게



\*점거농성을



점패를



점령해서



점심을



점점



\*점증하는



점철된



점객업소에서



점어들어



점프를



점착제를



점합해서



<단어응용14>

좁도독이



좁처럼



좁다랗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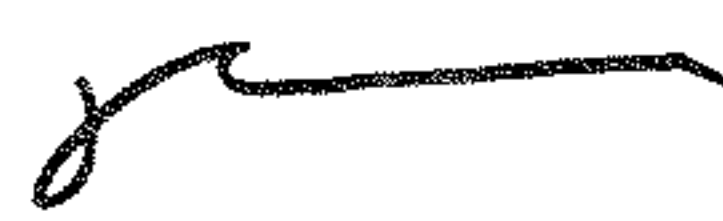
좁쌀영감이



좁혀서



좁기가



짐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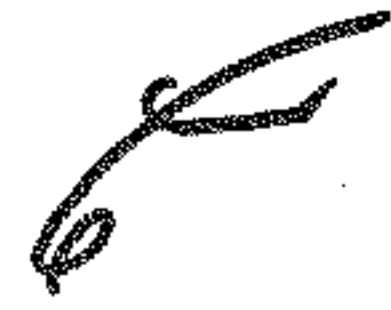
짐작을



짐작을



짐결을



짐계를



짐권자에게



집단행동은



집배원은



집세를



집어치워



집합을



집행유예를



집회를



참견해서



참관인이



참담한



참된



참모진은



참착을



참정권을



참혹한



참예한



<단어응용15>

침단산업을

침병이

침경임을

침침산중

춤춤하다

춤더라도

침공을

침략세력을

침몰당해서

침소봉대의

침술을

침엽수를

침입자가

\*침착해라

침해해서

칩거를

깜깜한

컴백

컴퓨터는

콤비는

큼직한

탐관오리를

탐내다

탐닉해서

탐문을

탐색을

탐욕을

탐험을

<단어응용16>

탑승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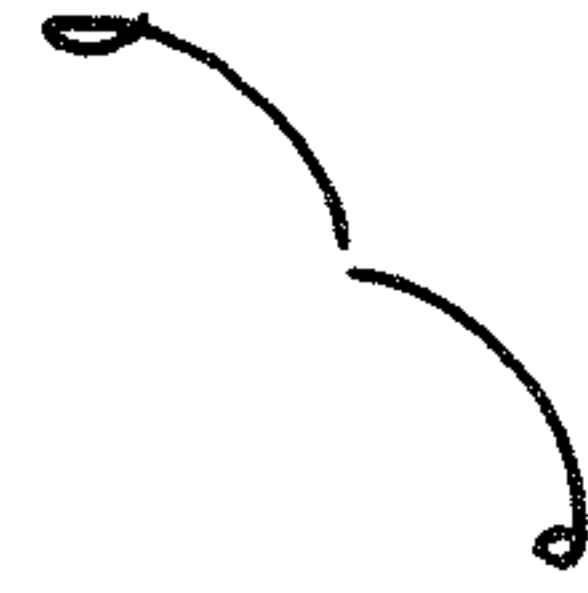
\* 텃석부리가



텃텃한



툼툼이



팜플렛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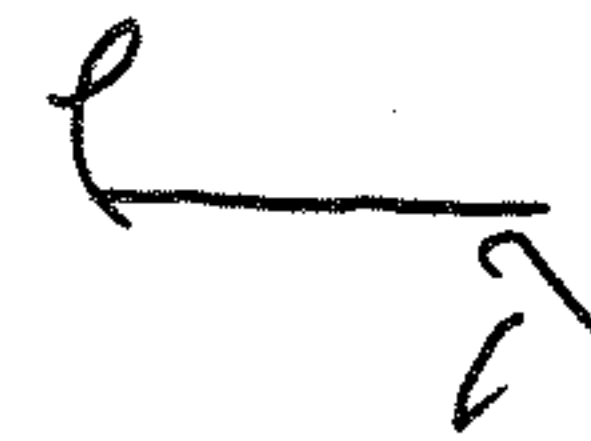
폼값을



폼격을



폼귀현상을



폼삐를



폼위를



폼절을



폼행단정을



함구무언



함량미달의



함박눈이



함양산청을



함격축하를



함계해서



함동연설을



함법화해서



함병을



함산을



함성세제에



함승단속에



함중국에



함현적인



햄쌀에



힘난한



<단어응용17>

힘상긱게



힘준한



힘잡꾼을



힘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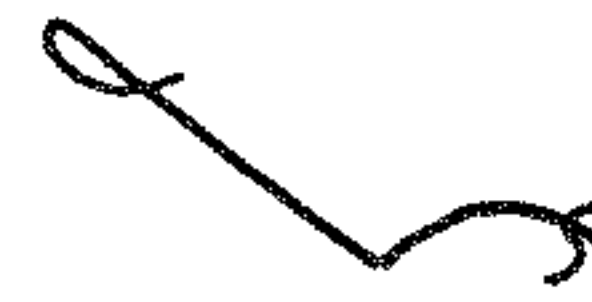
힘싸인다



힘쓸고



힘모해서



힘잡을 데가



힘집이



힘사해서



힘연을



힘죽해서



힘껏



힘들여서






힘쓸 일이



힘차게



<단어응용18>

각각의	각국의	각도의	각두기를
			
각료의	각박해서	각색해서	각성해서
			
각오를	각의를	각자가	각주를
			
각지의	각처에	각파에	*값아먹은
			
*값아서	객사를	객석을	객지를
			
객차를	*꺾어서	*꺾어진	꺾이다
			
격려를	격류를	격리를	격식을
			

〈단어응용19〉

격의없는



격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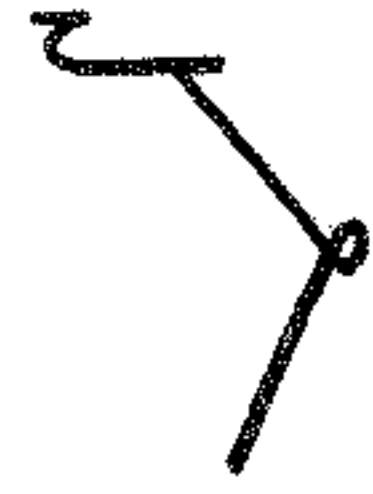
격추가



격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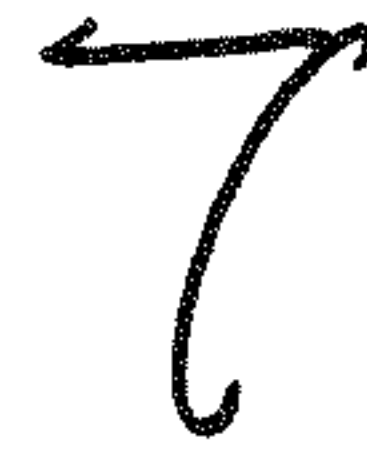
격화된



꼭대기에



꼭식에



꼭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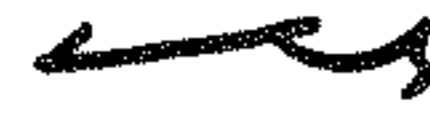
국고에서



국교에



국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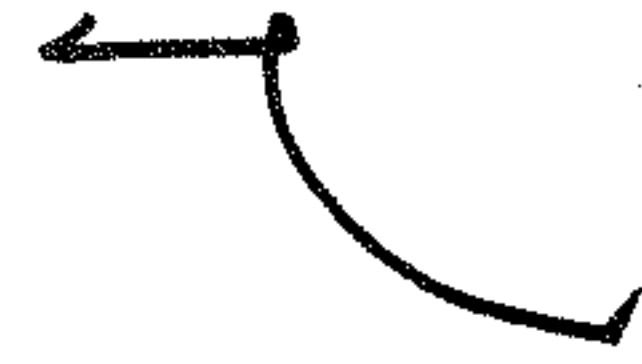
국무회의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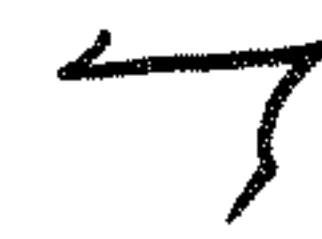
국부를



국비를



국사의



국세청의



국수를



국어를



국외에



국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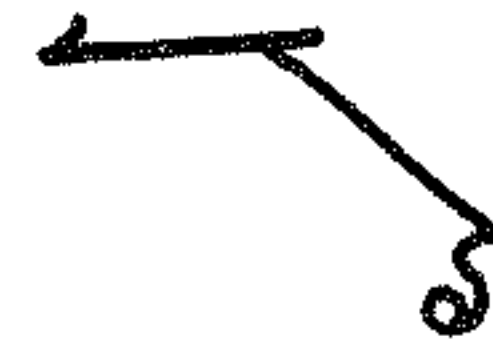
국제무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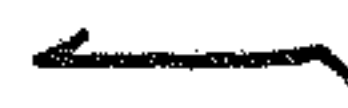
국채를



국회에서는



굵은



극적인



극좌의



극기를



극복을





<단어응용20>

극비의	극소의	극치의	*끓어서
깍소리를	낙도에	낙루를	낙오된
낙제생이	낙지가	낙하산이	낙시터에
넋두리를	*넥타이를	녹각을	녹색에는
녹차에	녹화에	녹녹하다	녹대에
녹막에	늪은이가	딱딱한	닥터가
닭아넌	떡가래가	덕택에	독개스가

<단어응용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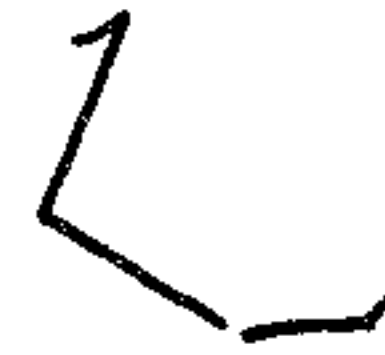
독백을



\*독보적인



독후감을



독재자가



독촉을



독특한



독학에



뚝배기가



득남을



득세를



득표전략을



럭비를



럭키



룩스



막막한



막무가내



막역한



막연한



막힘없이



맥락을



맥맥



맥박이



맥아더가



맥주가



멕시코는



목격을



목록을



목소리는



<단어응용22>

목재는



목축업이



몫을



묵념이



\*묵묵히



묵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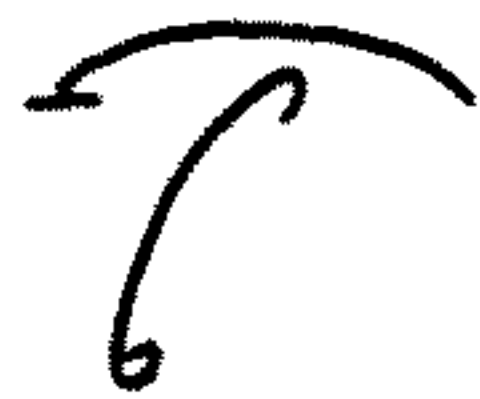
뭉어서



믹서가



믹싱이



박격포는



박대해서



박력이



박박한



박색은



박애정신은



박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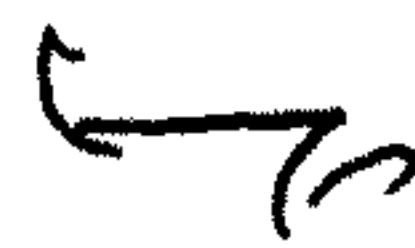
박학은



박해가



백과사전에



백배사죄해서



백백한



백부께서



백색의



백자가



백해무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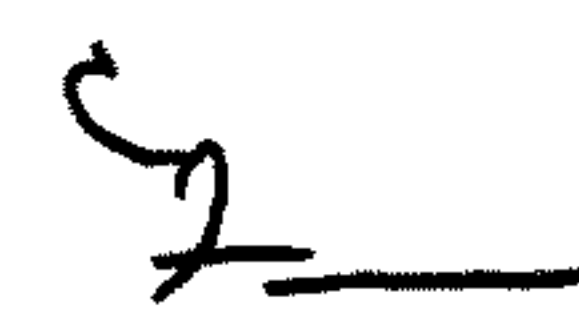
백호주의의



벽두의



벽력같은



<단어응용23>

벽지에



벽화에



복고풍에



복구작업에



복리를



복사를



복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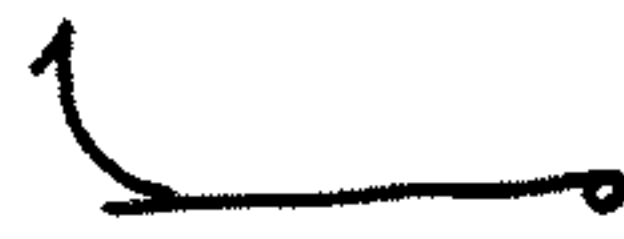
복직을



볶음밥에는



북극에는



북녘땅에는



\*북적거려서



북해산에는



북히다



빅토리



\*삭힌



삭막한



삭삭한



삭제해서



색깔에는



색시가



색채가



석고대죄의



석기시대가



씩은



석사학위



석유에서



쉬는



<단어응용24>

석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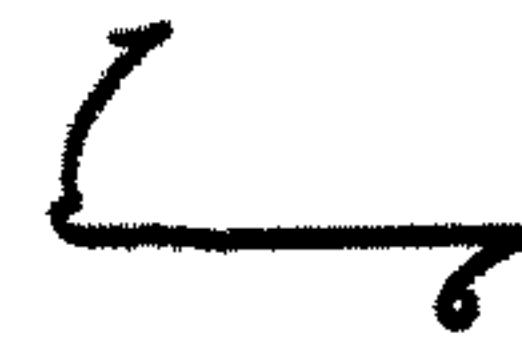
\*섞어서



속개해서



속기사는



속도향상을



속력이



\*속삭이다



속속들이



속수무책의



속임수를



속죄를



속태웠다



\*슌아넌



슌녀가



슌맥이



슌식이



슌제를



슌직을



쓱쓱해서



쓱객이



쓱구가



쓱목일에



쓱수를



쓱쓱하게



쓱욕왕성



쓱자들이



쓱혀서



악덕업자가



<단어응용25>

악마는	악씨뵈자	악착같이	악취만을
			
악화대서	액체가	액땀을	액면가는
			
액수는	액자는	약국이	약기법
			
약력은	약사가	*약삭빠른	약소국에
			
약속을	약수터에	약식의	약자약부가
			
약체화	약학과에	약화된	약효는
			
억류를	억제해서	억측이	엷히다
			

<단어응용26>

엑스포에



역대의



역력한



역류는



역시



역조문제



역학관계가



옥내배선에



옥석구분이



옥수수가



옥외집회에



옥구를



육된



\*육박질러



육각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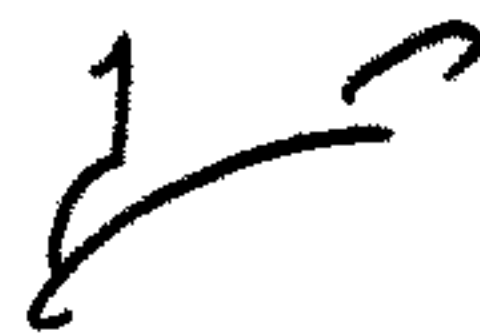
육류에는



육체는



익사직전에



\*익숙하게



익혀먹자



\*작가가



작곡가가



작수가



작채워서



\* 짹짹거리서



적격자가



적극적



적대국에



<단어응용27>

적막강산의



적성국에는



적어도



적자경영을



적재적소에



적확한



적혔다



족자가



쪽박을



족벌을



족보를



족쇄를



족적을



쪽지를



족쳤더니



죽마고우가



죽도록



\* 즉각적



죽석요리를



즉효를



\* 직각에



직계에



찍어낼



찍어서



직무유기를



직역이

직제개편의



\* 직후에





<단어응용28>

착각을



착륙을



착복을



착수금을



착오적



착착



착한



책꽂이가



책략해서



책무를



책방에서



책임에



척척박사가



척후병이



촉각을



촉구한다



촉박해서



촉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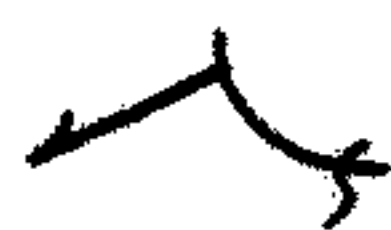
촉구해서



촉대에서



촉복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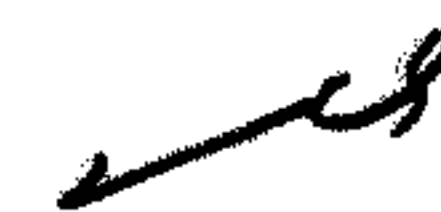
촉사에서



촉소해서



촉약해서



촉재해서



촉하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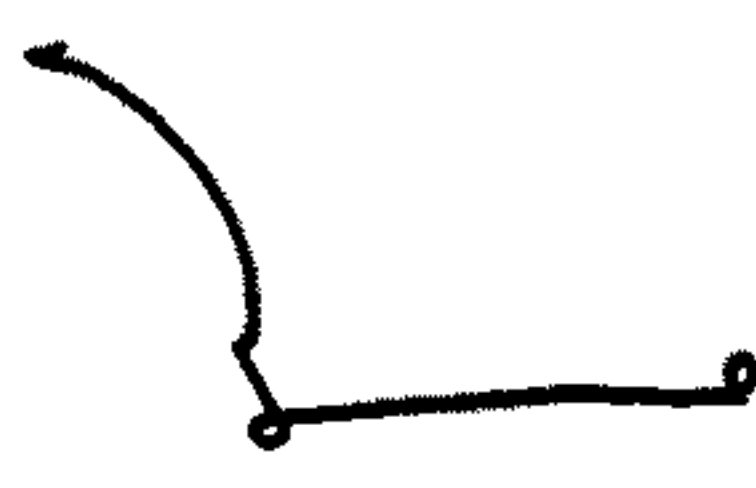










촉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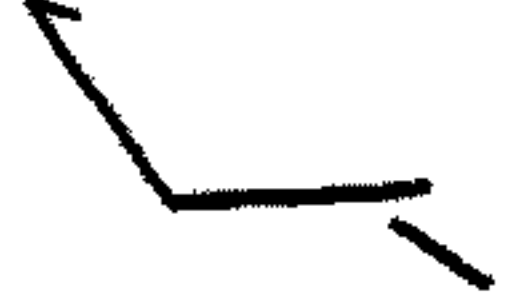
촉면에서



<단어응용29>

촉우기가	칙칙한	탁구가	탁류가
			
탁아소는	택시는	택지는	턱뼈는
			
택사스는	톡톡	투기는	투레자는
			
투보가	투사가	투색이	투유의
			
투채는	투허권이	투혜가	*투히
			
투격을	투락을	투력을	투로를
			
투리를	투소를	투약을	*투우를
			

<단어응용30>

폭죽에	폭포에	학계에	학과에
			
학기에	학력에	학비에	학사학위에
			
학수고대해서	학제개편을	학칙에	학회를
			
핵무기는	핵심은	핵전쟁은	핵우산은
			
핵통제를	핵확산을	혁명을	혁신을
			
혁혁한	흑독한	흑사해서	흑
			
흑자전환을	확고한	확대해석을	확보해서
			

<단어응용31>

확약해서



확언을



확인을



확산을



확신을



확실한



확증을



확기적



획득해서



획책해서



흑막이



흑맥주가



흑백을



흑색선전을



흑자가



흑해가



흙이



흙더미가



흙삼이



흙손이



종합연습문제

/는 띄어쓰는 곳이다. 공책에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1. 속기사의/ 신조  
 우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우리는/ 번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우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2. 기록보국이/ 속기사의/ 모토다.
3. 속기문자를/ 한글로/ 고쳐 쓰는 것을/ 번문이라 한다.
4. 책 속에/ 지혜가/ 가득하니/ 독서로/ 머리/ 가득/ 지혜와/ 지식/ 채우세.
5. 어제/ 맨/ 끈은/ 오늘/ 허술해지기 쉽고/ 내일은/ 풀어지기 쉽다, 나날이/ 다시/ 끈을/ 여미어야/ 함처럼/ 사람도/ 그가 결심한 일은/ 나날이/ 거듭/ 여미어야/ 변함없지 않은가.
6. 속기가/ 아직도/ 번문이/ 어려워요.
7. 오늘로써/ 속기문자의/ 모든/ 기본이/ 끝났다.  
 속기사는/ 말을/ 귀로/ 듣지 않고/ 손끝으로/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사람의 말소리나/ 자신의/ 생각을/ 반사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속기/ 습득의/ 비법인/ 연습/ 연습/ 그리고/ 연습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8. 그런데/ 연습이라고 하여/ 무턱대고/ 쓰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배워/ 나갈/ 약기법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배합과/ 조화를/ 이루면서/ 속도의/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가장/ 지루한/ 과정을/ 끈기 있게/ 이겨낸/우리/자신에게/자축의/ 박수를/ 보냅시다.
9. 앞으로의/ 과정은/ 지금까지/ 배운/ 속기문자를/ 정리하여/ 완벽한/ 속기문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며/ 정리된/ 문자가/ 빨리/ 생각이/ 나도록/ 숙달을/ 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생각이나/ 한글로/ 된/ 각종의/ 서적을/ 보면서/ 속기문자로/ 연상하거나/ 손끝으로/ 써가면서/ 문자의/ 각도/ 길이/ 이어쓰기의/ 특징/ 받침의/ 모양 등을/ 정확히/ 생각해낼 수 있도록/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속기문자는/ 한글에/ 비하여/ 5배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며/ 특히/ 동방식/ 속기문자는/ 쉽고/ 이해가/ 잘되는/ 속기법이며/ 각종/ 시험에서 /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우수한/ 속기방법이므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완전속기의 꿈을 이루도록/ 보장한다.  
 기간의 단축/ 자격증의/ 취득/ 취업의/ 시간이/ 학습자/ 개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최선을/ 다하여/ 속기사의 꿈을 이루어 냅시다.

자! 이제는 속기문자 아래에 한글로 번문을 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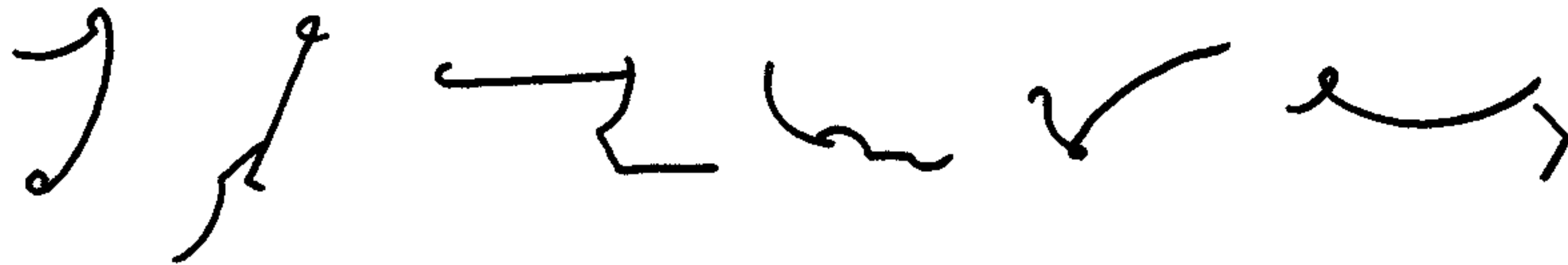
\*\*정답은 다음 페이지에 있다.

종합연습문제 정답

1. 속기사의/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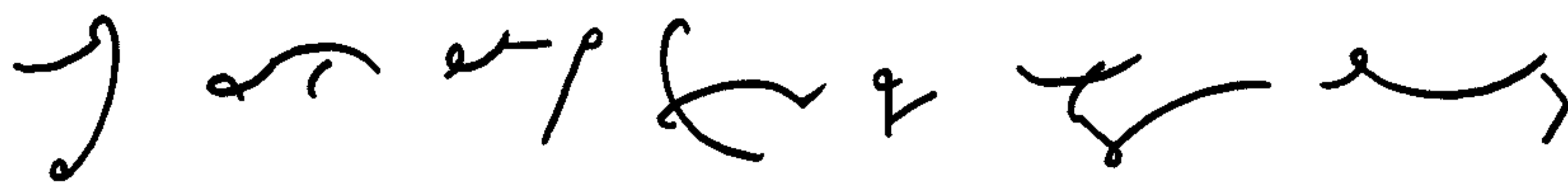
우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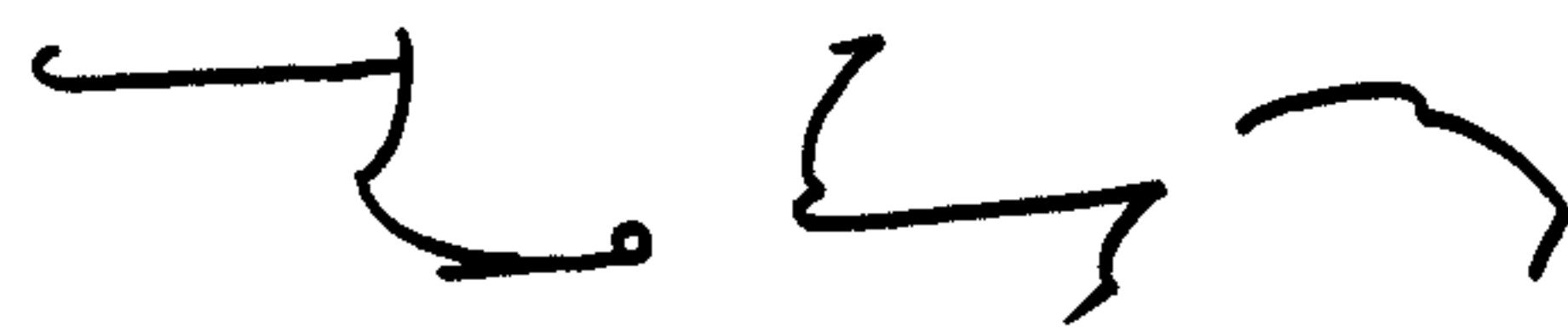
우리는/ 번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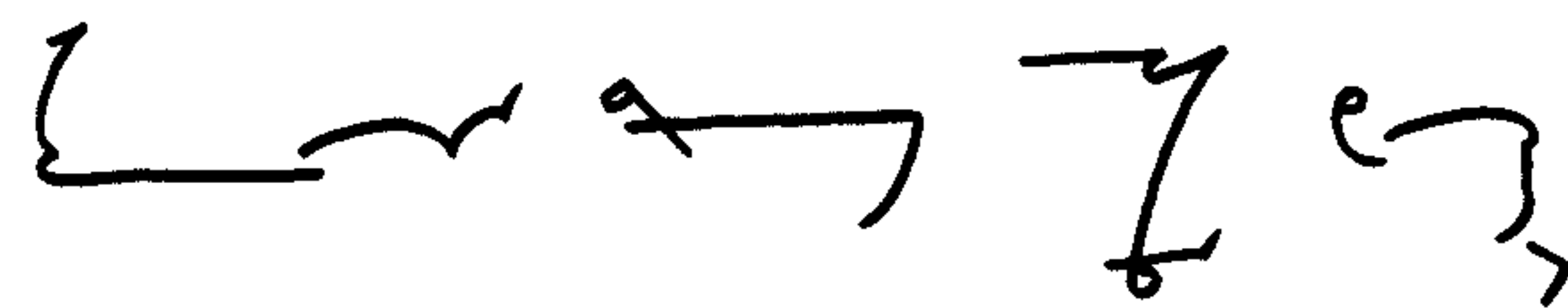
우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2. 기록보국이/ 속기사의/ <sup>\*</sup>모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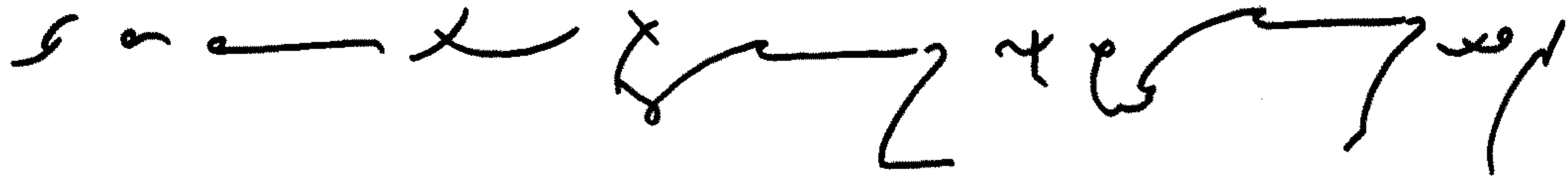
3. 속기문자를/ 한글로/ 고쳐 쓰는 것을/ <sup>\*</sup>번문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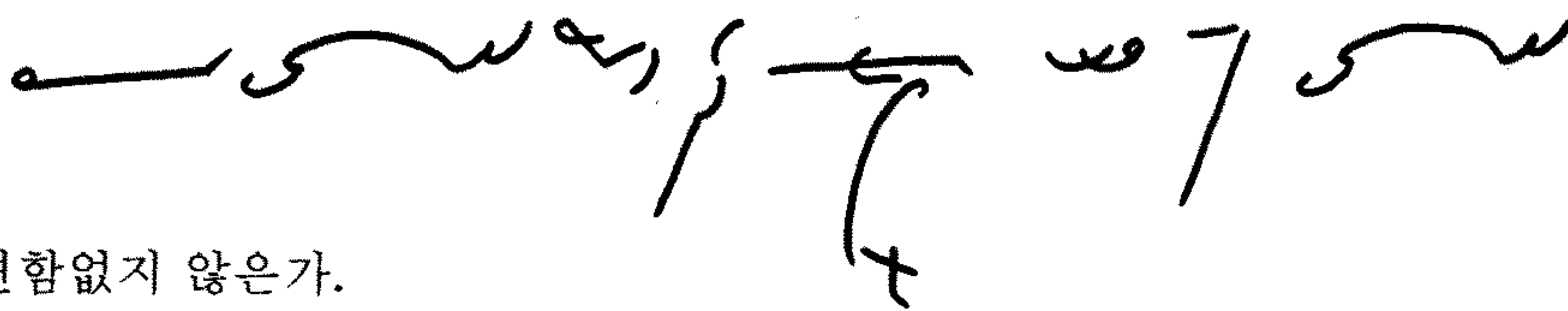
4. 책 속에/ 지혜가/ 가득하니/ 독서로/ 머리/ 가득/ 지혜와/ 지식/ 채우세.



5. 어제/ 맨/ 끈은/ 오늘/ 허술해지기 쉽고/ 내일은/ 풀어지기 쉽다, 나날이/ 다시/



끈을/ 여미어야/ 함처럼/ 사람도/ 그가 결심한 일은/ 나날이/ 거듭/ 여미어야/



변함없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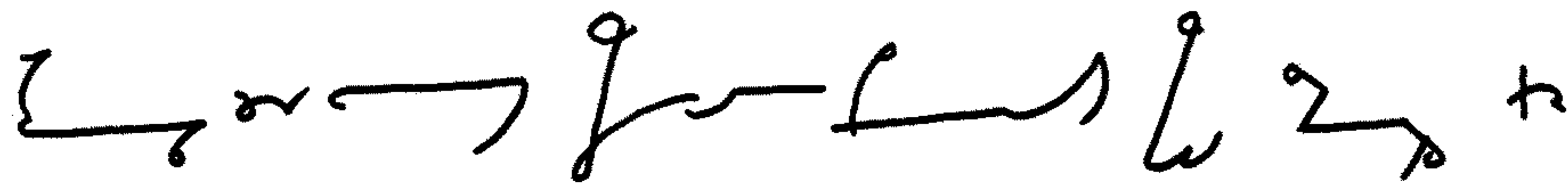
6. 속기가/ 아직도/ 변분이/ 어려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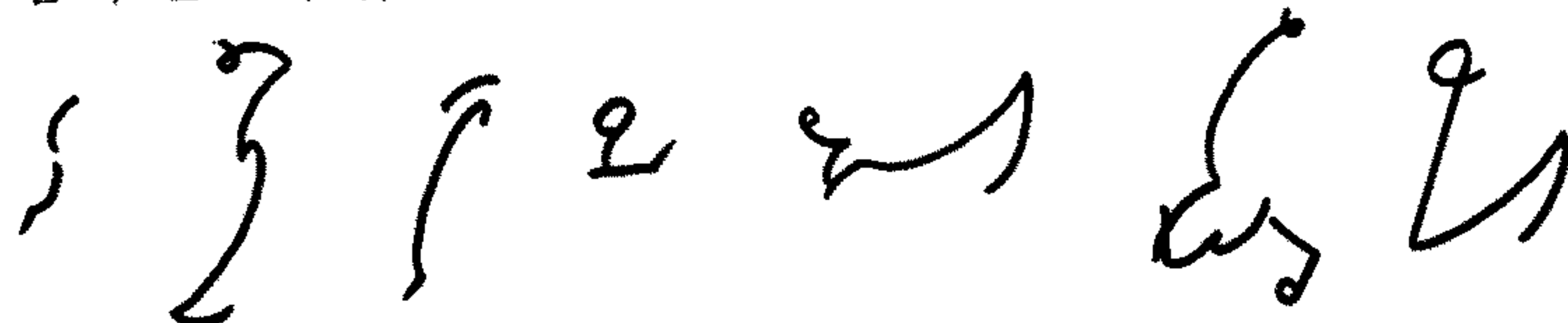
7. 오늘로써/ 속기문자의/ 모든/ 기본이/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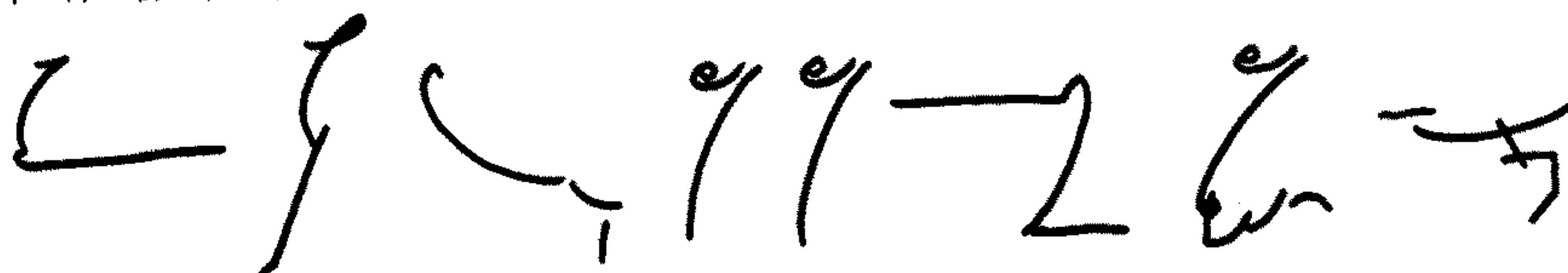
속기사는/ 말을/ 귀로/ 듣지 않고/ 손끝으로/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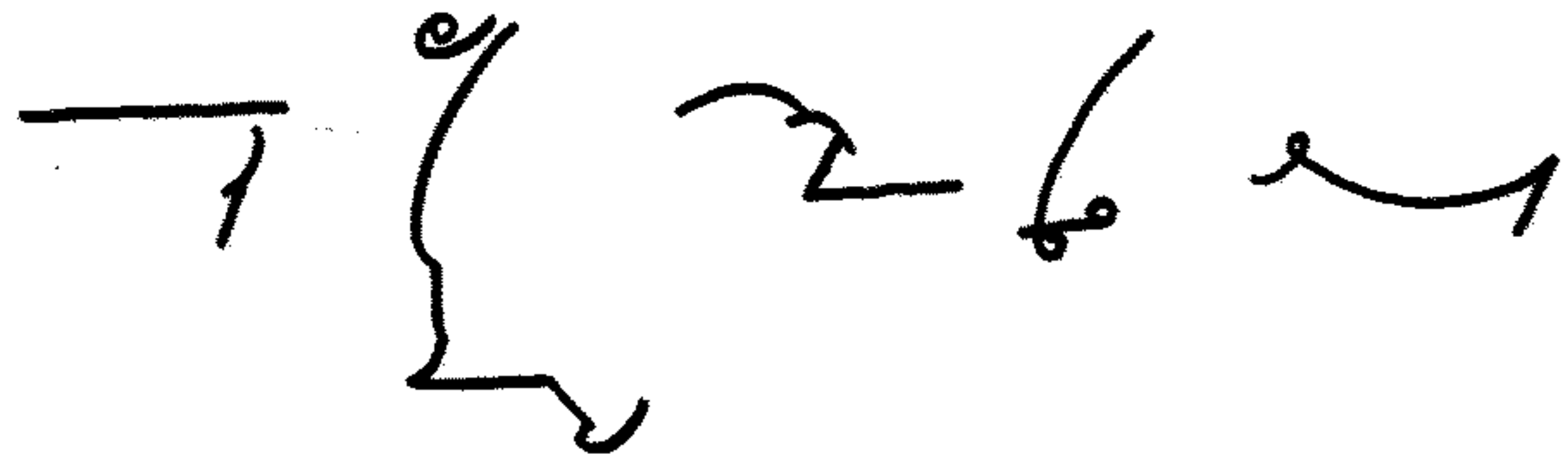
사람의 말소리나/ 자신의/ 생각을/ 반사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속기/ 습득의/ 비법인/ 연습/ 연습/ 그리고/ 연습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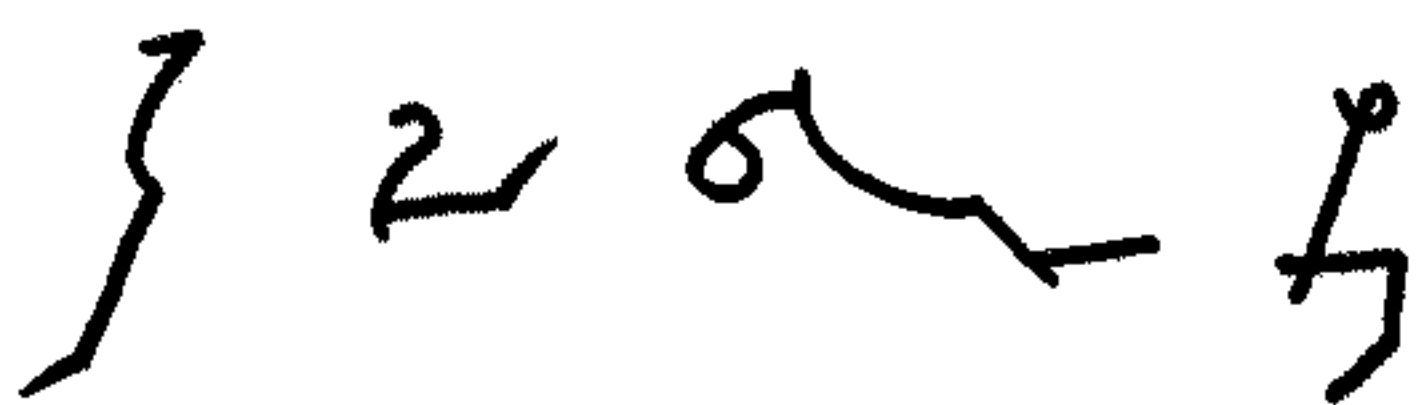
8. 그런데/ 연습이라고 하여/ 무턱대고/ 쓰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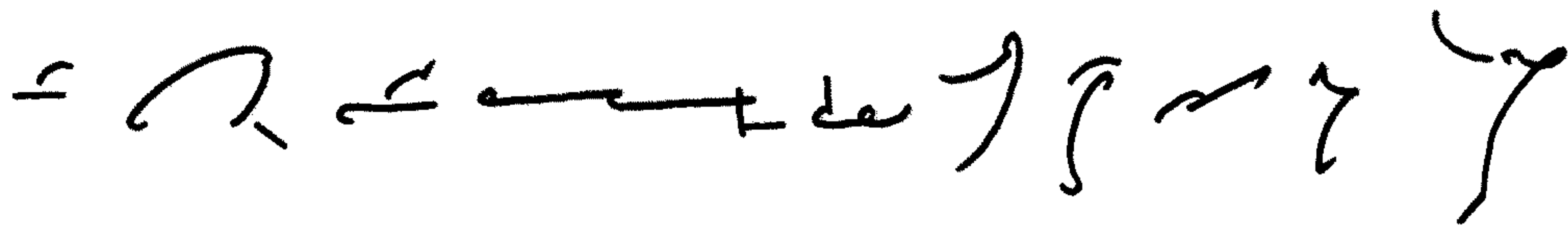
앞으로/ 배워/ 나갈/ 약기법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배합과/ 조화를/ 이루면서/



속도의/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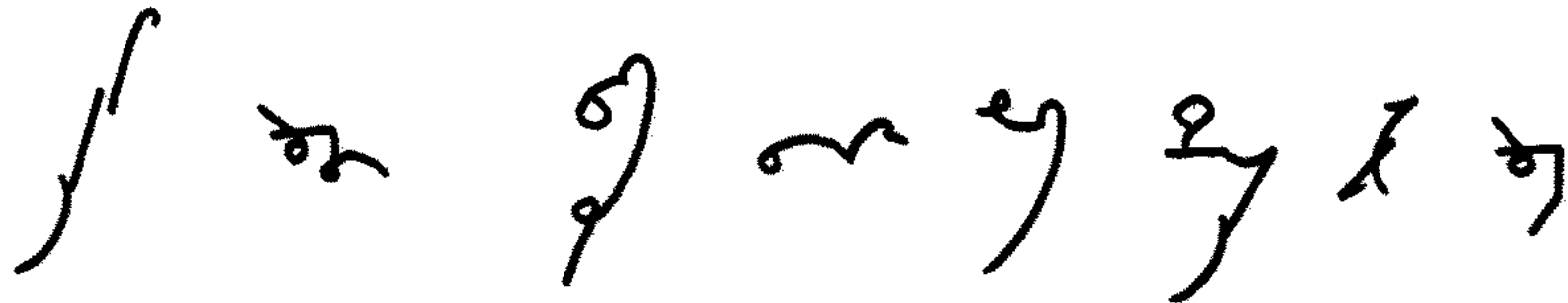
가장/ 지루한/ 과정<sup>\*</sup>을/ 끈기 있게/ 이겨낸/ 우리/ 자신에게/ 자축의/ 박수를/ 보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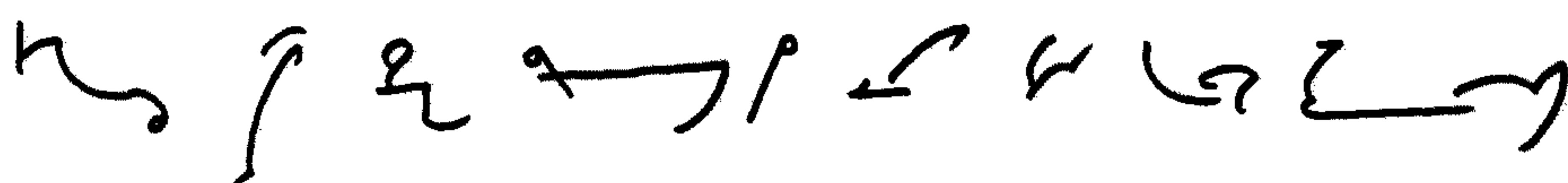
9. 앞으로의/ 과정은/ 지금까지/ 배운/ 속기문자를/ 정리하여/ 완벽한/ 속기문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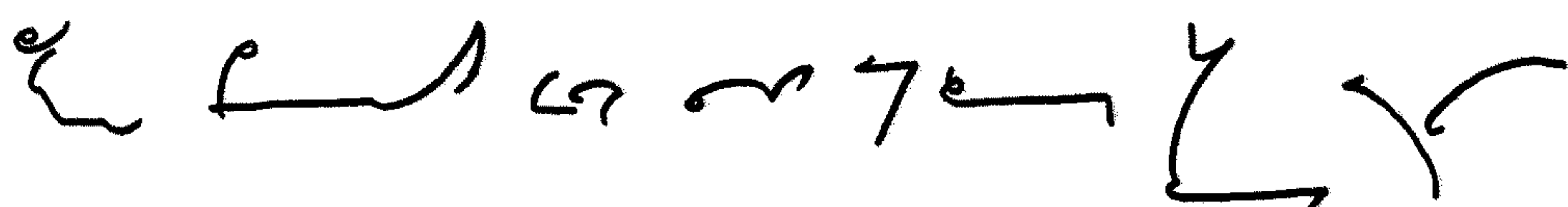
되도록/ 하는 것이며/ 정리된/ 문자가/ 빨리/ 생각나도록/ 숙달을/ 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생각이나/ 한글로/ 된/ 각종의/ 서적을/ 보면서/ 속기문자로/



연상하거나/ 손끝으로/ 써가면서/ 문자의/ 각도/ 길이/ 이어쓰기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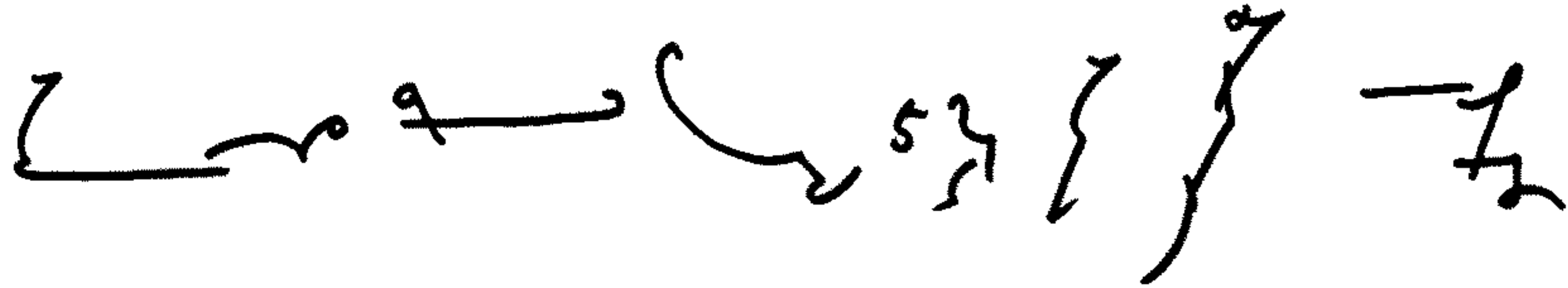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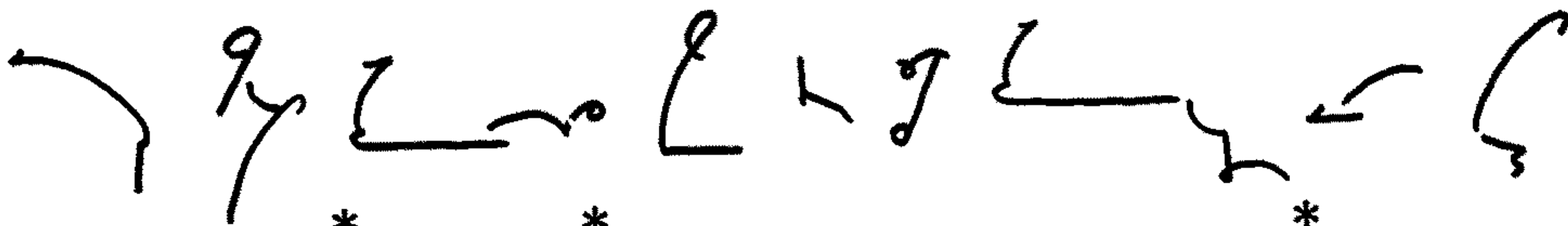
받침의/ 모양 등을/ 정확히/ 생각해낼 수/ 있도록/ 정성을/ <sup>\*</sup>쏟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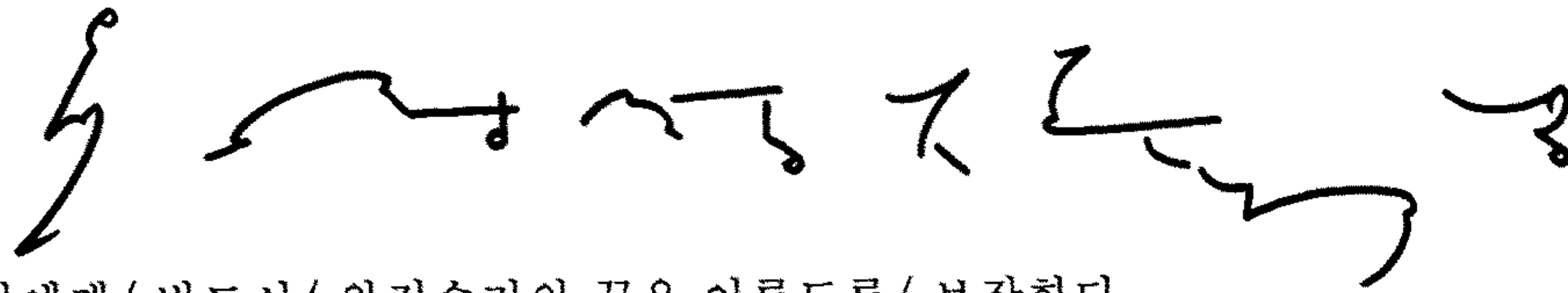
속기문자는/ 한글에/ 비하여/ 5배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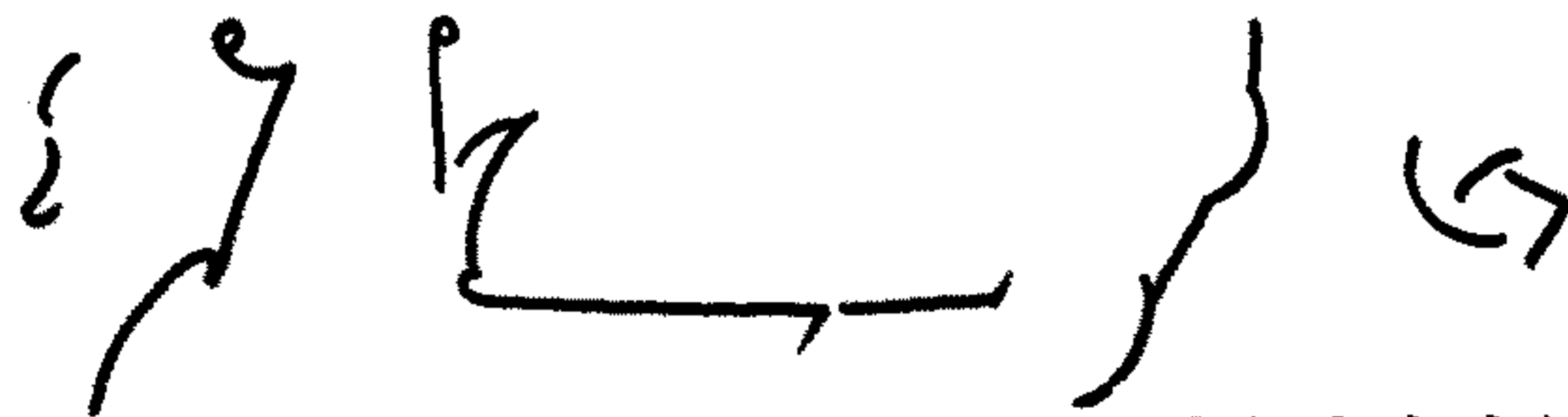
<sup>\*</sup>특히/ 동방식/ 속기문자는/ 쉽고/ 이해가/ 잘되는/ 속기법이며/ 각종/ 시험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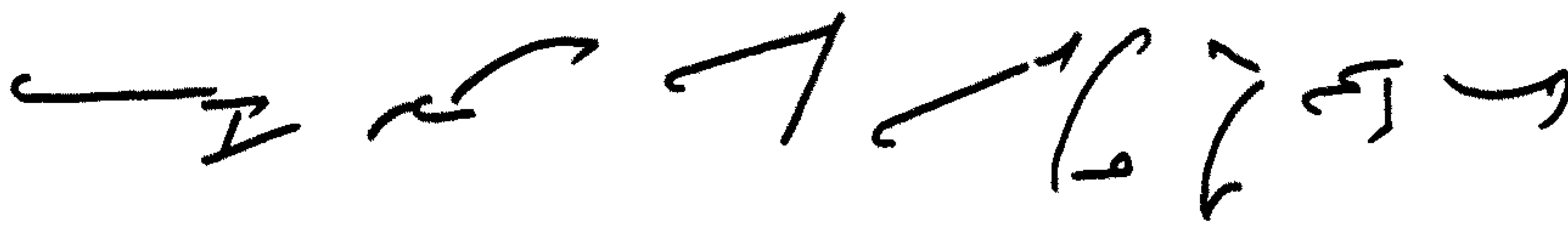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sup>\*</sup>자타가 공인하는/ 우수한/ 속기방법이므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완전속기의 꿈을 이루도록/ 보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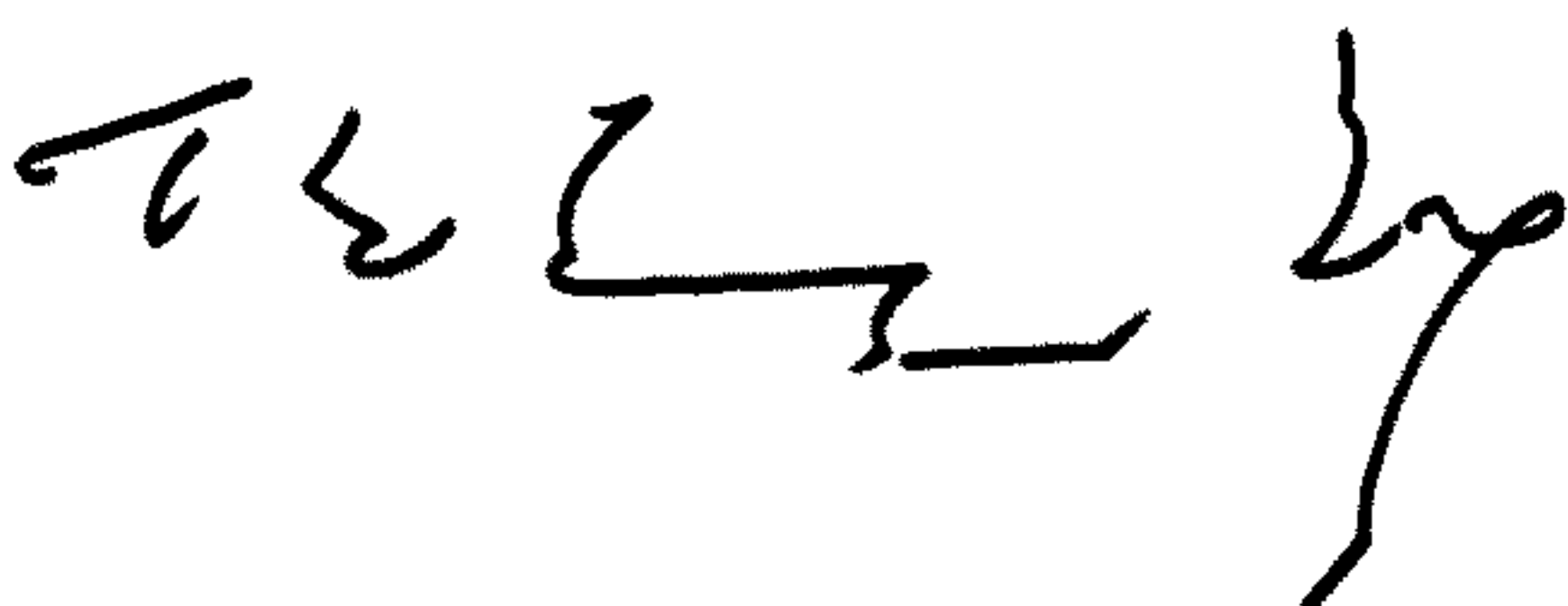
기간의 단축/ 자격증의/ 취득/ 취업의/ 시간이/ 학습자/ 개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최선을/ 다하여/ 속기사의 꿈을 이루어 냅시다.



---

## 학습자와 함께 만드는 페이지

지금까지 동방속기의 기본을 익히느라고 나름대로 무진 애를 썼을 것입니다. 재미가 솔솔났다고 하는 사람은 다행이고 지루했었다면 왜 그만두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면서... 드디어 기초공사를 마쳤으니 “나는 저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서투르나마 완벽한 속기문자로 문장을 쓸 수 있는 이 시점에서 감회가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래의 빈칸에 지금까지 속기문자를 익히면서 느낀 생각과 앞으로의 다짐을 속기문자로 표기해 보고 아래에 한글로 번문을 하여 “나의 속기 역사의 한 페이지”로 본 교재의 일부를 장식하여 영구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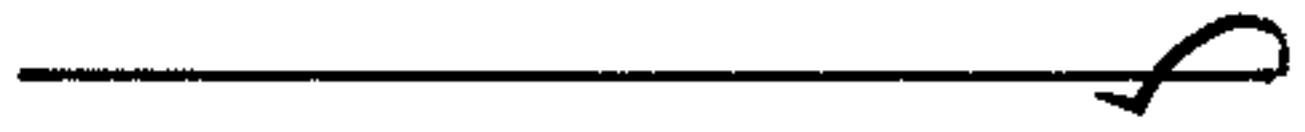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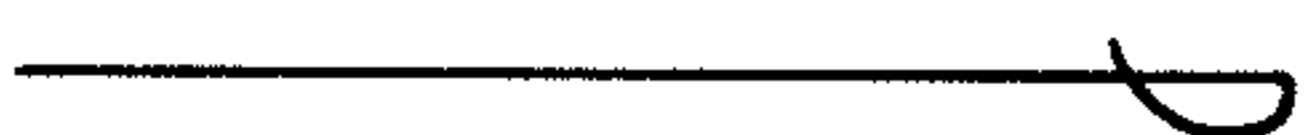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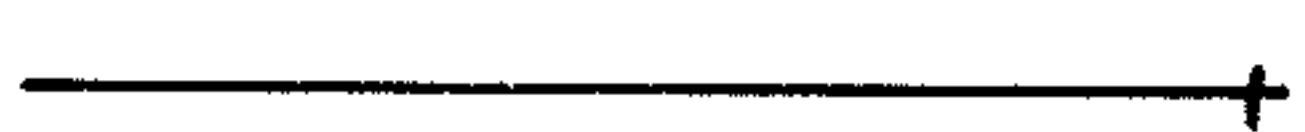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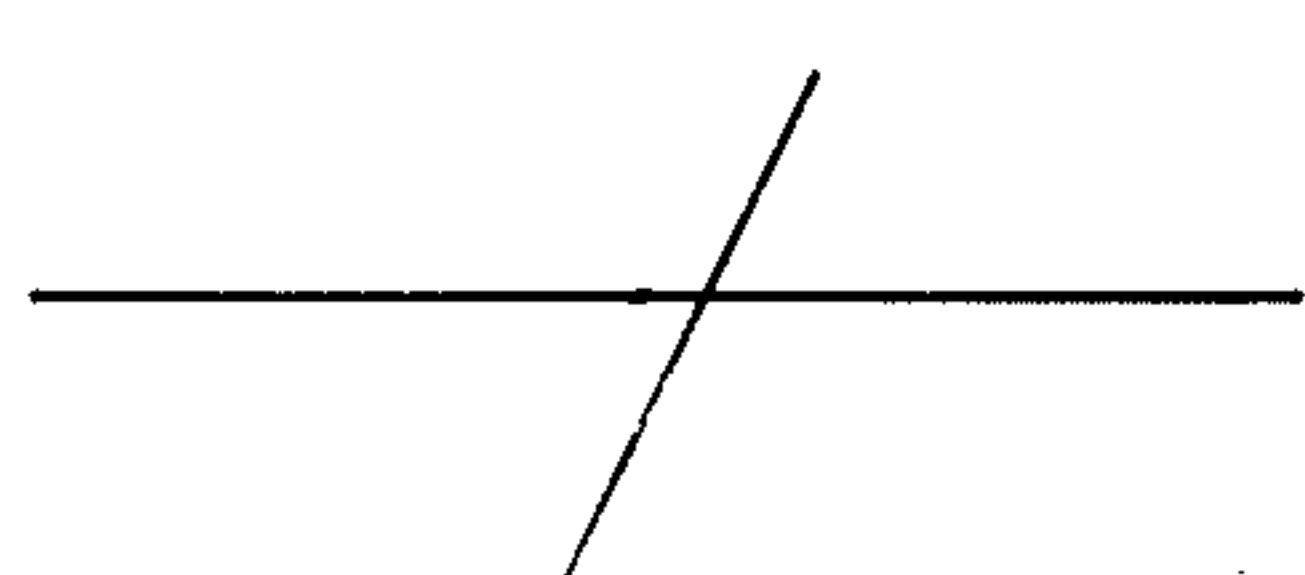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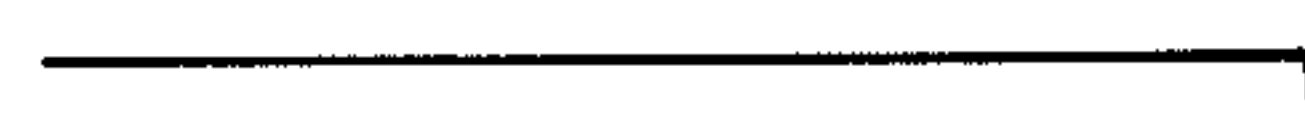

주제 : 기본문자를 마치고 나니.....

이름(속기문자) :

이제부터 매일 할 일은 받침이 첫자로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L받침에서부터 받침 전체를 연습하는 것이다.

- 1) 요령은 간건곤군근... 갠관관권권... 간견곤군긴...으로 시작해서 학혁혹혹혹... 핵확획  
획획... 학혁혹혹혁...을 한달 이상 반복하는 것이다.
- 2) 이 연습은 학습자의 속기 성취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므로 반드시 실천하여  
야 할 것이다. 물론 보고 쓰기도 좋겠고 자신이 녹음을 해서 받아쓰기 연습을 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녹음된 테이프를 구하려면 동방속기를 가르치는 학원이 많으므로  
학원에 연락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3) 속기문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가지를 들라면 단연 “각도”이다. 각도는 항상 정확하  
게 유지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4) 기초과정에서는 빈도가 높은 문자에 먼저 신경을 쓰고 빈도가 낮은 문자는 뒤에 하여  
도 좋으나 결국 손을 머뭇거리게 하는 것은 빈도 낮은 문자이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야 좋은 속기를 할 수 있다.
- 5)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가면서 이제부터는 기본문자의 완벽한 정리를 겸하면서 약기법  
을 익혀 나갈 것이다. 기본문자만으로도 1분당 240자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으나 진짜  
속기를 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약기법은 빈도가 높아 반복해서 쓰기에 번거로운 문자, 속기기본문자의 결점  
을 보완하는 문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습자들을 속도의 세계로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다.
- 6) 이것을 또 외워야 하나? ... 생각하지 말고 약기장을 만들어서 정리하여 가면서 문장에  
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날 때마다 대입하다가 보면 저절로 익숙해 질 것이다.

자! 이제 속도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조사약기법(5)	
	(정측에 ㄷ 받침) ~ (으)로
	(정측에 “으로” 빼침) ~ (으)로서(씨)
	(반측에 ㄷ 받침) ~ 에도
	(이줄 2mm 걸침) ~ 와, ~ 과
	(다줄로 2mm 빼침) ~ 도, (~아도)
	(“도”자 길게 걸침) ~ (이)라도
	(“이”자 2mm 씬) ~ 히, ~ 기
	(“2”자 걸침) ~ 없이

문장연습에서도 조사 약기법 활용을 하겠지만 이미 배운 단어에다 위의 조사를 연습하여 보기 바란다. 띄어쓰기의 기준은 다음에 상세히 기록하겠으니 여기서는 어떤 경우에 띄어 쓰는가를 살펴보면서 연습하기 바란다.

연습하는 요령은 약기장을 따로 만들어서 조사약기법을 정리해 가면서 문장연습을 한다.

<실전연습1>

Handwritten calligraphy practice stroke 1

우리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살아온 발자취로  
서,

Handwritten calligraphy practice stroke 2

우리 민족이 걸어온 자기 모습이다.

Handwritten calligraphy practice stroke 3

그 모습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추할 수도 있  
다.

Handwritten calligraphy practice stroke 4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지나  
온

Handwritten calligraphy practice stroke 5

우리 민족의 문화를 바로 알고, 오늘의 우리  
를

Handwritten calligraphy practice stroke 6

바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  
을 깨달아, 미래의

Handwritten calligraphy practice stroke 7

나갈 바를 밝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역사는  
생명력의 소산이다.

937 } 937 937 937 937 937 937

생명력에는 반드시 생명의 주체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어떠한 역사도

— 937 — 937

그 역사를 지키고 그 생명력을

937 937 937 937 937 937

키워주는 주체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937 937 937 937 937 937

주체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문화를 창조하고

937 937 937 937 937 937

발전시켜준 주체를 찾아보고, 우리 문화의 시대적

937 937 937 937 937 937

성격과 발전과정을 깊이 이해하여 그

937 937 937 937 937 937

본질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오, 아, 오, 아, 오, 아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족은 역사의 주체이다.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오, 아, 오, 아, 오, 아

따라서 민족은 언제나 자기 역사앞에서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오, 아, 오, 아, 오, 아

그 주인노릇을 해야 한다. 그러나 민족이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오, 아, 오, 아, 오, 아

역사의 주인노릇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오, 아, 오, 아, 오, 아

결코 아니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가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오, 아, 오, 아, 오,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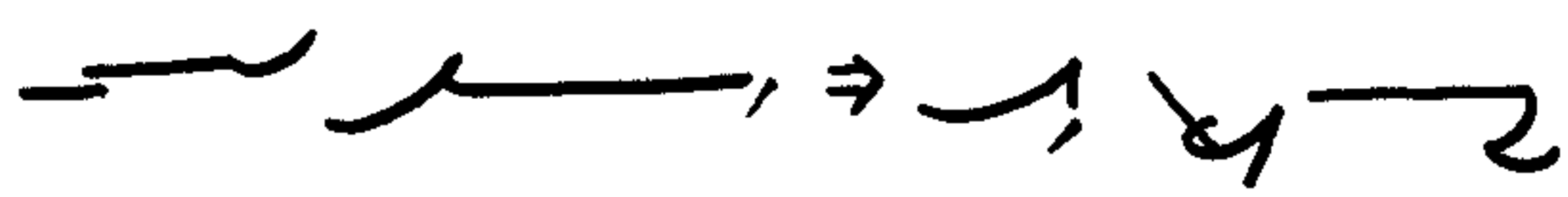
진행되는 동안, 주변의 여러 민족이나 국가와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오, 아, 오, 아, 오,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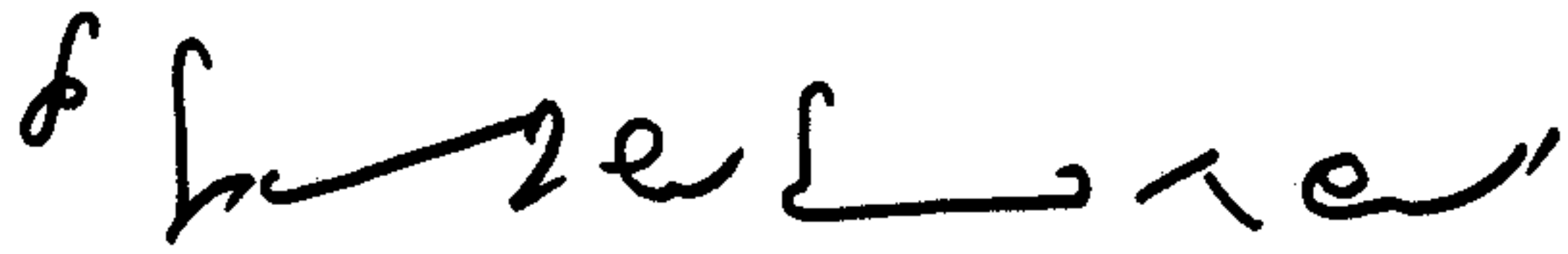
평화관계를 이루어 오면서 그들과 문화를 교류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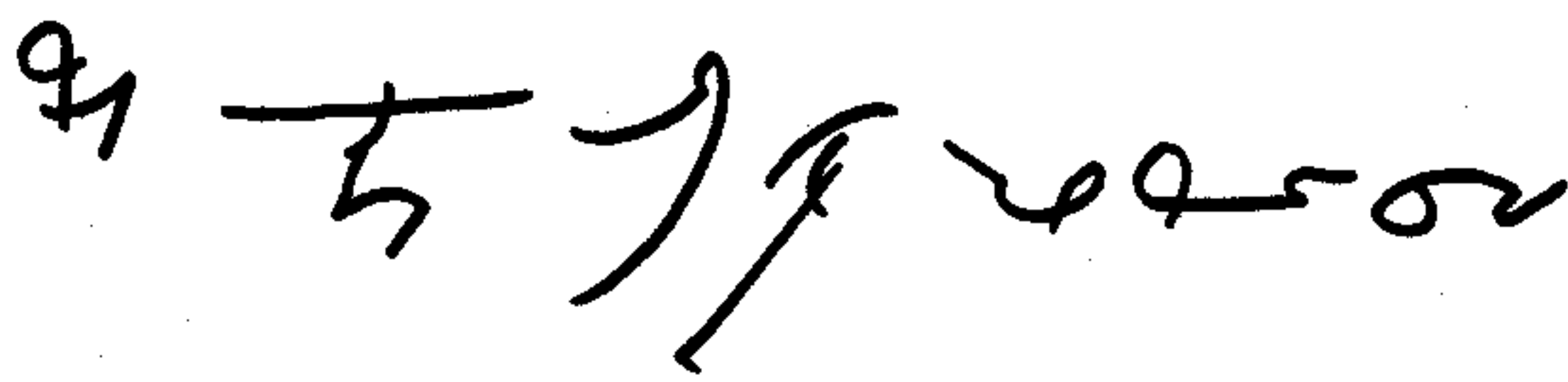
즐거웁게 민족문화를 더욱 알차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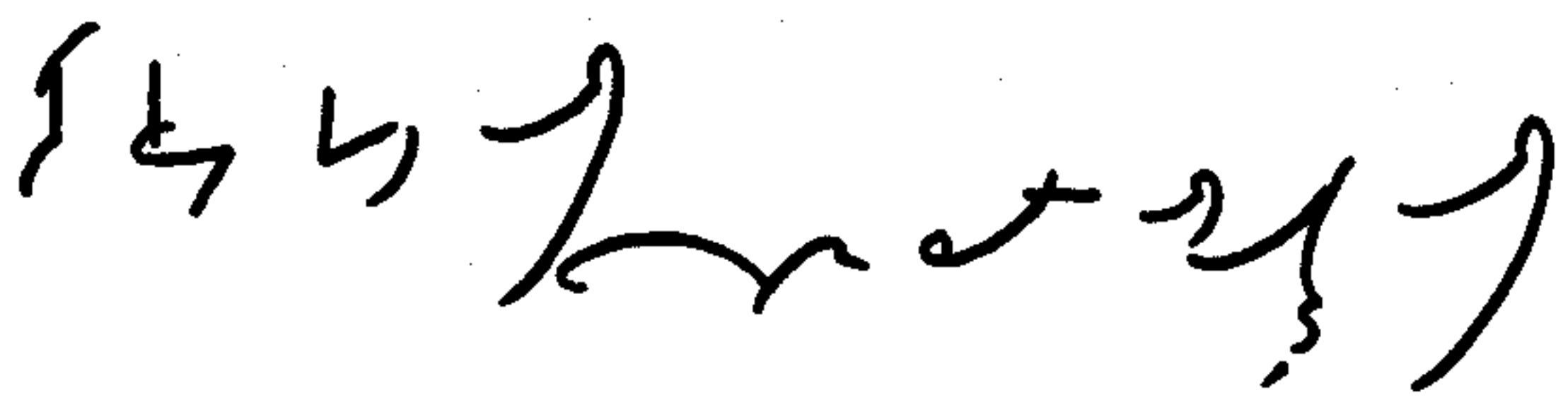
가꾸어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외적의 침략을 받아 위기에 처한 경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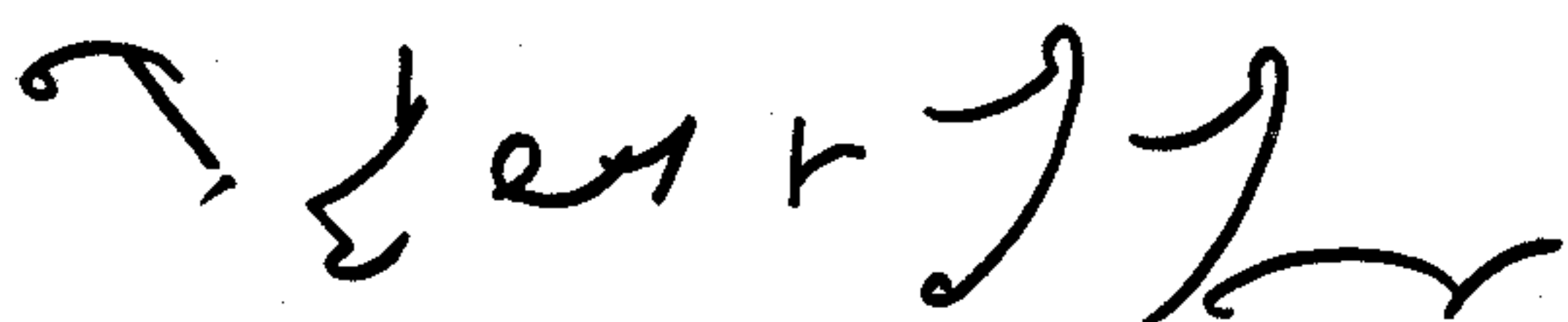
있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로 굳게 뭉쳐



싸워서 이겼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온갖 어려움속에서도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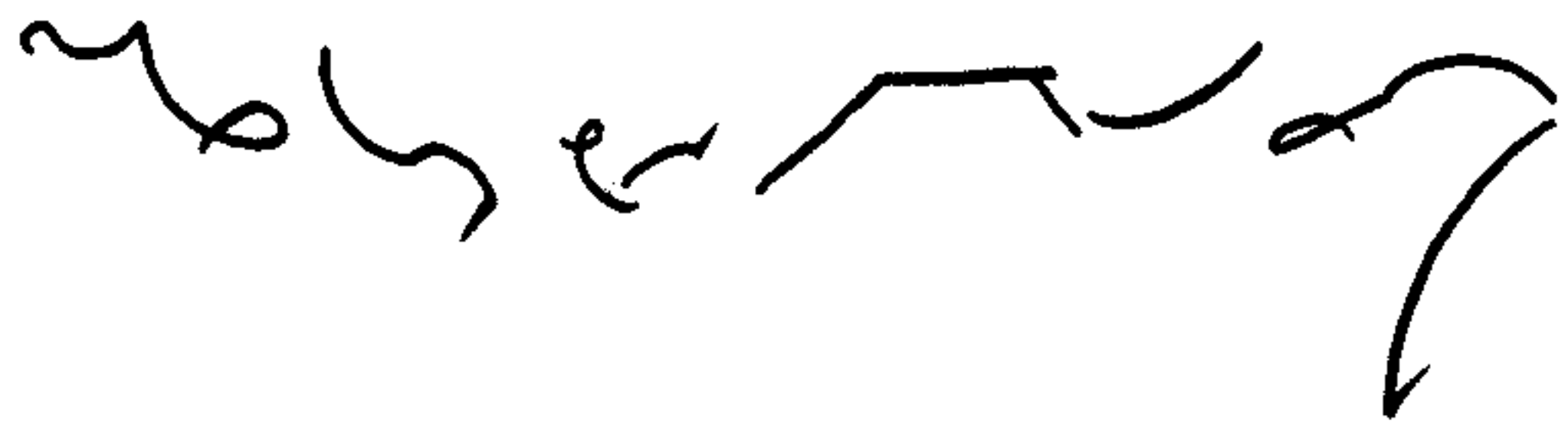


민족의 강인함을 만천하에 보여 주었고, 자랑할 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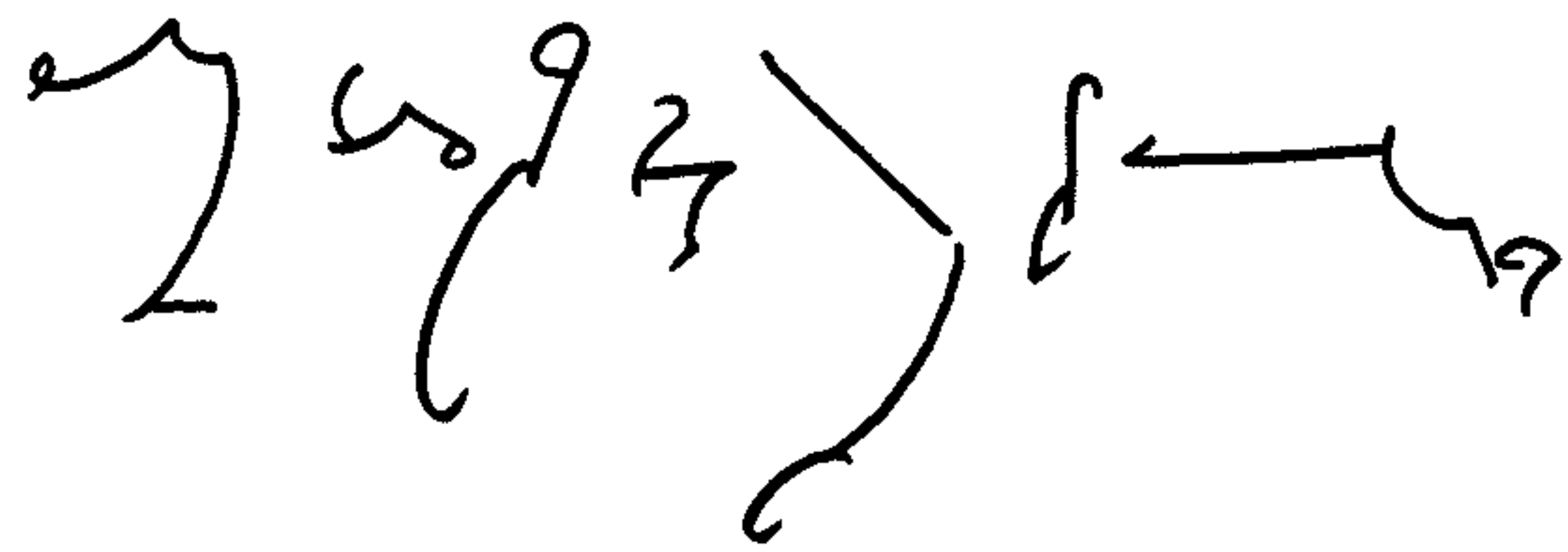


문화도 이룩하여 놓았다.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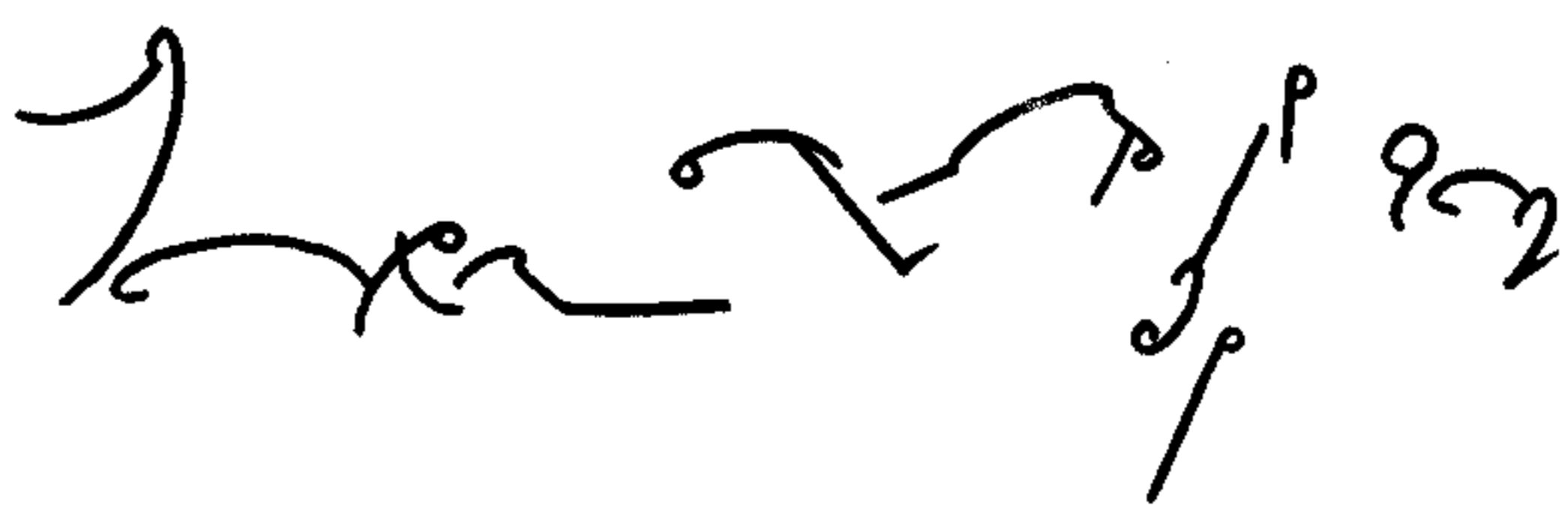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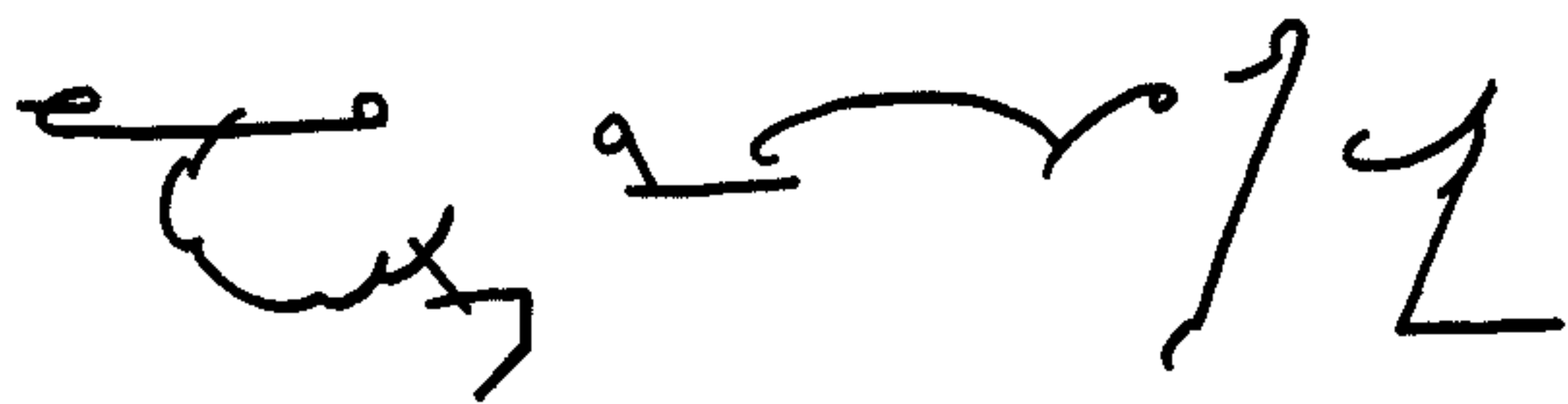
내부로부터의 발전을 추구해 온 참모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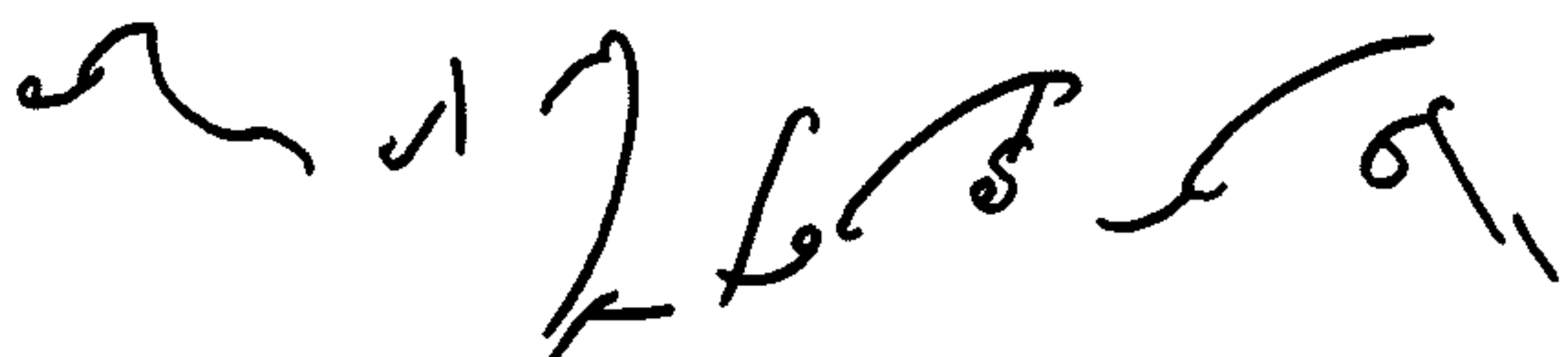
올바르게 파악하는 동시에 세계사의 흐름속에  
외세를 극복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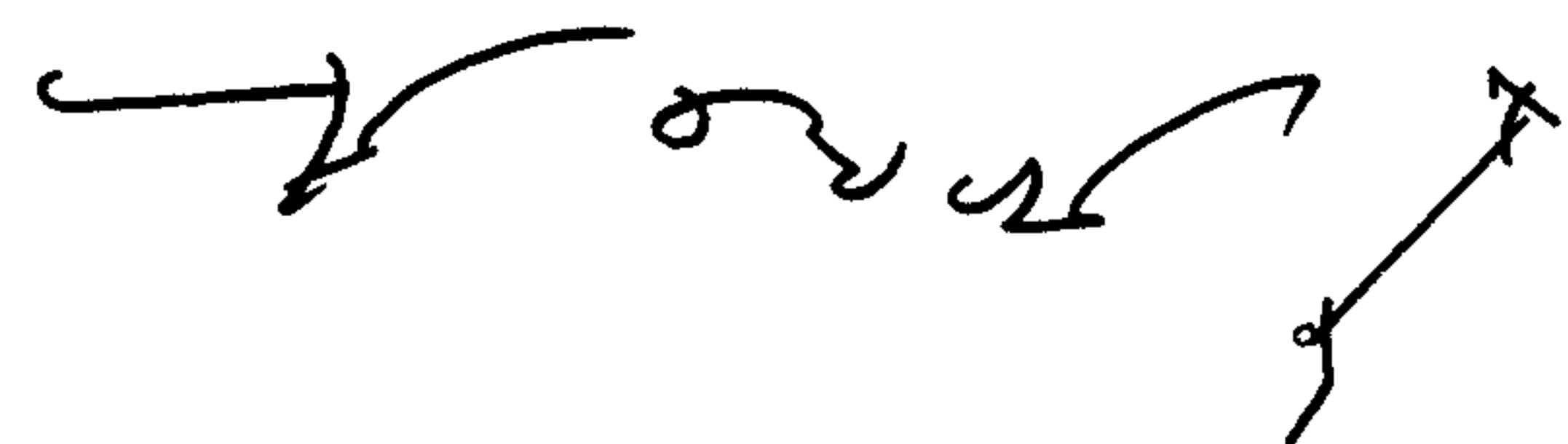
우리 민족이 발전\*하고 문화를 창조\*하는데 원  
동력이 된 생명력을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민족이 어  
디서 유래되고



언제부터 이 땅에 자리잡게 되었는지에 대해  
서는 아직 정확한



기록을 찾지 못\*하여 여러가지의 학설들이 있  
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4천 3백 여년전에

단군이 우리가 지금 고조선'이라고 일컫는 나라를

세운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금 우리는 그

건국한 날을 기념하여 개천절이라 부르고,

당시의 건국이념으로 전해오는 '홍익인간'을 현재 우리의 교육

이념으로 삼고 있다.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자리잡은 때는 고조선의 건국

보다 훨씬 오래전의 일이다. 우리 민족은 만주대륙과 한반도,

심지어는 중국대륙의 북방까지를 포함한 넓은 지역에,

보다 훨씬 오래전의 일이다. 우리 민족은 만주대륙과 한반도,

심지어는 중국대륙의 북방까지를 포함한 넓은 지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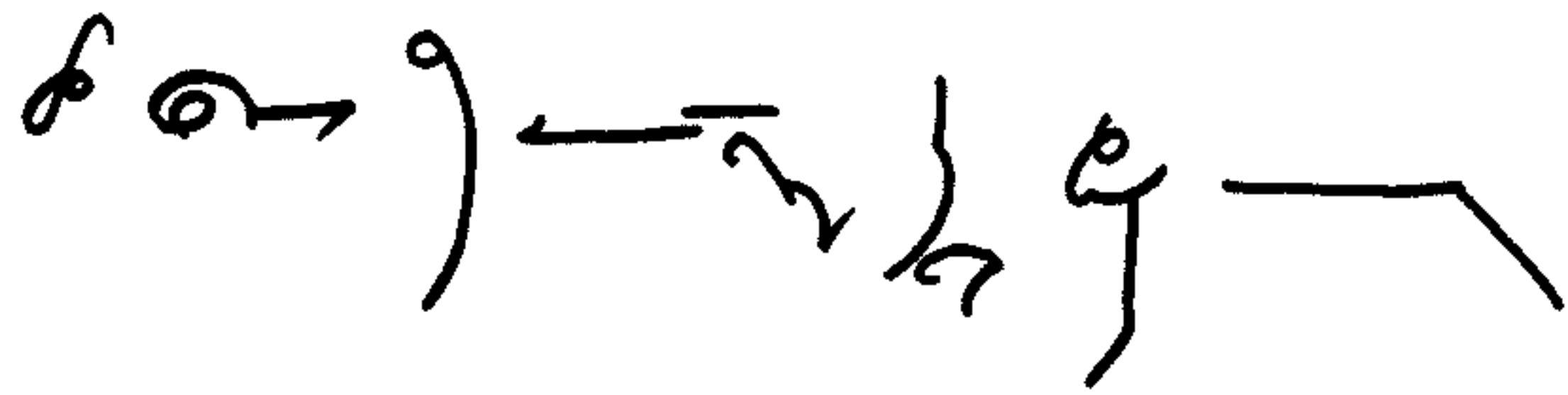
보다 훨씬 오래전의 일이다. 우리 민족은 만주대륙과 한반도,

심지어는 중국대륙의 북방까지를 포함한 넓은 지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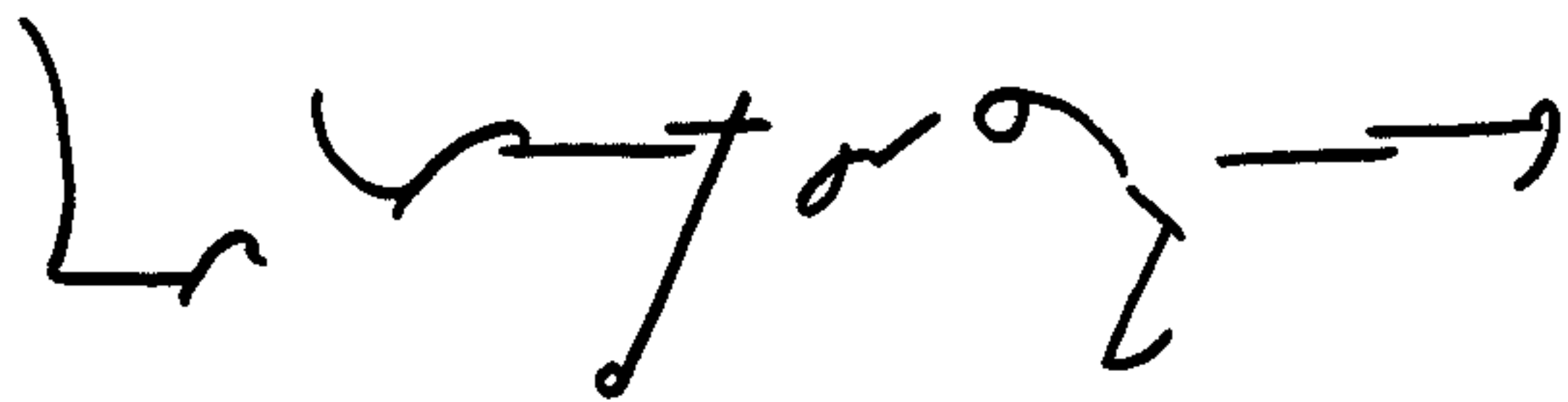
보다 훨씬 오래전의 일이다. 우리 민족은 만주대륙과 한반도,

심지어는 중국대륙의 북방까지를 포함한 넓은 지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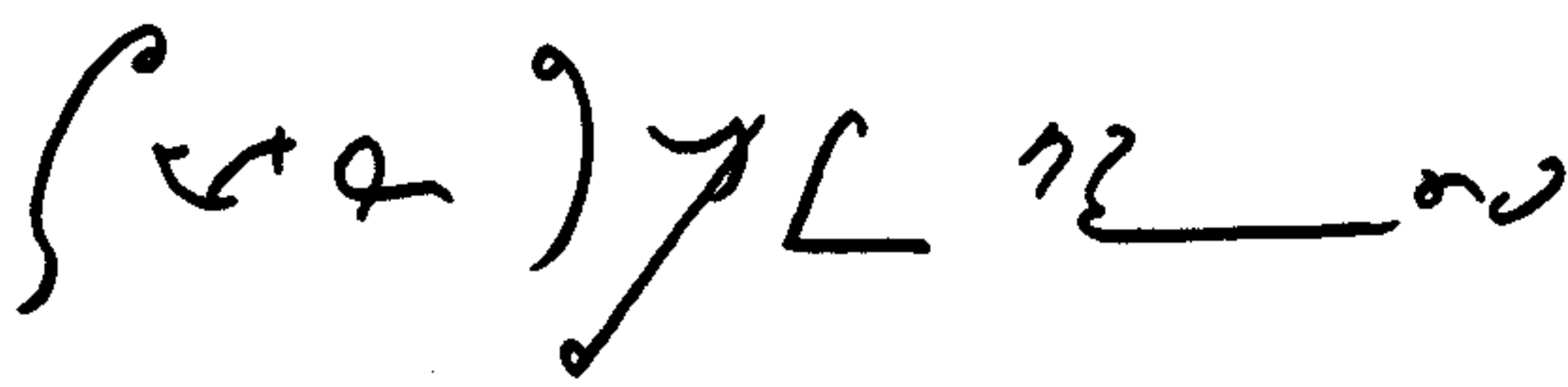
보다 훨씬 오래전의 일이다. 우리 민족은 만주대륙과 한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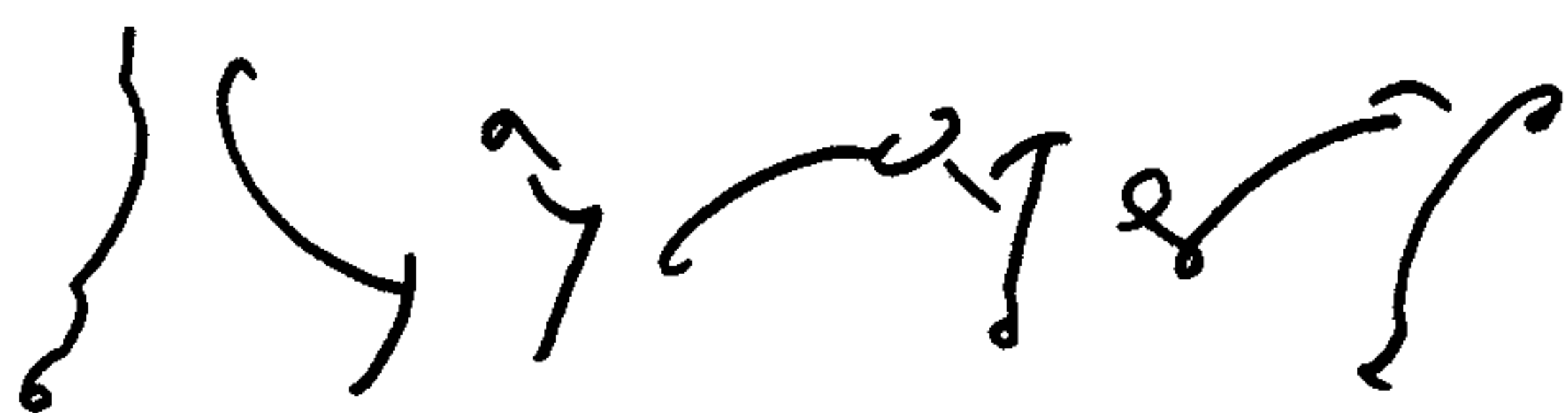
때로는 몇개의 큰 국가형태를 이루면서 살아\*  
왔다. 그후



크고 작은 부족국가들이 점차 통합되어 고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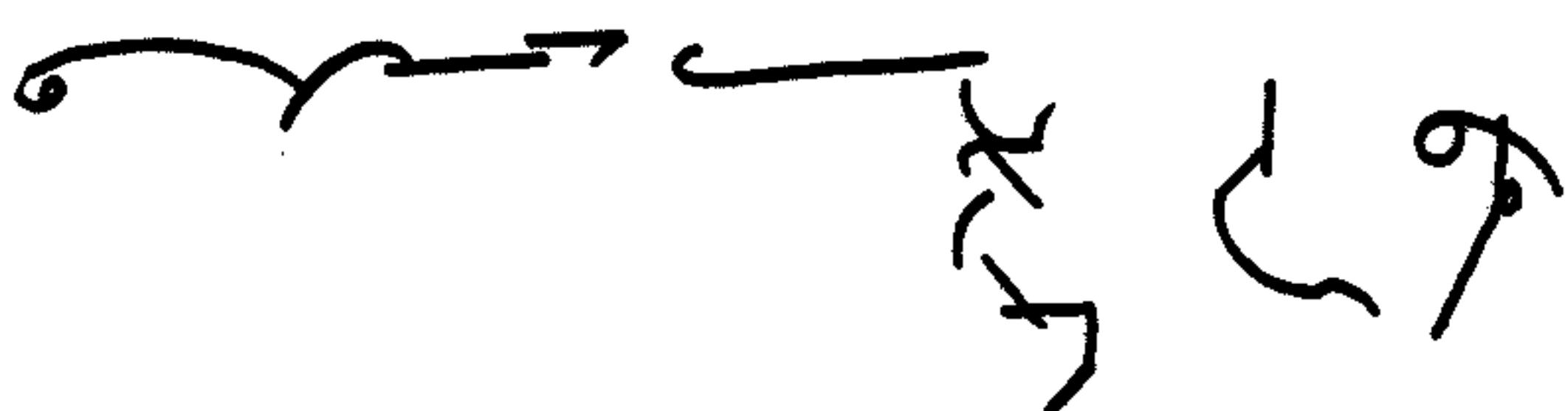
신라, 백제와 같은 큰 나라들이 되고, 7세기  
말엽에



이르러서는 비록 한반도 지역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근세까지 이어온 통일  
된



민족국가의 기반을 형성한 것이다. 이 때부터  
통일된



민족 국가로서 외세의 도전에 굴하지 않고



국난을 극복해 온 것이다. 여기에는



한민족을 지탱하는 생명력이 용솨음쳐



나왔기 때문이다. 한민족은 씨족 사회, 부족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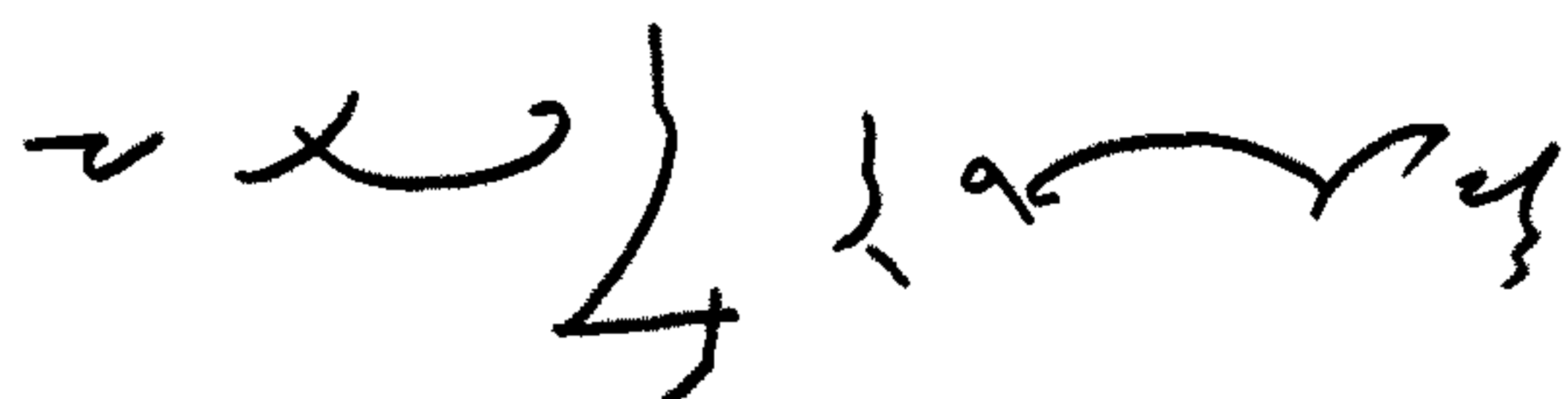
부족연맹 사회, 고대 왕권국가, 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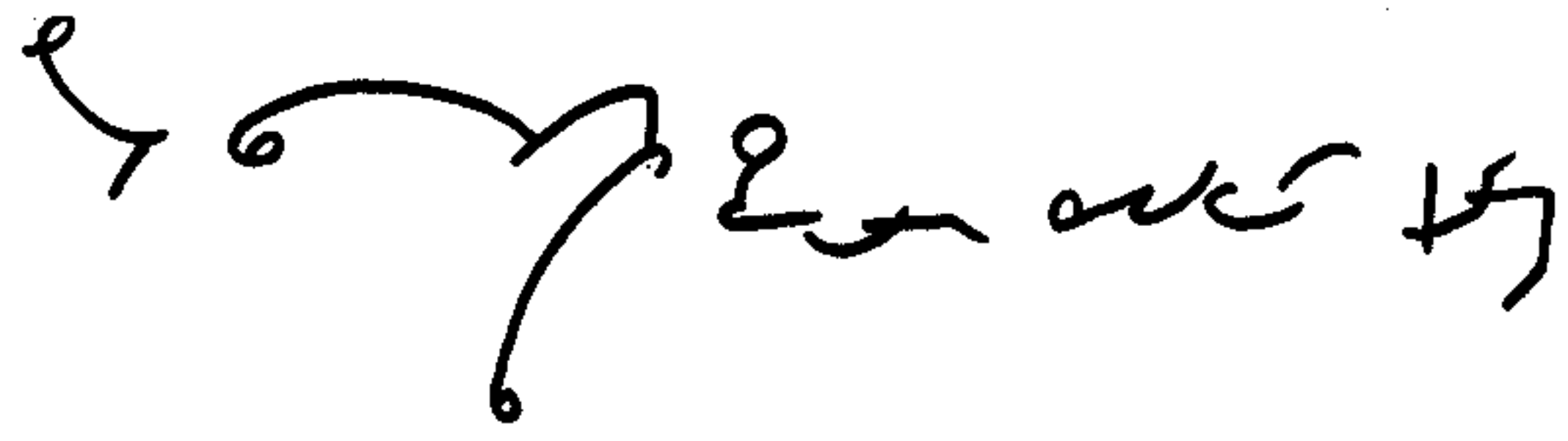
연합국가, 근세 왕조국가, 일제 강점\* 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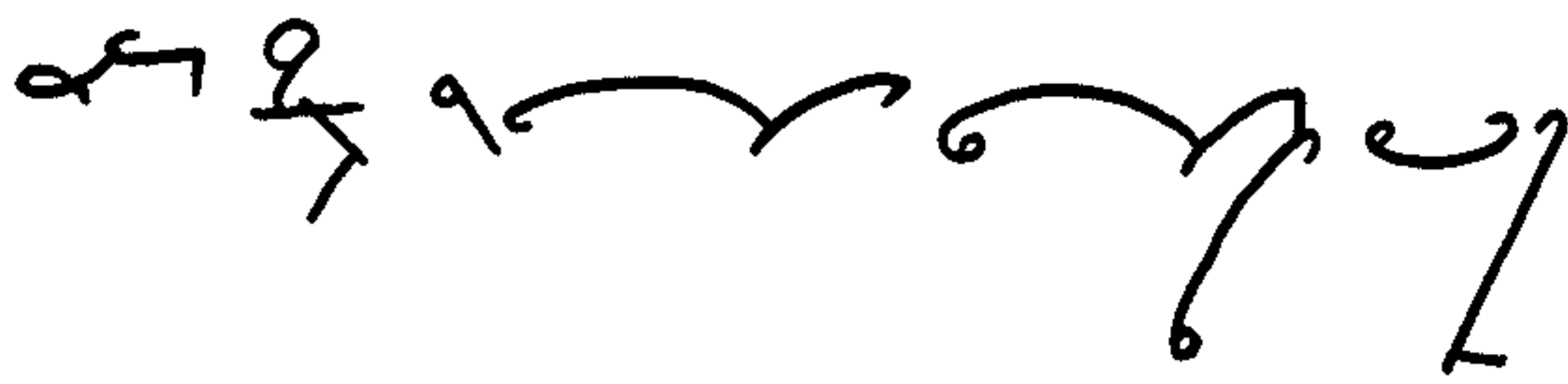
한국 시대, 광복 후 민주 공화정 시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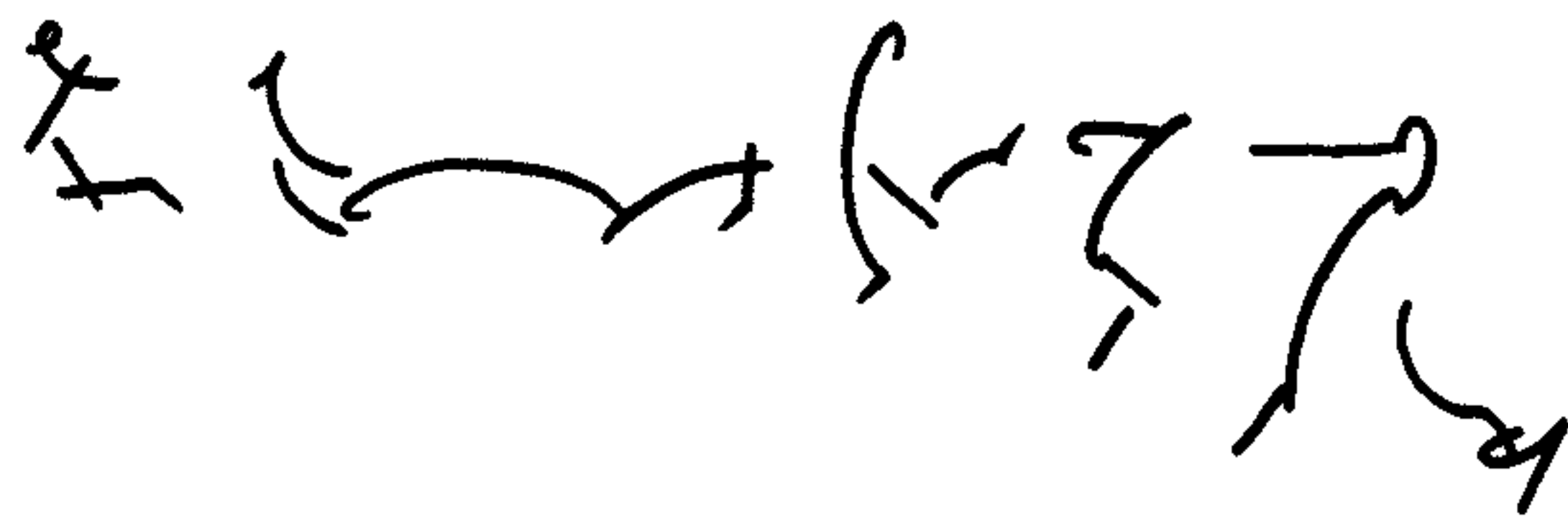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한민족의 역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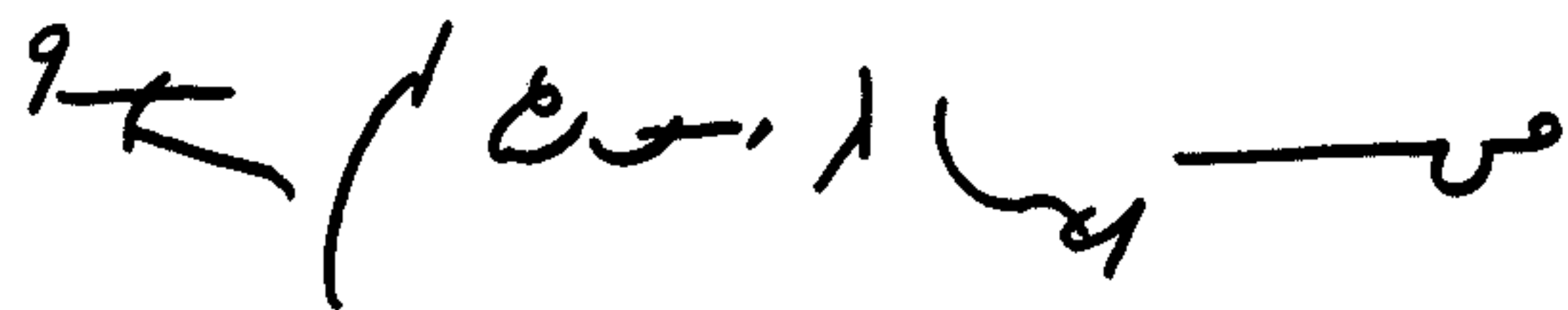
불 때 민족의식이 생겨난 것은 천여년 전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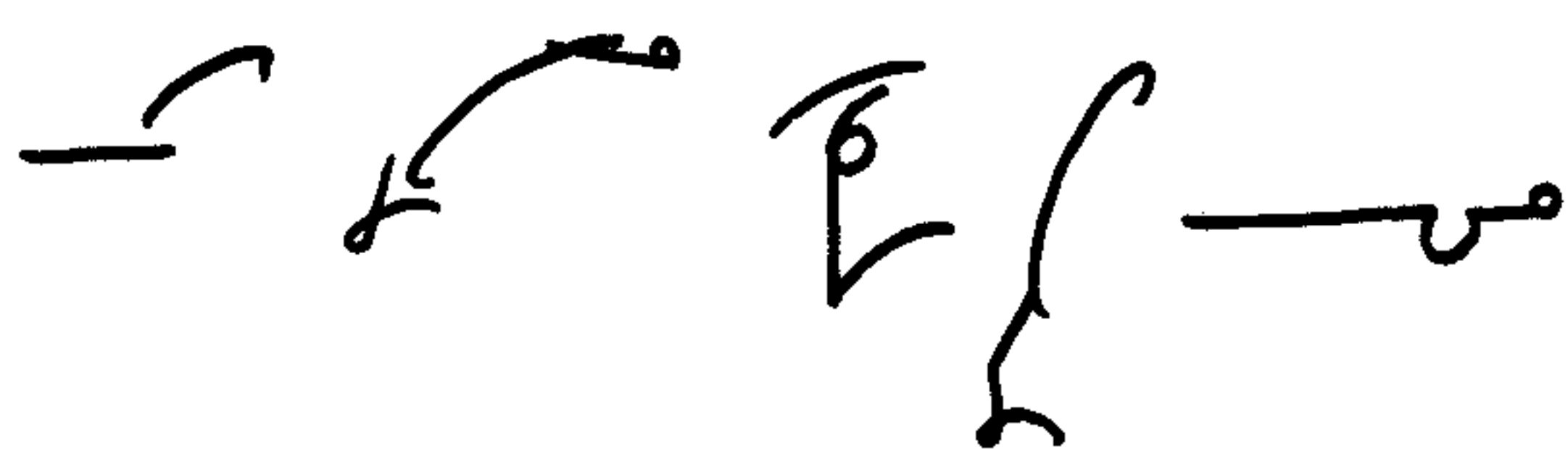
엄격히 생각할 때 한민족의 민족의식이 눈에 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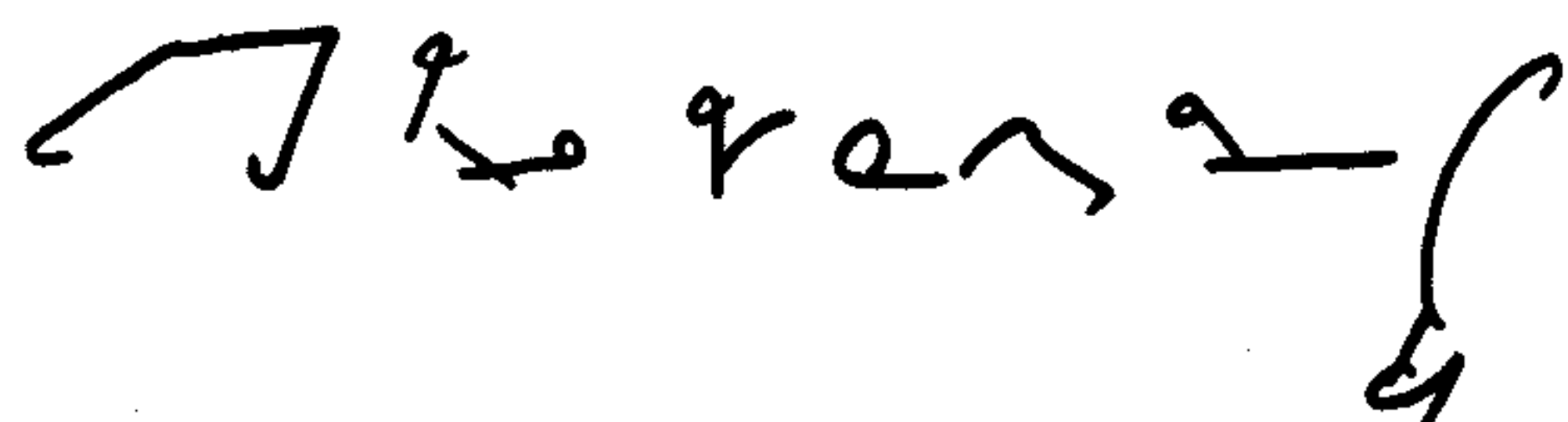
발달한 것은 북방민족과의 피의 항전을 계속 \* 하던 고려시대부터였다.



단군설화가 다시 살아난 것도 이때부터였다. 그것이



꾸준히 다져진 것이 조선 왕조시대이며 그것이



최고도에 달한 것이 일제 \* 강점하의 한국 시대였다.

## 제2장

# 약기법편

---

좋은 속기는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다. 동방속기를 창안하여 50년이 다 되도록 갈고 닦아 오늘에 이른 것이다.

동방속기가 지향하는 것은 특출난 사람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도 속기 술을 완전히 성취할 확률이 높은 속기를 만드는 데 있다.

보라! 우리의 주위에 속기는 배웠으며 중도 포기한 사람을...

쉬운 속기는 증명되어 있다.

---

**1. 종결형 어미**

~니다 (~습니다, ~합니다, ~입니다, ~니다) : 하줄 역방향으로 빠친다.



나왔습니다

삽니다

이것입니다마는

속기합니다만도

참고1) : 논설체 문장에서는 “는다, 이다”와 같이 쓴다.

참고2) : 문장내에서 “이”, “하”는 혼동이 없는 한 생략한다.

~겠다 (게, 케, 겐) : 다줄로 2-8mm 빠치거나 쓴다.



하겠다

나오게

처리케

주겠습니다

**2. 의문형 어미**

~니까? : 끝에서 살짝 띄어 점을 찍는다.

먹습니까?

노래합니까?

보셨습니까?

청춘이겠습니까?

~십니까? : 끝에 “2”자를 띄어 쓴다.

계십니까?

잡수십니까?

하십니까?

이의없으십니까?

~ㄴ가(~는가, ~인가) : 차줄로 2mm를 띄어서 빼친다.



아는가?



계셨는가?



올 것인가를



사랑인가요

~ㄹ까(~을까, ~일까) : 하줄로 2mm를 띄어서 빼친다.



보았을까?



무얼까?



갔을까 봐



사랑일까요



<실전연습2>

○기자 : 유엔총회 연설이 각국 대표 및 각국  
의

언론, 미국 대통령과 일본 정부의 지지

발표 등 각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찬양과 지지  
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  
까?

○대통령 : 나를 국제정치의 높은 연단 위에  
서게 하여

세계의 호응을 받게 한 것은 위대한 우리 국  
민입니다. 찬사를

불러일으키게 한 것은 이 사람이 아니라 전쟁  
의 잿더미 위에서

불러일으키게 한 것은 이 사람이 아니라 전쟁  
의 잿더미 위에서

기적 같은 발전을 이룩한 우리 국민의 우월  
성,

기적 같은 발전을 이룩한 우리 국민의 우월  
성,

국가적 위기를 뚫고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있  
는

국가적 위기를 뚫고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있  
는

우리 국민의 슬기로움, 그리고 분쟁의 땅에서

우리 국민의 슬기로움, 그리고 분쟁의 땅에서

가장 훌륭한 평화의 축제인 서울 올림픽을 성  
공시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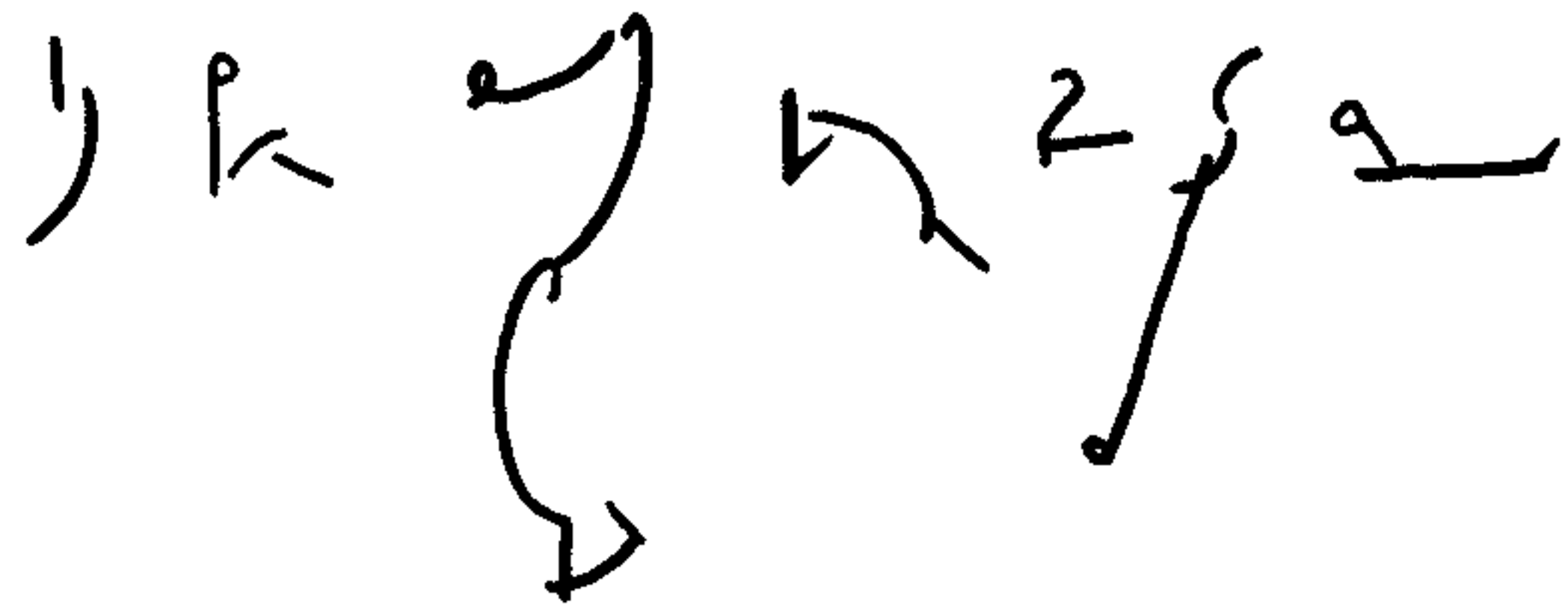
가장 훌륭한 평화의 축제인 서울 올림픽을 성  
공시킨

우리 국민의 성숙한 힘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올림픽은 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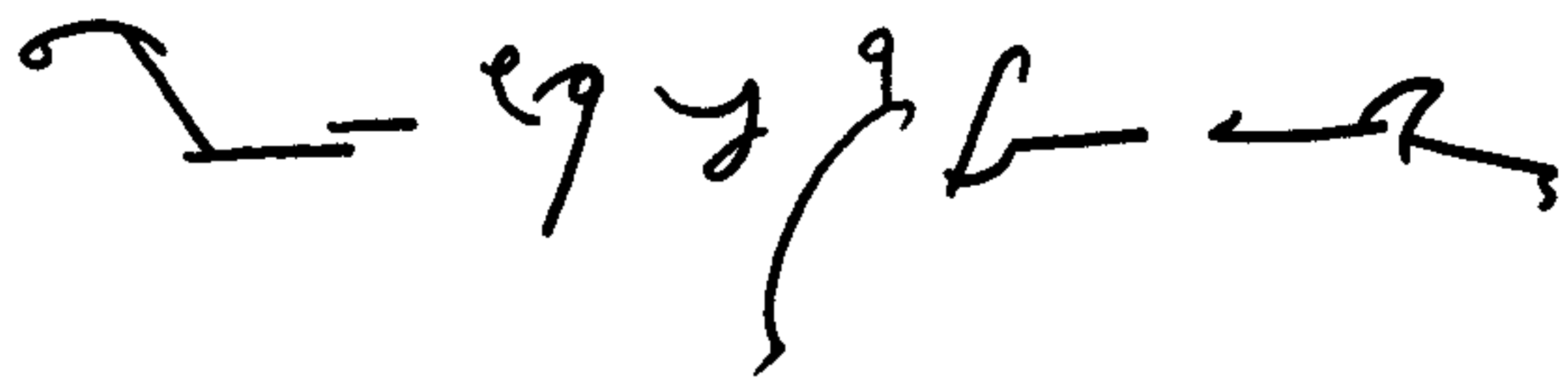
우리 국민의 성숙한 힘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올림픽은 실로

16년만에 동서와 남북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  
의 한마당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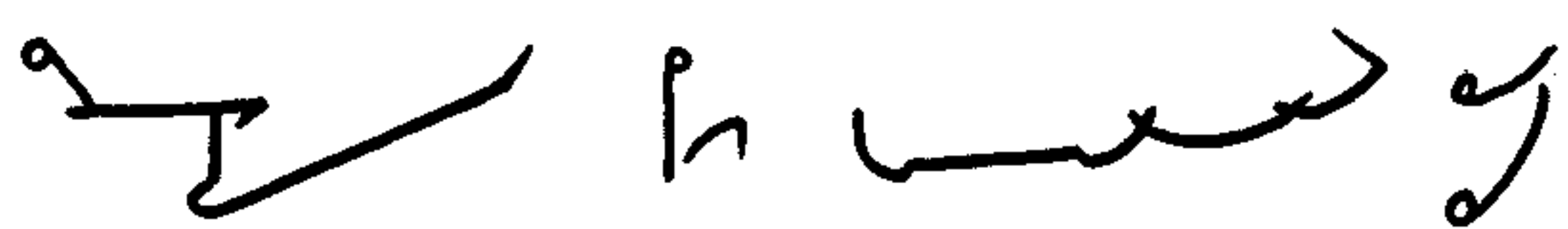
16년만에 동서와 남북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  
의 한마당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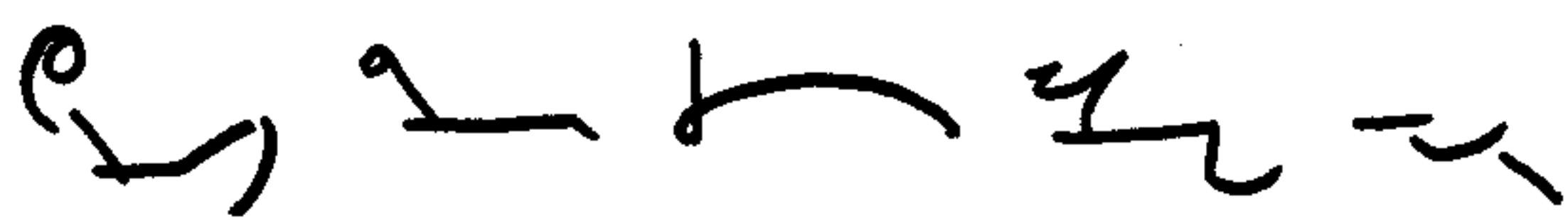
이런 완전한 올림픽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사람들이 한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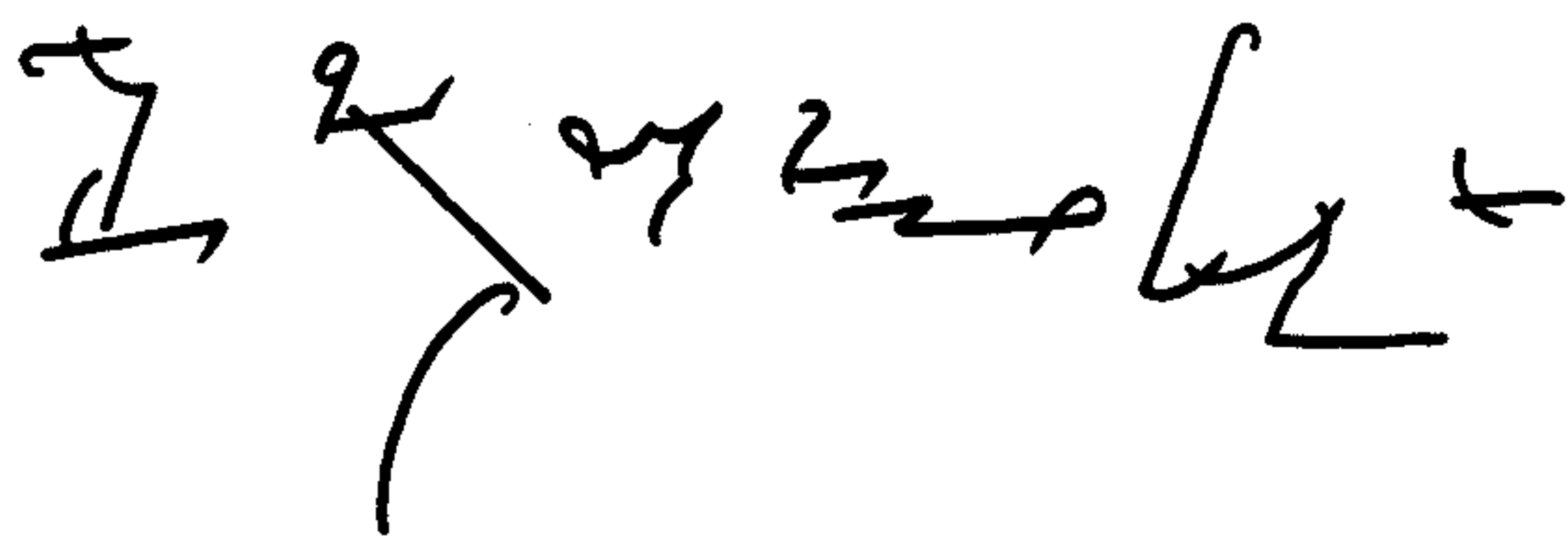
문화국가, 발전된 나라로 인식케 되었고 국제사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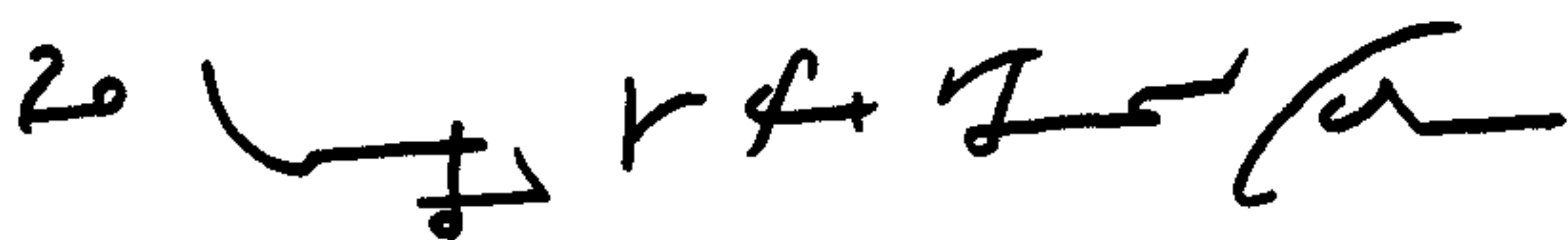
한국의 위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언<sup>\*</sup>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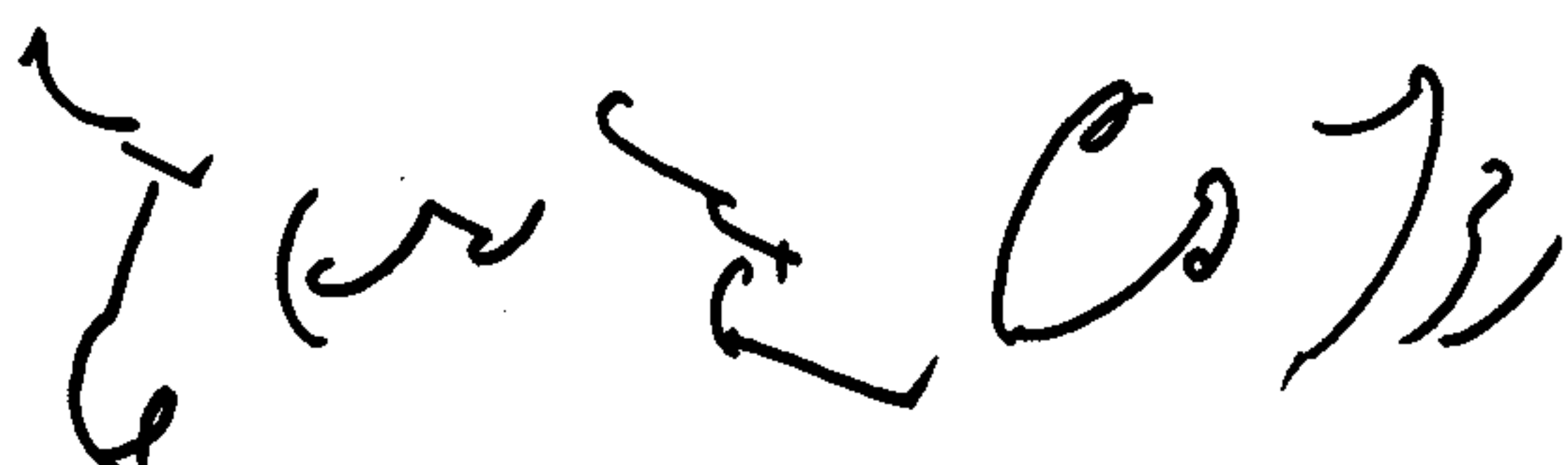
평한 것처럼 한국은 이미 약소국이나 가난한



개발도상의 단계를 훨씬 넘어서서 세계의 강대국으로 뛰어올랐다고 바깥



세계는 <sup>\*</sup>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결과 적대관계를 지양하고



북한을 동포애로 포용하여 화해와 평화를 심으려는 우리의 새로운

이런 심정에서

통일·북방정책은 서방세계는 물론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지지를 받고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민이 이룩한 위대한 성취를 바탕으로

그것은 국민이 이룩한 위대한 성취를 바탕으로

우리가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화해와 평화를

우리가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화해와 평화를  
심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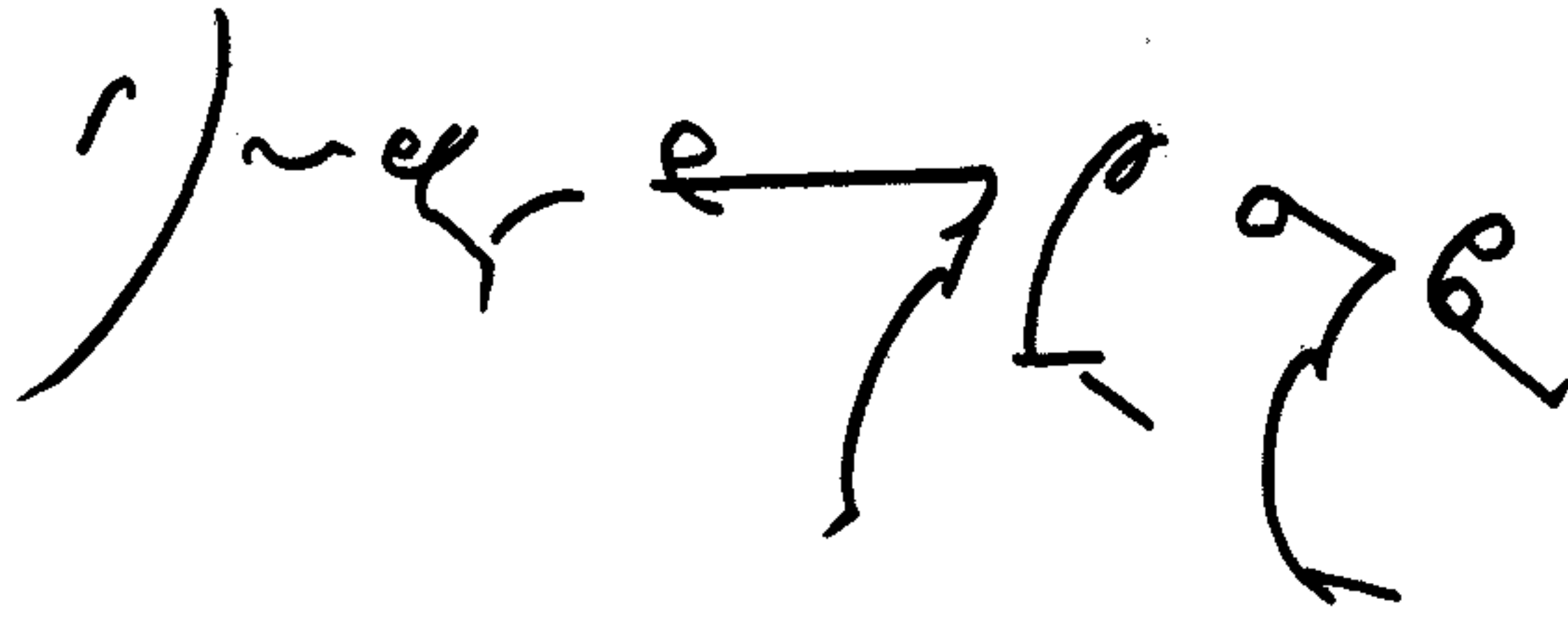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자 : 유엔총회 본회의장 연단 앞에 섰을

○기자 : 유엔총회 본회의장 연단 앞에 섰을  
때의

감회와 끝난 뒤 박수가 쏟아졌을 때의 심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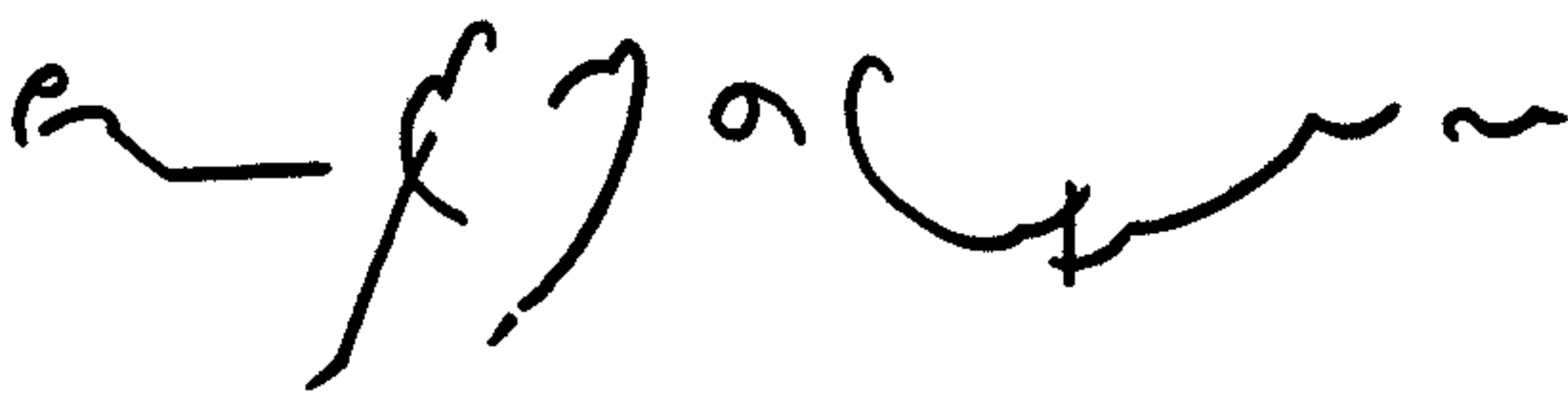
감회와 끝난 뒤 박수가 쏟아졌을 때의 심경은  
어떠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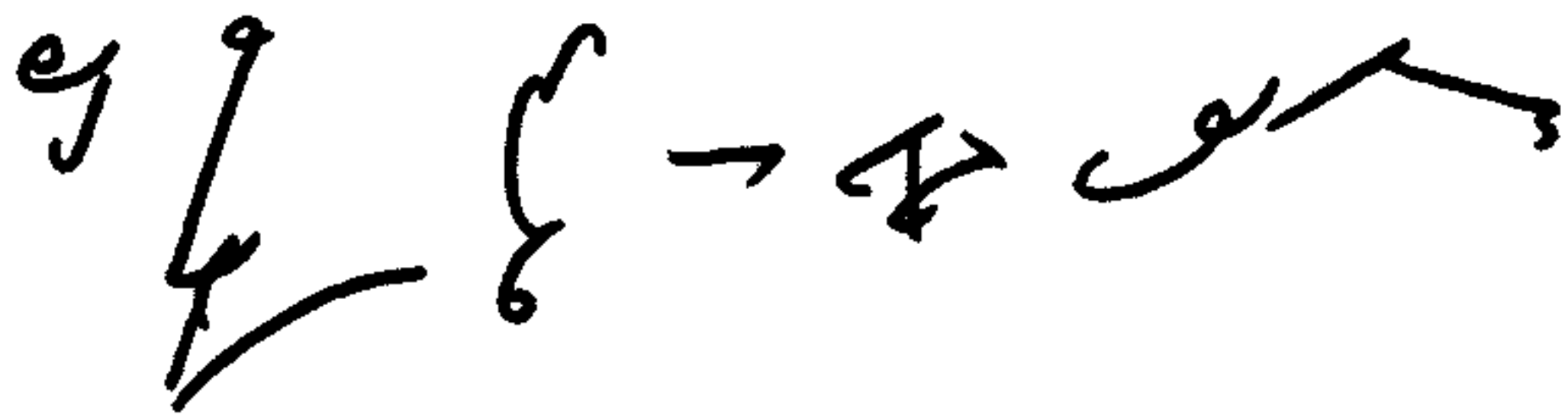
○대통령 : 내가 연설하기 전 방글라데시의 심각한 홍수 피해상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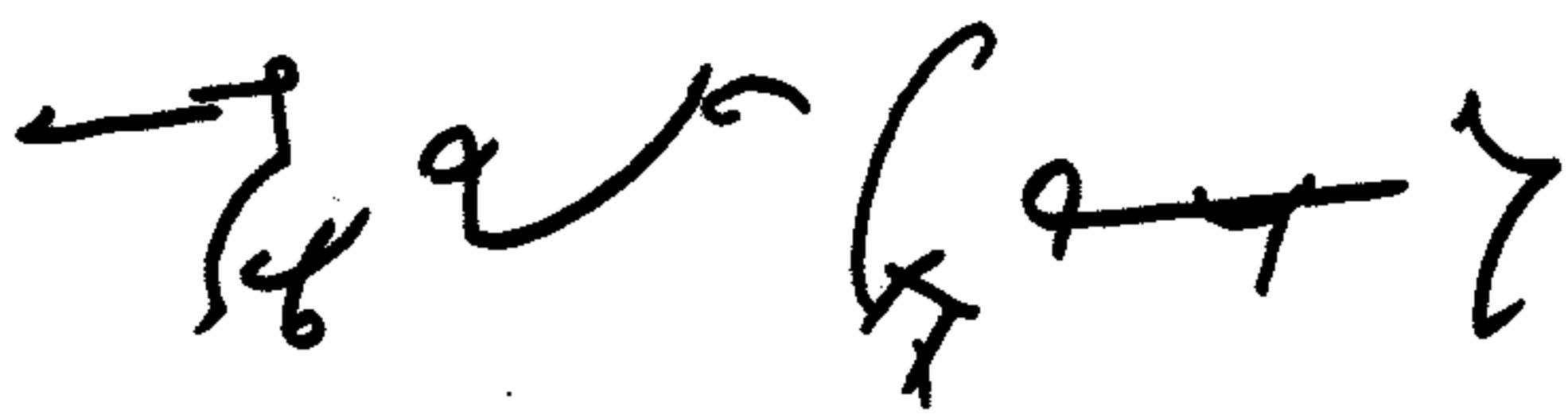
\* 설명하고 구조를 호소하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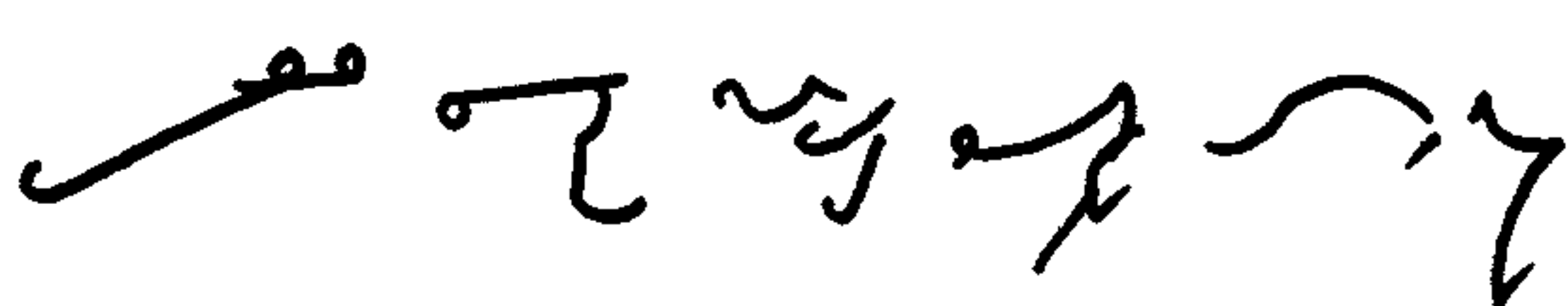
\* 산만하고 대표들의 자리도 텅 비어 있었으나 내가



연단에 들어설 때쯤 대표석이 거의 채워졌습니다. 유엔총회에서



국가원수의 연설이 있으면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박수를



치는 것이 관례이나 내가 연단에 올라섰을 때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긴장하고\*

숙연해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 모  
든

나라 대표들이 분단된 남·북한이 지금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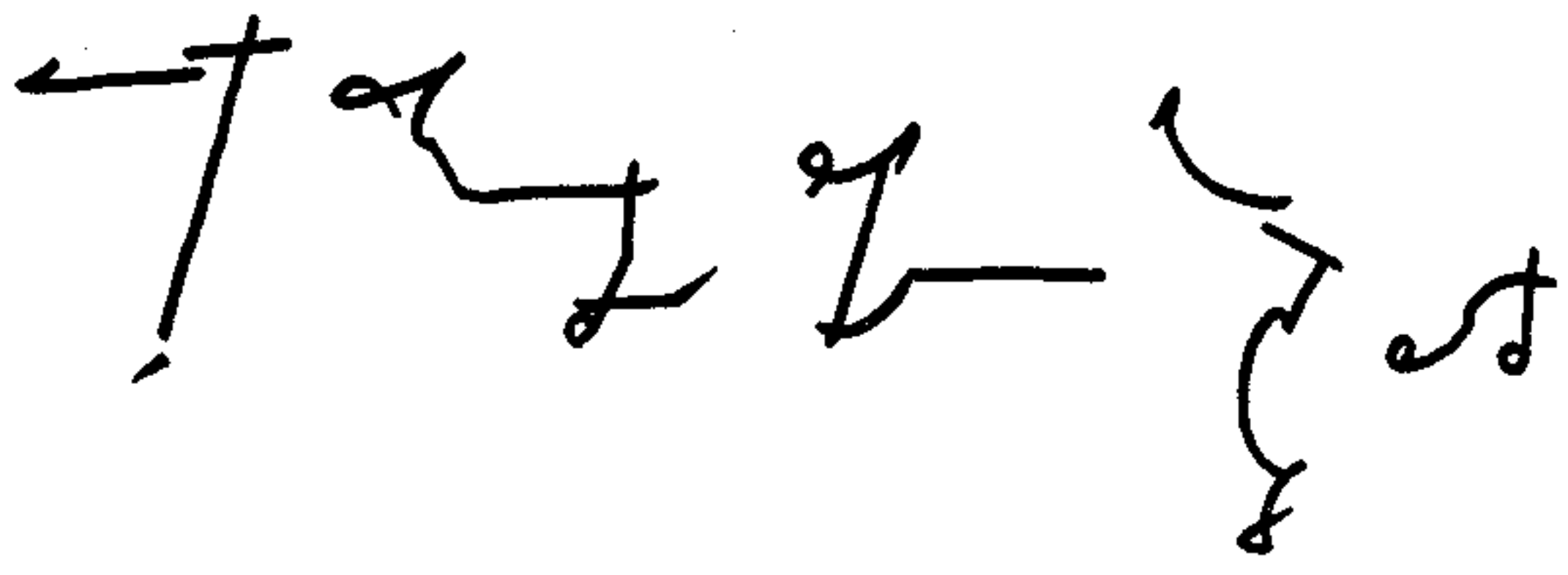
해온 것처럼 또 상대방을 헐뜯는 연설을 하지  
않는가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대표석이 채워진 것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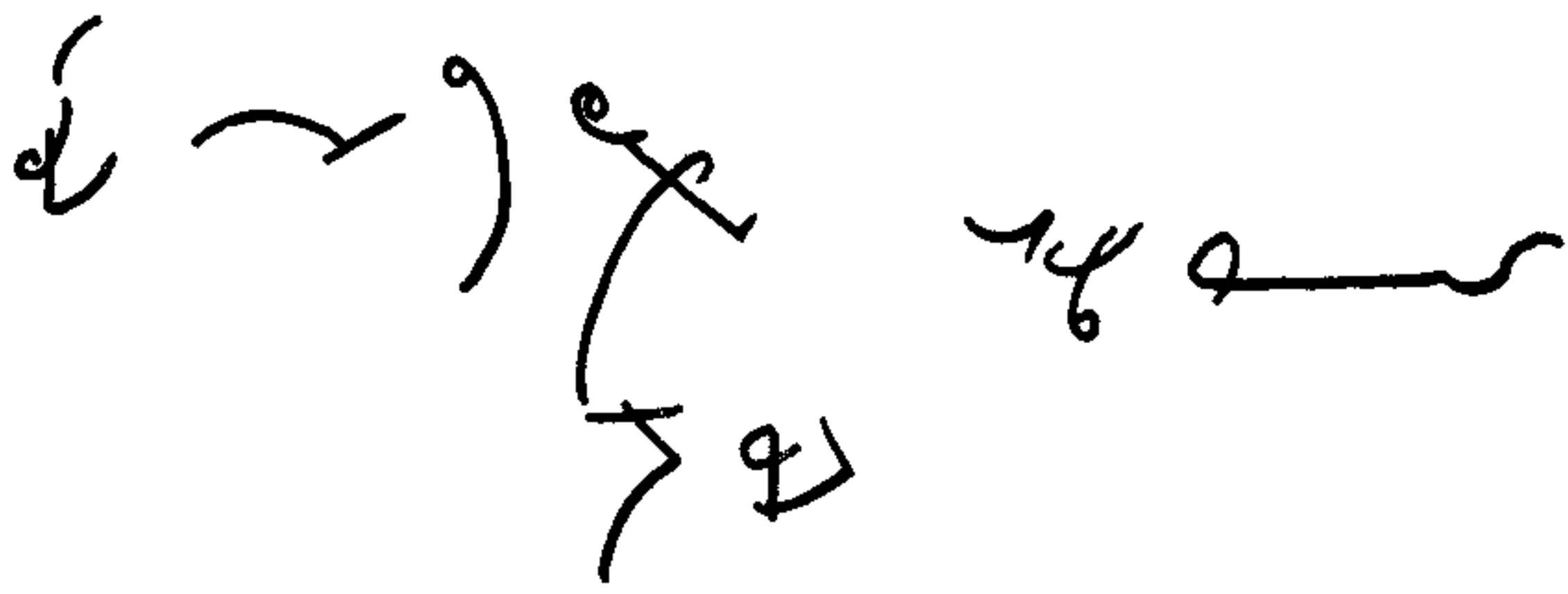
올림픽의 성공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무척  
고조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설을 하는 도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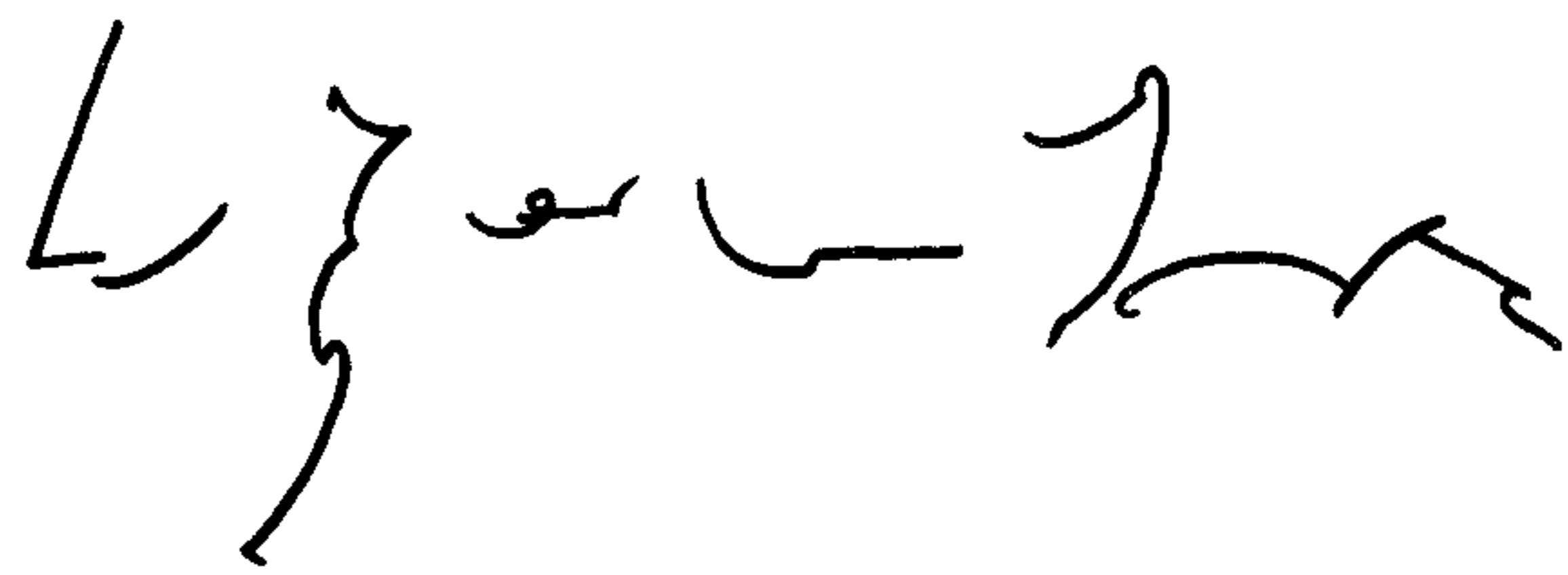
소련·중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공산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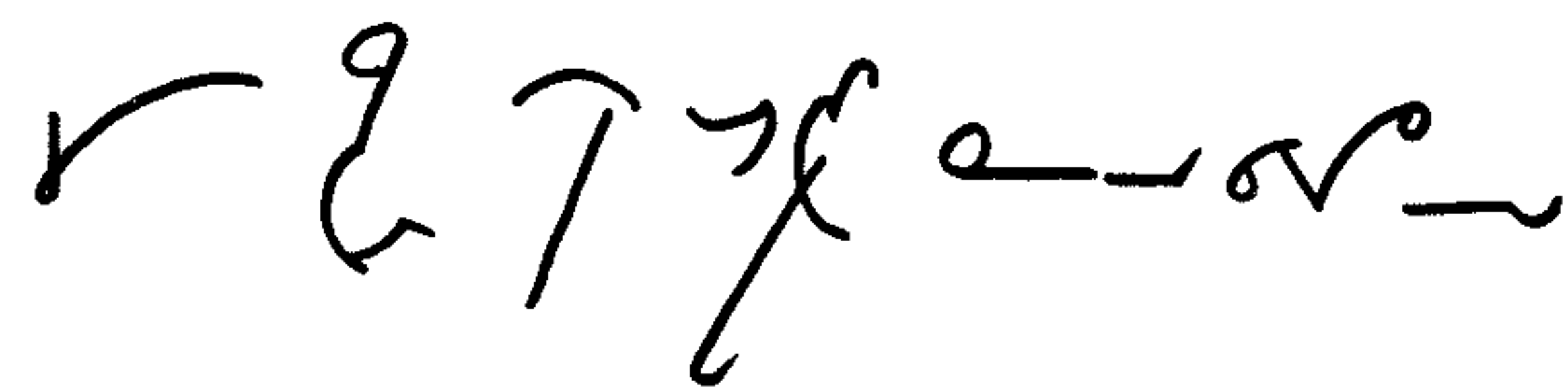
국가들도 <sup>\*</sup>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북한 대표석에도 앉아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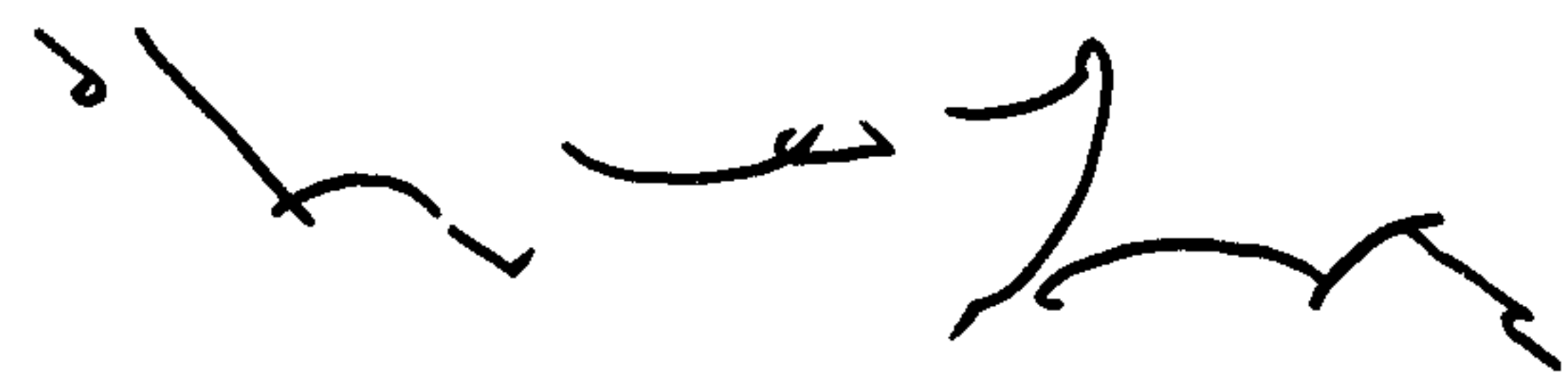
사람이 있어 무척 큰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  
습니다. 나의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소리가 나는 것을 <sup>\*</sup>보고 우리의 민  
족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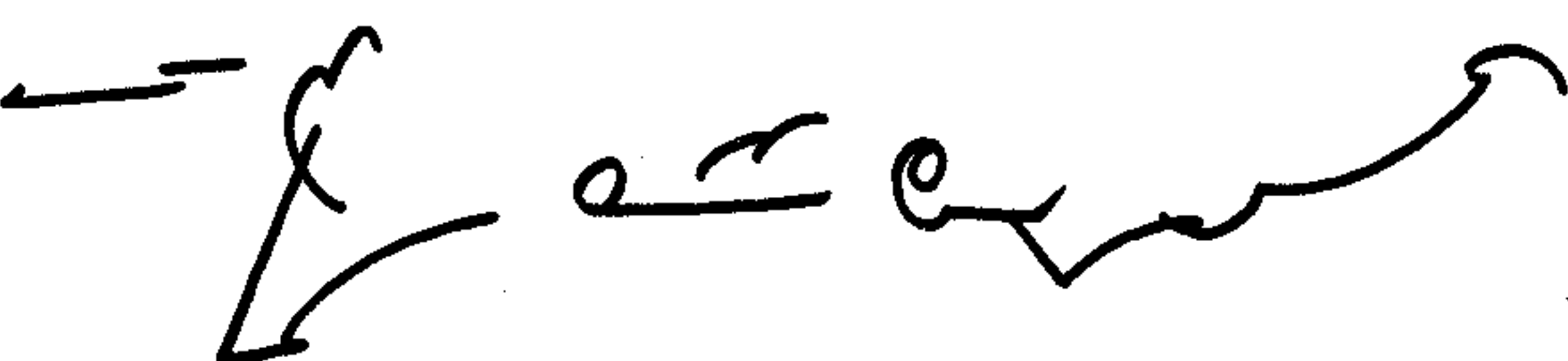
의지, 동포애가 모든 나라 대표들에게 공감을  
전해 주는구나



하는 호뭇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민족화  
해,



통일, 북방정책에 대해 자유세계는 물론 사회  
주의



국가대표들까지 긍정적 평가를 해 주었으며

남북관계에도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나의  
확신을 더해 주어

\*  
남북관계에도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나의  
확신을 더해 주어

정말 보람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정말 보람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기자 : 북한대표의 유엔연설을 보면 그들의  
입장이 달라진

○기자 : 북한대표의 유엔연설을 보면 그들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관계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  
는가? 또 북한이

것이 없는데 관계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  
는가? 또 북한이

동북아평화회의에 참가하는 등 태도를 변화  
할 시기를 언제쯤으로

동북아평화회의에 참가하는 등 태도를 변화  
할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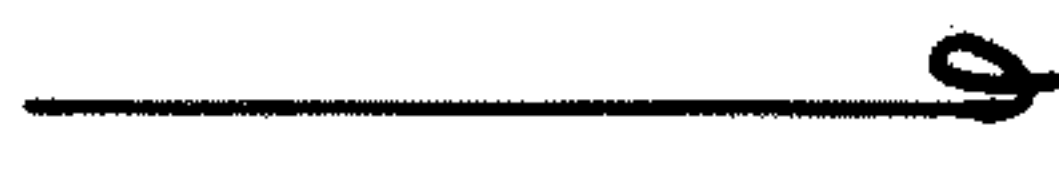







보십니까?

실무참고 : / 표시는 발언자의 구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호이며 ○는 속기록 작성시에  
발언자의 앞에 붙이는 표시로서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매  
우 유서깊은 표기법이다.








3. 복합조사


조사가 연이어 나올 때에는 그대로 이어 쓴다.

	에로		을 해서
	에게는		와도
	에게도		으로는(로운)
	에서가		으로의

그리고 다음의 복합조사는 주의를 요한다.

	으로서		해선
	에선		에겐

에의 

에를 

(빠치기 어려울 때는 “에”에서 빛이 반사되듯이 빠친다.)

조사연습법 : 가~이까지 전부 대입을 해서 10회 이상 연습하면 된다.

<실전연습3>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 열이틀 동안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 열이틀 동안

\* 아시아, 태평양 네 나라 공식방문에서 새로운 감회를 안고

\* 아시아, 태평양 네 나라 공식방문에서 새로운 감회를 안고

돌아와, 국민여러분께 귀국인사를 드리게 되어

돌아와, 국민여러분께 귀국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의 이웃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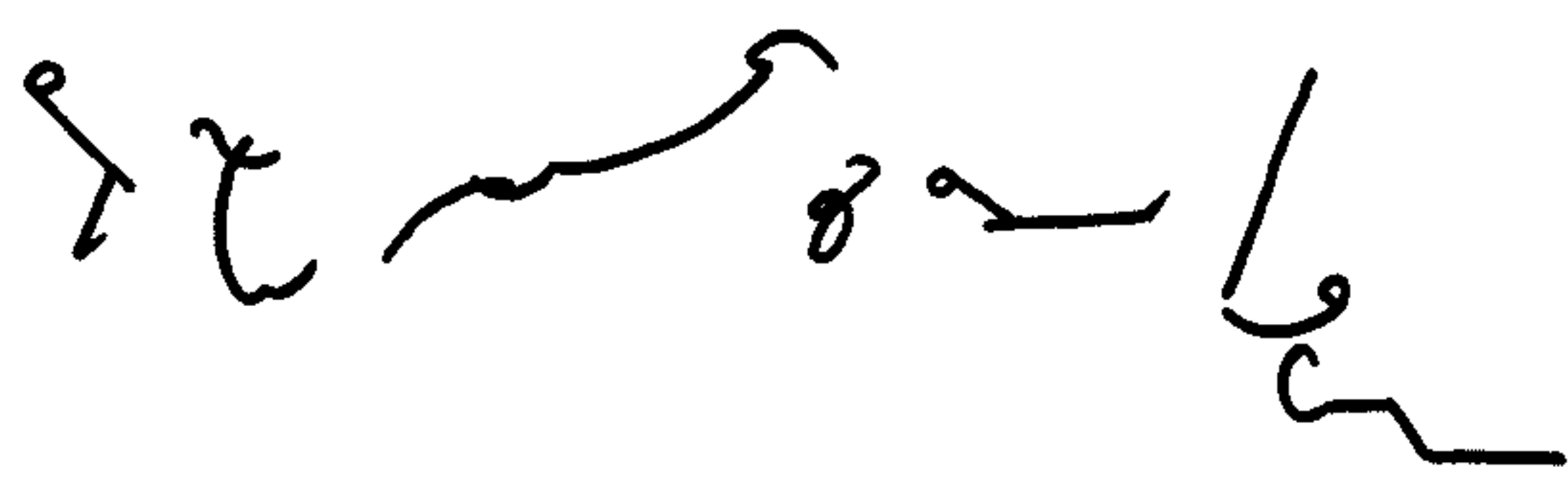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의 이웃나라

순방은 우리에게 매우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이들 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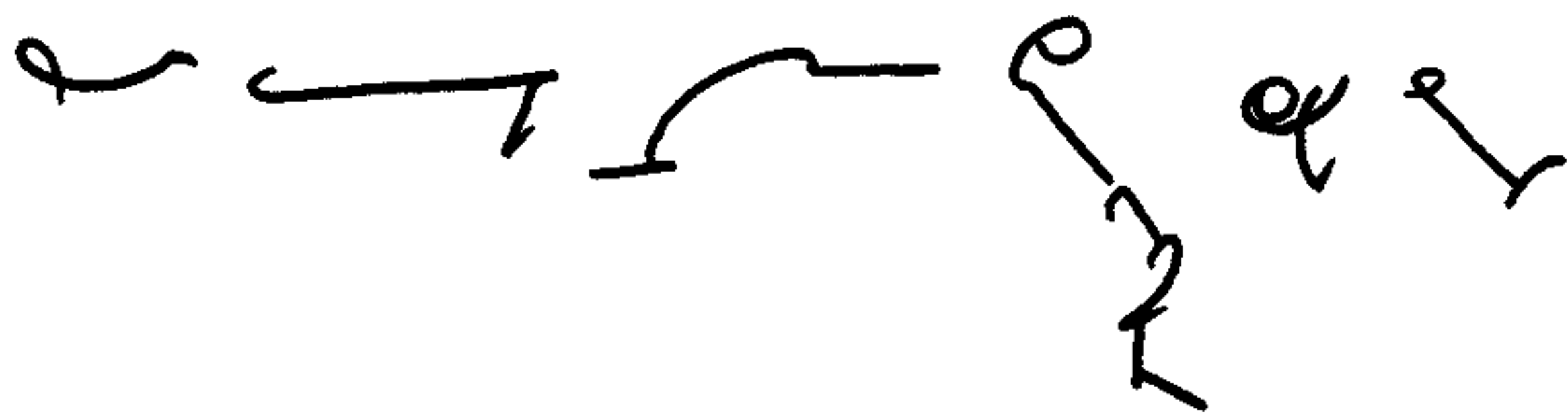
순방은 우리에게 매우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이들 각국

\* 정부와 국민들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 진심 어린 환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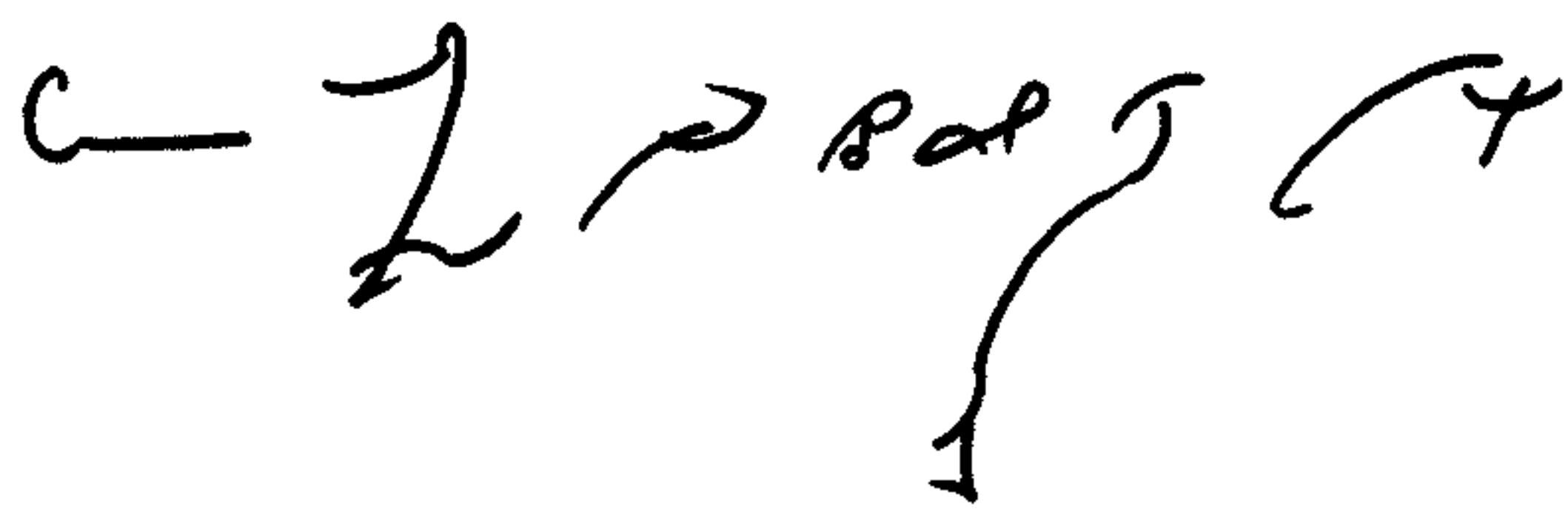
\* 정부와 국민들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 진심 어린 환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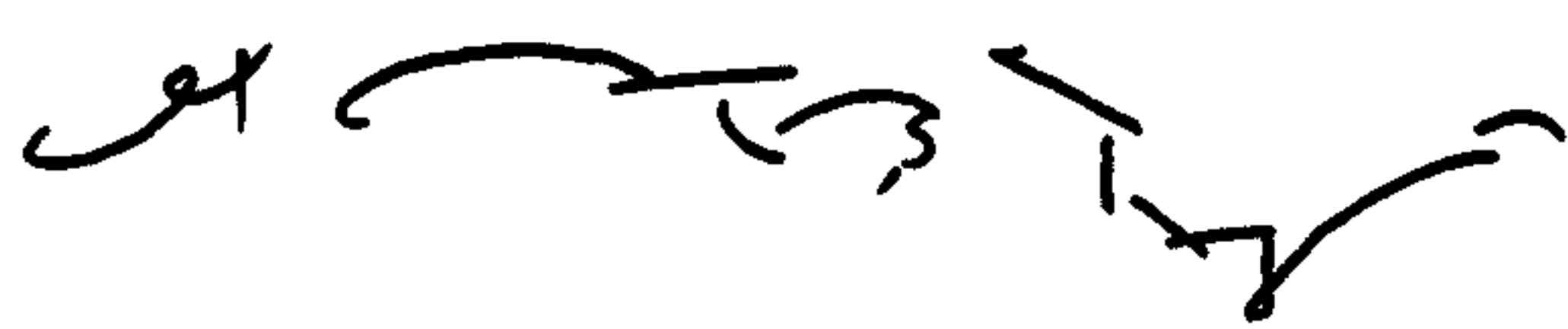
환대를 베풀어 주었으며 새로운 한국을 드높  
이 평가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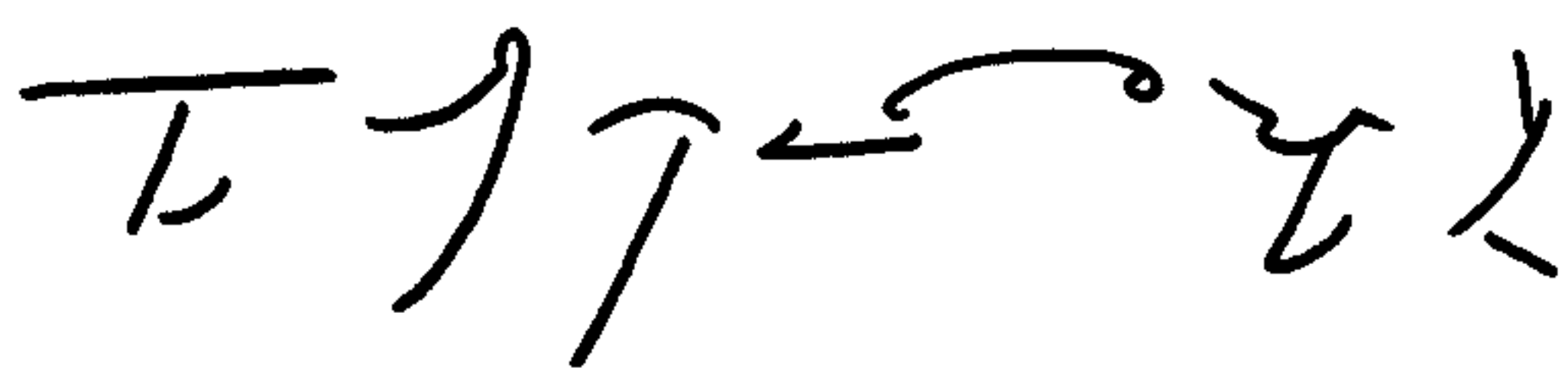
높은 기대를 가지고 상호협력을 위해 양팔을  
활짝



펴고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저로서는 참으  
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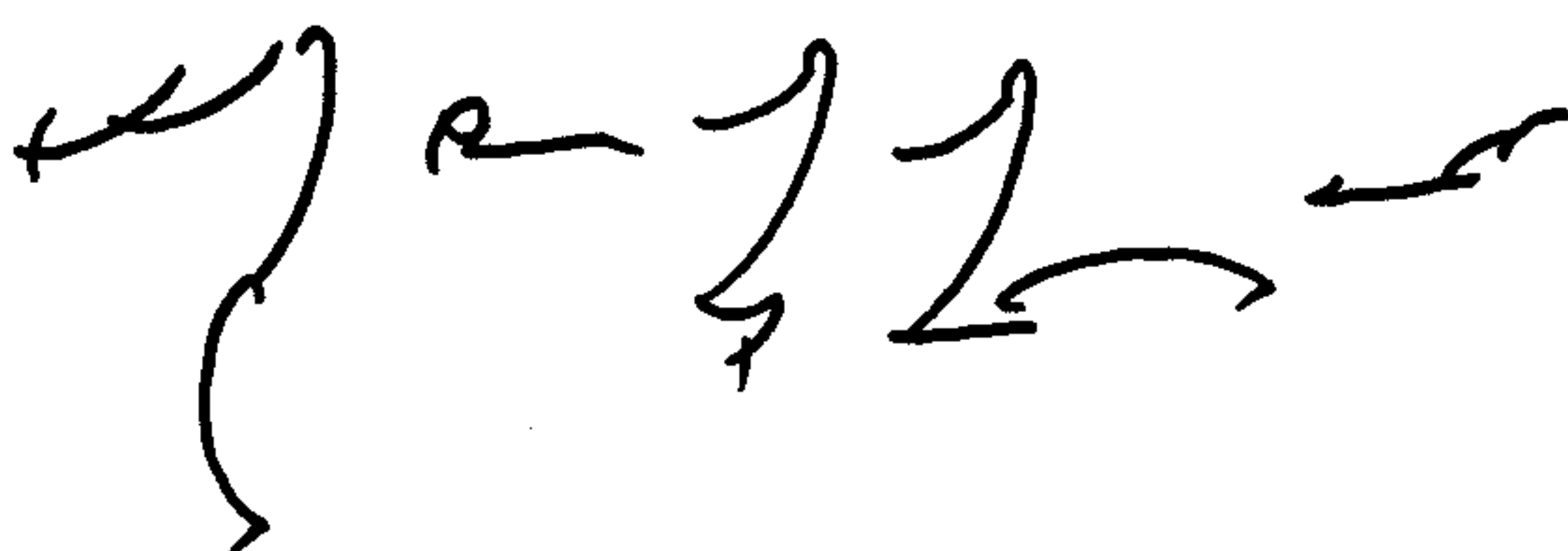
유엔과 미국 방문에서도 확인한 것이지만,



그동안 우리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룩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성장 그리고



서울올림픽의 성공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의 국제적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stroke 1

위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stroke 2

서울올림픽의 빛나는 성취로, 우리에게도 보람을 안겨다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stroke 3

주었음은 물론 같은 아시아 국가, 같은 태평양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stroke 4

국가의 이들 국민에게도 큰 긍지와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strok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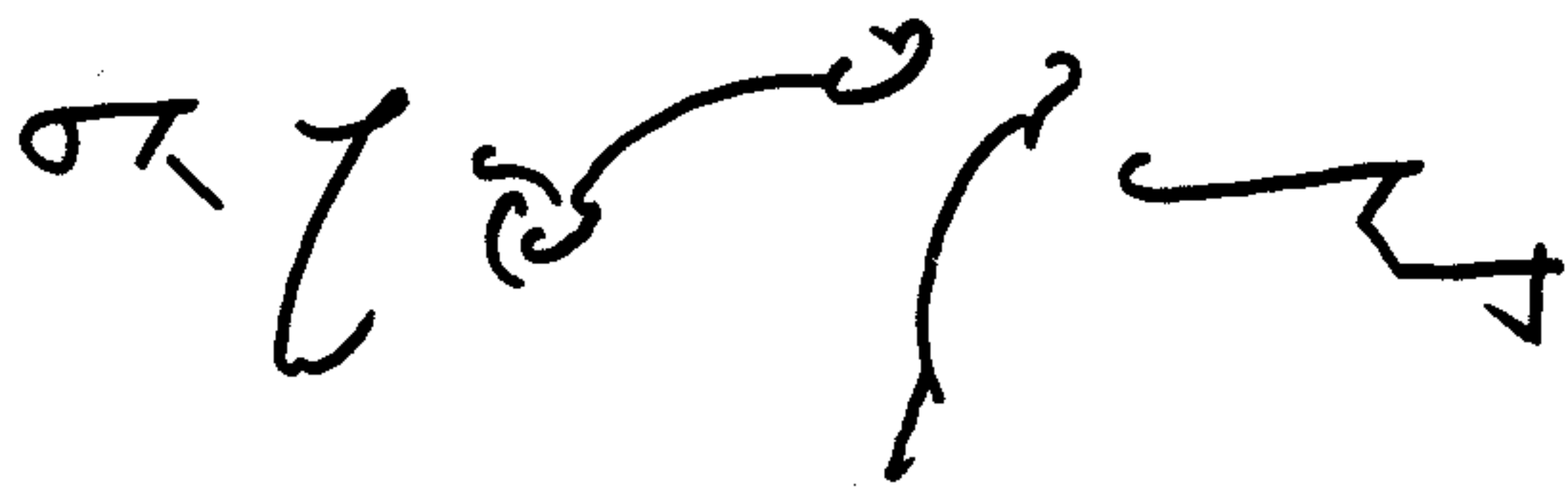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습니다. 저는 우리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strok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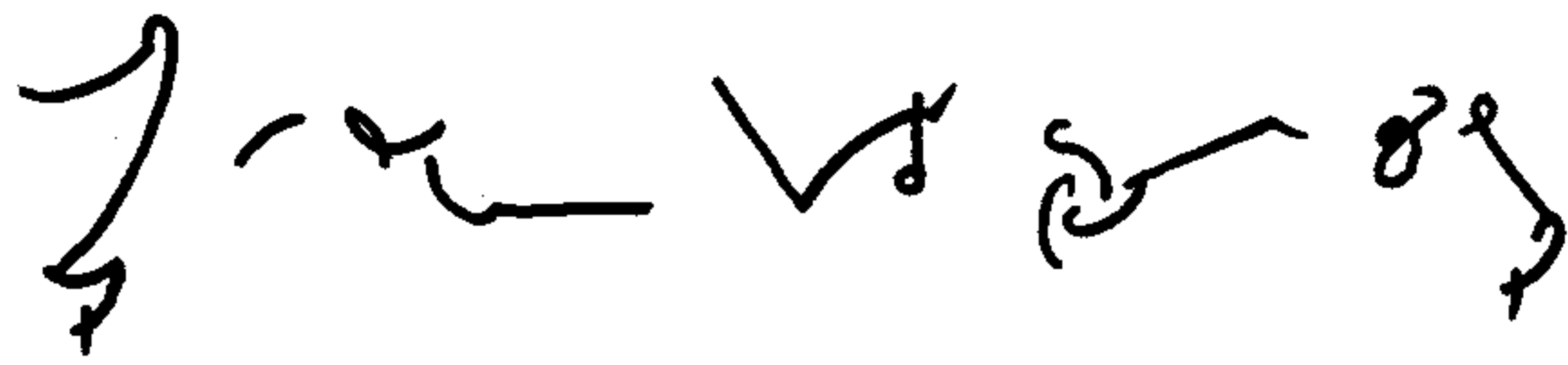
국민의 이 위대한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strok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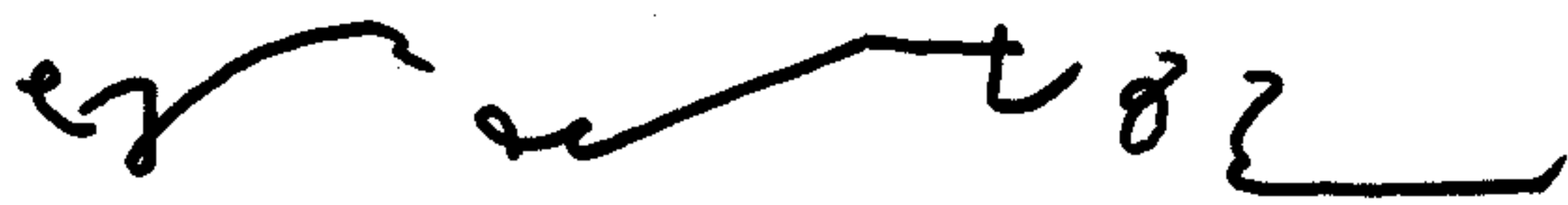
귀국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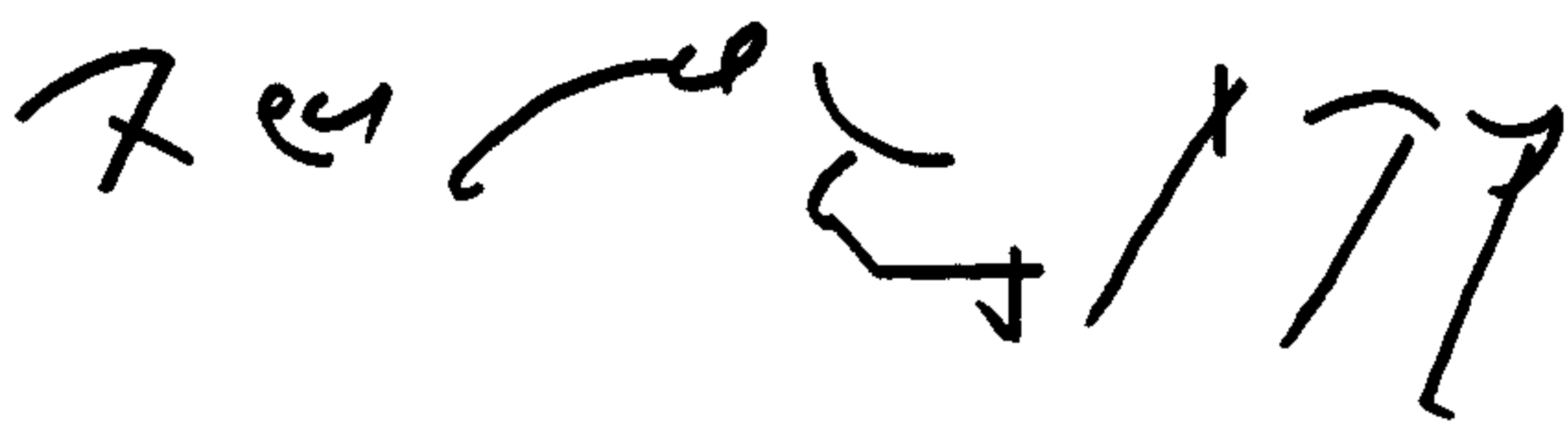
광대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의 새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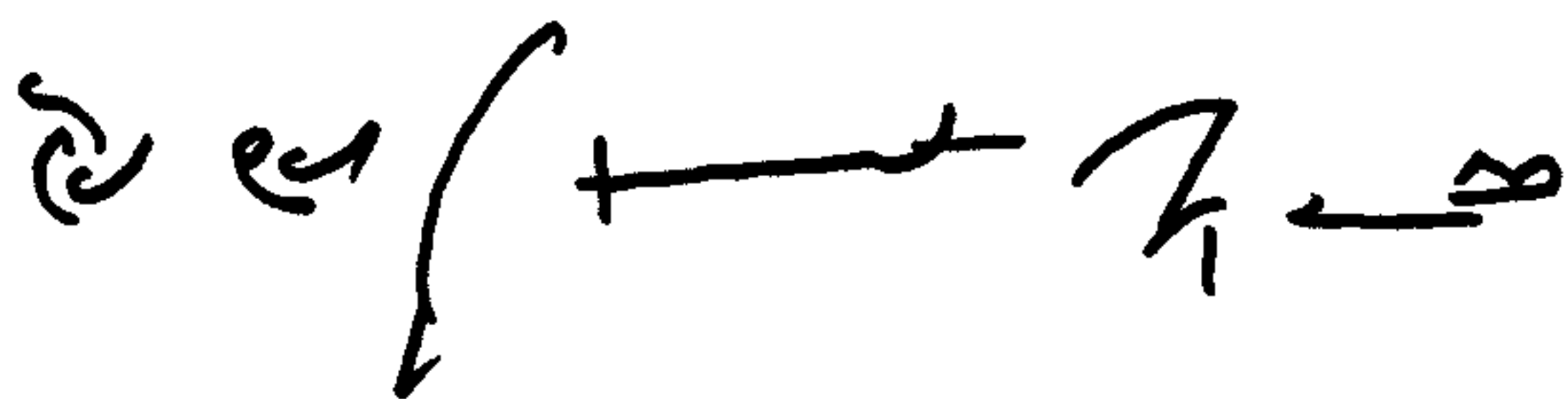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저 남반구 호주를 잇는 태평양 축은 새로운 활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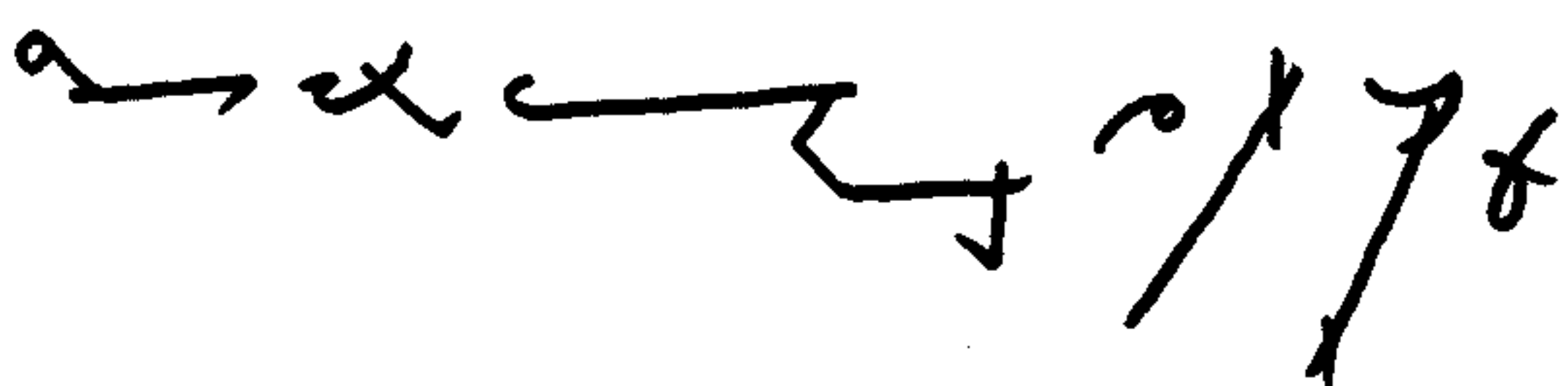
발전의지가 넘치고 있어 새로운 세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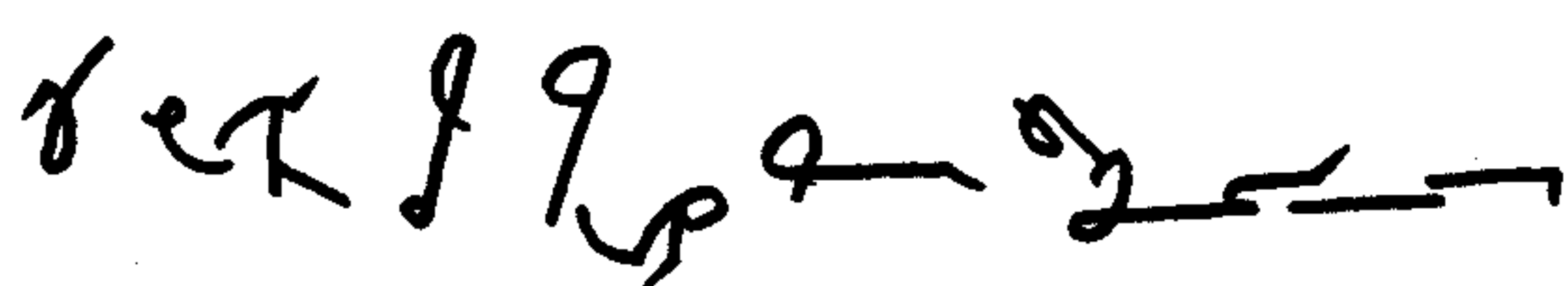
주도할 변영의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든 나라들은,



태평양 변영의 시대를 이끌어 갈 주도적인 국가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 나라들과 서로가



서로의 발전을 위해 돕는 동반자로서의 굳은 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졌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다졌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순방 4개국은 한결같이, 한국이 축적한

순방 4개국은 한결같이, 한국이 축적한

발전경험과 기술, 우수한 인력, 자본이 더 많이 들어와

발전경험과 기술, 우수한 인력, 자본이 더 많이 들어와

번영을 함께 일구는 태평양 협력에의 새시대를 함께 열어갈 것을

번영을 함께 일구는 태평양 협력에의 새시대를 함께 열어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들 나라 정상들은 우리의 새로운 화해와 평화

다짐하였습니다. 이들 나라 정상들은 우리의 새로운 화해와 평화

통일, 북방정책을 조건없이 전폭 지지

통일, 북방정책을 조건없이 전폭 지지

하였으며, 이제는 한국을 신뢰하는 동반자로서의 우방이라 보고

하였으며, 이제는 한국을 신뢰하는 동반자로서의 우방이라 보고

1) 2 2 2 2 2 2 2 2 2 2

더 큰 참여와 역할을 흔쾌히 환영하였습니다.

2) 2 2 2 2 2 2 2 2 2 2

저는 이들 나라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 같은 개발도상국의 과정을 겪은

3) 2 2 2 2 2 2 2 2 2 2

한국으로서는 이들 나라의 발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4) 2 2 2 2 2 2 2 2 2 2

기여함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굳게 손잡고

5) 2 2 2 2 2 2 2 2 2 2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제 동남아와 남태평양을 잇는

6) 2 2 2 2 2 2 2 2 2 2

이 넓은 지역에서의 태평양 시대를 함께 여는 동반자로서 더 많은 일을 하며

7) 2 2 2 2 2 2 2 2 2 2

한국의 항공기와 선박은 더 많은 사람과 물자를 싣고

자카르타와 저 남태평양의 호주를 왕복할 것  
입니다.

자카르타와 저 남태평양의 호주를 왕복할 것  
입니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이번 아시아,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이번 아시아,

태평양 네 나라에의 순방이 우리 국민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우리가

태평양 네 나라에의 순방이 우리 국민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우리가

통일 번영의 길을 열어가는데 굳건한 디딤돌  
을

통일 번영의 길을 열어가는데 굳건한 디딤돌  
을

놓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여러분! 밖에서  
는

놓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여러분! 밖에서  
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가난하거나 약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습이 가난하거나 약한 나라가  
아니라

이미 선진국으로 진입해 가는 당당하고

이미 선진국으로 진입해 가는 당당하고



자랑스런 나라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곳곳에 사는

우리 국민들, 건설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근로자 모두도 큰 보람과 긍지를

가슴 벅차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웅비의 나라를 활짝 편 세계사의 주도국가입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노력해 가면 번영된

선진국가는 머지않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Handwritten calligraphy: 今이야말로 이제까지 우리 모두가 땀흘려

지금이야말로 이제까지 우리 모두가 땀흘려

Handwritten calligraphy: 쌓아올린 이 도약대 위에서 통일과 번영의 드넓은 창공을 차고

쌓아올린 이 도약대 위에서 통일과 번영의 드넓은 창공을 차고

Handwritten calligraphy: 나가 밝은 미래로 힘차게 나갈 때입니다. 아직도 우리

나가 밝은 미래로 힘차게 나갈 때입니다. 아직도 우리

Handwritten calligraphy: 사회내부에서의 갈등과 진통이 일고 있는 것, 저 자신

사회내부에서의 갈등과 진통이 일고 있는 것, 저 자신

Handwritten calligraphy: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간 과거의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간 과거의

Handwritten calligraphy: 한 부분이, 미래를 향한 새로운 우리 모두의 큰

한 부분이, 미래를 향한 새로운 우리 모두의 큰

Handwritten calligraphy: 발걸음을 묶는 결과가 되는 것, 우리 누구도

발걸음을 묶는 결과가 되는 것, 우리 누구도

Handwritten calligraphy stroke: ㄱ → ㅋ → ㆁ → ㅏ → ㅑ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 이 진통을

Handwritten calligraphy stroke: ㅓ → ㅕ → ㅗ → ㅛ → ㅜ → ㅠ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슬기로운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Handwritten calligraphy stroke: ㅡ → ㅜ → ㅠ → ㅝ → ㅞ → ㅟ

과거의 문제는 감정보다는 냉정한 이성으로 진실의 바탕 위에서만

Handwritten calligraphy stroke: ㅠ → ㅡ → ㅢ → ㅣ → ㅤ → ㅥ

처리되어야 합니다. 지나간 일로 해서 우리 모두의 전진이 가로막혀서는

Handwritten calligraphy stroke: ㅦ → ㅧ → ㅨ → ㅩ → ㅪ → ㅫ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Handwritten calligraphy stroke: ㅬ → ㅭ → ㅮ → ㅯ → ㅱ → ㅲ

안정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저 역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Handwritten calligraphy stroke: ㅳ → ㅴ → ㅵ → ㅶ → ㅷ → ㅸ

이제 우리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와 호흡을 함께 해서,

세계를 무대로 해서 활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광활한 아시아,

세계를 무대로 해서 활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광활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넘치는 활력과 풍부한 자원을 안고

태평양지역은 넘치는 활력과 풍부한 자원을 안고

새로운 민주한국의 빛나는 역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주한국의 빛나는 역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뺏어가야 할 이 지역에 민족

우리가 뺏어가야 할 이 지역에 민족

자존의 떳떳한 마음으로 호못함을

자존의 떳떳한 마음으로 호못함을

느끼며 협력에의 더 큰길을 트는 일에

느끼며 협력에의 더 큰길을 트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돌아와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돌아와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4. 간이약부 (1)

- 1) 접속될 때는 앞문자 끝에서 오른쪽에 띄어 쓴다.
- 2) 독립적일 때는 중선에 쓴다. (중선-문자의 중심선)

~에(데)다 1

~에(데)다가, 게다가 1

2	~한테, 한테	3	~만큼
7	~처럼	2	~커녕
↗	~조차	m	~마저
0	같이	h	같은

예)

	학교에다		보는 데다
	속기록에다가		게다가 말이야
	장관한테		영원한테
	사랑만큼		강물처럼
	바보같이		하늘마저

<실전연습4>

친애하는 6,000만 국내외 동포 여러분,  
우리 헌정발전을

친애하는 6,000만 국내외 동포 여러분,  
우리 헌정발전을

뒷받침해 주신 윤보선, 최규하 전임대통령과

뒷받침해 주신 윤보선, 최규하 전임대통령과

평화적 정부이양의 역사적 선례를 세우신 전  
두환 전임대통령,

평화적 정부이양의 역사적 선례를 세우신 전  
두환 전임대통령,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세계각국의 경축  
사절과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세계각국의 경축  
사절과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기 위해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기 위해

성스러운 이 민의의 전당 앞에 모였습니다.  
동아시아의 변방국가에서

성스러운 이 민의의 전당 앞에 모였습니다.  
동아시아의 변방국가에서

세계의 중심국가로 뛰어오를 민족응비의 희  
망찬

세계의 중심국가로 뛰어오를 민족응비의 희  
망찬

새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나라에 민주정부를 세운 지 40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요청하는 역사의 조류 속에 제1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아득한 옛날 이 땅에 민족의 터전을

일구어 오신 모든 선조들에게 깊이 머리 숙입니다.

저는 먼저 반만년 동안 숭한 외세의 침략과 시련을 이겨내며

빛나는 문화전통을 창조하여 민족의 자존을

면면히 이어온 그 불굴의 자주독립정신을 가슴에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새깁니다. 가까이로는 손 마디마디에 고생의 흔적이 역력한

새깁니다. 가까이로는 손 마디마디에 고생의 흔적이 역력한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형제자매 동포 여러분에게 새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들의 손은 가난과 전쟁에

형제자매 동포 여러분에게 새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들의 손은 가난과 전쟁에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시달려 아무 것도 없는 맨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잘살아 보겠다는

시달려 아무 것도 없는 맨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잘살아 보겠다는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뜨거운 가슴으로 땀흘려 일한 우리들의 맨손에서 이 나라는

뜨거운 가슴으로 땀흘려 일한 우리들의 맨손에서 이 나라는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세계가 높이 보는 신흥공업국가로 자랐습니다.

세계가 높이 보는 신흥공업국가로 자랐습니다.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그리고 이제 평화적 정부이양의 전통을 이룩한

그리고 이제 평화적 정부이양의 전통을 이룩한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민주국가로 커졌습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은 위대하였습니다.

민주국가로 커졌습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은 위대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국민적 저력은 20세기

이 놀라운 국민적 저력은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우리 모

끝나기 전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우리 모  
두에게

무한한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민족사

무한한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민족사  
의 출발점에

서서 저는 오늘이 있기까지 땀흘린 모든 분들

서서 저는 오늘이 있기까지 땀흘린 모든 분들  
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는 그동안 우리 민족을 여러 차례 시험해

역사는 그동안 우리 민족을 여러 차례 시험해  
왔습니다.

인내와 슬기, 국민의 뭉친 힘으로

인내와 슬기, 국민의 뭉친 힘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낸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민족전체가 한차원 높게 뛰어오르라는 명령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자존의 새시대를 꽃피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바로 그 민족자존의 새시대가

열렸음을 국민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능동적인

자기개혁으로 새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해야 합니다.

새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 저 창공으로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새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 저 창공으로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개척자의 정열로 낡은 틀을 깨뜨리고

역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개척자의 정열로 낡은 틀을 깨뜨리고

은 국민이 민주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은 국민이 민주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자주와 자존의 통일대국으로 비약할 때입니다. 새시대는 분명히 변화하며

자주와 자존의 통일대국으로 비약할 때입니다. 새시대는 분명히 변화하며

발전하고 쇄신하며 도약하는 활력에 가득찬 진보의 시대인 것입니다.

발전하고 쇄신하며 도약하는 활력에 가득찬 진보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부의 지나친 다툼을

그러므로 우리 내부의 지나친 다툼을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과거는 분명히 우리 모두의 자산이면서 반성의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과거는 분명히 우리 모두의 자산이면서 반성의

거울이지만 그것이 밝은 미래의 세계로

거울이지만 그것이 밝은 미래의 세계로

전진해 나가려는 우리의 발걸음에 끝없는 족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진해 나가려는 우리의 발걸음에 끝없는 족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위대한 국민의 민주적 선택으로

더욱이 지난해 위대한 국민의 민주적 선택으로

40년 헌정사를 통해 쌓여온 갈등의 찌꺼기는

40년 헌정사를 통해 쌓여온 갈등의 찌꺼기는

모두 씻겨졌습니다. 이제는 지역감정, 당파적 이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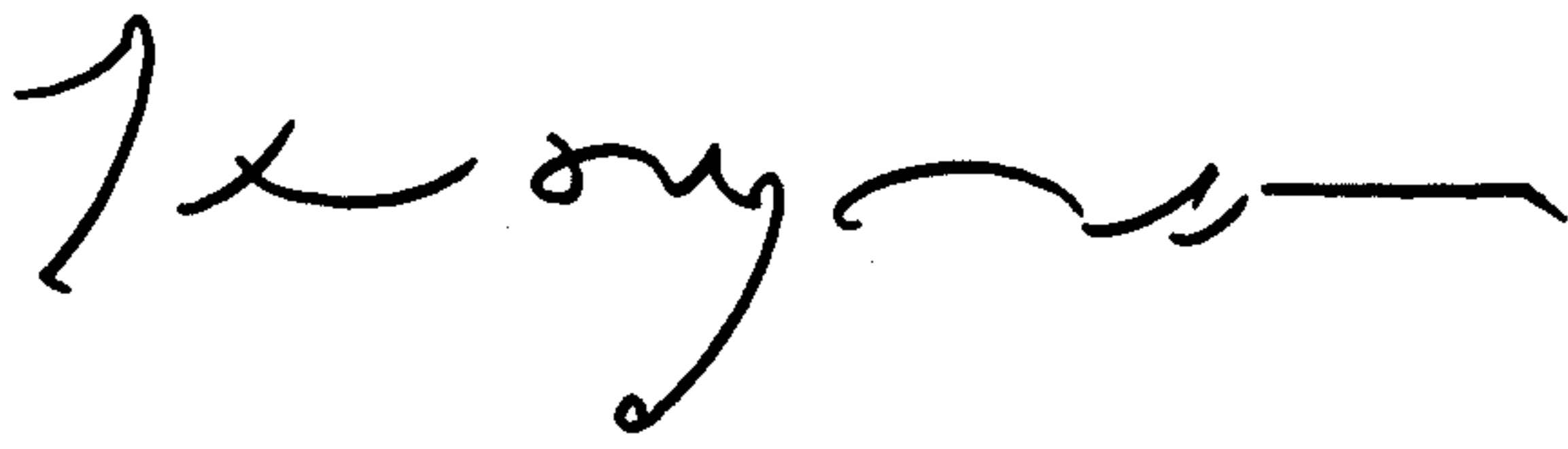
모두 씻겨졌습니다. 이제는 지역감정, 당파적 이기심,

개인적 섭섭함을 이 새로운 출발의 광장에 모두 묻읍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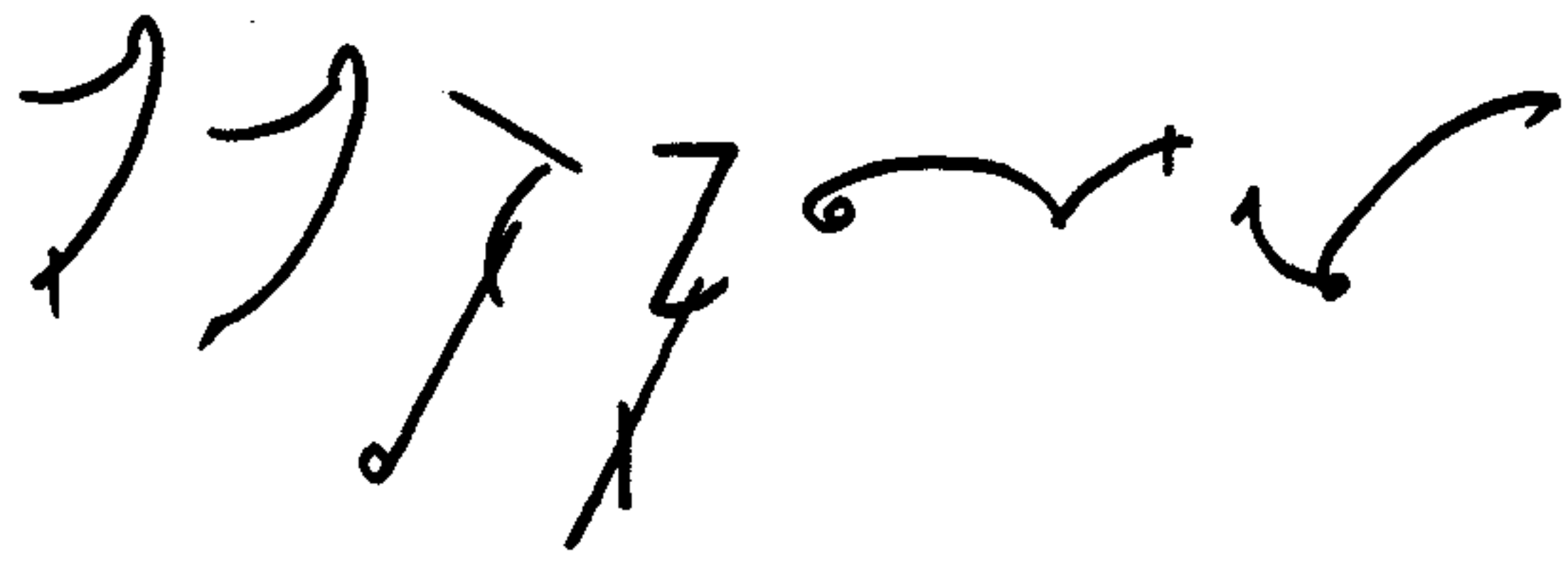
개인적 섭섭함을 이 새로운 출발의 광장에 모두 묻읍시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는 호양의 정신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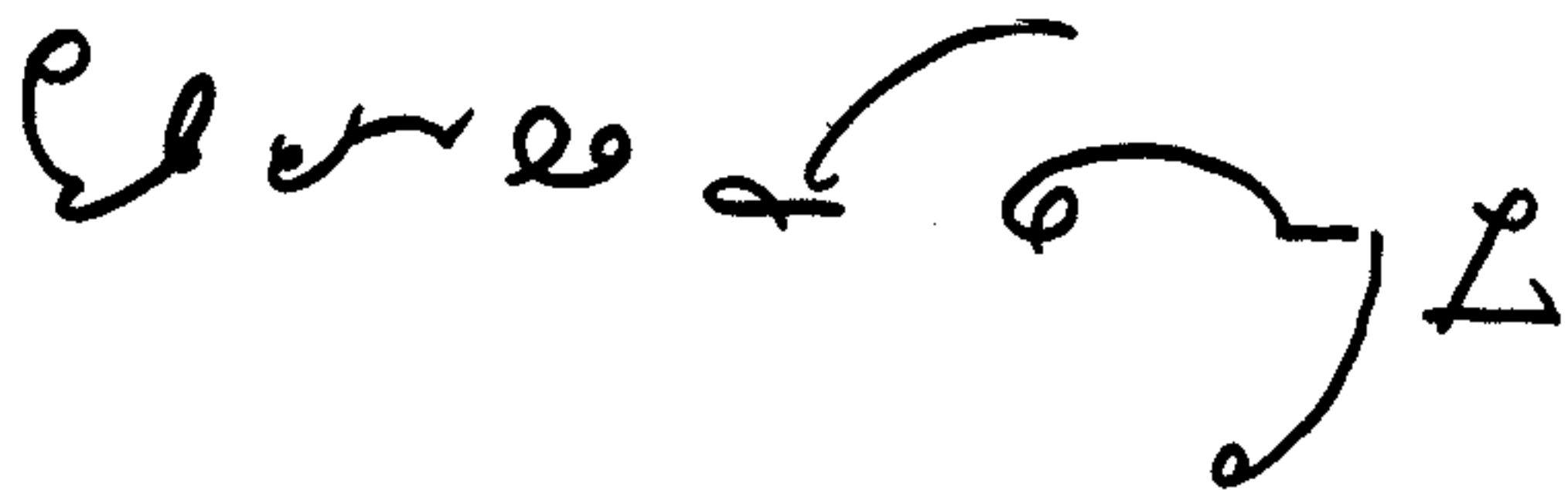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는 호양의 정신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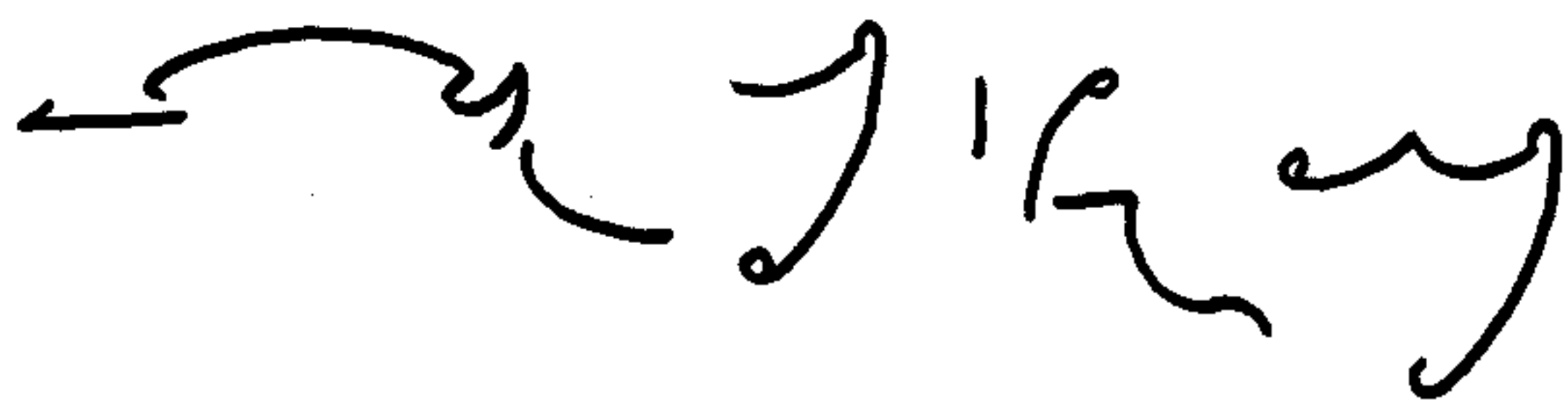
우리가 오늘 물어버리는 미움의 앙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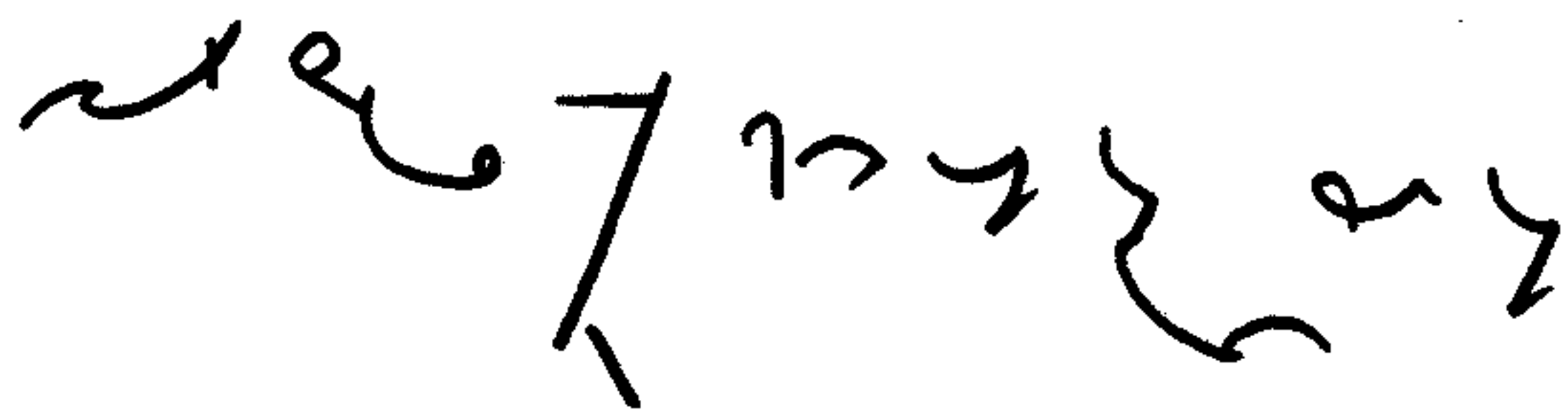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거두어들이길 민주와 복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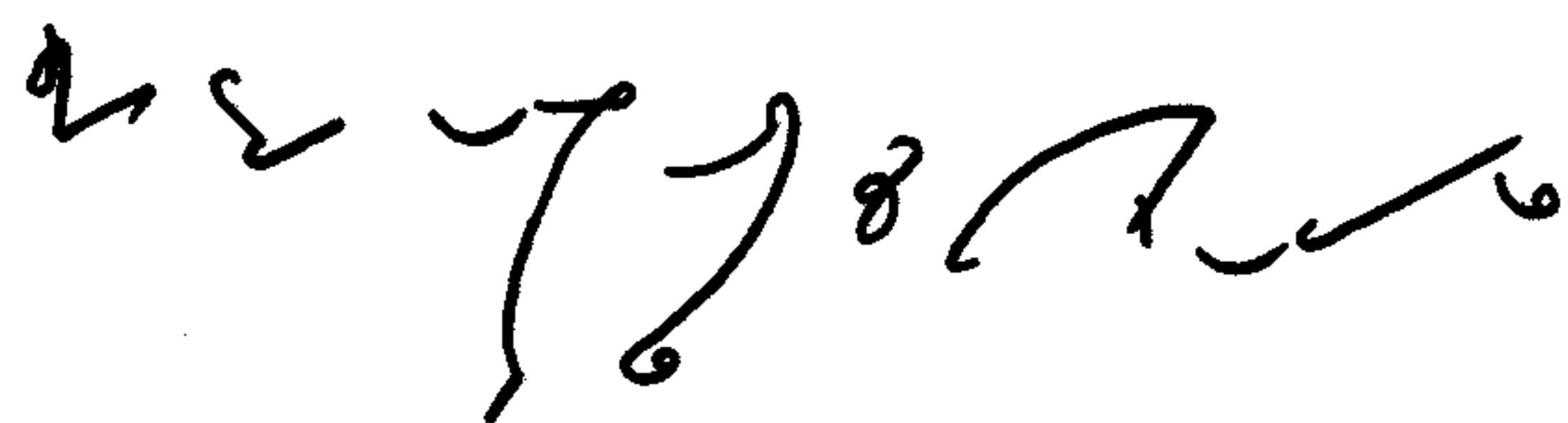
풍요로운 열매를 낳는 값진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부터 온 누리에



자유와 행복이 가득한 희망의 나라를 바라보며 넓은 바다를



힘차게 헤쳐 나갑시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도와 나침반이

9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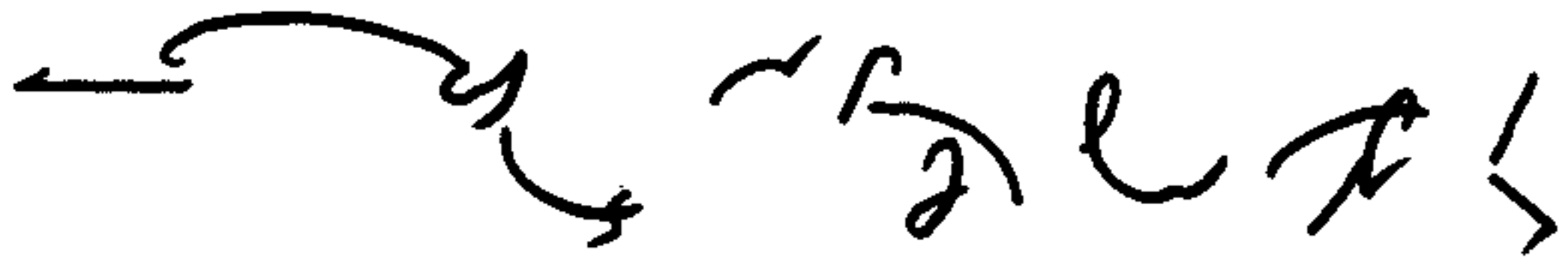
5. 간략부(2)

o	~부터	o	~부터는
o'	~부터도	o'	~부터
L	~까지, 가지	^	~적인, 반대어
v	~및, 몇~, 토록		
v	~때문에	v	때문이다

예)

	오늘부터		다음부터는
	이상적인		전쟁과 평화를
	이사 및 감사를		몇 사람인가
	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문제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언제부터인가		내년도부터
	끝까지		10가지의, 몇 가지

<실전연습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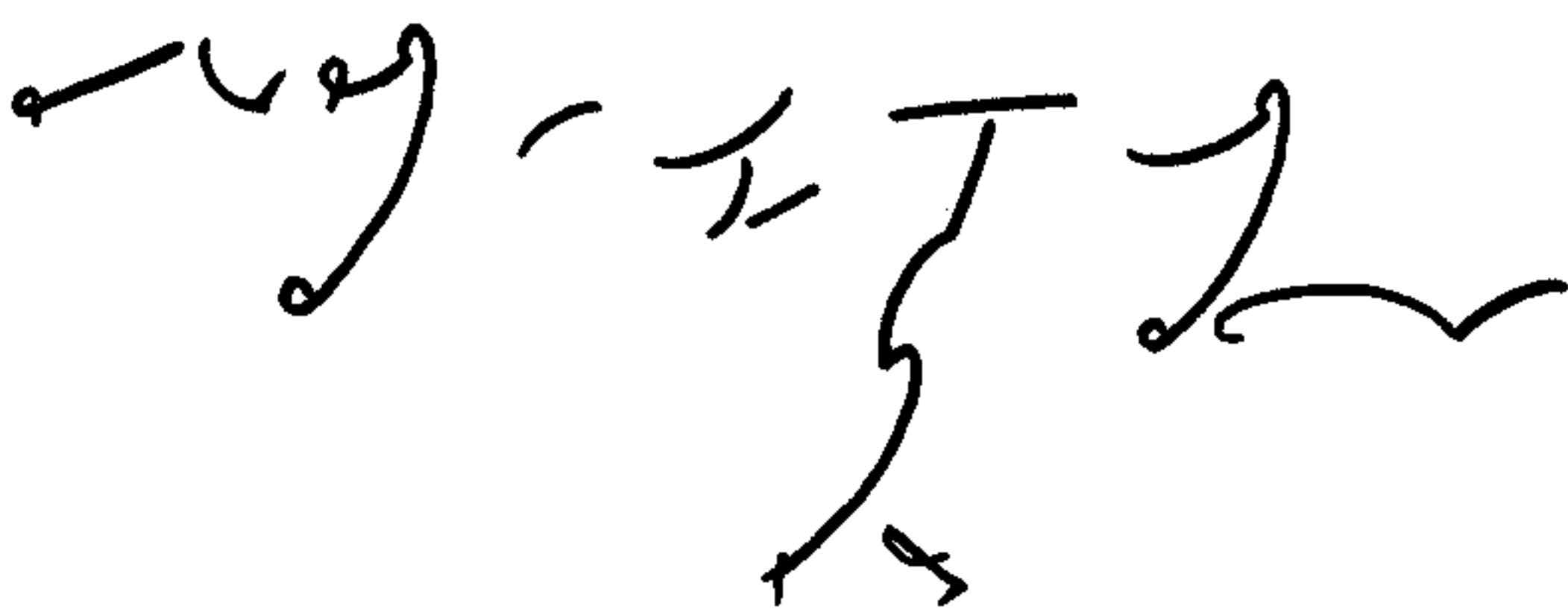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대통령으로 직접 뽑아 주셨을 때 다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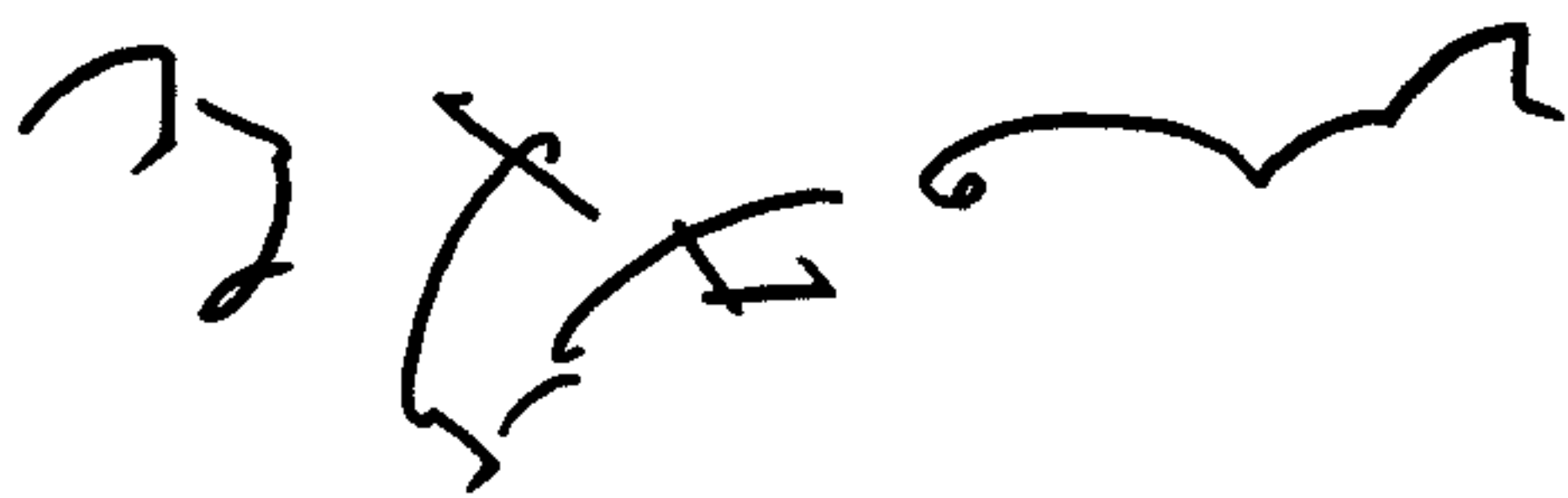
확인했고 합의했던 민주주의라는 지도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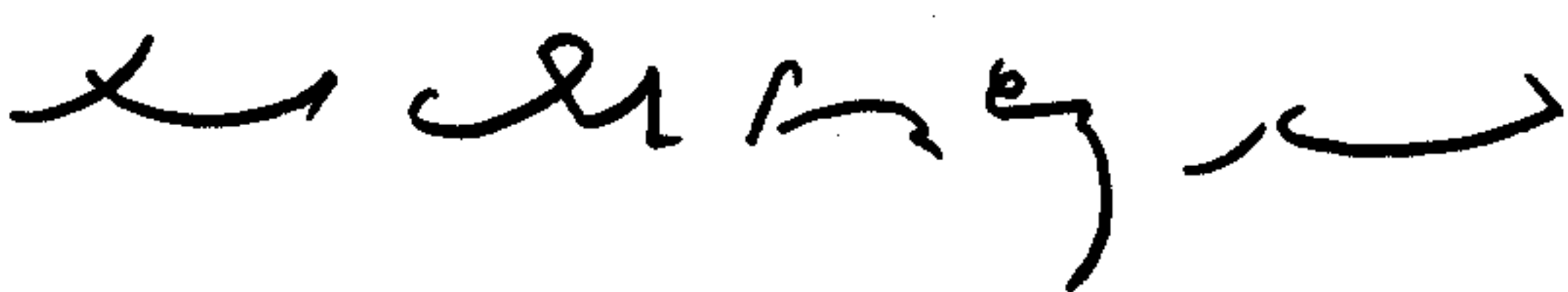
국민화합이라는 나침반입니다. 이제 새 공화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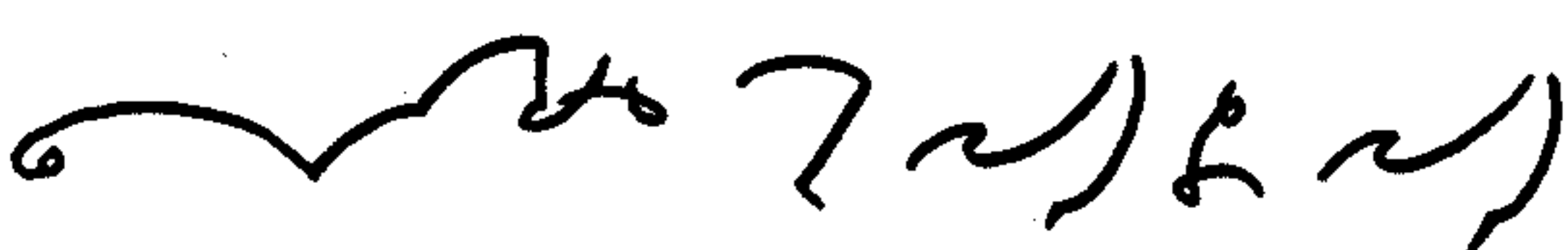
출범을 알리는 저 우렁찬 고동소리와 함께 우리는 민주



주의의 항로로 확실하게 전진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오늘의 유행어이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민주주의야말로 모두가 자유롭게 살며 자유롭게

Handwritten Korean text in cursive script.

참여하는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로  
우리를 이끌 것이기

Handwritten Korean text in cursive script.

때문입니다. 물량성장과 안보를 앞세워 자율  
과 인권을

Handwritten Korean text in cursive script.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힘  
으로 억압

Handwritten Korean text in cursive script.

하거나 밀실의 고문이 통하는 시대는 끝났습  
니다.

Handwritten Korean text in cursive script.

마찬가지로 자율과 참여를 빙자하여 무책임  
하게 혼란을

Handwritten Korean text in cursive script.

일으킬 수 있는 시대도 끝나야 합니다. 침해  
되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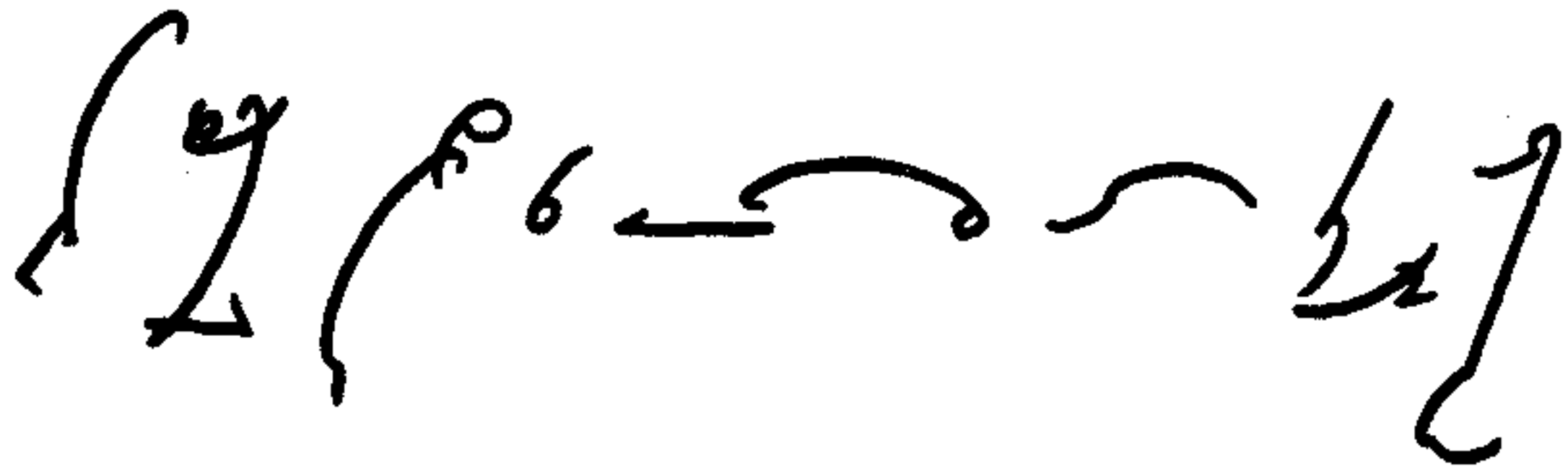
Handwritten Korean text in cursive script.

인권과 책임이 따르는 자율이 확보될 때 경제  
도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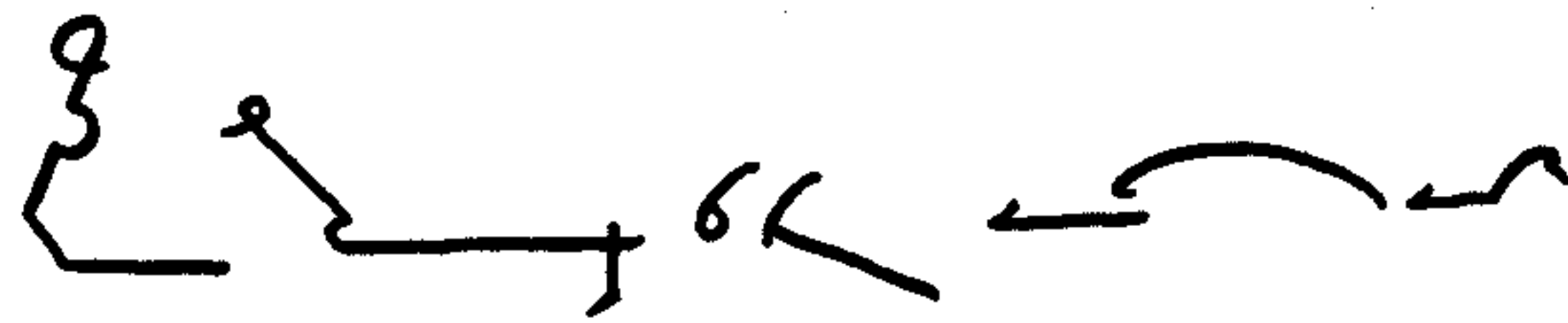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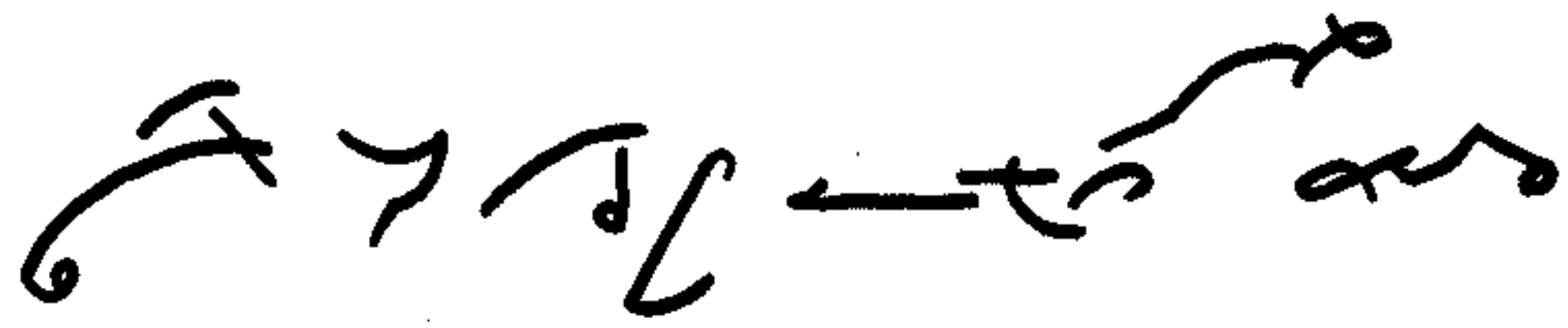
하고 안보도 다져지는 성숙한 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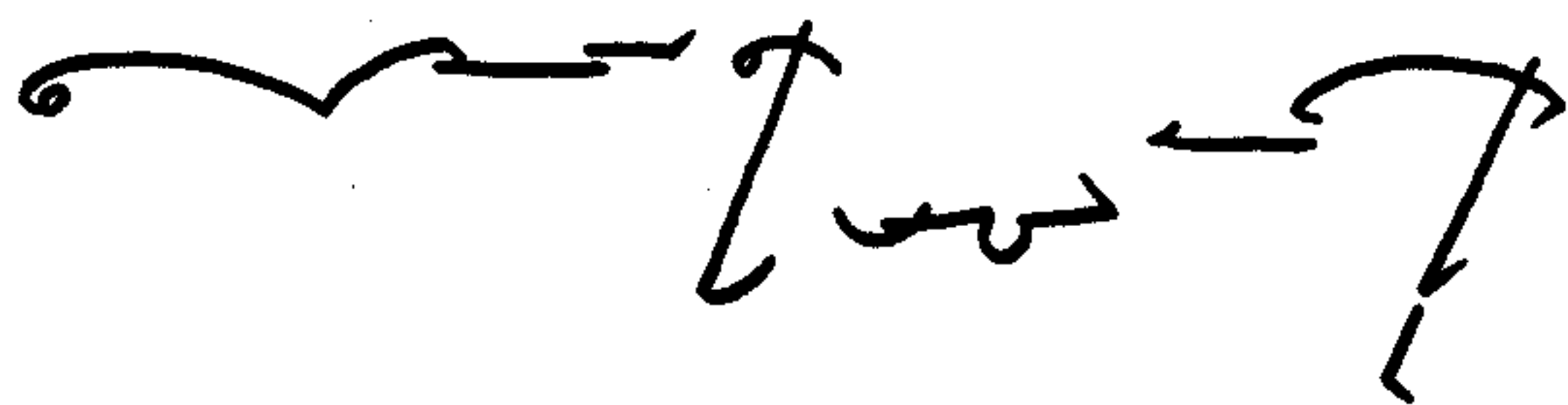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성실히 사는 국민이  
아무 두려움 없이 어디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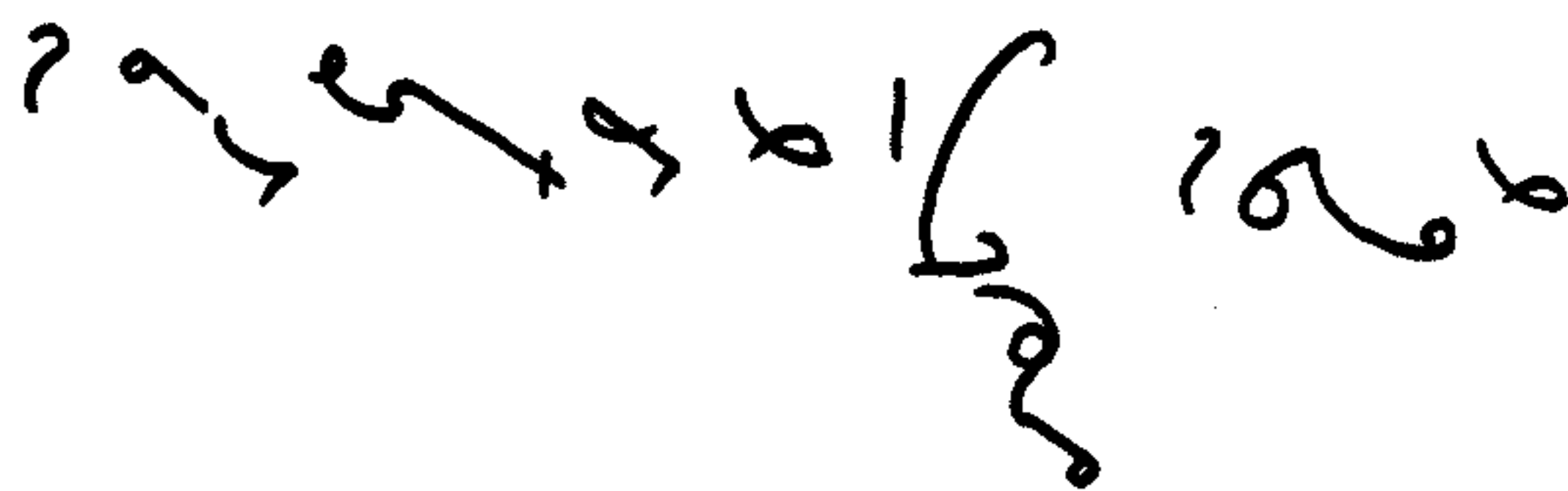
떳떳하고 활기 있게 사는 사회, 국민 각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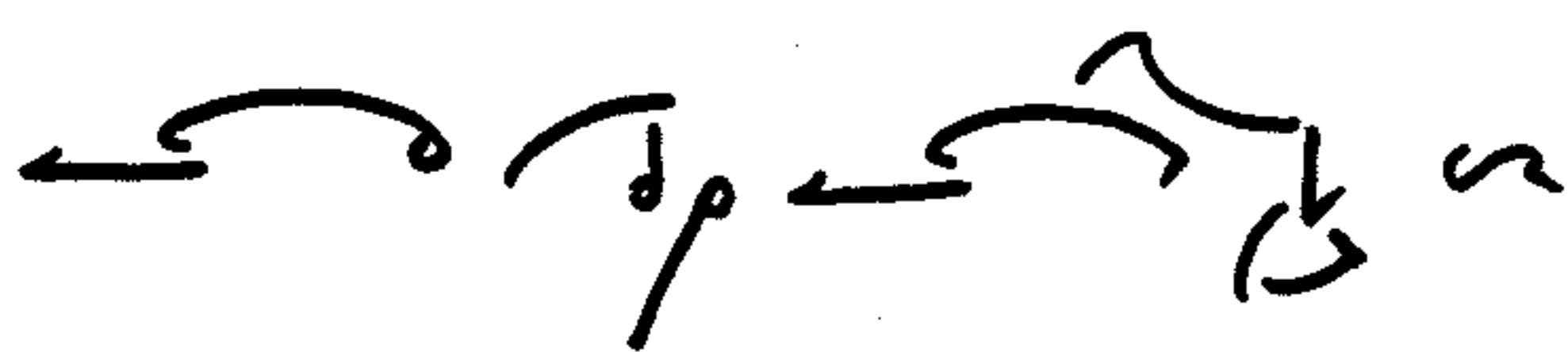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어 국가발전에 창조  
적으로 참여하는



민주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뜻  
을 담은



새 헌법의 발효와 함께 바로 이 시각에 탄생  
하는 새 정부는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된 국민의 정부임을 선언합니  
다. 제가

이끄는 정부는 민주주의의 시대를 활짝 열어

이끄는 정부는 민주주의의 시대를 활짝 열어

모든 국민의 잠재력을 꽃피게 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모든 국민의 잠재력을 꽃피게 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다원화된, 사회 각 부문이 생동력에 넘친 자  
유를 누리며

다원화된, 사회 각 부문이 생동력에 넘친 자  
유를 누리며

스스로의 권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  
다. 국민은

스스로의 권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  
다. 국민은

정직한 정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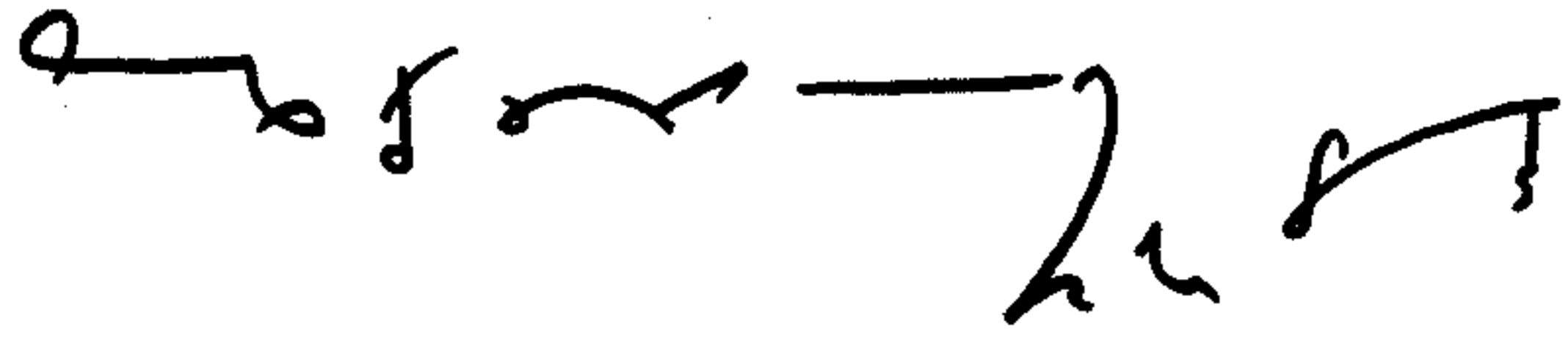
정직한 정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의

이 비원을 반드시 성취시켜 도덕성이 높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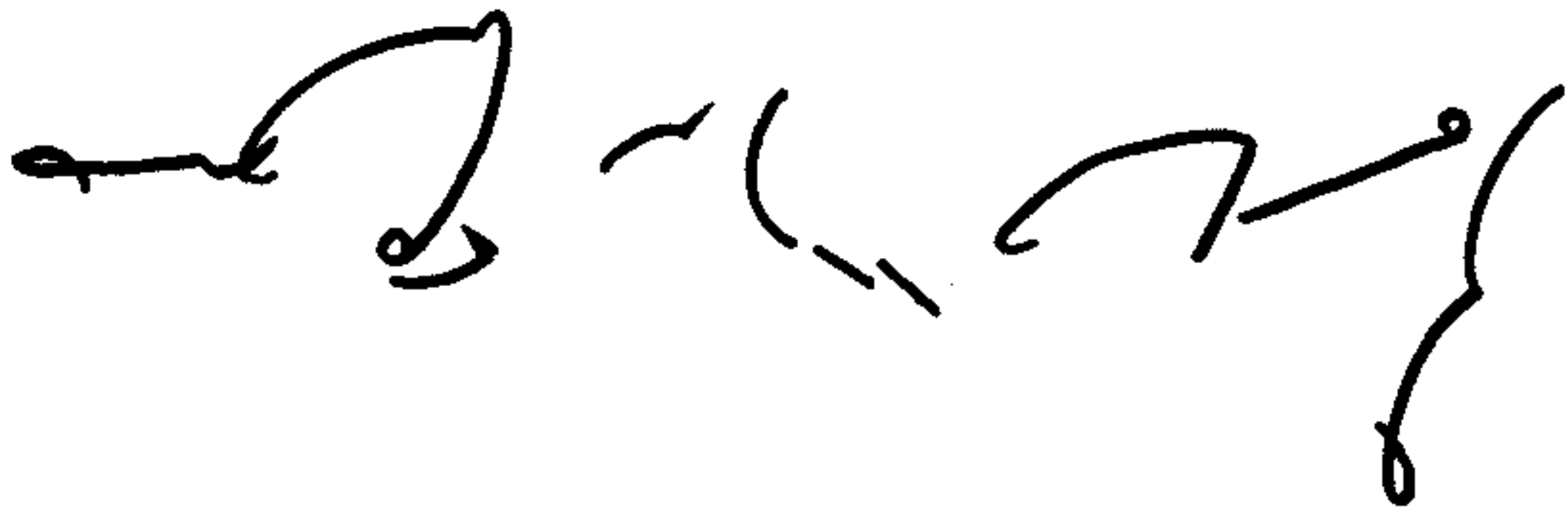
이 비원을 반드시 성취시켜 도덕성이 높으며,

그 도덕성으로 말미암아 신뢰받는 정부를 만  
들고야 말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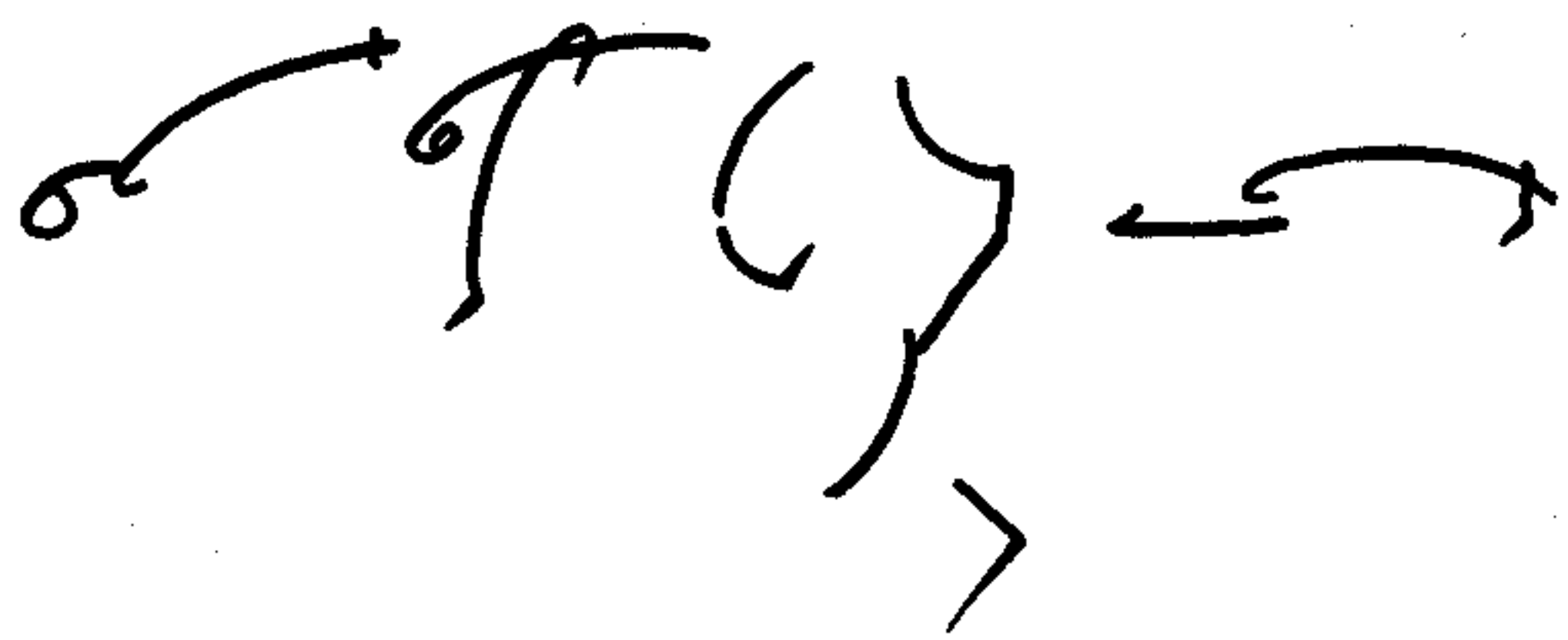
그 도덕성으로 말미암아 신뢰받는 정부를 만  
들고야 말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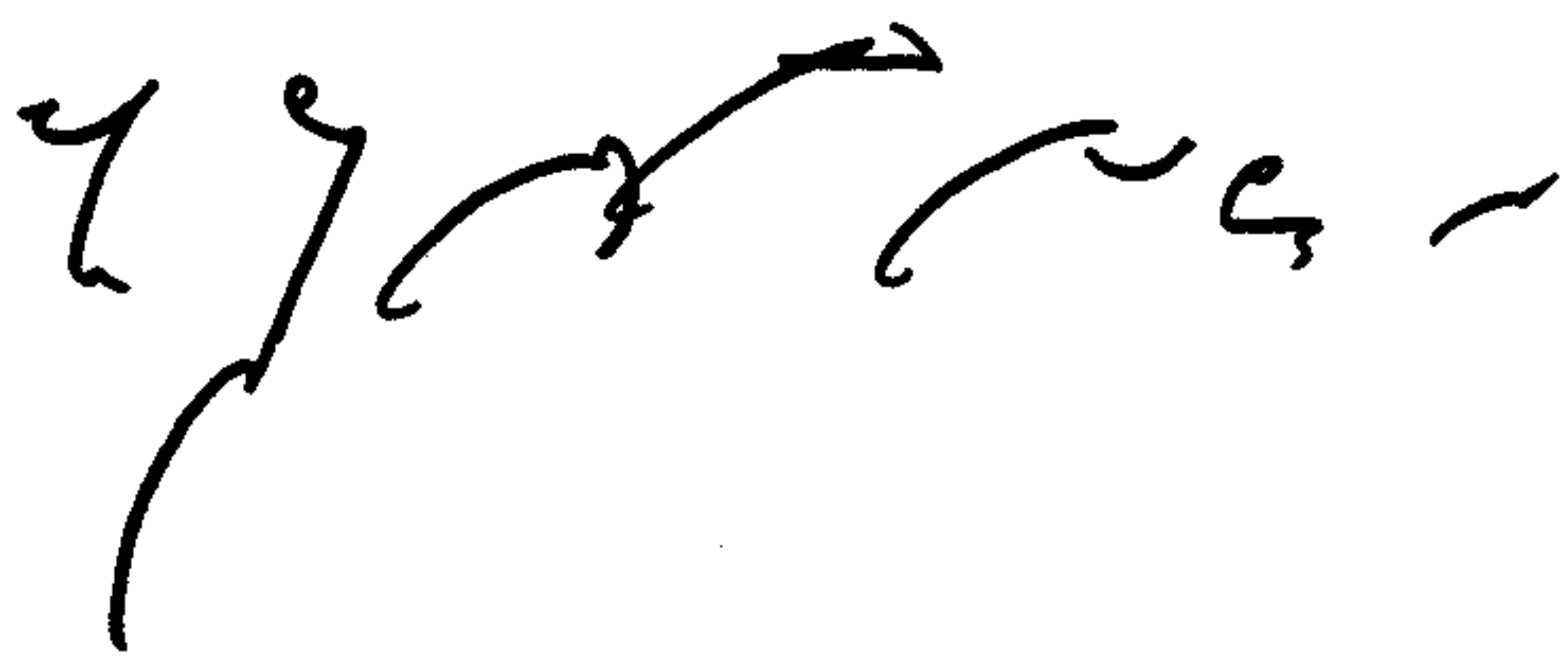
곧바로 서 있는 물체의 그림자가 밝은 대지 위에서



굽어질 리는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지도층이 스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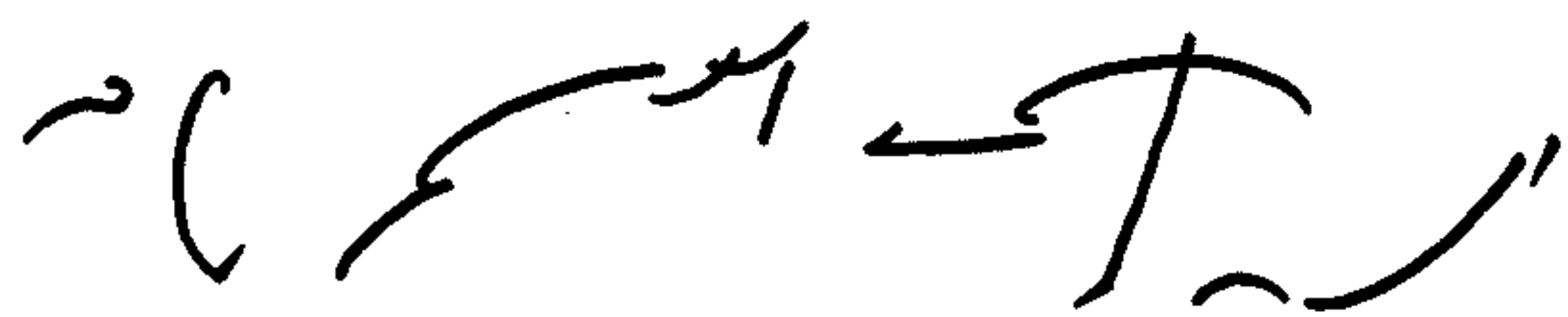
정직과 진실의 수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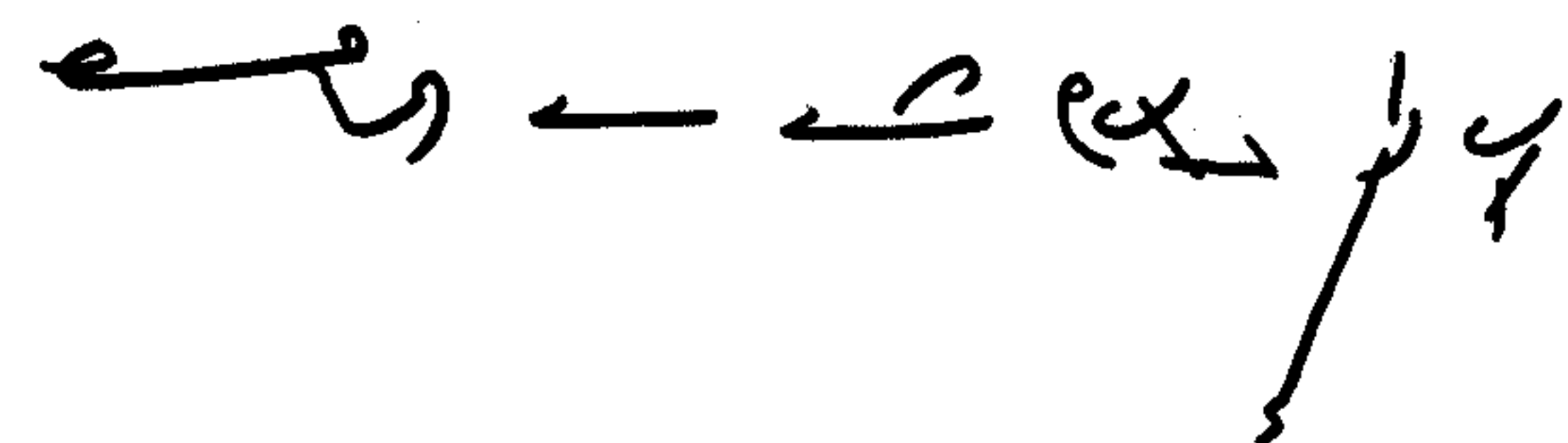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저를



지지한 환성은 힘이 되었고 비판은 약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표를 주지 않았던 국민들의 마음도



깊이 헤아려 꼭 국정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야당과

반대세력에 대해서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서로 나라를 위해 함께

고뇌하면서 대화하고, 대화하면서 협력합니다.

민주주의의 개화와 겨레의 통일번영을 위해 협력의 동반자로 일해

나갑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또한 국민

화합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저 푸른 바다를 헤쳐 나갈 것입니다.

70년대 이후의 발전사는 경제성장이 아무리 높고

지속적이라 해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이상으로 삼는 조화와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균형을 이루는 사회

균형 있는 행복한 사회에 도달할 수 없다는 냉엄한 교훈을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주었습니다

주었습니다. 물론 고도성장은 우리의 물질생활을 보다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1차산업 중심의 우리 사회

턱턱하게 만들었고 1차산업 중심의 우리 사회를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다원적인 산업사회로

다원적인 산업사회로 탈바꿈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암초를

그것은 우리가 나가는 길 도처에 암초를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계층간 지역간의 격차는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계층간 지역간의 격차는

Handwritten Korean calligraphy: 갈등과 분열을 낳아

갈등과 분열을 낳아 국민적 통합에 큰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  
고는 민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  
고는 민주

복지국가를 향한 우리의 항해는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지국가를 향한 우리의 항해는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갈등과 분열을 녹여줄 훈훈한 화합  
을 절실하게

국민들은 갈등과 분열을 녹여줄 훈훈한 화합  
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  
안 이룩한 고도성장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  
안 이룩한 고도성장의

열매가 골고루 미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열매가 골고루 미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모든 계층의 국  
민이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모든 계층의 국  
민이

합심할 때입니다.

합심할 때입니다.



<실전연습6>

친애하는 6,000만 내외동포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은

감회 속에 일제 식민통치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해방의 날을

맞은 지 43년, 이 땅에 민주공화국을

세운 지 40년을 맞습니다. 민족자존을

바로 세우려는 온 겨레의 열화 같은 의지가

응집되어 세워진 이 웅장한 독립기념관에서



광복과 건국의 참뜻을 오늘에 완수할 것을 온 국민과 함께

다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족의 영광과 시련의

발자취가 새겨진 이곳에 서서 저는 광복의

그 날이 있기까지 국내외에서 오로지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선열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지난 40년간의 숭한 시련과 성취 위에

오늘 우리는 역사의 드높은 분수령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독재와 정통성

시비로 얼룩진 파란 많은 지난 시대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밝은 시대를 다함께 열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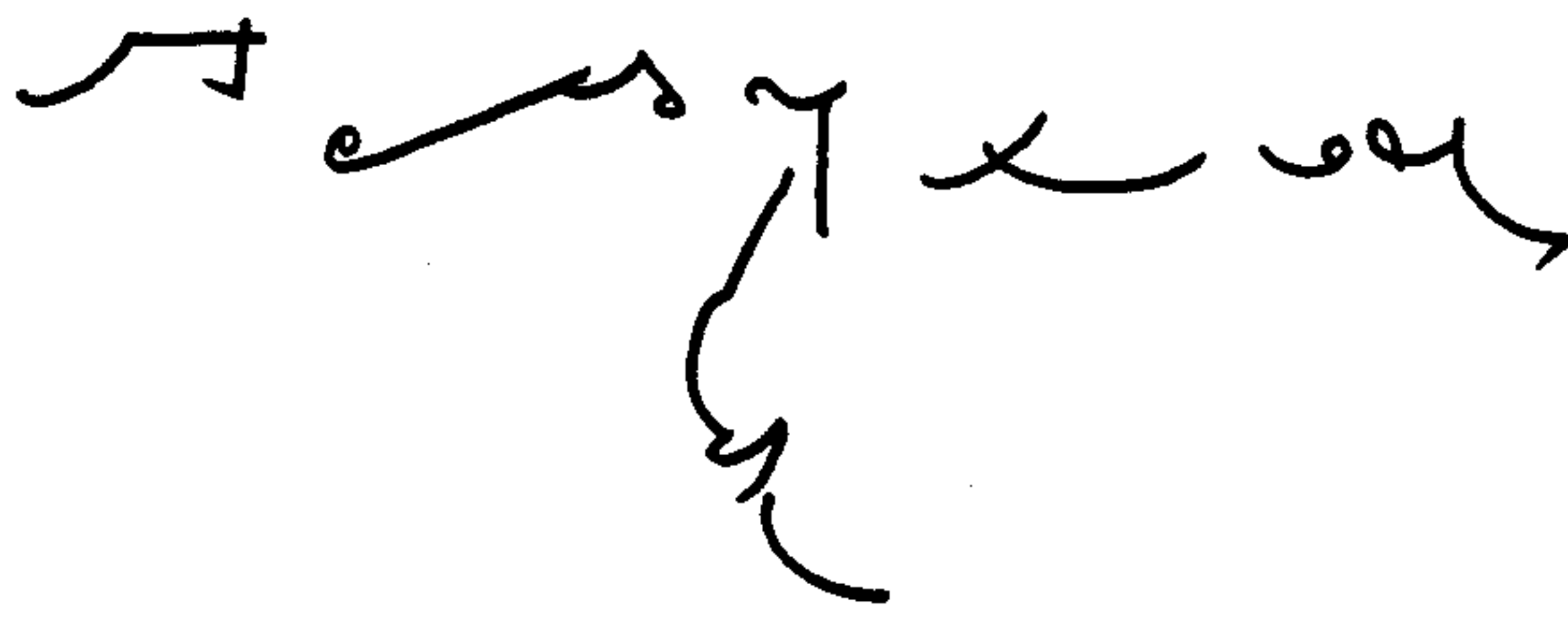
가난과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결연히 일어나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한 터전 위에서 우리는 다가오는 21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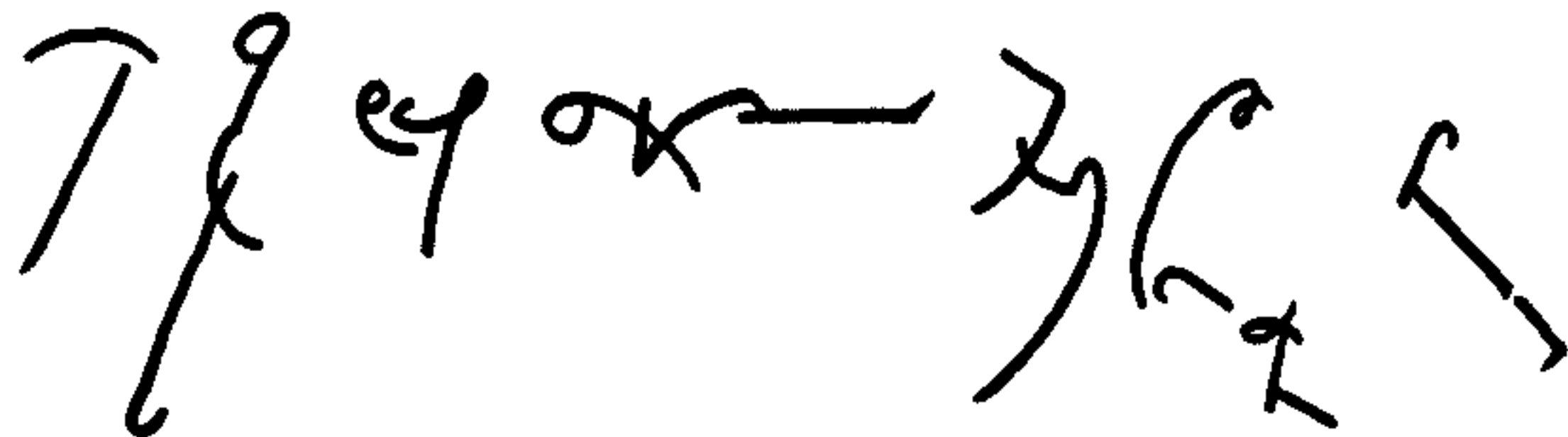
세계의 선진대열에 들어설 민족적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한껏 충만합니다. 우리를 보는 세계의 눈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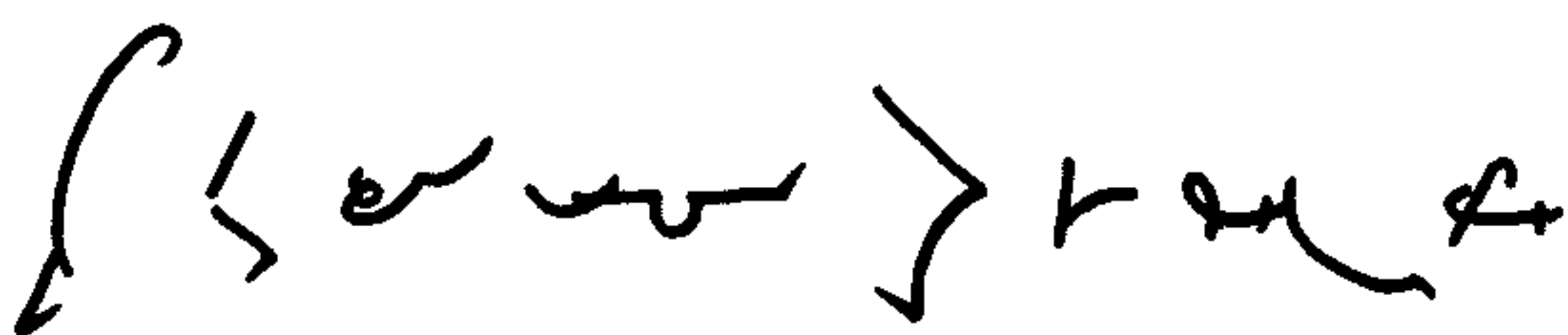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서울로 몰려



오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내외동포 여러분!  
오늘 나는 남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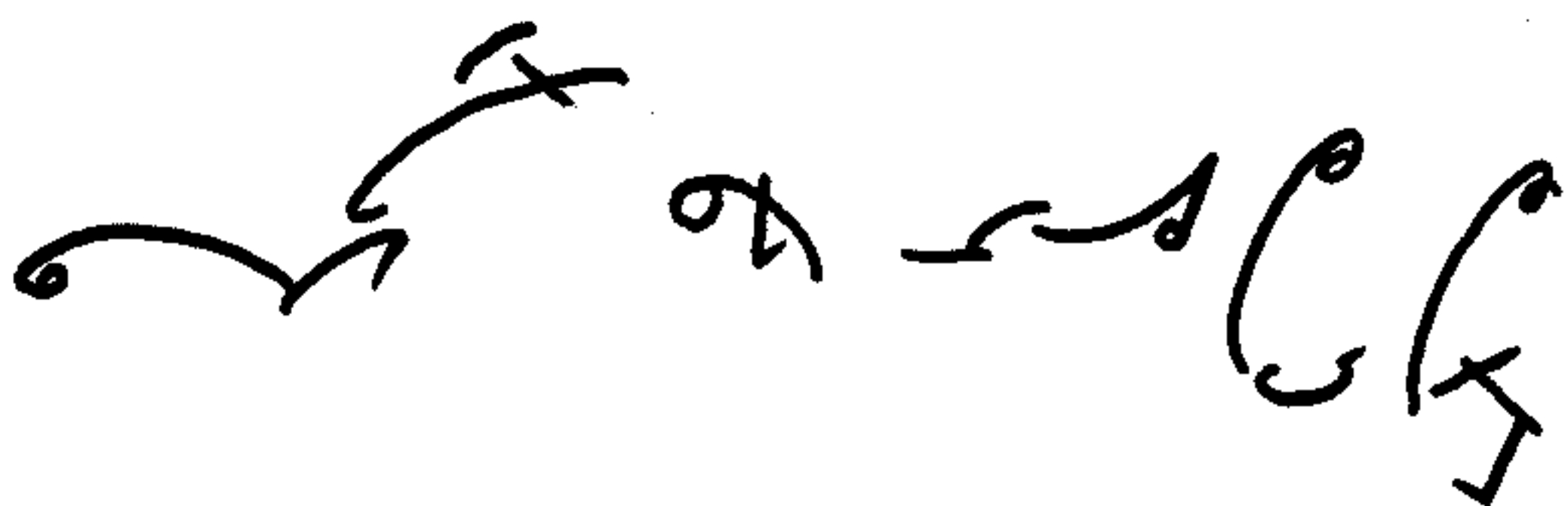
모든 동포들에게 번영된 통일조국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 대화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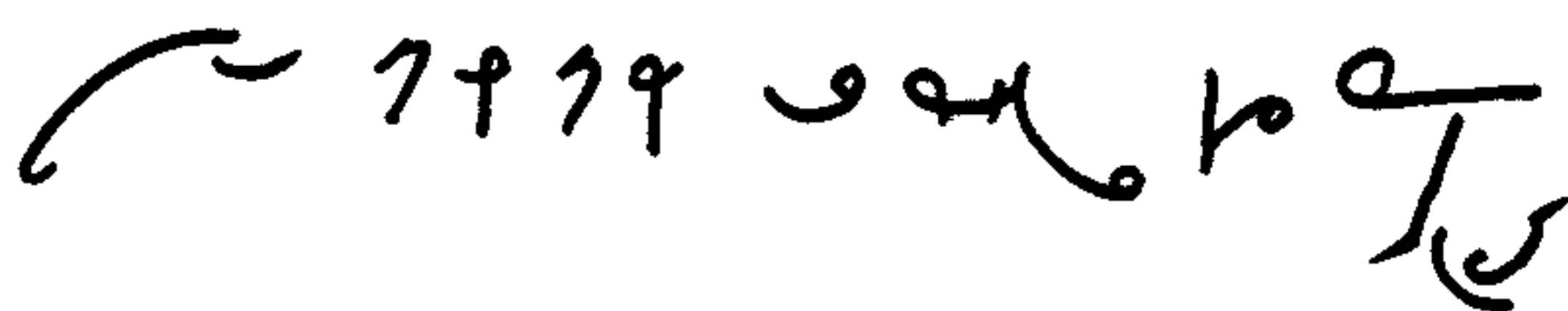
시대를 다함께 열어 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이제 남과 북은 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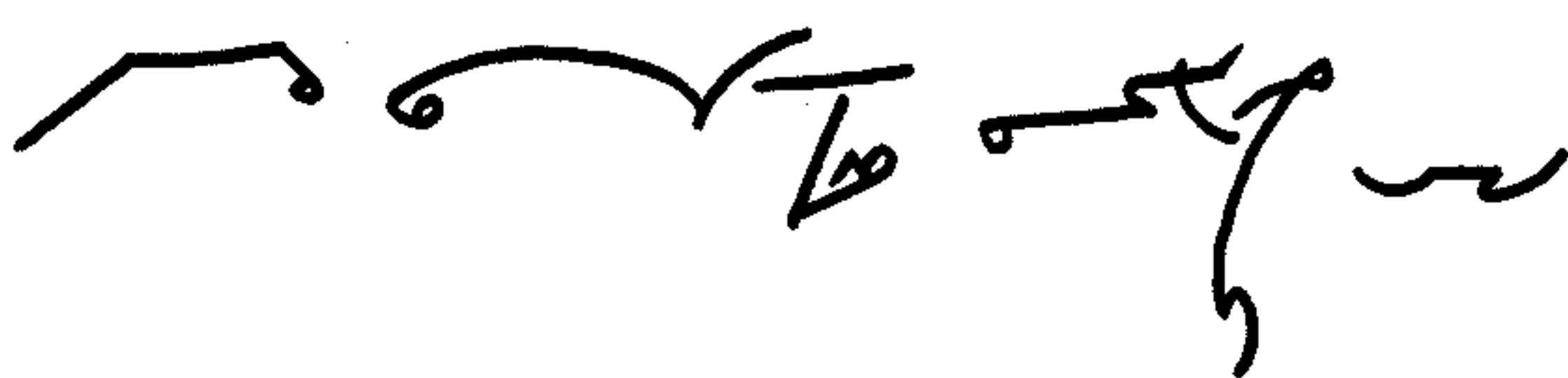
투쟁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만이 분단의 고통  
과 시련에서 벗어나



민족의 진정한 통일을 가져온다는 신념을 실천  
할 때입니다.



지난 7월 7일, 나는 남과 북이 이제는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민족공동체로서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20년 40년

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40년<sup>\*</sup>이 넘은 같은 민족간의

분단장벽은 이제 개방과 교류, 협력으로 허물어야 합니다.

분단장벽은 이제 개방과 교류, 협력으로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루빨리 통일의 여건을 성숙시켜 평화적 통일의

그리하여 하루빨리 통일의 여건을 성숙시켜 평화적 통일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남북한 당국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최고책임자가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를 푸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모든 문제를 푸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내외정세로 보나 우리의 민족적 현실로 보나

방법입니다. 내외정세로 보나 우리의 민족적 현실로 보나

그와 같은 만남은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만남은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북한의 김일성 주석에게

오늘 광복절을 맞아 북한의 김일성 주석에게

6,000만 동포의 염원에 따라 민족의 통합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6,000만 동포의 염원에 따라 민족의 통합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나와 만나 회담할 것을

나가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나와 만나 회담할 것을

제의합니다. 남북의 지도자가 서로 만나 민족의

제의합니다. 남북의 지도자가 서로 만나 민족의

장래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데 있어 장소, 의제, 절차

장래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데 있어 장소, 의제, 절차

그 어느 것도 장애요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그 어느 것도 장애요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나의 제의에 북한측이 호응해 음으로써 민족  
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기를 충심으로 희망합니  
다. 6,000만 내외동포 여러분!

전국 40년을 맞는 이제, 우리 모두 그동안

이룩한 위대한 성취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  
리고 세계의

축복 속에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른 민족의

드높아질 자존을 바탕으로 민주 번영 통일의

시대를 흔들림 없이 열어 갑시다. 이 길은 약  
소민족으로

축복 속에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른 민족의

드높아질 자존을 바탕으로 민주 번영 통일의

시대를 흔들림 없이 열어 갑시다. 이 길은 약  
소민족으로

시대를 흔들림 없이 열어 갑시다. 이 길은 약  
소민족으로

시대를 흔들림 없이 열어 갑시다. 이 길은 약  
소민족으로

시대를 흔들림 없이 열어 갑시다. 이 길은 약  
소민족으로

시대를 흔들림 없이 열어 갑시다. 이 길은 약  
소민족으로

나라를 잃었던 서러움 속에 우리들 선열들이  
온갖 고초 속에 꿈결에도

나라를 잃었던 서러움 속에 우리들 선열들이  
온갖 고초 속에 꿈결에도

소망해 온 조국을 오늘의 우리 세대가 실현하  
는 새로운

소망해 온 조국을 오늘의 우리 세대가 실현하  
는 새로운

광복의 길입니다. 변영된 통일조국을 이룩하  
는 것만이 우리

광복의 길입니다. 변영된 통일조국을 이룩하  
는 것만이 우리

민족사의 진정한 정통성을 되찾아 미완의

민족사의 진정한 정통성을 되찾아 미완의

광복을 오늘에 완성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자  
주역량으로

광복을 오늘에 완성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자  
주역량으로

한낱 세계의 주변국가로서 타율의 분단을 감  
수했던 고난의

한낱 세계의 주변국가로서 타율의 분단을 감  
수했던 고난의

역사를 이제는 청산합시다. 자랑스러운 나라  
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역사를 이제는 청산합시다. 자랑스러운 나라  
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7. 수사**

7-1. 산용 숫자 : 1- 99까지는 아라비아 숫자를 그대로 사용한다.

1-99 : 1 2 48 79 90 99...

길이 8mm이상

백(가) : 1 2 3 4 5 6 7 8 9

천(차) : 1 2 3 4 5 6 7 8 9

만(마) : 1 2 3 4 5 6 7 8 9

억(아) : 1 2 3 4 5 6 7 8 9

조(자) : 1 2 3 4 5 6 7 8 9

〈응용〉

10만 : 10 50      100만 : 1 6

1,000만 : 2 6      10억 : 10 83

100억 : 5 3      1,000억 : 4 2

50억 360만 : 50 360      10조 4,000억 : 10 4

2,500 : 25      3만 4,000 : 34

24만 8,250 : 24 8250(0)      24 8 2 50(x)

참고 : 번문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속기할 때 「만, 억, 조」단위를 쓴다.

실무참고 : 속기록 작성시에는 1~9,999까지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그 사이에 「만, 억,



조」단위가 나오면 그 단위를 한글이나 한자로 사이마다 번문하여 넣어야 한다.

예) 193,0016,5437,815원 → 19조 3,001억 6,543만 7,851원

7-2. 화폐단위

원 :	45 <sup>ㄹ</sup>	30 <sup>ㄹ</sup>	3 <sup>ㄹ</sup>	4 <sup>ㄹ</sup>	5 <sup>ㄹ</sup>	6 <sup>ㄹ</sup>	4mm
불 :	3 <sup>ㄹ</sup>	45 <sup>ㄹ</sup>	3 <sup>ㄹ</sup>	4 <sup>ㄹ</sup>	5 <sup>ㄹ</sup>	6 <sup>ㄹ</sup>	4mm
달러 :	2 <sup>ㄹ</sup>	81 <sup>ㄹ</sup>	3 <sup>ㄹ</sup>	4 <sup>ㄹ</sup>	5 <sup>ㄹ</sup>	6 <sup>ㄹ</sup>	4mm
엔 :	1 <sup>ㄹ</sup>	3 <sup>ㄹ</sup>	3 <sup>ㄹ</sup>	4 <sup>ㄹ</sup>	5 <sup>ㄹ</sup>	6 <sup>ㄹ</sup>	4mm

7-3. 제·차·회

제 :	. 1 . 2 . 3 . 4	
차 :	1. 2. 3. 4.	
회 :	5\ 6\ 10\ 12\	8mm

제156회 제9차 : . 156\ . 9.

7-4. 부정수

이삼 :	2	이삼십 :	20	이십삼십 :	20
이십이삼 :	22	이백삼사십 :	230	삼사백 :	3
삼사억 :	3	이삼사 :	2	사오륙칠팔구 :	4....
이십사오륙 :	24			이백사오륙십 :	24.0
내지 :	~	내지는 :	~		

실무참고 : 「이삼십」같은 부정수는 「2·30」, 「2, 30」 또는 「2~30」, 「20~30」으로 번문한다.

7-5. 약·%·할·분수

약 : 5      50      약 육칠십 : 60

% : ~~5~~      ~~10~~      ~~20~~      ~~56.3~~      ~~56.3~~      8mm 이상

할 : ~~3~~      ~~5~~      ~~7~~      4할 5푼 6리 : ~~4~~      5.6

분수 :  $\frac{3}{5} = \frac{5}{3}$        $5\frac{1}{3} = 5\frac{3}{3}$

실무참고 : 「퍼센트, 프로」는 %로 번문하고, 분수는 풀어서 3분의 1, 1과 4분의 3 등으로 번문한다. 물론 수학에서는 분수의 형태를 쓴다.

년 : 1 2 3 10 1995 6 96      4mm

여년 : 10 20 40

개년 : 3 5 7

주년 : 25 45 2      16mm

월 : 1 2 3 4 5 6 7 8 9 10 11 12      2mm

개월 : 1 2 10 12 36 4      16mm

일 : 19 109 239 3659      4mm

주일 : 1 4 8 16      16mm

연월일 : 단기 4328년 8월 15일      /4328 8,15

서기 1995년 8월 15일      /'95 8,15

연월 : 1995년 8월 195 8

월일 : 8월 15일 8,15

시분초 : 10시 35분 47초 10 35 47

10시 35분 10 35

7-7. 서수·요일

재 : ① ② ③ 4 5

번째 : ① ② ③ 4 5

째번 : ① ② ③ 4 5

하나 : 1 2 3 4 5

요일 : 월요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7-8. 첩음생략법

각각 : ←      종종 : 6      호호호 : ㄴ

사람과 사람 : ㅍ      엄마엄마 : ㅁ

하루하루를 : ㄷ      연습에 연습을 : ㄹ

끊거나 밑줄을 그어 중첩되는 낱자와 단어, 문장을 표기할 수 있으며 기본문자로 써서 더 편리한 경우는 굳이 약기법을 써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배운 수사약기법은 외우려 하지 말고 이해를 위주로 한다면 즉각 일기, 노트, 메모에 활용될 수 있는 약기법이므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다. 외우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속기의 비결이다.

<실전연습7>

1/13. 13. 13.

○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1994년 40'94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994년도 추가경정

1993년 13. 13.

예산안과 1993년도 결산 및 예비비를 어제 본  
회의에서

1994년 40'94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1994년 40'94

지연된 관계로 해서 각 교섭단체간의 협의를  
거쳐서

1994년 40'94

국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1994년 40'94

오늘 본회의를 재개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 점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2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8일

제출되어 각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1994년도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장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통하여 경기불황과 민생문제 등

정책질의를 통하여 경기불황과 민생문제 등

당면한 경제현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당면한 경제현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  
194년도 추곡수매에 따른

추기재원의 확보 등 당면한 민생문제를 비롯하여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바로 금일

각 정당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예산안 조정위원회의

안으로 채택,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으로 채택,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4년도

안으로 채택,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4년도

안으로 채택,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4년도

안으로 채택,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4년도

안으로 채택,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4년도

안으로 채택,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4년도

안으로 채택,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4년도

오 194년 예산편성 이후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따라

정부는 1994년도 예산편성 이후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따라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 농어가부채경감,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 농어가부채경감,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재해복구와 통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재해복구와 통화

관리기능 강화 그리고 지방재정의

관리기능 강화 그리고 지방재정의

부족재원해결 등 새로운 세출요인이 발생함  
에 따른 재정수요를

부족재원해결 등 새로운 세출요인이 발생함  
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1993년도 일반회계의 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충당하기 위하여 1993년도 일반회계의 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2조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2조

8,185억이 증액된 22조 460억이며

8,185억이 증액된 22조 460억이며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1조 4,005억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1조 4,005억이

증액된 6조 6,056억, 도로사업특별회계는

증액된 6조 6,056억, 도로사업특별회계는

519억이 증액된 1조 1,400억, 철도사업

519억이 증액된 1조 1,400억, 철도사업

특별회계는 913억이 증액된 1조 1,900억

특별회계는 913억이 증액된 1조 1,900억

원, 통신사업특별회계는 35억이 증액된 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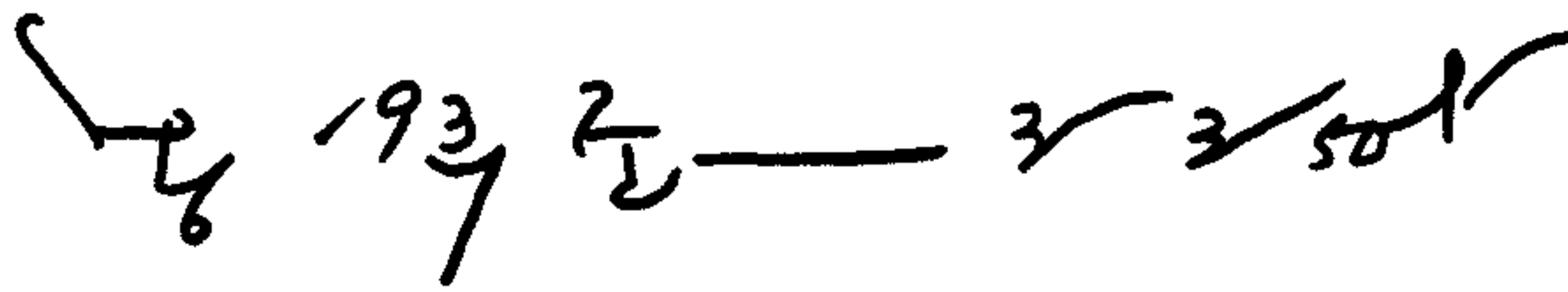
원, 통신사업특별회계는 35억이 증액된 7,100  
억원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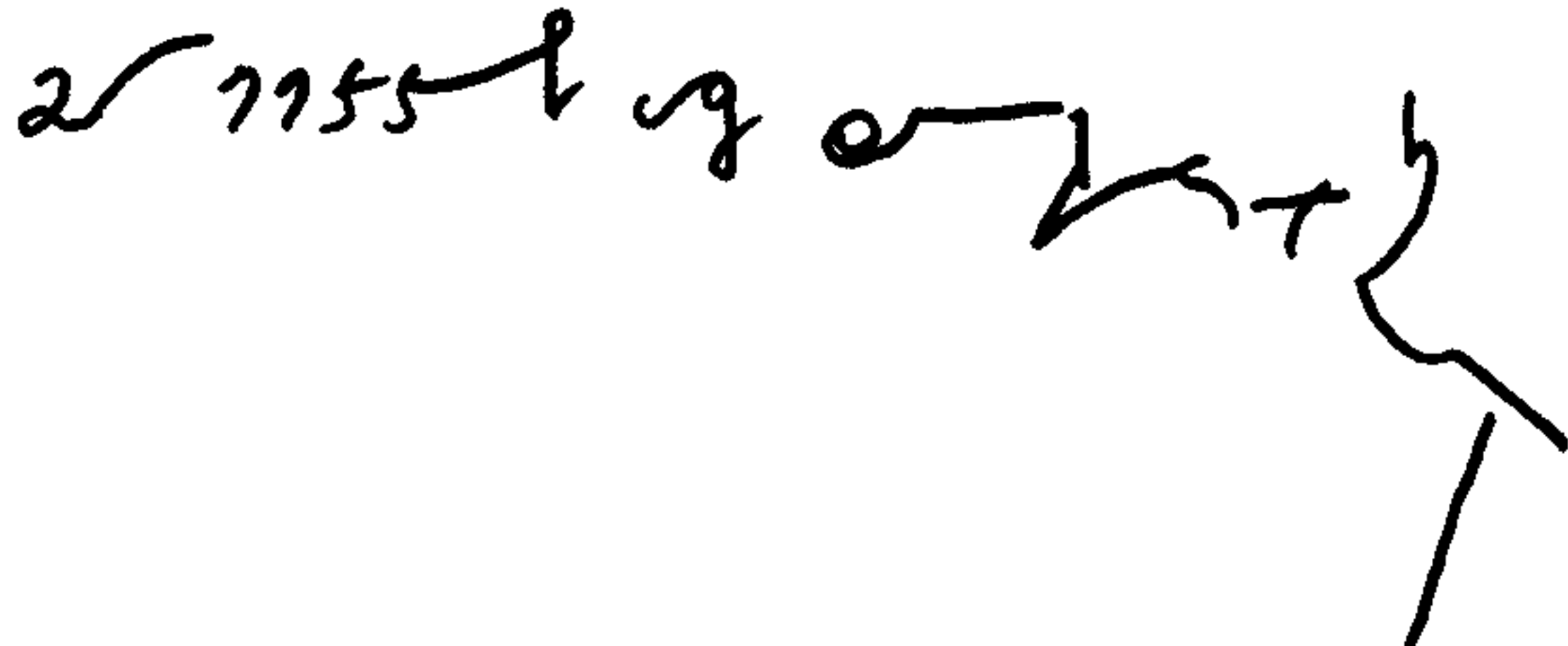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번의 추가규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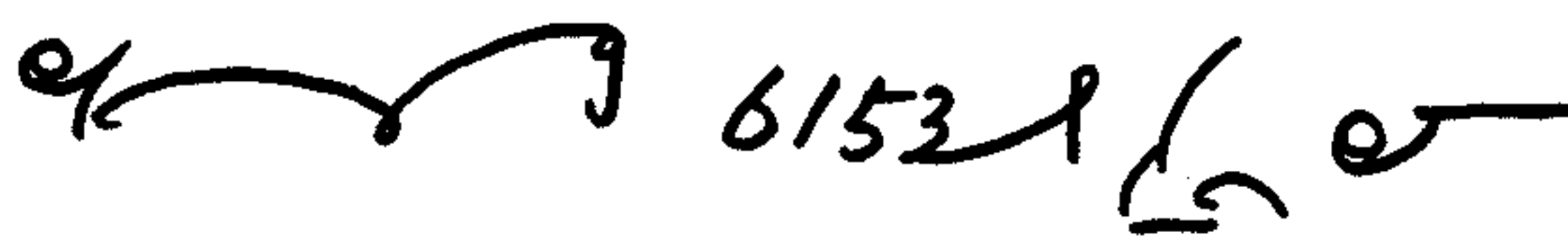
순계기준으로 2조 7,755억원입니다. 먼저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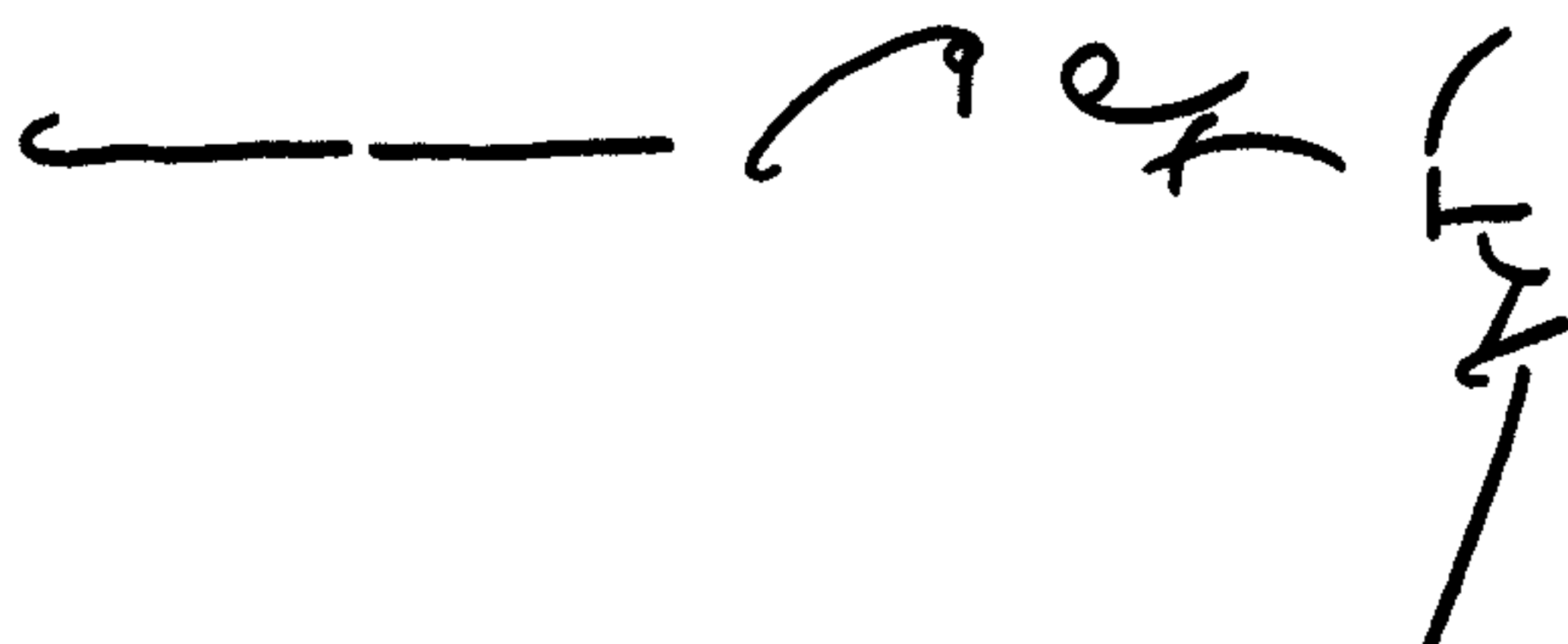
회계에 있어서는 1993년도 세계잉여금 3조 3,050억원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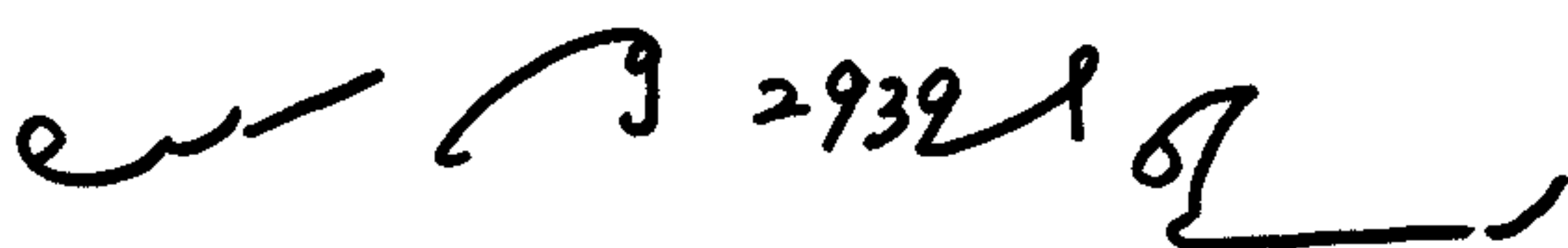
2조 7,755억원을 재원으로 영구임대주택건설, 의료보호 등



영세민지원에 6,153억원, 수세감면, 양곡



기금지원, 농산물수입개방대책 등



농어촌지원에 2,939억원, 중소기업

구조조정, 기초과학연구사업, 석탄폐광

구조조정, 기초과학연구사업, 석탄폐광

3836

대책비 등 중소기업 및 산업지원에 3,836억 원,

28 3144

재해대책비에 2,800억원, 통화관리비에 3,144억원,

710

민생치안대책에 710억원, 민원관련보상에

1430 7170

1,430억원, 교육 기타에 7,170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에서 수정 결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부문에서 예비비

100억 원, 국회직제개정 8억 원, 치안동원

100억 원, 국회직제개정 8억 원, 치안동원

매식비 20억 원, 의료보호 100억 원, 해직공무원

매식비 20억 원, 의료보호 100억 원, 해직공무원

보상비 35억 원, 영구임대주택건설을 위한

보상비 35억 원, 영구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자치단체 지원 98억 원, 용지보상

자치단체 지원 98억 원, 용지보상

134억 원, 경찰관서 증설 50억 원, 지방

134억 원, 경찰관서 증설 50억 원, 지방

기채상환 150억 원, 합계 695억 원을 삭감

기채상환 150억 원, 합계 695억 원을 삭감

하고 국회해직공무원보상 등에 36억 원,

하고 국회해직공무원보상 등에 36억 원,

농지개량조합지원 50억원, 추곡수매부족

농지개량조합지원 50억원, 추곡수매부족

자금지원을 위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자금지원을 위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전출금 609억원, 합계 695억원을 증액

전출금 609억원, 합계 695억원을 증액

함으로써 규모변동없이 수정하였습니다. 재정 투융자특별회계에서는

함으로써 규모변동없이 수정하였습니다. 재정 투융자특별회계에서는

세입부문에서는 일반회계전입금 609억원과 석유

세입부문에서는 일반회계전입금 609억원과 석유

사업기금 예수금 1,000억원,

사업기금 예수금 1,000억원,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7 5 26 21

예수금 500억원, 합계 2,60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외국환

평형기금 출연 1,641억원,

수출입은행출자 50억원, 주택신용보증

기금 출연 50억원,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출연 100억원,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250억원, 농공지구입주기업지원

250 250 250 250

250억원, 농공지구입주기업지원

250 250 250 250

250억원, 농공지구입주기업지원

250 250 250 250

250억원, 농공지구입주기업지원

100억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공사 출자

100억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공사 출자

292억 원, 고속도로건설지원 100억 원, 철도사업 특별회계

292억 원, 고속도로건설지원 100억 원, 철도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50억 원, 도로사업특별회계 예탁금

예탁금 50억 원, 도로사업특별회계 예탁금

270억 원, & 292억 원, 1994년도

270억 원, 합계 약 2,900억 원을 삭감한 반면 1994년도

추곡수매부족자금지원을 위한 양곡관리

추곡수매부족자금지원을 위한 양곡관리

기금 출연에 5,512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기금 출연에 5,512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2,609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2,609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194년 1월 25일

심사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194년 1월 29일

아무쪼록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1월 29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1월 29일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9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1월 29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3장

# 속기의 이론

---

### 속기사의 신조

1. 우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1. 우리는 번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우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

## 1. 속기의 정의

- 1) 보통의 문자보다 4배~5배 빨리 쓸 수 있게 고안한 특수문자이다.
- 2) 점, 선, 원 등을 이용한 그래픽문자이다.
- 3) 필기속도가 사람의 말속도와 일치하거나 능가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 4) 한음한획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낱말이나 구 및 문법현상은 간단히 처리하여 필기속도를 높인다.
- 5) 배우기 쉽고, 쓰기 쉽고, 읽기 쉽게 고안되었다.
- 6) 속기문자만으로는 자신의 비밀일기나 기록으로 그칠 것이며, 사회적인 기여를 통한 가치는 반드시 일반인이 알아 볼 수 있게 일반문자로 풀이되어야 한다는 절대적 명제가 있다 하겠다.
- 7) 일반문자로의 풀이 즉, 번문의 방법에는 수필로써 원고지에 옮기는 경우, 타자기나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는 경우 등 번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한글 쓰는 시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94년부터 국회속기사들은 원고지 번문방식에서 속기후 워드프로세서로 번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 빠르고 정확한 속기록을 만들 수 있다고 최종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8) 보통의 발언속도는 1분간 220자에서 300자의 속도이며, 검증된 속기의 최고 필기속도는 1분간 395자이다.
- 9) 본 동방속기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고안되고 50년 가까이 그 정확성, 속도성, 번문성이 증명된 것으로서 한글의 체계와 동일한 학습방법으로 전개되어 하나의 새로운 문자를 배우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국어속기이다.

## 속기를 빨리 배우고 싶은가?

그렇다면 기초를 천천히 여유있게 충분히 연습하면서 나가라!

쓴 속기문자는 반드시 읽어라! 속기문자를 자꾸 쳐다보고 친숙해져라!

머리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연필 끝으로 연습하면서 손끝에 전해 오는 미묘한 감촉을 느껴라! 속기문자는 독수리처럼 경쾌하게 빨리 날 수 있게 고안되었다. 비바람속에서도 날 연습을 하라! 날 수 있다.

## 2. 속기의 필요성

- 1) 한글이나 한자 또는 영어, 기타의 어느 나라 문자든지 사람의 말속도와 일치하거나 능가하여 필기할 수 있는 문자는 없다.

그러므로 속기는 세상에 필요한 것이다.

- 2) 국어에는 국어속기가 있고 영어에는 영어속기가 있으며, 중국어에는 중국어속기, 일본어에는 일본어속기가 있는 것은 한글, 영문, 한문, 일문으로는 도저히 각 나라의 말을 글로 옮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속기는 세상에 필요하여 진 것이다.

- 3) 녹음기에 수록되어 있는 말을 글자로 풀어 내자면 말속도는 전혀 느려지지 않고 필기속도는 느리므로 자연스럽게 쫓다 쫓다 하여야만 한다.

녹음기를 멈추지 않고 바로 문서화할 수 있는 것이 속기라는 것이다.

녹음기의 4배-5배의 능률을 인간이 올릴 수 있는 것이 속기이다.

- 4) 속기에 의한 역사적인 기록을 “속기록”이라 부른다.

속기록에는 과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보통의 의사록과 다른 점은 일시, 장소, 발언자, 경과요령뿐만 아니라 발언자의 발언내용이 보태거나 빼지 않은 증거의 실체로 남아 있다.

허공에 메아리치다가 사라져 가는 말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진 찍어 두는 속기사의 속기록으로 모든 시비곡직을 가릴 수 있으므로 국회법은 “회의록에는 속기법에 의하여 모든 의사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5) 속기사는 기록의 전문가이다.

전문가는 전문가다운 면이 있는데 일반인들보다 속도면에서는 물론 정확도와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다. 회의뿐만 아니라 녹음테이프에 담겨 있는 말을 속기사가 작성하였다면 누구나 신뢰한다. 이것은 속기사가 기록의 전문가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 3. 속기의 활용

속기를 배워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곧 속기사의 진로와도 관계가 깊은 것이며 비전문적으로 속기를 활용한다면 또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

- 1) 회의 속기 : 국회의 의사, 법원, 주주총회, 이사회, 간부회의, 조합 등의 회의 기록 및 각종 좌담회, 세미나, 심포지움, 학술회의의 기록에 가장 많이 활용된다.
- 2) 취재속기 : 언론종사자들이면 누구나 느끼는 필기능력의 한계성을 쉽게 해결해 주는 속기의 활용... 일선기자의 말을 빌리면 한글로 취재할 때보다 취재에 대한 간섭을 전혀 받지 않으며 골자만 골라서도 얼마든지 기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상대에게 기자로서의 깊은 신뢰를 받는다는 것이다.
- 3) 수강속기 :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사항으로서 강의 내용을 한글 필기능력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을 원없이 필기하는 데 활용한다면 장학금은 말아 놓은 것이다.
- 4) 좌담속기 : 국가요인들간의 대화내용이 속기사에 의하여 기록되고 그것을 대화록으로 신문에 공개하는 일 이외에도 각종의 좌담이 기사화되어 신문, 잡지에 게재되는 것은 대부분 속기사의 손을 빌려 이루어지는 것이다.
- 5) 비서속기 : 영어속기의 경우는 보편적인 현상인데, 비서라 하면 우선적으로 속기와 타이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상사는 자신의 생각을 일일이 기안하거나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로 속기비서에게 구술해 주기만 하고, 회사의 보다 큰 구상을 할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비서는 속기한 내용을 타이핑하여 상사의 결재를 받아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도 이러한 속기비서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경제가 발달하고 경영진의 활동영역 확충과 스케줄의 관리가 절실했을수록 비서업무의 선진방식인 속기비서 채용은 그 폭을 더 해 갈 것이다.

- 6) 녹음속기 : 녹음테이프에 담겨있는 말을 글자로 옮겨놓는 속기활용법으로 법에 호소하는 법정제출용 녹음테이프속기록(녹취서)을 작성하거나 강연과 유언 또는 말로는 할 수 있으나 글로 옮길 수 없는 사람들의 저술 등의 영역에서 속기사는 말을 문서화하는 업무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 7) 저술속기 : 출판을 하고자 할 때 일일이 원고로 자신이 직접 쓸 필요없이 속기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여 주면 속기사는 그것을 원고정리하여 교정을 거쳐 책으로 출판하게 도와주는 속기활용법으로 유명인사의 회고록이나 자서전, 홍보용 저서, 나이가 많아 원고를 쓰기 곤란할 때 속기사의 도움으로 그의 정신세계를 책으로 출판할 수 있다.
- 8) 법정속기 : 현행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제 148조와 제 56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녹음테이프에 의한 녹취서를 작성하여 “속기록을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거나 요점정리 또는 속기원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 29조와 형사소송규칙 제 31조에 속기를 할 수 있는 자격자로서 “법원 소속의 속기주사, 속기주사보, 속기서기, 속기서기보 또는 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자(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9) 설교속기 : 종교단체에서의 설교를 속기하여 설교집을 발간한다거나 신문 또는 주보의 발간에 활용하며, 개인신앙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말씀을 기록하는 데 편리하여 많은 신앙인들이 활용하고 있다.
- 10) 방송속기 : 세계각국의 해외송출방송을 속기하여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뉴스들을 수집 정리하는 속기활용법으로 주로 통신사와 각군 및 정보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 11) 군대속기 : 각군의 속기병들이 사령부급에 배치되어 각종 회의의 기록과 비밀문서 취급 행정을 맡아 활동하거나 특수부대에서 근무하며 덕망있는 장군들과의 접촉으로 보람찬 군대생활을 보낼 수 있고 제대후의 사회생활에서도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다.
- 12) 일상속기 :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은 속기문자로 기록하여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전화의 메모, 일기의 비밀유지, 편지나 원고의 초고잡기, 회의 참석자의 요점 메모 등등 일상생활에서 속기를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속기는 여러 방면에 활용되는데 “속기사의 신조” 1에 보면 「우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속기사가 작성하는 속기록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속기사의 자의가 배제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임을 세상에 천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록(의회 본회의 기록, 법원제출용 증거기록, 유언 등)에는 틀림없이 이 기준이 적용이 되지만 기자의 취재나 저술을 위한 속기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요약이 필요하다면 골자 아닌 말들을 다 기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요약을 전제로 한 속기는 골자만 골라쓰는 형태의 속기를 하면 된다.

#### 4. 속기의 기원과 발달

본 기초과정에서는 전체적인 윤곽을 기술하고 자세한 내용은 속도편에서 다루기로 한다.

속기술의 편린은 고고학에 의하여 아득한 고대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초기의 희랍인들은 강의를 필기하기 위해서나 델피의 아폴로신전이 있는 피티언(Pythian), 네미어(Nemea)제, 그리고 올림픽경기장에서 낭송되던 시를 보존하기 위해서 약기법을 사용했던 원본이 오늘날까지 바티칸도서관이나 파리 국립도서관,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B. C 63년 당시 정치가이며 웅변가인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의 제자였던 티로(Tiro)가 스승의 연설을 자기 자신이 고안한 속기(약기)법에 의하여 기록하였는데 이것이 후세 사람들에 의하여 점차 속기에 대한 확립된 명칭으로 되자 티로는 속기술의 창시자로 추대받게 되었다.

그의 약기법은 키케로, 세네카 및 로마 원로원 의원의 연설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고 로마시대의 각 학교에서 약기법을 가르쳤으며 각 황제들도 이를 배웠고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보급이 되었다.

희랍의 역사가인 플루타크(Plutarch)가 쓴 『젊은 케이토(Cato, 로마군인, 정치가, 스토아철학파)의 생애기』에서도 속기를 활용한 역사적 서술을 볼 수 있다. 즉, 키케로는 B. C 63년 12월 25일 원로원에서 로마의 정치가로서 반역자인 카틸리나(Catiline, B. C 95-A. D 64)의 운명에 관한 투표를 앞두고 탄핵연설을 할 때 모든 부서에 노트리(Notari-속기사)를 배치시켜서 시저와 케이토의 발언을 속기하도록 한 것이다.

속기는 초기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 대표적 예로서는 사도 바울은 서사들, 특히 속기사로 활동한 티치커스(Tychicus)와 필사로 활약한 오네시머시(Onecimus)에게 그의 사도서한을 받아 쓰게 한 것이 고증되었으며, 3세기 오리겐(Origen)의 구약성서에 관한 주역을 준비함에 있어서 속기사로 하여금 자기의 구술을 받아 쓰게 한 사실도 있고 4세기 말엽에 성 오거스틴(Augustine)은 카타제(Cartage)에서 개최된 감리교의 회합을 소집하였는데 그 회합에서 8명의 속기사들이 2명씩 교대로 근무하였다.

이상 간략히 고대의 속기활용과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다.

그러면 세계각국의 속기발달상황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현대속기의 산지는 영국이라고 할 수 있다.

1588년 의사, 목사이며 고고학자인 브라이트(Timothy Bright)박사가 고고학을 연구하다가 티로의 속기문자를 발견하여 이를 근거로 『기호학 : 기호에 의한 간략, 신속, 비밀표기법』을 창안하여 세상에 발표하였으며 1786년 옥스포드대학 철학교수인 테일러에 의하여

「테일러(Taylor)식」이 창안·발표되었다. 한편 우리에게 『올리버 트위스트』로 친숙한 영국의 저명한 작가인 찰스 디킨스가 속기를 익혀 법정과 의회에서 속기사로 활동한 적도 있다.

1837년 아이작 피트맨(Isaac Pitman)의 『표음속기술』은 그 방식이 우수하여 인간의 언어를 그 속도에 관계없이 속기술로 거의 완전히 기록하여 문자화할 수 있는 실로 획기적인 속기법식을 창안하여 이 때부터를 속기의 현대사라고 부르고 있다. 피트맨의 속기술은 그 다대한 업적을 인정받아 영국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1894년 기사(Knight) 작위를 받기도 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651년 코사르(Jacques Cosard)의 속기저서가 출간된 이래 1826년 뵈레보(Prevost)가 「테일러식」을 응용하여 「뵈레보식」을 발표하였으며 1878년 듀로네(Albert Delauney)가 「뵈레보식」에 수정을 가하여 「뵈레보. 듀로네식」을 발표하였다. 1862년에는 「듀플로이(Abbe Duploye)식」이 발표되어 이들 두방식이 불어 사용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1679년 「람자이(Ramsay)식」이 발표되었고 1834년 프랑즈, 사빌, 가벨스버거(Franz Xavier Gabelsberger)의 『조선파속기』가 창안되어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구라파제국에 널리 보급되었다.

미국은 공화제가 실시되었을 당시 「테일러식」이 소개되어 있었으며 1888년에 그레그(John Robert Gregg)가 『경선속기법』을 출간하였는데 이 법식은 현재도 다른 어느 법식보다 많은 미국의 학교에서 배우고 있으며 속기사 지망생들에 의하여 익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어속기로서 「그레그식」이 유일하게 교수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1800년 마티(Marti)가 「테일러식」을 응용하여 속기법식을 발표하였고 이탈리아, 폴투갈 등에 전파되었다.

이탈리아는 19세기의 델피노가 영국의 「테일러식」을 개량하여 이탈리아 하원의 속기사들이 사용하였다.

일본은 1882년 다쿠사리(田鎖綱紀)가 피트맨계의 「그래함(Graham)식」을 적용하여 “일본 방청기록법”을 발표하였고 1906년 「구마사키(熊崎)식」의 발표, 1914년 「나카네(中根)식」, 1930년 「와세다(早稻田)식」이 발표되는 등 32개 이상의 속기방식이 발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나카네식」을 비롯한 9개의 법식이 우수한 속기로 인정되어 일본속기협회의 추천을 받고 있다.

중국에서는 1875년 채석용(蔡錫勇)의 「전음쾌자(傳音快字)」가 창안되어 실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각국의 속기창안과 현황을 주마간산격으로 훑어 보았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속기가 문명국일수록 일찍 발달되었으며 경제적 부흥이 앞선 나라, 독립국, 강대국일수록 속기술의 활용이 두드러졌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속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 5. 국어속기의 발달 역사

세계 각국의 속기가 그 나라의 말을 적어 나가기에 가장 편리하게 고안, 구성되어 있으나 속기문자의 구성 자체를 살펴 보면 한 뿌리임이 한 눈에 나타난다. 점과 직선, 곡선을 속도를 낼 수 있는 각도만 찾아내어 속기에 적합하게 배열하고 그 나라 말의 문법적 현상 및 빈도, 혼동의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고안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국어속기는 멀리는 고대의 티로의 약기법에서 시작하여 현대의 「피트맨식」, 「그레그식」을 거쳐 일본의 속기법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동방속기는 영국의 「피트맨식」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에 나타난 속기적인 편린을 살펴 보면 광의의 해석으로 신라의 이두가 그 한 형태이며 고구려와 백제가 싸울 때 초당거사라는 승려가 한자의 원형을 따서 상대방의 군사정보를 알아내어 연락하는데 사용하였다는 문헌이 아직도 금강산 어느 절에 보존되고 있다고 하며,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기록을 담당한 관리인 주서(注書)들은 조보체(朝報體)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끝동사는 생략하는 등의 약기법을 사용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승정원일기라는 귀중한 기록을 남긴 것 등이다.

현대적 의미의 국어속기의 발달은 본장에서는 해방전과 해방후로 나누어 기술하기로 한다.

### 1) 해방전

1909년 박여일(朴如一)이 미국 하와이에서 발행되는 신한민보에 『조선속기법』을 발표한 것을 효시로 1923년 상해에서 김두봉(金斗奉)이 자신이 출간한 『집터조선말본』이라는 문법서 제 2부록에 『날적말적기』를 발표하였고, 1925년 시대일보 7월 1, 2일에 걸쳐 방익환(方翼煥), 이원상(李源祥) 양씨가 『조선어속기술』을, 1927년 감한터가 신조선 1월호에 『우리말 속기법』을 발표한 것과 같은 연도 엄정우(嚴正友)가 월간지 『동광』 7, 8월호에 『조선속기술』을 연재하였고, 1935년 6월 18일-7월 28일까지 강준원(姜駿遠)이 동아일보에 『조선어 속기술 강해』를 연재하였다.

이상 위에 열거한 많은 속기 선각자들이 국어속기를 창안·발표하였으나 일제의 국어말 살정책으로 실용을 보지 못하거나 창안자들이 해외에서 귀국하지 못하여 발표에만 그치고만 것과 문헌이 전해지고 있지 않은 것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 2) 해방후

1945년 광복은 속기계에도 많은 희망과 활력을 주었다.

국어속기의 필요성을 절감한 많은 분들이 해방과 때를 같이 하여 국어속기 창안 연구에 몰두하여 해방 이듬해인 1946년 6월 20일 장기태(張基泰)가 『일파식 속기법』을 서울신문에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8월에 공립통신사에 근무하던 김천한(金天漢)이 「고려식」이라 명명하여 직원 및 친지를 모아 놓고 발표하였고, 동년 10월에 주간 학생신문에 박송(朴松)이 『한국속기』를 발표하였으며 12월에는 조선교육연구회의 박종완(朴鍾浣)이 『조선속기』를 발표하였고, 1947년 7월 박인태(朴寅泰)가 「중앙식」을 발표하였으나 아쉽게도 저술이 없었다.

1948년 2월에는 본 동방속기의 창안자 이동근(李東根)이 3년여의 연구끝에 『해방속기』라는 제명으로 단행본을 발간하여 속기계에 빛을 더하게 하였다. 또한 동년에는 해방전에 『조선어 속기술 강해』를 발표하였던 강준원이 새로이 『서울식 속기법』을 발표하였고 1950년 2월 김세종(金世鍾)이 「세종식」이라 명명하여 발표하였으나 저술이 없었으며 1959년 4월에 정아랑(鄭雅浪)이 『한글식 속기법』을 창안·발표하였다.

한편 동방속기의 창안자인 이동근은 1952년과 1954년 『속기학강의』와 『속기학 강의록』이라는 저서를 새로이 발표하여 통신강의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어 속기독습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1955년 3월 남상천(南相天)이 저술한 『남천식 속기교본』에 이어서 1957년에는 김천한이 『고려식강의록』을 저술하여 발표하였고 1969년 1월 10일 「일파식」과 「고려식」을 주축으로 하여 「의회속기법식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연구한 『의회속기법식』이 발표되었다.

그 이후에도 여러 형태의 속기관계 저술이 있었으나 1977년 9월 10일 이강현(李康賢), 유순태(柳舜台) 공편저의 『동방식 속기학』이 현대식의 교재 형태를 갖추고 출간되자 이에 자극받은 기존의 우수한 법식들도 교재의 현대화를 서둘러서 속기의 보급에 공헌을 하게 되었다.

이상 서술한 외에도 여러 형태의 속기법이라 자처하는 법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거의가 기존의 속기방식을 응용하거나 모방하여 진정한 속기법의 창안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실증되지도 아니하고 최고수준에 이르지 못한 채 과대광고를 일삼아 학습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아까운 속기사 재목이 법식을 잘못 선택하여 중도 좌절하는 일이 허다한 것도 속기계를 아끼는 분들의 아픔이다. 이상에서 소개한 속기법식은 우리나라 속기사에 길이 남을만한 속기법식임을 아울러 밝혀두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초창기의 창안자들은 「기록보국」의 신념 하나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속기창안과 보급에 정열을 쏟은 분들이며 거의가 현직의 속기사들이거나 언론기관에서 속기와 더불어 생활하며 속기를 사랑하셨던 분들이었으며 우리 후학들에게 값진 문화적 유산을 남기시고 세상을 떠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 6. 동방속기 발달사

동방(東邦)이란 「우리나라」라는 뜻이다.

우리 동방속기는 1948년 2월에 이동근 선생이 창안·발표한 우수한 속기법식이다.

광복 이전부터 속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던 선생은 해방이 되자 우리 말 속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법식 연구에 몰두하여 3년여의 각고 끝에 완성된 것이 『해방속기』이며 다음 해에 『동방속기』로 명칭을 바꾸었다.

인쇄기술의 미비로 등사판 속기교재 밖에 없었던 당시에 선생은 속기문자를 일일이 다 동판으로 떠서 만든 국내 최초의 인쇄본 속기교재를 출간해 세인을 놀라게 하였다.

서울 을지로4가에 「동방속기전문학관」을 개설 후진양성에 전념하던 중 뜻하지 않은 6.25 동란의 발발로 어쩔 수 없이 후퇴하여 대구에서 속기학원을 재설립하였으며 수복후에 서울로 복귀하게 되었다.

한편 6.25전쟁 때 이강현 선생은 군대에서 동방속기를 배워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고 제대



한 해인 1957년에 후배 양성의 뜻을 세우고 창안자 선생을 원장으로 모신 가운데 본격적인 속기사 양성에 돌입하게 되었다.

당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생은 학생지도와 법식연구는 물론 건국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등에 출강하여 속기 보급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오늘날 대동방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 후 학원은 종로2가에서 현재의 종로3가로 이전하였다.

1960년부터 서울시의회 참의원 그리고 국회에 속기사를 진출시키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최다의 속기사 자격시험의 합격, 속기사 최다진출 등 교육과 취업면에서 명실공히 최고의 속기로 발돋움을 하였으며 현 국회속기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동방속기 출신임은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그 외에 법원, 행정부, 대기업체, 언론기관 그리고 1991년에 다시 시작한 각 지방의회에 수많은 속기사를 진출시켜 동방속기의 개화기를 맞고 있으니 우리는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편 후학들에 의한 학원설립도 종로를 비롯, 1980년대 중반부터 활발해져 청량리, 남영동, 영등포, 수원시 팔달로, 수원시 매탄동, 부천, 안산, 안양, 천안, 평택 등지에서도 동방속기를 가르치고 있다. 세월에 비하여 학원의 개설 숫자가 적은 이유중의 하나는 동방속기 출신의 대부분이 속기사로 진출하여 의회나 각 기관에서 근무하기 때문인데 학원의 설립도 창안자 및 동문들의 엄격한 지도와 정신을 받드는 기풍이 있어 난립의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것은 1940년대에 동방속기를 배운 선배와 1990년대에 배운 후배가 만나는 동문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단편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우리 후학들은 오늘의 동방속기가 거듭나는 이때를 기하여 창안자 이동근 선생은 「동방속기의 사조(始祖)」로 이강현 선생은 「동방속기의 중시조(中始祖)」로 기리는 바이며, 이 두분의 공로와 정신을 우리 동방속기를 창안해 주신 이동근 선생과 어려운 시기에 40년 가까이 학원을 이끌어 오신 이강현 선생의 공로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기능 이전에 먼저 사람을 가르치라』는 창안자 선생의 건학이념과 『성실, 연수, 인내』의 원훈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동방인들은 지금까지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또 앞으로라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면 이처럼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동방속기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살펴보기로 하자.

1. 자음은 5개의 각도로 구별되는 직선, 곡선으로 ㄱ~ㅎ까지 14자를 사용하여 정확도가 높다.
2. 모음은 길이로 구별하며 4mm, 8mm, 16mm 등 3개의 기본 균으로 나누고 특수기법으로 2mm, 20mm도 사용한다.
3. 홀소리를 세분하기 위하여 문자를 정측, 반측의 양쪽으로 나누어 반소원을 붙인다.
4. ㄱ, ㄴ, ㄷ, ㅁ, ㅂ, ㅅ, ㅇ 등 7개의 받침을 사용하여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5. 받침은 문자 앞에, 조사는 모두 문자 뒤에 쓰는 우리나라 유일의 방식이다.
6. 기본문자를 익히면 그것으로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어 속기사전이 필요없다.
7. 상·중·하선의 필기선을 사용하며 각기 특정한 약기법을 두었다.
8. 주로 하선에 동사를 배치하고 각 시제의 종결어미를 체계적으로 구사하여 기본형 하나

로 2,000여 가지를 응용할 수 있어 암기해야 하는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9. 문자의 정·반측 그리고 가던 방향 등 7군데에 특정부호로 표를 가하여 50여개의 다양한 어미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정확히 기록할 수 있다.
10. 당연한 결과로 동방속기는 누구나 전문속기사에 접근할 수 있는 현실로 증명된 우수한 법식이다. 다시말하면 말로만 쉬운 속기가 아니라 현직의 선배들이 증명하는 쉬운 속기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동방식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결점들을 겸허히 수정 보완하여 더욱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거듭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사는 동방속기의 꽃이다\*

## 7. 속기용지와 필기구

- 1) 속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줄이 있는 모조노트가 좋다.

스프링으로 첩해져 있는 노트인 경우는 상철되어 있는 노트가 속기에 적합하며 옆으로 첩해진 노트로는 30매 정도의 재봉노트가 적당하다.

속기는 인간이 사용하는 문자중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문자이므로 속기하기에 편리한 노트는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도 가장 적합하다.

점차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사용하는 용지도 많아지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된다. 이 때는 16절 갱지를 사용해도 될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는 신호이므로 70매 정도의 갱지를 종이집게로 집어주고 왼손으로 넘기기 좋게 하여 사용하면 편리하다.

실무에서는 속기용노트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 속기노트를 사용한다.

- 2) 필기구는 1급속기사가 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는 노트에는 HB나 샤프를 사용하면 되고 갱지에는 HB나 B를 사용하면 된다. 길이는 볼펜 길이인 15cm~16cm가 적당하므로 지나치게 길거나 짧아서 속도에 지장을 주거나 손에 무리한 힘이 들지 않도록 연필 길이를 잘 조절하여야 한다. 또 2B이상 되는 진한 연필은 빨리 닳고 속기문자를 망가뜨리고 말며, 너무 딱딱하고 흐린 연필은 속도에 지장을 주고 번문이 불편하다.

볼펜은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관리하기에 편리한 반면 글씨체가 망가지기 쉬워 번문이 어려우므로 1급속기사가 되기 전에는 연습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만년필 역시 속기에서 요구하는 속도에는 적합하지 않다.

초보자가 볼펜이나 만년필을 사용하면 점점 속기가 어려워지고 번문이 어려워 중도포기의 원인이 되니 과거의 경험있는 속기선배들의 이 말을 명심하여야 원하는 바를 성취할 것이다. 참 중요한 말이다.

## 8. 자세

- 1) 마음의 자세 : 조급하지 말며,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한다.
- 2) 몸의 자세 : 몸을 책상 앞으로 바짝 붙이고 허리를 꼴뚜기 세우고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앉는다.
- 3) 다리의 자세 : 양발을 가지런히 바닥에 내리고 편한 자세를 취하며 다리를 꼬고 앉거나

발장난을 하지 않는다.

- 4) 손의 자세 : 연필을 너무 가볍게 쥐거나 힘주어 쥐지 않고 적당한 힘을 주고 쥐는 연필 쥐는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이 좋으나 어릴 때부터의 습관은 고쳐지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습관대로 쥐는 것이다.

왼손은 속기용지를 가볍게 눌러주어서 오른손이 필기하는 것을 도와 주어야 한다. 용지를 3분의 2가량 썼을 때 왼손은 이미 넘길 준비를 해 주어야 한다. 이 왼손이 오른손을 도와 주는 일은 속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자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이다. 왼손으로 수업을 만진다거나 방석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일이다.

- 5) 눈의 자세 : 속기사는 노트만 바라보고 속기하지 않는다. 회의장의 상황과 발언자, 소리치는 사람 등을 파악해 가면서 속기한다. 이것은 실무를 하다 보면 저절로 익혀지는 습관인 것이니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고 여기서는 초보학습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 나간다.

보통 눈은 두개가 있다. 속기에 있어서 왼쪽 눈은 이미 써놓은 속기문자를 바라보면서 확인하는 눈이요, 오른쪽 눈은 다음 속기문자를 쓰기 위하여 필요한 눈이다. 현재, 과거, 미래가 양눈에 있음을 알자.

속기사는 어느 회의장이든 가장 말소리가 잘 들리고 회의 광경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에 위치하게 되므로 항상 바른 자세와 장시간 필기하여도 피로하지 않도록 편한 자세를 유지 하여야 한다.

## 9. 속기를 배우는 이와 그의 적성

- 1) 나이 : 속기를 배울 수 있는 기준은 우리나라 말을 알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속기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점, 곡선, 직선을 원하는 모양으로 그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능력은 대체로 중학교 3학년 정도의 나이면 가능하다고 보며 용어의 선택문제는 연령에 걸맞는 교재로 하면 될 것이다.

- 2) 성별 : 속기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맡은 일을 해 내는 것이므로 성별의 차이란 없다.  
3) 상식 : 속기를 오래 한 사람들은 누구에 못지 않은 풍부한 상식을 가지고 있다. 본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나 속기하는 현장에서의 공부나 큰 바탕이 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얘기가 아닐 정도로 속기공부를 통해 얻어지는 상식은 풍부하다. 그러나 저절로 되었으랴, 사전을 찾고 물어보고 적어놓고 했을 것이다. 상식이 부족한 사람은 속기를 배우라!

- 4) 자질 : 세상에 우수한 사람은 적고 평범한 사람이 더 많다.

속기에서 요구하는 자질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보통 끈기와 인내심이 가장 요구된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는 속기분야에서만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자면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다.

속기학습은 평범한 사람들을 상당한 고급인력으로 양성해 내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

고 있으므로 “시작했으므로 해낸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속기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라면 자질이이다.

중도포기의 첫째 원인은 속기법식의 잘못 선택이다. 둘째는 노력하지 않고 조금해 하는 것이다. 셋째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고비가 있을 것이란 짐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5) 손의 민첩성 : 손이 남보다 월등히 민첩한 사람은 무엇을 하거나 빠르다.

속기문자도 한글에 비하여 4배 내지 5배가 빠른 문자이다. 그러므로 속기문자는 빠른 사람의 말을 빠짐없이 필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속기를 배움에 있어서 빠른 손이 속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속기문자가 빨리 쓸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으므로 손이 원래 민첩한 사람은 남보다 조금 빨리 습득할 수 있을 것이며, 느린 손은 조금 늦게 습득이 될 뿐이다.

6) 청취력 : 상식의 정도에 따라서 청취력의 차이가 난다.

본 교재의 일관된 흐름은 속기를 통하여 많은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고자 하는 초보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어떻게 해야 훈련된 귀를 가질 수 있는지를 배우는 사람 스스로가 깨닫게 하려 한다.

7) 순발력 : 반복되는 이야기이나 모든 능력은 뛰어날수록 좋다.

동방속기는 높은 예술적 차원의 능력과 소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의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속기를 지향하므로 각자가 연습을 통한 숙달과 자신의 부족을 보완해 가려는 정념으로 해결될 수 있는 속기이다.

## 10. 속기사의 일터와 업무상 비밀엄수

속기사가 근무하는 곳은 회의가 있는 곳이다.

회의가 있는 곳에 속기사가 거기 있다.

중요한 회의는 속기사가 있는가의 여부로도 판가름난다.

정당하고 떳떳한 자리일수록 속기사는 거기 있다.

회의가 있는 곳은 그 사회 구성원 중 지도자들이 모인다.

지도자들은 그 회의에서 그 사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하는 논의를 한다.

그 논의는 새로운 사안들에 대한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필요로 한다.

토론이 시작된다.

속기사는 기록하기 시작한다.

회의가 끝난다. 속기도 끝난다.

속기사는 그것을 속기록으로 작성하여 책임을 지는 날인을 하고 그 속기록은 영구히 보존된다.

속기사가 발언한 것은 아니지만 속기사가 기록하여 보관된다.

없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과 같이 한다.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뭔가 남는 일을 하고 또 남긴다.

이것이 속기사의 일터이며 업무이다.

역사가 숨을 쉬는 현장에서의 엄정 중립을 지키는 기록자, 현대의 사관, 말의 사진사, 기록의 마술사,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사람중의 하나, 남의 말을 가장 유심히 듣는 사람 둘을 꼽으라면 정신과의사와 속기사...

그러나 가장 입이 무거운 사람-속기사.

## 11. 속기의 미래

속기를 대신할 만한 수단을 찾는다면 결국 음성을 바로 입력해서 문자화하는 것이다.

속기를 대신하기 위해서 속타자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나라도 많다.

미국에서 알파벳이 26자인 장점을 이용하여 스테노타이프(속타)라는 것을 만들어서 잘 활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그것을 모방해서 자모음 50음자의 언어 구조를 가지고 1949년에 속기를 기계로 대신한다고 속타이프라는 것을 만들었다. 미국 것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을 들었다.

그런데 점차 빨라지는 사람의 말을 다 받아치지 못하게 되는 등 속도에 한계가 생겨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자판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영어보다 언어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것을 그대로 들여다가 속타자기를 만든다고 하면서 10년이 넘게 연구만 한 것이 아니라 과대한 광고를 하면서 유료로 학생들을 시험용으로 소모시켰다. 우리 언어의 구조는 참 복잡하다. 자음이 14자, 경음이 5자, 도합 19자에 기본모음이 10자에, 모여서 된 모음이 11자, 도합 21자, 이로서 표기할 수 있는 글자수가 399자, 여기에 현재 쓰이는 받침이 27개, 조합되는 총 글자수가 1만 773자, 여기에 아라비아 숫자도 표기에 절대적이지, 10자를 더해야 하고, 적어도 문장부호중 마침표와 쉼표, 느낌표, 말없음표는 속기록에서 필수적이라 4자를 추가한다. 그러면 총자수가 1만 787자가 필요한데 알파벳과 비교가 되는가?

그러면 속기는 어떻게 그 복잡한 말을 다 따라 쓸 정도가 되고 속타는 왜 안 되느냐? 속타는 필요한 글자를 한자한자 다 지정해야 하고 속기에서는 같이 들리면 같은 표기법을 사용해서 개수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점점 빨라지는 말속도에 대처하기 위해 1분당 320자의 1급 기준을 10자 상향 조정했으나 거기에 대처할 길이 없어 속타는 무용지물화되고 있다. 참고로 속기의 최고속도는 1분당 395자로 증명된 바 있다. (1981년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주최 속기경기대회 통계)

그러면 속타도 속기처럼 같이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되지만 속기에 비해서 10손가락을 다 조합해서 사람의 말속도에 맞춰 손가락 끝에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워드프로세서를 다루는 것이나 타자기를 다루는 것에 비해 엄청난 중노동이 되는데 속기사도 아니고 타자수도 아니면서, 그만한 보상도 못 받으면서 왜 그것을 배우며, 배워서 중노동을 하고 직업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언어구조가 단순한 미국에서도 보고서가 나오는데 아무리 줄여 잡아도 100배는 복잡한 우리 말을 글로 옮기는데 얼마나 행복한 직업이 될 것인가? 또한 컴퓨터에서 한글완성형에 사용하는 한글 자수를 5,660자를 사용하고 있다.

속기의 미래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이다. 우선 사람의 손과 간단한 필기구만 있으면 복잡한 회의에서부터 학교강의, 개인적인 메모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외에 직업적인 속기사가 해야 할 부분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말이 잘못되거나 필요없는 말, 중복되는 말, 간투사 등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문장이 되도록 고치고 다듬어서 다른 사람이 보고서도 명확히 알 수 있는 글로 정리해 나가는 능력과 음성거림속에서도 필요한 말을 골라 기록해 내는 능력을 가진 속기사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속기는 사람이 손을 가지고 있는 한은 활용될 것이요, 기계가 발달하면 할수록 병용되어져서 속기사의 새로운 분야를 열어 줄 것이다. 마치 녹음기가 나오므로써 녹음속기분야라는 속기업무분야가 생긴 것처럼.

본 교재를 공부하면서도 이 글을 읽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기회를 내서 읽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공부하다가 힘이 들면 또 읽어 보고 기운을 차려서 공부하여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하라!

# 부록

##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기준 국가기술자격검정 채점기준 (국어 및 영어 속기)

---

다음에 현행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행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속기분야의 시험기준과 채점 기준을 실는다.

\*여기서 사용하는 속기의 명칭이 「한글속기」나 「영문속기」가 아닌 「국어속기」, 「영어속기」가 되어야 함은 말소리를 문자화하는 것이 속기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으로서 이를 바로잡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음을 알린다.

\*채점기준은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수검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하게 되어 있으나 현 실무상의 속기록 작성방법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실무참고를 달아서 참고가 되게 하겠다.

---

## 국가기술자격검정 서비스계

### 시 험 기 준

(속기)

대한상공회의소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

등급별기준		1급	2급	3급
시험과목				
국 어	연설체	기록량 - 1,600자 기록시간 - 5분 번역시간 - 60분	기록량 - 1,500자 기록시간 - 5분 번역시간 - 60분	기록량 - 1,350자 기록시간 - 5분 번역시간 - 60분
	논설체	기록량 - 1,450자 기록시간 - 5분 번역시간 - 60분	기록량 - 1,350자 기록시간 - 5분 번역시간 - 60분	기록량 - 1,200자 기록시간 - 5분 번역시간 - 60분
영 어	연설문	기록량 - 650단어 기록시간 - 5분정도 번역시간 - 70분	기록량 - 500단어 기록시간 - 5분정도 번역시간 - 70분	기록량 - 200단어 기록시간 - 3분정도 번역시간 - 40분
	서한문	-	기록량 - 300단어 기록시간 - 3분정도 번역시간 - 40분	기록량 - 350단어 기록시간 - 5분정도 번역시간 - 70분
	대화문	기록량 - 650단어 기록시간 - 5분정도 번역시간 - 70분	-	-
합격결정기준		매 과목 정확도 90%이상		

주 : 「기록시간」은 원래 「기록속도」로 잘못 되어 있어 바로 잡았다.



## 국가기술자격검정 서비스계

### 채 점 기 준

(속기)

대한상공회의소

#### 속기검정시험 채점기준

1.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 가. 답안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
- 나. 답안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것
- 다. 답안을 연필로 기재한 것(기재부분만 제외)
- 라. 답을 지정된 답안지에 기재하지 않은 것
- 마. 감독위원 날인이 없는 것
- 바. 인적사항을 정정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것
- 사. 원고매수에 의한 실격판정 : 번문된 원고매수를 확인하여 실격판정

낭독총자수	1,600자	1,500자	1,450자	1,350자	1,200자	비 고
번문작성 원고매수	11매정도	10매정도	10매정도	9매정도	8매정도	200자 원고지1면 150자기준
채점대상	8매이상	8매이상	8매이상	7매이상	6매이상	
실격판정	7매이하	7매이하	7매이하	6매이하	5매이하	

아. 채점도중의 실격판정

낭독총자수	1,600자	1,500자	1,450자	1,350자	1,200자	비 고
채점 중 실격 판정 원고매수	6매이하에서	5매이하에서	5매이하에서	5매이하에서	4매이하에서	
총오자 수	160자이상	150자이상	145자이상	135자이상	120자이상	

자. 검정기준에서 정한 각급별 시험과목 중 1개과목이 기준에 미달인 경우 타과목은 채점하지 않는다.

2. 국어속기 답안지는 아래와 같이 채점한다.

가. 오자 : 낭독내용과 다르게 번문한 것으로, 채점은 x표로 표시한다.

예) 낭독내용	번문내용
	x x
정책이	정치상

나. 탈자 : 낭독내용을 빠뜨리고 적지 않은 것으로, 채점은 x표로 표시한다.

예) 낭독내용	번문내용
	x x
이 문제해결에	이 해결에

다. 첨자 : 낭독내용 이외에 더 쓴 글자로, 채점은 △표로 표시하며, 낭독한 글자보다 많은 것을 첨자로 한다.

예) 낭독내용	번문내용
	△△
-에 관해	-에 관해서는
	△ x△
여기 있다.	여기에 있었고
	△ x
보고 있는데	보고자 하는데

실무참고 : 번문한 내용이 원문과 아주 다르다 하여도 오자로 처리되는 글자가 번문한 글자보다 더 많거나 같으면 첨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 낭독내용	번문내용
	x x xx xx
정직한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기관들이

라. 뜻이 같고 발음상 구별하기 곤란한 것도 다 맞는 것으로 한다.

예) 면=면은	만=마는	엔=에는
덴=데에는	로선=로서는	에겐=에게는
론=로는	이뤄=이루어	맞춰=맞추어

실무참고 : 속기록에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준말을 풀어서 본디말로 표기한다.

예) 엔→에는	로선→로서는	이뤄→이루어
---------	--------	--------

마. 낭독자(낭독테이프)가 오독한 것은 낭독한 것 대로 기록한 것을 맞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분명한 오독인 경우는 정정하여 기록한 것도 맞는 것으로 한다.

예) 낭독내용	번문내용
패북(敗北)	패배
삭급(遡及)	소급
수검(收斂)	수렴

실무참고 : 실무에서는 분명한 오독이나 잘못 인용한 내용은 반드시 정정하여야 한다.

바. 외래어는 문교부가 제정한 표기방법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음대로 또는 원어로 기록한 것도 맞는 것으로 한다.

예) 뉴우요오크=뉴욕=New York
뉴우스=뉴스=news
토오쿄오=도쿄=東京=Tokyo
키리만자로=킬리만자로=Kilimanjaro

**실무참고** : 실무에서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며 고유명사나 어려운 용어는 한글 다음에 괄호를 하여 원문을 적어넣는다.

사. 번문내용이 낭독내용과 뜻이 다르더라도 그중에 낭독한 것과 같은 글자는 맞는 것으로 한다.

예) 낭독내용	번문내용
	△ x
육성 방안에 대해	교육 방안에 대해
	x △ x x
보고서를 가지고	고지서를 버리고
	△ x
개발계획에서	5개년 계획에서

번문내용이 한글맞춤법에 맞지 아니한 것은 오자로 하며, 띄어쓰기는 채점하지 않는다.

**실무참고** : 그러나 적당한 띄어쓰기(예 : 조사다음, 문장종결 다음)는 하여야 원고매수가 나와 사전에 채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자. 문장부호는 오자, 탈자, 첨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 ? “ ” ! 등

**실무참고** : 문장부호를 정확히 구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내용파악이 잘 되어 정확한 번문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평소에 문장부호를 정확히 구사할 수 있도록 공부하여야 한다. 특히 쉼표(,)와 말줄임표(...)는 받아쓸 때 주의하면 번문에 유리하다.

차. 번문은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래어나 외국명은 원어로 쓸 수 있다.

예) 낭독내용	번문내용
유 엔	유 엔 UN
나 사	나 사 NASA
스 위 스	스 위 스 Swiss
유네스코	유네스코 UNESCO

**실무참고** : 실무상에서는 외국어 약자인 경우에만 원어를 허용한다.

카. 숫자는 한글전용, 아라비아숫자, 한글, 아라비아 숫자 혼용, 어느 것으로 번문하여도 맞는 것으로 한다.

예) 35,650원 = 삼만 오천육백오십원  
 이십사만 = 240,000 = 24만  
 이천억 = 200,000,000,000 = 2,000억 = 2천억

**실무참고** : 숫자는 한글 띄어쓰기 규정과 같이 표기하고 1~9,999까지는 아라비아 숫자로, 중간중간에 「만, 억, 조」단위가 나오면 그것을 표기하여야 한다.

예) 9001→9,001      4,987,123,023,567원→4조 9,871억 2,302만 3,567원  
단, 연도는 중간에 (,)표시를 하지 않는다.

타. 숫자와 % 및 단위 등은 발음 (음절)대로 출제하고 채점한다.

예) 237=이백삼십칠(5자)  
%=퍼센트(3자)  
kg=킬로그램(4자)

**실무참고** : 실무에서는 도량형계 단위표시를 그대로 사용한다.

파. 각종 단위표시는 한글로 쓰거나 고유표시 또는 원어로 쓰거나 다 맞는 것으로 한다.

예) 미터=m=meter  
톤=t=ton  
피트=ft=feet

하. 총실점의 계산 - 오자 - 탈자는 매 1자를 실점 1자로, 첨자는 매 3자를 실점 1자로 하여 합산한다.

다만, 첨자 3자 미만은 버린다.

예)

표 시		실 점 계 산
x	25	25자
△	29	29÷3=9자
계		34자

3. 영어속기 답안지는 아래와 같이 채점한다.

가. 오단어, 탈단어, 첨단어는 각각 1단어 실점으로 한다.

나. 의미를 변하지 않게 하는 첨단어 및 탈단어는 각각 1/2단어 실점으로 한다.

다. 같은 의미의 단어로 대체된 경우는 1/2단어 실점으로 한다.

라. 의미를 변하지 않게 하는 단어의 배열 잘못(도치)은 1/4단어 실점으로 한다.

마. 단, 복수의 부정확한 처리는 1/4단어 실점으로 한다.

바. 관사나 전치사의 오단어, 탈단어, 첨단어는 1/4단어 실점으로 한다.

사. 철자법이 틀린 경우는 1/4단어 실점으로 한다.

다만, 같은 단어는 계속 오역할 경우에는 1회만 감점한다.

아. 대·소문자의 부정확한 처리는 실점으로 하지 않는다.

자. 1급은 130단어, 2급은 100단어, 3급은 70단어이상, 오·탈단어가 실점되면 실격으로 처리한다.

## 독자의 권리

- 이 책을 구입하는 독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저자나 동방속기를 강의하는 학원에 전화나 팩스, 편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문점을 해결할 권리를 가진다.
  - 이 책으로 공부를 하다가 전국에 있는 동방속기학원에 편입할 때는 기존의 학생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독자로서 학원에 그 주소와 이름을 알리면 시험안내를 비롯, 실무상의 조언이나 각종 자료를 받아 볼 권리를 가진다.
  -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에 관한 정보와 알선,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 출판상의 문제는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성실히 처리받을 권리를 가진다.

# 동방속기(기초편)

1997년 1월 15일 1판 5쇄 인쇄

1997년 1월 20일 1판 5쇄 발행

저 자 ... 동방속기학회

발행인 ... 李 相 源

정가 9,000원

발 행 ... 크라운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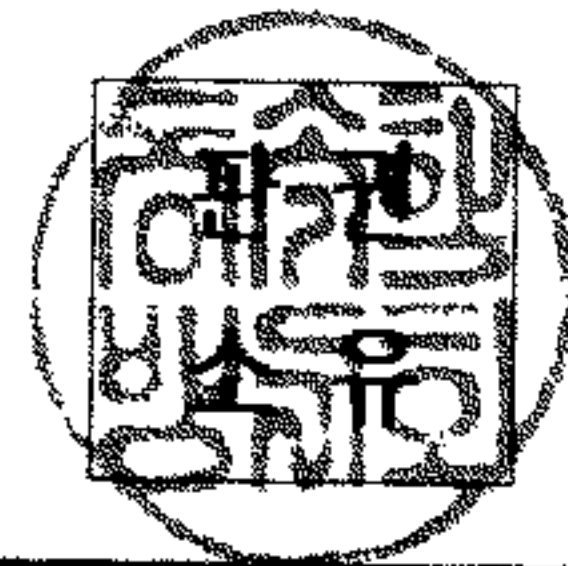
기술서적 사업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73-12

☎ (02) 745-0311~3

팩 스 ... (02) 741-3231

등 록 ... 제1-422호



첨단 기술서적 전문출판

**크라운출판사**

기술서적 사업부

N-9

Copyright © 1997 CROWN Publishing Co.



# 동방속기

속기에서는 소리가 같거나 비슷하게 들리는 현상을 최대한 응용하여 문자의 숫자를 줄이며 들리는 소리를 무조건 기록하여 말의 뜻을 오도한다면 속기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서는 속기사가 글자를 일정한 규칙에 맞도록 기록하는 법과 올바른 속기를 배워, 듣기, 쓰기, 읽기를 배양하도록 하였으며 소리를 들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맞춤법에 맞추어 기록하는 속기사로서의 진출은 물론 자격증을 갖추도록 수록하였다.

